

해외연수보고서 2007

2006년도 해외연수보고서

2007. 7

목 차

1. 선진지역의 지역개발 사례 연구	
윤 갑 식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외	1
2. 북유럽 지역의 인적자원개발 사례 연구	
백 남 훈 (충남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장) 외	87
3. 아시아의 혁신 도시	
강 영 주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107
4. 창조도시와 클러스터	
백 운 성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원)	139
5. 일본의 지역활성화 전략	
송 두 범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169
6. 지역교류 활성화의 거점 『미찌노 에끼』	
임 준 홍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199
7. 테마가 있는 신도시 『라데팡스(La Défense)』	
조 봉 운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외	211
8. 일본의 낙후지역 활성화 사례 연구	
박 철 희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외	221
9. 금강관광경전철 건설을 위한 일본 사례 연구	
조 봉 운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241
10.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관련 사례 연구	
이 인 배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257

1 선진지역의 지역개발 사례 연구

윤 갑 식 |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조 봉 운 |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선진지역의 지역개발 사례 연구

윤 갑 식 / 조 봉 운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I. 연수 개요

1. 연수목적

- 선진국의 소도읍육성사업과 개발사례 현장방문으로 선진 개발기법 습득
- 소도읍육성 개발 관련 계획수립 및 발전방향 모색
- 담당 공무원의 국제적 마인드의 함양

2. 연수자

- 이영선(충남 도의새마을과장) 외 23명

소속	연수자
충남도청	이영선(도의새마을과장) 김수형(도의새마을과)
천안시	이광수(도시과) 박선화(도시과)
공주시	전경일(도시건축과장) 이승열(도시건축과)
보령시	이상현(건설과장)
논산시	최영준(건설과장)
금산군	한윤탁(건설도시과)
연기군	오진균(건설과장)
부여군	이재진(도시과장) 김인태(도시과)
서천군	이향성(건설도시과장) 조남용(건설도시과)
청양군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김기현(건설도시과)
홍성군	손봉환(도시건축과) 주용태(도시건축과)
예산군	김학용(도시과) 정찬우(주민지원과)
태안군	박상현(건설도시과)
당진군	김중수(도시건축과장) 김응용(건설과)
충남발전연구원	윤갑식(책임연구원) 조봉운(책임연구원)

3. 연수일정

○ 연수기간 : 2006년 4월 16일 ~ 4월 26일(9박 11일)

일정	연수지역	비고
4. 16 ~ 4. 17	· 독일 : 프랑크푸르트, 브란츠부르크 로텐부르크	
4. 18	· 오스트리아 : 인스브르크	
4. 19 ~ 4. 22	· 이탈리아 : 베니스, 피렌체, 로마, 밀라노	
4. 23	· 스위스 : 제노바	
4. 23 ~ 4. 24	· 프랑스 : 파리, 샤모니	라데 팜스 공식방문
4. 25	· 영국 : 런던	Countryside Agency 공식방문



[라데 팜스 개발담당자와 기념촬영]



[Countryside Agency 담당자와 기념촬영]

II. 연수 내용

1. 독 일

1) 독일의 일반현황

(1) 자연현황

- 독일의 지형구는 북부의 평원지대인 북독일 평야, 그 남쪽으로 고도 200~1,000m의 구릉성 산지인 독일중앙고지, 다시 그 남쪽에 펼쳐지는 구릉, 대지, 평탄지로 된 남독일 및 독일알프스 등 4개 지역으로 나뉘어짐. 전역이 빙하퇴적물로 덮인 북독일평야는 서부에서는 사질(砂質) 토양의 평탄지를 이루어 저지대에는 소택지, 이탄지(泥炭地)가 펼쳐져 있으며, 연안부에는 간척지가 조성되어 비옥한 목초지로 이용되고, 그 배후에는 메마른 농토와 하이데(Heide:荒地)가 펼쳐짐.
- 하이데의 남서쪽에는 중앙고지에 접하여 빙기(氷期)에 형성된 비옥한 퇴스가 퇴적되어 있어서 선사시대부터 사람이 살고 있었음. 빙하의 퇴석구(堆石丘) 사이의 저지를 흐르는 하천은 동서방향의 운하에 의해 연결된 것이 많고, 따라서 독일 북부는 서단부에서 동단부에 이르기까지 하천과 운하의 수로망으로 덮여있고, 중앙고지는 동서로 연속되는 1,500m 이하의 중위(中位) 산지군으로, 라인 협곡 및 베저강(江)·엘베강(江)의 곡지가 남북으로 가로지르고 있으며, 라인 고지에는 라인강(江)과 그 지류 모젤강(江) 등에 의해 빙겐에서 본에 이르는 구간의 라인 협곡과 같은 협곡이 많이 형성되어 있음.
- 라인 고지와 튀링거발트 사이에는 고지와 저지가 교차하는 복잡한 지형이 형성되어 있으나 베저강 수계가 남북을 잇는 교통로가 되고 있으며, 남북방향의 곡지는 프랑크푸르트·카셀·하노버 등 기타 도시를 잇는 교통로가 되어, 이들 도시의 역사적인 발전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
- 남독일은 서쪽의 보주산맥에서 동쪽의 뢰머발트까지 펼쳐지는 지역으로 북쪽의 중앙고지, 남쪽의 독일알프스 사이에 있음. 마인강(江)·네카어강(江) 유역은 독일에서 가장 비옥한 지대의 하나로 기후가 비교적 온난 건조하여 포도·밀의 산출이 많음. 네카어강 유역의 슈투트가르트·하이델베르크, 마인강 유역의 뉘른베르크·밤베르크·뮌헨·프랑크푸르트 등의 도시가 발달. 바젤에서

마인츠에 이르는 라인 곡지는 단층에 의해 형성된 대함몰(大陷沒)지대, 즉 라인 지구대임.

- 라인강 동안에서는 슈바르츠발트 삼림지대(최고봉 펠트베르크, 1,493m)와 오펜발트가 급애(急崖)를 이루고, 서안에서는 보주산맥·하르트산맥(최고봉 도너스베르크, 687m)이 급애를 이룸. 단층운동에 수반되는 화산활동도 있었기 때문에 라인 지구대에는 카이저스툴(567m) 등의 화산산지나 바덴바덴 등 온천지도 많음. 보름스에서 마인츠를 거쳐 빙겐에 이르는 구간의 곡지는 퇴적지로, 독일에서 가장 비옥한 농업지역이 되고 있으며, 주로 포도재배에 이용.
- 독일알프스 지역은 바이에리시알펜과 알프스 전지(前地)로 불리는 고원으로 이루어짐. 고원 남쪽은 보덴호(湖)와 바이에리시알펜 지역이고, 북쪽은 슈베비시알프·프랭키시알프 및 보헤미아 지괴의 남서연부(南西緣部)가 되고 있음. 독일의 최고봉 추크슈피체산(2,963m)이 이 산중에 있으며, 산간·산록에 많은 빙하호가 분포하여 전체적으로 그 경관이 뛰어나.



[그림 1-1] 독일의 농촌경관

(2) 경제

-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이른바 ‘서독 경제의 기적’이라고 일컬어졌던 경제부흥기를 거쳐 오늘날 세계경제를 좌우할 만한 경제력을 축적. 서독 경제는 자유방임주의가 아니라 ‘사회적 시장경제’ 정책에 기초를 두는 것. 독일은

1994년 현재 GNP 기준으로 세계 제3위이며 무역액 기준으로 세계 제2위임. 국민총생산의 1/3을 수출에 의존하고 있어 서방선진국과 비교해볼 때 높은 편. 독일은 1975년 창설된 서방 경제선진국 정상모임인 G7의 일원이며 또한 독일은 EU(European Union:유럽연합)의 통합에 프랑스와 같이 중추세력을 형성.

- 통일 후 독일 경제는 큰 혼란을 겪음. 통일 당시 동독주민의 노동생산성은 서독의 1/5에 지나지 않았음. 또한 기술의 상대적 낙후, 장비의 노후, 환경오염 및 사회기반시설의 낙후로 동·서독지역이 균형있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불가피하게 됨.
- 독일정부는 구동독경제의 전면적인 개편을 위해 ① 시장경제질서 도입, ② 시장기능과 개인의 창의력 발휘 여건 조성, ③ 기업구조 조정을 위한 한시적 국가재정지원의 원칙을 세우고, 이를 위한 정책으로 국내외 민간기업의 신생연방주 투자지원, 기업도산·대량실업에 대처, 사회기반시설 구축 지원, 시장경제질서 구축에 필요한 구서독 측 관료 및 사법요원의 파견 등의 조치를 도입함. 이러한 정책노선의 기본방향은 국가가 직접 관여하여 산업구조를 조정한다기보다는 자생력 있는 기업만 지원하여 사유화함으로써 전반적인 시장경제의 여건을 조성하는 것임.
- 1990년 6월 발족한 신탁관리청(베를린 소재)은 독일정부의 기본정책에 부응하여 국유재산의 사유화, 경쟁력 확보 정상화에 목표를 둠. 신탁관리청 산하의 관리대상으로는 8,500개 이상의 국유기업, 국영 도소매업·서비스업, 사회주의통일당(SED) 및 구동독 정부기관의 부동산, 구인민소유협동농장(LPG) 등으로서, 사유화대상기업에 소속된 노동자수는 410만 명으로 구동독 전 노동자수의 45%에 달함. 원래 공매절차를 고려하였으나 기업의 부실정도가 지나쳐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방법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음. 통일 후 신생연방주의 산업입지 여건은 막대한 국가지원에도 불구하고 불리함.
- 1990~1993년 신생연방주에 투자한 액수는 공공·민간부분을 합쳐 3110억 마르크로 한 해 평균 1000억 마르크 이상을 상회하였으나, 이 액수는 같은 기간 구연방주에 투자한 액수의 16.3%에 지나지 않음. 과거 2차 산업 부문이 40%가 넘는 산업구조가 2차 산업 34.8%, 3차 산업 54.9%로 행정·통신·교통·상업 부문과 건설부문에서 급격한 발전이 이루어졌음. 신생연방주의 소득증가, 구매력증가는 뚜렷하여 연평균 10%의 경제성장을 보이는 반면에 실업률이 구연방주보다 2배 정도 높아짐으로써 사회적 불안요소는 여전히 남아 있음.

- 그러나 1999년 후반부터 외수 확대와 유로화 하락을 배경으로 수출이 증가하면서 경기가 회복. 2000년에는 수출의 호조에다가 설비투자, 개인소비도 확대되었고,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3.0%를 달성함. 실업률, 특히 구서독 지역의 실업률은 다소 저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2001년 2월 말의 실업자수는 약 411만 명으로, 실업률은 10.1%(구서독 8.0%, 구동독 18.9%)임.

(3) 교통

- 독일은 통일 후 구동독의 '제국철도'는 국철에 통합되었으며, 철도종사자수는 50만 명에 달하는데 경영합리화로 감소추세. 1998년 현재 철도의 총영업거리는 4만 900km인데 이중 1만 6000km가 전철. 도로 총연장은 65만 6140km에 달하고, 이중 고속도로는 1만 1400km로 미국 다음으로 세계 제2위. 국도에서는 100km/h로 속도, 일부 고속도로에서는 속도제한이 없음. 독일 국적선은 1066척, 5680만t에 달함.
- 독일의 주요항구는 함부르크, 브레멘, 브레머하펜, 빌헬름스하펜, 뤼베크, 로스토크 등인데 냉전시대에는 유럽의 주요 무역항의 기능을 암스테르담·로테르담에 빼앗겼으나 탈냉전시대를 맞아 북해 연안의 항구들이 중부유럽, 동부유럽 국가의 배후지를 얻게 됨으로써 크게 발전할 것으로 보임. 내륙수로 또한 발달하였는데, 총연장은 7500km임. 국제수로로는 라인강, 1994년 개통된 라인-마인-도나우 운하를 들 수 있음.



[그림 1-2] 프랑크푸르트의 중앙역 전경

(4) 관광

- 독일은 19세기에 민족국가로 등장하기 이전의 수백 년 동안 수십 개의 독립 국가였기 때문에 각 지역에는 독특한 문화유산이 풍부함. 유서깊은 건축물, 도서관, 박물관, 정원, 극장, 향로축제 등은 문화애호가에게 더없는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음. 지역개발을 할 때에도 문화유산 보전에 노력하고 있어 도시 경관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있음. 라인강 하류의 루르 지방은 새로운 도시 시설과 근대적인 공장 등 인공적인 요소가 관광대상이 되는 곳이고, 그 남쪽의 아이펠고원은 구릉과 숲의 경관이 뛰어난 곳임.
- 라인강 중류로 흘러드는 모젤강 계곡은 아름다운 산지와 포도원의 경관으로 유명. 모젤강과 라인강의 합류점에 있는 코블렌츠에서 약 100km 상류의 마인츠에 이르는 라인강 중류는 너무나 유명한 관광지로, 하안(河岸)을 따라 포도원이 이어지면서 군데군데에 역사 깊은 고성(古城)이나 전설 얹힌 로렐라의 언덕 등이 정서어린 경관을 형성하고 있음. 라인강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우안(右岸)에 슈바르츠발트 삼림지대가 나타나는데 그 주변에는 훌륭한 숲과 온천이 많고, 또 오랜 전통을 이어 온 남부독일의 농촌풍경을 간직하고 있음.



[그림 1-3] 남부독일의 고성

- 독일과 스위스 국경에 걸쳐 있는 보덴호(湖) 주변과 남독일의 알프스 지방은 높은 산악풍경이 장엄하고, 특히 가르미슈파르텐키르헨을 비롯한 휴양지와 겨울스포츠의 중심지가 많음.

- 아우크스부르크에서 뷔르츠부르크에 이르는 구간에는 관광도로가 개통되어 중세의 생활풍속과 건축물 등을 관광할 수 있고, 또 이곳 바이에른 지방에서는 전통적인 목조각품, 바이올린, 총포 등이 제조되어 특산물이 되고 있음. 고슬라를 중심으로 한 하르츠산지도 관광지로 알려진 곳이고 엘베강의 하향 함부르크는 역사 깊은 상공업 도시로 특이한 도시경관을 보여줌.



[그림 1-4] 뷔르츠부르크의 고성

- 쉘레스비히홀슈타인주(州)에는 많은 호수와 퇴석(堆石)이 산재하고 평지에 펼쳐진 숲이 아름다움. 함부르크 남쪽의 뤼네부르크 주변이나 프리슬란트 주변에서는 히스가 무성한 북부 독일의 황량한 들판의 경관을 구경할 수 있음. 또 베를린에는 오래된 독일과 새로운 독일을 상징하는 건축물과 시설들이 많음.
- 1991년 14세 이상의 독일국민 70%가 남부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지로 최소 5일 이상의 휴가여행을 나가 관광지출비용은 관광수입비용을 훨씬 능가함.
- 이는 경제수준이 향상되고 노동시간이 축소되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노사협약에 의해 대부분의 경우 연 6주 이상의 휴가를 인정하고 추가로 휴가비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5) 사회보장제도

- 독일은 일찍이 1880년대에 포괄적인 사회보장법을 마련하기 시작하였고, 사회보장 구조가 견고하고 정교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보다 산업적인 상관관계가 원활함. 시장경제 내의 사회주의적 요소는 지불능력에 따라 차별화된 조세부담제도에서 찾아볼 수 있음. 현재 국민총생산의 1/3 이상이 사회보장 혜택으로 돌려지고 있는 독일에서 사회시장경제는 경제활동에 기여할 수 없는 모든 집단을 보호하는 기능을 해왔음.
- 사회시장경제의 주요원칙들은 사회적 법치국가의 이념, 경제적 자유, 노사의 자율권 등과 사회적 의무를 수반한다는 헌법의 기본원칙 등에 기초하고 있음. 노약자인 경우나 실업 또는 사고로 인한 취업 불능상태, 또는 파산했거나 더 나은 직업선택을 위해 재교육 중인 경우에도 사회적 제도를 통해 재정상의 곤란을 면할 수 있음. 또, 의료보험(인구의 약 90% 가입)이나 연금보험 등 사회연금제도는 자선의 차원이 아니라 공동사회 내에서 연대차원의 상호부조개념. 사회보장제도에는 모든 아동에게 지불되는 아동수당, 주거수당, 극빈자에게 주는 추가수당, 전장희생자에게 주는 보상금, 출산 후 3년까지의 부모수당, 장애인 수당 등도 포함.

(6) 문화

- 독일의 문화중심지는 특정한 몇 개 도시에 국한되어 있는 외국의 경우와는 달리 지난날의 분권주의 역사적 배경을 반영하여 전국적으로 퍼져 있고, 각각 독특한 지방색을 보이면서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문화·예술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독일 문화의 특색.
- 유명한 극장으로는 도이치·함부르크·베를린·뒤셀도르프·만하임·뮌헨·드레스덴 극장 등을 들 수 있음. 현재 열리고 있는 중요한 음악행사로는 바이로이트의 바그너 음악제, 가을철의 베를린 음악제, 할레·괴팅겐의 헨델 음악제, 본의 베토벤 음악제, 아우크스부르크의 모차르트 음악제, 뮌헨·가르미슈파르텐키르헨의 슈트라우스 음악제 등이다. 베를린 필하모니 관현악단·밤베르크 교향악단·슈투트가르트 실내 관현악단·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관현악단 등은 세계 최정상급의 오케스트라로서 명성을 얻고 있음.
- 독일의 문학·예술은 독일 고전주의와 낭만주의가 꽃피었던 18, 19세기 및 바이마르공화국시대에 절정기를 이루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세계적인

로 명성을 얻은 문화인·예술가가 별로 배출되지 않음. 독일의 20세기를 대표하는 문학가로는 F.카프카, T.만, R.M.릴케, B.브레히트 등을 꼽을 수 있고,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소설가로는 H.T.뵐, G.W.그라스, 극작가로는 지그프리트 렌츠, 페터 바이스 등의 활약이 널리 알려짐.

- 독일은 출판과 도서의 나라로서 매년 10월에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프랑크푸르트도서전이 열림.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대담프로가 발달한 것이 특징이며 화려한 쇼프로는 별로 없고 스포츠중계가 많고 보도프로 비중이 큼. 독일에는 약 3,500개의 영화관이 있으며 1998년 약 1억 3500만 명의 관객들이 영화를 관람하였음.

2) 독일의 농촌관광 정책

(1) 개요

- 유럽 국가와 독일에서는 60~70년대의 경제적, 사회적 범주에서 다루었던 관광정책으로부터 환경적 측면까지를 고려한 관광정책을 추구하는 추세.
- 독일의 전반적 관광정책은 공간계획(유럽, 연방공간계획, 주발전계획, 광역계획, 도시계획)과 전문계획(교통계획 등)을 토대로 자연과 문화의 잠재력을 고려함을 기본으로 함.
- 농촌관광 정책은 별개의 부서나 규정 등이 없이 아래 소개된 정책들이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며, 독일농민연맹(DBV)을 주축으로 국가 차원의 독일농업협회(DLG)와 각 주가 밀접하게 협조.

(2) 독일 연방정부 관광정책

- 독일의 공간계획법 제2조에는 공간균형발전을 언급하고 있으며, 특히 농촌지역이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 무엇보다도 농촌이 자연친화적 휴가, 휴식지역으로 발전하고 이러한 기능을 보다 강화할 것을 강조. 관광산업을 위한 기본 정책 프로그램은 이미 1975년부터 아래의 5개의 목적을 가지고 추진.

- 지속적인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여건을 확고히 함.
 - 독일의 관광산업의 능력과 경쟁력을 향상.
 - 국민의 관광에 광범위한 참여를 위한 가능성을 향상.
 - 관광산업을 국제적으로 공동 활성화.
 - 관광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개선.
- 독일의 관광산업은 주로 경제부처와 건설부가 중심이 되어 각 주의 해당관청과 밀접하게 공동으로 추진하는 형태를 취함.
- 경제기술부의 광역촉진정책이 그 한 예라고 할 수 있음. 연방정부와 각 주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지역경제구조개선정책(GA-Gemeinschaftsaufgabe von Bund und Laendern Verbesserung der regionalen Wirtschaftsstruktur)은 개인관광산업 촉진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
 - 이는 관광교육, 기반시설-특히 새로운 생산품과 서비스업종에 투자를 집중(1991년에서 1999년까지 총 투자액 16,307백만 DM 중 숙박업에 개발지원금 3,729백만 DM). 물론 여기에는 관광산업에 관련한 사회간접시설(휴양관, 공원, 수영장, 자전거, 인도) 건설 등의 지원금도 포함.
 - 1991년에서 1999년 중반까지 관광시설물에 투자한 총 6,938Mio. DM중 GA의 지원금은 4,683Mio. DM이 넘었음. 경제기술부에서는 2000년도부터 관광프로젝트 촉진정책을 추진.
- 연방정부의 각 기관마다 각각 책임이 다르게 주어지고 있으며, 그 외에 연방정부 산하에 독일관광조합, 독일관광연맹 등이 있으며 각 주, 도시와 밀접하게 관광산업을 추진.
- 농림부의 농업관광촉진정책
- 농업구조와 산간지역보호 향상정책(GA Verbesserung der Agrarstruktur und Kuestenschutzes)이 주로 해당한다. 이는 유럽연합과 깊이 연관.
 - 재정지원은 유럽연합과 독일 연방정부, 주 정부가 공동으로 일정한 비율로 지원하며 농촌관광 산업 분야는 아주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

(3) 주정부

- 독일은 지방자치가 발달된 대표적인 나라이므로 관광정책 또한 각 주마다 공간적 구조에 맞게 추진. 특히 산간지역, 포도 농사지역 등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짐. 농촌관광 정책은 연방정부의 소비자보호, 영양 및 농업부(BMVEL)에서 주로 담당.

■ 농촌관광 관련 규정

- 독일에서 농촌관광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별도의 법은 없음. 독일은 전 국토가 연방 건축기본법(Baugesetz Buch-BauGB)에 의하여 지구상세계획과 토지이용계획에 의거해 허가하고 있으며 이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임.
- 특히 농촌지역은 연방 건축기본법 제35조에 의거하여 소위 농촌지역은 외곽지역으로 정해져 있어서 토지용도 변경이 매우 엄격하게 규정됨.
- 관련 법규로는 공업법(Gewerberecht), 음식점종관련법(Gaststaetterecht), 세금법(Steuerrecht), 노동법(Arbeitsrecht), 위생 관련 세부규정(hygienische Verordnung) 등이 있음. 이들 법은 농촌관광업 뿐만 아니라 모든 업종에 해당하는 법임.
- 특히 일반 도시지역이 아닌 낙후지역인 농촌관광지역은 토지이용변경, 건물용도변경 등이 매우 엄격하여 농촌관광 산업에 제약요인이 되기도 함.
- 또한 기본적으로 위에 언급한 총 6개의 법 규정과 그 외에도 도시 자체 별로 해당되는 법, 규정들을 합하면 너무 복잡하여 2년 전부터 이러한 복잡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음.
- 농촌지역에 있는 농가의 용도변경(Urlaub auf dem Bauernhof), 즉 숙박업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도 위의 법에 관련되며, 농촌지역에 호텔이나 음식점 허가는 지방자치단체(마을 최소단위)의 효력이 강해서 인가가 어렵게 되어 있음.

■ 농촌관광 지도자와 시설물

- 농촌관광 지도자에 관한 법적 규정은 없으며, 현재 독일 농촌관광 지도자는 대부분 여성들. 이 분야의 지도자들은 대부분 농업분야 교육을 받은 자이거나 관광분야(주별로 교육 실시) 교육을 추가로 받은 자가 대부분.
- 농촌관광업 시설물에 대한 규정은 일반 규정(위에 언급한 법)에 의거해야 함. 단지 숙박업소에 대한 평가는 독일관광연맹(DTV)이 독일농업협회와 협력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등급을 정하며, 이는 홍보책자나 인터넷 등에 홍보.

■ 숙박 형태

- 다른 관광업종과 다르게 농촌관광업에는 대부분 농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농가 민박이 주를 이룸. 1991년 12.7백만 명의 숙박객에서 2001년에는 27.4백만 명의 숙박객으로 10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



[그림 1-5] 농촌지역 숙박업소

(4) 독일의 농촌관광 현황과 전망

■ 독일 농가민박의 일반 현황

- 소비자보호·영양·농업부의 발표에 따르면 독일 내 농가민박은 2001년 현재 27.4백만 숙박으로서 매출 총액은 약 10억 유로에 해당.
- 1999년 농업통계연감에 의하면 독일의 농가민박은 총 14,746개소로서 농업종사자의 3.12%가 농가민박을 겸함.
- 농업종사자수와 비교하여 볼 때 농가민박비율이 높은 주는 북독의 쉘레스비히-홀스타인주(6.49%), 남독의 바이에른주(4.62%), 중독의 라인란트-팔츠주(3.97%), 동독의 메클렌부르크-포아폼메른주(3.44%)를 들 수 있음.
- 농가민박업소수를 비교하면 바이에른주가 7,131개소로서 독일 전체 민박업소의 절반(50.3%)을 차지하며, 바덴뷔템부르크주가 2,510개소(17.7%)로 두 번째, 라인란트-팔츠주와 쉘레스비히홀스타인주가 각각 1,410개소 (9.9%), 1,343개소 (9.5%)로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음.

○ 농가민박의 특성

- 농가민박은 여름철에 집중되며 평균 15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농가와 직접 예약.
- 농가민박 이용자의 66%가 어린이를 데리고 방문하며 가족형, 자연체험형, 휴식형 관광행태를 보임.
- 1회 여행하는데 따른 평균 경비는 1인당 607유로로 상대적으로 저렴.

○ 농가민박이용자의 특성

- 가장 선호하는 활동: 지역답사, 지역음식, 긴장완화, 편안한 잠
- 가장 중요 방문 동기: 스트레스 해소, 해방감, 자유시간, 레크리에이션

○ 농가민박에 대한 이용자의 요구사항

- 1.청결/2.합리적 가격/3.현대식 화장실/4.넓은 방과 좋은 분위기/5.분위기 있는 가구/6.개인 서비스/7.TV·라디오/8.부대서비스/9.편안함



[그림 1-6] 독일의 농가

■ 농촌관광산업의 전망

- 독일의 농촌관광산업은 지난 2001년 광우병사건 등으로 약간 주춤하였지만 지속적으로 발전. 복잡한 법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촌관광은 도시화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도시인들의 자연에 대한 의식변화와 평온하고 깨끗한 기후를 즐기려는 욕구 등의 관광의식 변화 등으로 말미암아 지속적으로 발전.
- 다른 한편으로는 독일의 농촌관광산업은 공간적, 행정적 범위를 초월하여 공동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하고 신속한 정보를 통한 홍보산업과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네트워크가 농촌관광산업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음.

(5) 독일의 농촌관광 담당 기관 및 단체

- 독일 연방정부 차원에서 농촌관광을 담당하고 있는 조직은 소비자보호·영양·농업부이며 주정부 차원에서도 농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에서 농촌관광을 담당.
- 독일에서 특히 농촌관광이 발달되어 있는 주는 남부 독일의 바이에른주와 바덴뷔템부르크주, 북부 독일의 쉔레스비히홀스타인주와 니더작센주를 들 수 있음. 독일 전체 차원의 대표적인 농촌관광 분야 민간조직은 독일농민연맹과 독일농업협회를 들 수 있음.

■ 독일농민연맹 산하 농가민박 및 농촌관광 협의회

- 농가민박 및 농촌관광 연방협의회(Die Bundesarbeitsgemeinschaft fuer Urlaub auf dem Bauernhof und Landtourismus in Deutschland e.V.)는 농촌관광을 총괄하는 기구로서 독일농민연맹 소속 기구. 주 정부 차원 및 지방 차원의 농촌관광 관련 기관 및 단체를 포괄.
- 협의회는 농가민박을 촉진·홍보하고 농가민박 종사자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며 주 차원의 관련 단체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1년 설립.
- 농가민박 및 농촌관광 연방협의회는 14개 단체회원(12개 주별 지역조직과 2개 민간조직)으로 구성. 2001년말 현재 10,125개의 민박업소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12개 주 소속 회원은 5,431개 업소(53.6%), 독일농업협회(DLG)

소속 회원 2,070개 업소(20.4%), 농촌출판사산하 농촌휴가센타 소속 회원 2,624개 업소(25.9%)로 분포됨.

- 후원회원은 독일농민연맹, 독일여성농민연맹, 독일라이파이젠연맹(라이파이젠은 독일의 유명한 농정가 이름), 농업회의소 중앙회, 국민&라이파이젠 은행의 연방연합, 독일 스파프카세 및 지로 연합 등 5개 단체. 이들 후원 단체는 농가민박 및 농촌관광 연방협의회 활동을 재정적 및 내용적, 조직적 측면에서 지원함.

○ 연방협회의의 최근 활동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음.

- 계간 뉴스레터 “Land in Sicht” 발간: 농가민박 및 농촌관광에 관한 새로운 정보 제공. 매력적인 농가민박 소개. 시의적절한 테마에 관해 직접 언론을 상대로 보도자료 제공. 회원들을 위해 독일 소비자보호·영양·농업부 및 독일관광연맹과 협력하여 손님 접대, 손실배상, 예약취소 사유 등에 관한 각종 정보 제공.
- 농가민박상품의 경품행사 참여 : 독일농업중앙마켓팅사(Die Cetnrale Marketing-Gesellschaft der deutschen Agrarwirtschaft)와 협력 경품제공행사 진행. 식품소매업체의 판촉행사시 1주간의 2인 농가민박 관광 상품을 경품으로 제공.
- 브로슈어 발간: 독일의 농가민박 및 농촌 관광 업소에 관한 카탈로그의 체계적 분류 이외에 2개의 특별한 안내 브로슈어 발간. “농촌-휴가-농가”: 농가민박 및 농촌관광과 관련한 일반적인 문의사항에 답하기 위해 회원단체들의 브로슈어와 카탈로그를 분류한 리플렛. “휴양이 체험이 되는 곳”: 농가민박 및 농촌관광을 촉진하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이미지 브로슈어.
- 인터넷을 통한 농가민박 정보제공
 - 홈페이지 주소 : www.bauernverband.de
 - 독일의 관광지역별로 분류해 놓은 농가민박업소 소개 및 예약 안내
- 국제농업박람회 참가: 매년 겨울 베를린에서 열리는 대규모 국제농업박람회인 “녹색주간”에 참가하여 농가민박 및 농촌관광에 관한 전시·홍보 및 직접 예약할 수 있게 함. 2001년에 박람회장에서 개최된 제2회 유럽 농촌관광 포럼에서는 연방협회장이 인사말을 통해 독일의 농촌관광에 대해 소개.

■ 독일농업협회

- 독일농업협회(Deutsche Landwirtschaft-Gesellschaft e.V., DLG)는 1885년에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서 중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사무실을 두고 있음. 독일농업협회는 농촌의 생활과 농가의 수입을 개선하는 것을 주된 활동목적으로

로 삼고 있으며 근래 농업 관련 전시회를 폭넓게 운영하고 있음. 특히 닭고기·돼지고기제품(1975년부터), 농업기계 및 부속·부품(1985년부터), 축산물(1989년부터), 낙농기술 및 식품가공기술(1988년부터) 등에 걸친 4개 분야의 전시회를 모두 국제적 규모로 기획.

- 독일농업협회는 '농가에서 휴가를'사업(농촌관광활성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농가의 숙박시설 운영이나 품질기준에 대해 지도.

○ 품질보증마크 인증제도의 실시

- 1972년부터 농가민박에 대한 품질보증마크제도를 실시. 품질보증마크의 교부는 국립 특허기관(RAL)이 인정한 'DLG-점수' 마크에 관한 기본 규칙에 따라 각 지역의 담당 위원회를 통해서 행해짐. 위원회는 최고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구성 위원은 농업 상담소, 농업종사자, 농협관계자, 자치단체 관계자, 지역진흥 관계자, 관광협회, 금융 기관, 호텔, 음식점 협회, 소비자단체의 대표 각 1명으로 구성되며 그 가운데 1명은 여성으로 함.
- 위원회의 결정은 다수결을 원칙으로 하고 가부 동수인 경우는 부결로 한다.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당사자는 결정 통지 후 14일 이내에 등기우편으로 이의를 제기. 이 경우 DLG는 심사를 다시 할 수 있음. 이 결과가 첫 번째와 같은 경우는 두 번째 결과 통지 후 14일 이내에 중재재판을 신청할 수 있음.
- 품질보증마크는 최초 교부일로부터 3년간 사용이 인정. 사용기간의 연장을 위해서는 매 3년마다 재심사에 합격해야 함. 재심사 결과 불합격될 경우에는 다시 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
- 품질보증마크를 부여하기 위한 평가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기준.
 - 민박시설 내부 및 외부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
 - 개별 휴양주택 및 객실
 - 서비스 제공 및 여가분야
 - 환경기준 및 안전측면
- DLG는 농가민박에 들어섰을 때 손님에게 편안한 느낌을 주는지 여부에 대해 유의해 평가. 독채는 거실, 침실, 요리실 및 화장실을 별도로 두어야 하고 개별 객실은 방안에 화장실을 함께 두어야 한다는 사항 권장. 편안한 침대, 넓은 면적, 분위기 있는 체류공간은 기본. 환경 분야의 예를 들면 쓰레기분리수거, 탄력적인 수건교환, 개별 포장의 금지 등도 실천.
- 특히 농촌에서의 휴가가 손님들에게 좋은 경험이 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높은 가

치. 예를 들면, 친절한 분위기, 개인적 시중, 다양한 여가시설 및 농촌관광에 대한 재미가 있어야 한다. 또한 DLG는 유럽 표준 기준인 DIN EN 45011 및 DIN EN 45013의 정해진 기준에 따라 품질보증마크의 질을 관리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임.

- 독일농업협회에서 제공하는 카탈로그와 인터넷상 주요 정보는 다음과 같음.
 - DLG “농가민박/농촌호텔에서 휴가를” 카탈로그 여행안내서
 - 승마 애호가를 위한 여행안내서 “안장위의 휴가”
 - DLG 포도 여행안내서 “포도원에서 휴가를”
 - DLG 전통과 매력이 있는 휴가를 위한 여행안내서 “농촌에서의 휴가”
 - www.landtourismus.de 홈페이지를 통해 DLG 검증을 받은 민박을 비롯한 농촌숙박시설의 소개. 독일어, 영어, 네덜란드어로 소개. 주변지역에 대한 설명, 여행안내, 할인 또는 기획 여행상품 및 여행코스계획 등 소개.
- 2003년 발행된 “농가민박/농촌호텔에서 휴가를 2003” 여행안내서 가격은 9.9유로화로서 서점, ADAC 사무실, 출판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쉽게 구매. 전 독일에 걸쳐 2,000곳의 검증된 농촌숙박업소를 사진과 글로 안내. 안내서는 주별, 관광휴양지역별로 구분해서 소개하고 있으며 DLG에 의해 등급화되고 각종 시설을 심볼로 표시해 소비자가 손쉽게 민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됨. 예를 들어, 어린이보호, 장애인 배려 시설 여부, 캠핑 가능성 등. 체험관광을 선호하는 관광객을 위해서는 예를 들면 테니스, 골프, 승마, 낚시, 또는 사냥 가능성 등을 심볼로 표시하고 있음.
- DLG 마크를 부여받은 민박의 시설 등급은 호텔과 같이 별의 개수로 표현하여 손님이 쉽게 구분. 민박의 등급은 농가민박 및 농촌관광 연방협회의와 독일관광협회의 협력하에 매김.
- 등급은 5단계로 나누어지며 3년간 유효. 농가민박 종사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한 번의 현지 실사를 거쳐 DLG 품질보증마크를 획득할 뿐만 아니라 독일관광협회의 기준에 따라 숙소의 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음. 별 두 개의 숙박업소 등급을 획득하고 농가와 농촌 분야에서 정하는 기준 즉 민박종사자의 자질, 여가, 서비스, 안전 등의 분야에서 기준을 만족시키면 DLG 보증마크 부여.
- DLG 보증마크를 취득한 농가 민박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다양한 마케팅 및 홍보 활동
 - 매년 개최하는 “DLG 민박 및 농촌호텔 경연대회”의 참가 기회
 - ADAC(자동차클럽)와의 협력: ADAC의 회원을 위한 혜택 프로그램 수혜
 - 광역 및 지역 내 직업교육프로그램의 운영(회의, 세미나, 업체 견학)
 - 뉴스레터 또는 출판물을 통한 생생한 정보의 제공
 - 무료 홍보 및 업무수단의 이용(예: 관광·휴양객들을 위한 팜플렛, 예약확인증, 우편엽서 등)

- 약간의 실비만으로 홍보수단의 이용(예: 편지, 엽서, 자동차 스티커, 그림책, 작은 천 주머니 등)
- 우수 민박 및 농촌호텔 경연대회
 - 경연대회의 취지
 - DLG 수상을 받은 민박/농촌호텔에서 숙박은 질 좋은 숙박 가능성 외에도 농업, 지역의 특색, 자연을 알게 할 다양한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관광휴양객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민박/농촌호텔 운영자는 마을의 이웃 주민, 식당주인, 수공업종사자, 문화 및 여가시설 운영자와 함께 다양한 휴가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음. 경연대회는 민박/농촌호텔 운영자에게 이와 같은 능력을 발굴, 개발할 것을 요구함.
 - 경연대회 조건 및 방법
 - 참가자격: DLG “농가에서 휴가를” 품질보증 인정을 받은 민박업체와 “농촌휴가” 인정을 받은 민박업체
 - 평가항목: 농가체험, 농업에 대한 정보, 식사와 즐거움, 자연의 발견, 지역과 지역 주민 알기, 생동감, 숙박 체험 등 7가지 분야
 - 초안 심사 후 독립적인 전문심사위원회에서 10곳의 수상자를 최종 결정. 2002년 경우 4명의 심사위원이 엄격하게 심사: Ursula Schoercher(독일 여행센타 DZT 의장), Christa Off(독일농민연맹 산하 농가민박 및 농촌관광 연방협의회 회장), Gabi Schwall(헤센방송 기자), Juergen Kuetemeyer박사 (trio 커뮤니케이션 & 마켓팅 유한회사)
 - 수상자는 상장을 수여받고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하며 다음 DLG “민박 및 농촌호텔에서 휴가를” 카탈로그 및 홈페이지(www.landtourismus.de)에 소개. 수상자를 위한 홍보는 전문적인 홍보업체의 지원을 받아 수행



[그림 1-7] 독일의 농가민박 전경

■ 농촌휴가센타(Zentrale fuer den Landurlaub)

- 란트슈리프트 출판사(Landschaftsverlag)는 농업출판사의 자매회사로서 1955년 베를린에서 창업해 1972년에 본으로 사무실을 옮겨 지금에 이르고 있음. 농촌휴가센타는 란트슈리프트 출판사 소속의 농가민박의 활성화를 위한 상업적 목적의 민간기구이며 독일을 비롯한 오스트리아, 이태리, 프랑스, 덴마크, 네덜란드, 스위스, 스페인 등에서의 농촌휴가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여행 안내서 출판.
- 농촌휴가센타의 가장 큰 기능은 농가민박 종사자와 소비자를 중개하기 위한 온라인 서비스로서 체계적인 농가민박 및 농촌관광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함. 출판사는 "손님과 농가(Gast und Hof)"라는 독일 농촌관광 관련 유일의 전문잡지를 발행. 8명의 상근 직원을 두고 있으며 사장은 Hermann Bimberg씨임.
- 농촌휴가센타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운영, 농가민박/농촌관광여행안내서 발행, 농가민박/농촌관광 운영자를 대상으로 한 세미나/교육 등 농가민박/농촌관광 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민간기구로 홈페이지(www.bauernhofurlaub.com)를 운영.

■ 농촌휴가센타의 농가민박 데이터뱅크

- 농가민박 및 농촌관광 분야의 상업적 목적의 데이터뱅크로서 약 4천개의 농가민박/농촌숙박업소를 상세히 소개. 주로 독일의 농가민박을 소개하고 있음.

며 오스트리아, 이태리, 프랑스, 덴마크, 폴란드, 네덜란드, 스위스, 스페인 등 이웃 나라들도 아울러 소개. 홈페이지에서는 독일의 농가민박을 관광휴양지역별로 검색할 수 있으며 외국의 민박도 검색가능, 각종 심볼에 의해 검색가능.

- 농가민박은 4등급으로 구분. 각 민박은 30개의 심볼로 표시되어 있어 손님들이 민박의 세부 사항을 쉽게 구분.
- 심볼의 종류는 식사제공 여부, 포도원 여부, 노인에 적합한 시설, 어른없이 아이들만 보내도 보살피 주는지 여부, 유아 관련 서비스, 장애인에 적합한 시설, 애완동물 수용, 농사일을 같이 할 수 있는지 여부, 캠핑 가능성, 수영장, 사우나, 휘트니스룸, 테니스, 승마, 자전거 대여, 사냥, 어린이놀이터, 별장, 탁구, 낚시, 겨울 스포츠 가능성, 단기숙박 가능 여부, 선텐시설, 유기농업, 농촌관광센타의 책에 나오는 보너스쿠폰을 받는지 여부, 어린이 파티, 농산물 직거래, 농가카페, 2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회의 시설 등.

■ 손님이 추천하는 우수 민박업소 선정

- 농촌휴가센타는 매년 농가민박을 찾은 손님들이 직접 설문조사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손님이 추천하는 우선 민박업소”를 선정, 발표.
- 2002년 우수 업소의 경우 2001년 8월부터 2002년 8월까지 2,400여 농가민박을 찾은 45,000여 명의 관광휴양객이 직접 설문조사를 통한 평가표를 작성. 설문조사 항목으로는 숙소의 시설, 여가시설의 제공, 서비스, 식사 및 음료 등이 포함. 12개 주의 대표적인 농가민박업소 12개를 선정해 홈페이지, 여행안내서 등을 통해 상세하게 공개.

■ “농촌선택 - 유럽의 가장 아름다운 휴양주택”

- 성공적인 농촌관광 전략의 일환으로 농촌휴가센타의 주도하에 농촌관광 관련 종사자들에 의해 1994년 설립된 공동 마케팅 브랜드.
- 엄격한 품질 기준을 만족시키는 농가민박
- 손님을 친구처럼 보살피는 농가민박: 예를 들면, 손님 도착일에 맞추어 냉장고에 물건을 채워 넣는다든지 부모가 우유 젓꼭지를 분실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잠을 설치지 않도록 대용 우유젓꼭지를 구비하고 있다든지 하는 정도로 완전한 손님 위주의 사고를 하는 민박주인

- “농촌선택”은 근래 언론기관으로부터 대단한 호평을 받고 있다. 예를 들면 ARD TV, 잡지 파밀리에 운 코, 엘터른, 디 벨트, 디 차이트, ARD 여행 잡지 등에서 크게 보도.
- 현재 96개의 농촌휴양주택이 회원으로 가입됨. “손님을 친구로 만드는 것이 가장 훌륭한 것이다”라는 철학을 따름.
- “농촌선택”의 마케팅 전략 및 계획은 다음과 같이 다양함.
 - 인상적인 여행안내서의 발행: 제목은 “농촌에서 재미를-유럽의 가장 아름다운 휴양주택(Lust aufs Land - Europas schoenste Ferienhoefe)”.
 - 협력 파트너, 서점, 인터넷을 통한 여행안내서의 판매
 - 비수기에 주로 독창적인 마케팅 아이디어의 집행
 - 기존의 농가민박 데이터 뱅크 홈페이지(bauernhofurlaub.com)에 소개하고 농가 자신의 홈페이지 링크
 - 인터넷 분야에서 이름이 있는 업체와 함께 시스템의 구성
 - 신문·잡지 등 인쇄미디어, 라디오, TV 편집진과 함께 협력
 - 독일의 체험지도의 개발
 - 마케팅 및 법률문제에 대한 개별 상담
 - 세미나를 통한 직업교육 및 경험 교환
 - 관광휴양 관련 기관·단체의 연락처 공동 이용
 - 손님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 아이디어의 판매: 우유젓꼭지서비스, 도착시 냉장고 서비스, 어린이생일파티, 생일쿠폰 등

3) 시사점

- 소도읍육성사업의 주요사업 가운데는 관광을 테마로 하는 지역이 많다는 점에서 선진지역의 농촌관광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 할 수 있음.
- 농촌관광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관련부서의 통합적 운영체계에 있다고 할 수 있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관광 분야와 농업 분야 및 환경 분야가 상호보완성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음.

- 최근 인터넷의 보급과 IT강국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하면서 다양한 농촌관광 사이트가 선을 보이고 있으며, 시·군의 자치단체장이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농촌의 체험관광을 활성화하려는 시도가 여러 지역에서 시도되고 있음. 이러한 시도에 보다 체계적인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 우선, 국가차원에서 농촌이 갖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것인가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제시하여야 할 것임. 특히, 농산물은 그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먹거리가 되기 때문에 문화관광정책의 한 분야로 집중적인 고찰이 필요함.
- 그리고, 이러한 육성과 지원을 수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농촌지역의 인재육성이 필요함. 관광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에서 서비스제공자를 겸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적합한 교육이 필요하고, 이것이 부족하다면,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운영하는 기구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임.
- 마지막으로 농촌관광은 직접 접해보아야 그 참된 면모를 알 수 있는데, 이러한 경험의 장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조성 및 운영하여야 할 것임.
- 또한, 농촌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차별성이 가장 큰 요소로 작용할 것임. 농가의 건축물 형태나 농업의 다양화 그리고 지역특성에 따라 새로운 관광자원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필요함.
- 무분별한 농어가주택의 난립으로 지역적 특성이 없는 국적없는 건축물이 즐비하게 늘어선 농촌은 농촌다움을 잃어버린 단순한 숙박촌에 지나지 않음.
-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을 잘 보존하고 보다 깨끗하고 신선하게 제공할 수 있는 농업기술의 개발도 필요함.
- 그러나, 이러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농촌에 있어서는 새로운 농산물, 새로운 공간 등을 창조하는데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산업과 연계하는 것도 중요함.
- 이러한 노력을 IT강국의 기술력으로 전 세계에 홍보하고 마케팅을 한다면, 한국의 농촌지역이 세계적인 농촌관광의 벤치마킹 지역으로 거듭날 것임.

2. 이탈리아

1) 에밀리아 로마냐 산업지구의 개요

- 에밀리아 로마냐는 이탈리아 반도 북동부 포강유역 평야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토면적의 약 11%에 해당하는 22,000km²에 국가 총 인구의 약 7%를 조금 상회하는 4백만명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음.
- 이 지역은 유럽에서 경제적으로 급속하게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환경 변화에 역동적으로 대응해온 대표적인 지역 중에 하나임.
- 세계 2차 대전이 끝날 무렵만 하더라도 이 지역은 주된 산업은 농업이었음. 그러나 현재는 섬유, 의류, 신발 등을 중심으로 한 수출지향 산업이 지역 산업구조의 중심을 이루고 있음.
- 고용규모면에서 볼 때 에밀리아 로마냐는 이탈리아 전체고용의 8.3%를 차지하고 있고, 산업별 인구의 비율은 농업 8.6%, 제조업 35.1%, 서비스업 53.3%로 구성되어 있음.
- 에밀리아 로마냐 지역은 지난 10년 동안 EU의 어느 지역보다도 높은 지역총생산의 성장률을 보여왔으며, 이 기간 동안 지역 실업률도 EU회원국 15개국 평균의 절반수준을 유지해 왔음.

[표 2-1] 에밀리아 로마냐의 산업지구

산업부문	지역	고용자수	중소기업 밀도(%)	지역의존도
섬유의류	Carpi(MO)	12,692	99.30	높음
신발	Fusignano(RA)	666	92.90	높음
신발	S, Mauro Pascoli(FO)	3,000	93.70	높음
모터사이클	Bologna	2,378	82.90	낮음
세라믹 제품	Modena-ReggioEmilia	22,000	55.70	높음
포장기계	Bologna	7,140	20.00	낮음
농기계	Modena-ReggioEmilia	17,965	85.20	높음
Boncomical 제품	Mirandola(MO)	2,300	85.00	보통
목재생산기계	Rimini	1,345	87.20	낮음
목재생산기계	Carpi(MO)	1,155	77.20	낮음
실내장식가구	Forli	900	97.00	낮음
기계장비	Piacenza	800	20.00	낮음
식품제조	Parma	9,239	98.10	보통

※출처 : DelNet & ASTER, 2002

- 에밀리아 로마냐 지역은 1인당 GDP가 약 25,000유로 정도로써 이탈리아 국내총생산액의 10%와 총수출의 12%를 담당하고 있음.
- 지난 5년 동안의 지역 공산품 수출 성장률은 45%, 서비스 수출의 성장률은 52.4%였으며 이 기간의 수출 증가는 기존의 유럽시장 외에 미국과 동남아시아 및 기타 개발도상국 시장에서의 수출성장률의 증가에 힘입은 바 큼.
- 그리고 지역 생산시스템의 세계화는 훨씬 더 빨리 진행되어 지난 5년 동안에 해외직접투자가 296.7% 증가하였는데 이 수치는 같은 기간 동안의 이탈리아 전체평균 154.5%의 2배에 해당함.
- 에밀리아 로마냐 지역의 경제성장은 산업구조의 다양성에 기초하고 있음. 13개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각기 다른 산업에 특화된 산업지구들은 에밀리아 로마냐 지역 경제성장의 근간이 되었음.
 -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에밀리아 로마냐 지역은 까르피(Carpi)를 중심으로 한 섬유 및 의류산업지구와 모데나(Modena)와 레지오 에밀리아 (Reggio Emilia)를 중심으로 한 세라믹 제품산업지구 및 농기계 산업지구를 비롯하여 신발산업, 목재생산기계산업, 실내장식가구산업, 식료품산업, 그리고 바이오메디컬산업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산업지구들로 구성되어 있음.
 - 이 지역 제조업 노동자(78,108명)의 64%는 50인 이하의 소규모 기업에 종사하고 있고 70% 이상인 100인 이하의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음.
 - 제조업 고용 인력의 단지 7%만이 500인 이상의 대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여기에 비제조업 고용 인력을 감안한다면 99%이상의 고용 인력이 50인 이하의 소규모 기업에 종사한다고 볼 수 있음.
 - 산업지구별로 50인 이하의 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소기업의 비중이 90%이상인 산업지구가 전체 13개 산업지구 중에서 5개이고, 이 가운데 의류산업지구인 까르피, 신발산업지구인 푸시나노와 산 모로 파스콜리, 세라믹과 농기계 산업지구를 형성하고 있는 레지오 에밀리아 등은 50인 이하의 소기업에 대한 지역생산시스템의 의존도가 높아, 소기업들이 지역경제의 중추적 견인차 노릇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처럼 에밀리아 로마냐 지역경제의 중추는 중소기업들임. 이 지역 중소기업들의 대부분은 특정한 분야에 전문화된 산업지구내에 집적하고 있으며, 해당산업의 특정 부분만을 전문으로 한 생산 활동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

문화는 이들 기업들이 성장하고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던 핵심적인 요소임.

- 지역의 중소기업들은 높은 기술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풍부한 장인적 기술 노동력의 풀을 보유하고 있음. 또한 이 지역의 중소기업들은 지역사회의 전통인 경쟁과 협력에 기반한 분업적 생산 활동을 하고 있으며, 생산 활동이 일상생활에 통합 되는 사회구조와 지역사회의 문화를 가지고 있음.
- 에밀리아 로마냐 지역 경제시스템의 성공을 설명해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산업지구를 구성하는 기업들의 협의회(industry associations)를 설립·지원하고자 하는 경향과 기업들간의 협력의지임.
- 에밀리아 로마냐 지역 제조업의 경제 성장력은 유연적으로 전문화된 지역중소기업간의 독특하고 발전된 네트워크관계에서 발현되었음. 이처럼 에밀리아 로마냐를 특징지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측면은 이 지역의 기업들이 상호간에 협력(특히 다양한 생산단계에 있는 기업들 간의 수직적 협력)하고, 집단 서비스 조직에 참여하고, 그리고 개인간 혹은 기업간에 정보를 공유하고자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임.
- 또한 에밀리아 로마냐는 리얼 서비스 센터와 같은 기업지원을 위한 제도적 환경을 정착시킴으로써 지역의 소규모 기업들이 현대화되고 경제적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지방정부의 개입주의 정책으로 잘 알려져 있음. 다시 말해서 에밀리아 로마냐 지역 전체의 균형적 경제성장은 이 지역의 강한 조직적 전통과 적극적인 공공기관의 노력 결과라고 볼 수 있음.

2) 에밀리아 로마냐 지역산업정책의 추진 현황

- 오늘날 에밀리아 로마냐 지역인 이탈리아에서 롬바르디아(Lombardia) 및 라치오(Lazio)와 더불어 경제적으로 가장 성장한 지역으로 발전하게 된 배경에는 에밀리아 로마냐 지방정부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산업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 따라서 에밀리아 로마냐 지역의 산업정책은 3단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제 1단계는 물적 기반 구축기로, 2차 대전 후 신생기업뿐만 아니라 기존의 중소기업에게 매력적인 산업 활동 기반을 제공하기 위하여 산업단지를 조성

하는 등 산업발전에 필요한 물적 인프라를 구축한 시기임.

- 그 배경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취지와 더불어 에밀리아 로마냐 지역 내에서 산업화가 진전된 지역과 그렇지 못한 낙후 된 지역간의 발전의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주로 낙후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전략을 채택하였음.
- 제 2단계는 제조업에 기업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능별·산업별 서비스를 설립한 시기임. 1972년에 에밀리아 로마냐를 비롯한 이탈리아의 개별 지역들은 중앙정부로부터 지역 산업정책에 대한 권한을 이양 받게 되었음. 이에 에밀리아 로마냐 지방정부는 1974년에 지역의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 개발기구로서 ERVET SqA(Ente Regionale per la Valorizzazione Economica del Territorio)를 설립하였음.
 - 지방정부와 지역의 민간경제주체들의 공동 출자를 통하여 설립된 ERVET SqA는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지원하고자 하는 통합적인 성격의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기구임.
 - 지방정부를 대신하여 지역개발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계획 및 실행업무를 담당하는 ERVET SqA가 설립된 이후 산업별 리얼 서비스 센터들이 잇달아 설립되기 시작하였음.
 - 산업별 서비스센터들 가운데 가장 먼저(1976년)설립된 세라믹 산업의 서비스 공급을 위한 Centro Ceramico를 필두로, 1980년에 까르피의 특화 산업인 섬유 제조업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센터인 CITER가 까르피에 설립되었음. 그 이후 CESMA(농기계기술센터), CERCAL(신발·가죽산업지원센터)등과 같은 기능별·산업별 서비스센터들이 해당 산업이 특화된 지역들에 설립되기 시작하였음.
 - 이러한 서비스센터들이 설립된 주요 목적은 각 산업지구의 특화된 산업부문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의 성장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 제 3단계의 산업정책은 전 산업에 걸쳐 기업서비스를 제공하는 범산업적(수평적) 서비스 센터를 설립하는 시기임.
 -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기업들의 신기술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서 전 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센터가 필요하다는 요구는 제조업 지원에 있어서의 지역산업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음.
 - 이 시기에 에밀리아 로마냐의 지역기술이전센터인 ASTER가 설립되었음. ASTER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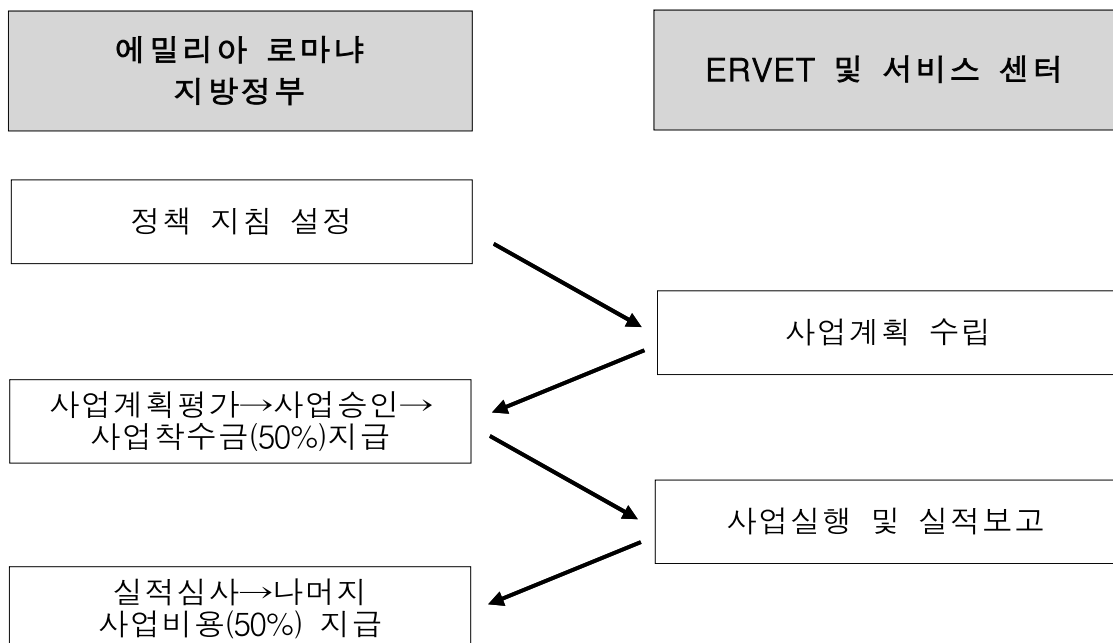
대외적으로 명시한 설립목적은 중소기업들의 혁신과 연구에 관련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이 외에 CERMET(품질연구·인증센터)과 DEMOCENTER(산업자동화서비스센터)등 도 수평적·범산업적 서비스센터로의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 설립되었음.

- 범산업적 서비스 센터들이 설립되기 시작한 이후에도 산업별 서비스 센터인 QUASCO(건설 산업 연구·인증센터)가 1986년에 설립되었기 때문에 1985년과 1986년은 서비스 센터들의 유형에 따른 정책의 단계가 중복되는 전환기의 양상을 보이고 있음.
- 따라서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하여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는 산업특수적인 서비스 센터들이 주로 설립된 시기이며,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범산업적 서비스센터들의 설립을 통해 지역 전체의 산업 수요를 반영하여 지역 전반의 혁신체제 잠재력을 제고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둔 시기라고 구분 할 수 있음.

3) 지역개발기구의 역할 및 운영체제

- ERVET SqA는 민·관 파트너십의 합작품으로서 이는 ERVET SqA의 소유권 구조를 통해 알 수 있음. ERVET SqA의 소유권 구조를 살펴보면, 에밀리아 로마냐 지방정부가 지분의 80.04%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며, 나머지는 지역 금융기관(18.51%), 지역 상공회의소들과 에밀리아 로마냐 지역의 하위 지방자치단체(0.92%)및 지역의 산업협회(0.53%)가 보유하고 있음. 따라서 ERVET SqA는 준공공기관의 성격을 띠는 법인체라고 할 수 있음.
- ERVET SqA는 지방 정부에서 입안된 각종 지역경제발전 계획을 추진하고 사업화하는 실무 주체일 뿐만 아니라 지역개발과 관련된 이슈들을 찾아내고, 응용연구 프로젝트를 만들고 이를 실행하며, 기술이나 시장에 대한 정보를 수집·가공·확산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에밀리아 로마냐의 지방정부법 No. 255에서 ERVET SqA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i) 지역기술이전 센터(ASTER)등 지역의 각종 리얼 서비스 센터들을 통괄하는 조정자로서 특정 산업부문과 사업영역을 초월한 통합적인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실행.
 - ii)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
 - iii) 지역 기업들을 위한 정보제공 및 기술지원활동을 담당.

- ERVET SqA가 담당하는 주요 업무는 기술 및 시장동향 파악, 제품 및 공정 테스트 서비스, 계획은 입안과 실행, 그리고 공공정책의 평가 등이 포함됨. 또한 ERVET SqA는 산업인력의 교육·훈련, 토지이용, 환경, 관광, 농업, 사회서비스, 도시 개발 및 재활성화, 그리고 교통체계등과 같은 지역발전과 관련된 전반적인 분야에서의 프로젝트들을 계획하고 입안하는 역할도 담당.
- ERVET SqA가 실행하는 프로젝트의 대부분은 EC(European Commission)나 이탈리아 정부의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동으로 자금 조달을 받고 있는 다른 지역의 조직(기구)들과 협력관계를 통해서 실행되고 있음. EC와 다른 국제기구들 뿐 아니라 ERVET SqA는 전 세계의 기술지원과 기술개발 프로젝트들과 협력관계를 맺고 공동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음.
- ERVET SqA의 운영 시스템은 에밀리아 로마냐 지방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 에밀리아 로마냐 지방정부는 거시적 수준에서 지역개발 및 혁신과 관련된 사업의 입안자(Planner)역할을 수행하고 ERVET SqA는 지방정부가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입안하는 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에밀리아 로마냐의 지역산업정책 결정에 주요한 보조자 역할 뿐 아니라 미시적 차원에서 이를 직접 실행하는 실무자(executor)로서의 역할을 수행함. 그러나 양자의 관계는 수직적이라기보다는 피드백을 통한 업무 추진 절차를 가진다는 점에서 상호보완적이라고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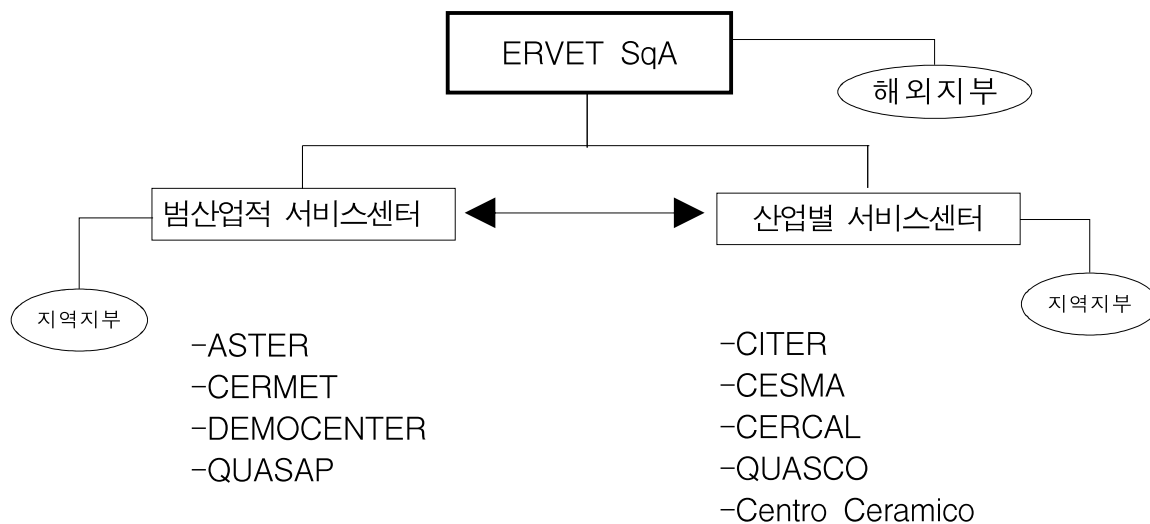
[그림 2-1] 지방정부와 ERVET 시스템간의 지역개발사업의 추진 절차

- 지역개발 및 기술혁신과 관련된 사업의 추진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에밀리아 로마냐 지방정부는 매년 지역개발 및 기술혁신과 관련된 거시적인 정책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이를 ERVET 시스템에 통보하면, ERVET SqA와 각 서비스 센터들은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세부적이며 실천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
- 지방정부는 ERVET 시스템의 각 센터들이 수립한 구체적인 사업계획들을 취합·검토하여 시의성과 타당성을 가진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승인한 후 ERVET SqA를 비롯한 해당 사업주체에 사업 착수금조로 총 사업비의 50%를 우선 지급함.
- 지방정부는 사업 중간평가 작업을 통해 실적에 따라 나머지 사업비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지역개발 및 혁신관련 사업의 추진절차를 운영하고 있음. 이러한 지방정부의 거시 정책 가이드라인을 실행하는 것과 관련된 사업의 비중은 ERVET 시스템의 연간 총 사업비의 70~80%를 넘지 않는 수준임.
- ERVET SqA와 서비스 센터들은 그들만의 독자적인 사업을 계획·추진하기도 하는데 이와 관련된 사업비용은 지방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기도 하고 때때로 EU의 지역발전 프로그램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기도 함. 이와 관련된 사업 내용은 산업발전과 기술혁신의 영역뿐만 아니라 하부구조, 복지, 공공행정 등의 분야를 포괄함.

(1) ERVET 시스템의 조직

- 1980년대 중반부터는 특정산업을 초월하여 에밀리아 로마냐 지역 전체의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센터들이 설립됨으로써 지역 전체의 기술혁신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서비스 공급정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하였음.
- 범산업적 서비스 센터로는 지역기술이전의 촉진을 통해 지역기업의 기술혁신 능력을 제고하고자 설립된 ASTER(기술이전센터)와 제품 및 생산 공정에 있어서의 품질 연구 및 인증 서비스를 통해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CERMET(품질연구·인증센터)등이 대표적임.
- 그 후 1990년도에 산업자동화 서비스센터인 DEMOCENTER가 모네다(Modena)에 설립되면서 ERVET SqA와 9개의 서비스센터를 중심으로 한 ERVET 시스템이 완성되었음.

- ERVET 시스템에서 ERVET SqA는 모조직의 역할을 담당하지만 개별 서비스 센터들은 운영의 자율성을 가지고 특정분야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상호 수평적인 관계구조를 지니고 있음.
- ERVET SqA는 개별 서비스센터들의 활동목적과 활동방향을 정하고 혁신적인 기업서비스를 개발하도록 장려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하위서비스 센터들을 조정하고 금융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음.



[그림 2-2] EVERT 시스템

- 서비스센터에 대한 금융지원의 정도는 각 서비스 센터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이들 서비스센터들은 ERVET SqA뿐만 아니라 다른 법적 기구들을 매개로 에밀리아 로마냐 지방정부에 의해서 일정한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음
-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 이사회는 주로 업체 대표 및 산업협회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서비스센터의 대표는 지역산업협회의 대표가 겸직하고 있음.
- ERVET 시스템의 서비스 센터들은 크게 산업별 서비스 센터와 범산업적 서비스센터로 구분됨. 전자는 산업지구별로 특화된 산업들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후자는 혁신, 기술이전, 그리고 생산 자동화 등과 같은 전 산업을 포괄하는 관심분야를 다루고 이와 관련된 각종 기업지원 서비스를 전 산업 분야에 제공하고 있음.

- 1990년대 초반, 이탈리아 경제는 침체기에 접어들게 되고 설상가상으로 정치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음. 이 시기에 ERVET SqA와 리얼 서비스 센터들의 전반적인 성과에 대한 평가조사가 시행되었음.
- 평가 결과 기업지원성과가 미진하고 자생력이 떨어지는 몇몇 서비스센터들은 그 필요성에 따라 폐쇄하거나 민영화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한편 성과가 양호한 서비스센터들의 기능은 더욱 고도화 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ERVET 시스템 전체의 기능을 재편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음.
- 그 일환으로 1993년 4월에 개정된 지방정부법 NO. 25가 통과되고 이 법률을 기반으로 ERVET 시스템의 재구조화가 실질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하였음. 그러나 ERVET 시스템의 대한 평가를 통해 ERVET 시스템은 에밀리아 로마냐의 지역혁신 체제를 향상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기여를 해왔고 앞으로도 지역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이끌어 냈음.
- 따라서 1990년대 중반 이후 ERVET 시스템이 실시하는 정책들은 더 이상 지역생산체제의 양적 성장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시장에서 제공해 줄 수 없는 기업의 혁신에 필요한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서 지역전체의 경제적 성과와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두게 되었음.
- 따라서 정책수립도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업서비스를 사전에 확인한 후 이를 토대로 새로운 정책이 구상되고 실행되는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었음. 즉, 정책 과제 발굴을 위해서 지역산업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수요자인 지역기업들 및 협회와 긴밀한 공조체제를 확립하여 지역산업이 나아갈 비전을 명확히 설정한 다음 구체적인 정책을 기획·시행하였음.

[표 2-2] ERVET 시스템의 서비스센터

센터명	활동분야	입지	설리년도	ERVET지분	고용
산업별서비스 센터					
CITER	섬유정보센터	Carpi	1980	25.0%	19
CESMA	농기계기술센터	Reggio Emilia	1983	40.0%	7
CERCAL	신발·가죽산업지원센터	San Mauro Pasoli	1983	47.0%	6
QUASCO	건설산업 연구·인증센터	Bologna	1986	44.1%	11
Centro CEramico	세라믹산업 연구·시험센터	Bologna/Sassudo	1976	-	40
범산업적 서비스 센터					
ASTER	지역기술이전센터	Bologna	1985	72.9%	31
CERMET	품질연구·인증센터	Bologna	1985	32.0%	40
DEMOCENTER	산업자동화서비스센터	Modena	1990	29.2%	-
QUASAP	공공사업 수·발주 관리센터	Bologna	-	-	-

(2) 리얼 서비스 센터의 역할

- ‘리얼 서비스 센터’의 주요 활동영역은 제품혁신, 공정혁신, 조직혁신, 기술이전, 제품테스트 및 신연, 제품 및 생산 공정 중에 대한 품질 인증, 기술 및 시장 동향 등 각종 사업정보 제공, 교육·훈련 등 매우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음.

■ ASTER(지역기술이전센터)

- ASTER는 에밀리아 로마냐 지역의 범산업적 기술이전센터로서 1985년 에밀리아 로마냐 지방정부와 ERVET SqA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기구임.
 - ERVET의 운영이사회는 ENEA(국립에너지환경기술연구소), 지역 상공회의소, 지역산업협회, 중소기업연합회 등의 대표자들로 구성됨.
 - ERVET 보유한 초기자본의 규모는 52만 유로이며, 지분소유 구조를 살펴보면 모조적인 ERVET SqA가 37%, ENEA(10%)와 CNR(20%)등 국책 연구기관들이 30%, 보로나 대학 등을 포함한 지역대학들이 20%, 지역상공회의소와 기업협회들이 8%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음.
- 에밀리아 로마냐 지방정부는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지역 중소기업들에게 대학이나 연구소(ENEA, CNR)에서 개발된 신기술을 지역 중소기업들에게 이전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1985년에 ASTER를 설립.

- ASTER는 기술이전과 혁신프로젝트 추진, 기술 혁신과 경영에 관한 기술적 지원, 국내외에 기술이전 파트너 탐색, 기술정보 제공, 자금조달, 그리고 EU와 같은 기관들과의 대외 관계 중계 등의 측면에서 매개 기능을 수행.
- 이와 더불어 ASTER는 기술이전 프로젝트의 결과를 지역 중소기업들에 확산시키기 위해서 워크숍과 세미나를 개최하고 매뉴얼, 가이드, 신문 및 기타 출판물 등과 같은 명시적 형태의 지식화 작업을 통해 중소기업들에 다양한 학습채널을 제공함으로써 지식의 흐름과 확산을 도모하고 있음.
- ASTER는 지역 내 중소기업들을 위한 기술이전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에밀리아 로마냐 지역의 혁신 능력을 제고하고 집단 학습문화를 고취시키기 위해 에밀리아 로마냐 지역에서 혁신을 주도하는 경제주체들을 중심으로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들을 통해 다양한 혁신 프로젝트들을 추진하고 있음.
- 산·학·연 네트워크의 주요 참여기관으로는 ASTER를 비롯해 지역의 주요 대학들인 볼로냐 대학교, 모데나 대학교, 페라라 대학교와 에밀리아 로마냐 지방정부, 산업협회, 그리고 중앙 정부산하 연구기관인 CNR(국립과학기술연구원) 및 ENEA(국립에너지환경기술연구소)등이 포함됨.
- 이러한 지역 내 경제주체들 간의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뿐만 아니라 지역전반에 걸쳐 혁신 노하우와 기술을 확산시키기 위해 유럽공동체, 유럽의회, UNCTAD, WDA, Kitakyshu Lodan(일본)등을 포함하여 24개 이상의 국제기구 혹은 지역개발기구들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음.

■ CITER(의류·패션산업정보센터)

- 까르피(Carpi)에 소재한 섬유산업정보센터인 CITER는 까르피 니트웨어 산업지구의 중소기업들이 저부가가치 제품 중심의 생산구조를 가진 결과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는데 위기감을 느끼고 1980년에 지역 중소기업들과 ERVET SqA가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서비스 센터임.
- CITER의 자본규모는 20만 유로이며, 이 가운데 ERVET SqA가 2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민간기업들이 출자한 지분이 57.7%, 의류·패션산업관련 협회들이 11.5%를 보유해 민간기업 및 협회보유지분이 약 70%에 달해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중심의 소유권 구조를 가진 ASTER와는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음.

- CITER는 다른 서비스 센터에 비해서 탁월한 서비스 성과로 인해 에밀리아 로마냐의 리얼 서비스 센터들 중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음. 1990년에 이미 CITER는 운영자금의 70%이상을 독자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추게 되었음. CITER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시장에서 기업들이 요구하는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하였기 때문임.
- CITER의 주된 역할은 패션동향(컬러, 재료, 주제), 시장, 그리고 기술에 관련된 정보서비스 제공, 시장개척, 소비동향분석, 기술혁신과 정보시스템에 대한 정보제공 등 에밀리아 로마냐 지역의 중소기업의 의류제조업체들이 자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 CITER는 새로운 시장, 장비, 그리고 혁신에 대한 정보의 지속적 흐름을 촉진할 뿐 아니라 지역에서 생산 활동을 하는 섬유업체들의 일상적 기술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즉각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 센터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CITER는 패션산업 R&D와 관련된 국내외의 기관들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탈리아 및 EU의 여러 기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섬유·의류산업 분야의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를 구상하는데 상호협력하고 있음.
- 이와 더불어 CITER는 의류·패션업체들과 지역의 경제주체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조직하고 있으며, 정보보급을 위하여 섬유·의류 산업관련 정기간행물을 출간하고 있음.

4) 시사점

-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산업정책에 있어 지역혁신체제 구축이나 산업 클러스터 구축이라는 주제가 많은 정책적 관심과 학문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지역혁신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지역혁신체제가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상호 연관된 부문 간 네트워킹을 촉진하는 환경의 조성과 가치사슬에서 연계된 산업부문간의 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음.

-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역할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과학기술부 등 중앙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이 담당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이러한 정부 하위조직들은 지역의 개별 주체들과 선형적인 연계관계를 초월하여 지역혁신체제와 산업클러스터를 구성하는 주체들 간의 상호작용적인 관계성과 학습네트워크로 묶어주는 네트워크 허브로 기능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이와 더불어 이러한 거버넌스 구조 하에서는 정책의 투명성, 일관성, 효율성, 그리고 계획의 지속성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산업클러스터의 혁신체제를 구축하는데 한계가 있음. 그러므로 지역의 경제 주체들을 네트워크로 한데 묶어 줄 수 있는 준공공적 성격의 매개자가 필요하며 그러한 매개자 기능을 가장 적절하게 해 낼 수 있는 기구가 바로 지역개발기구임.
-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세계적으로 성공적이라 평가받고 있는 이탈리아 로마나의 지역개발기구인 ERVET SqA와 리얼 서비스 센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우선, 준공공조직으로서 ERVET SqA와 리얼 서비스 센터들은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할 뿐 아니라 해당 지역의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리얼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적 활동을 하고 있음.
- 또한 ERVET 시스템은 대학·연구기관과 기업들을 네트워크 관계로 묶어냄으로써 이들 간에 필요로 하는 지식과 정보가 원활히 이전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해 왔음.
- 뿐만 아니라 해외 여러 나라의 기관들과 네트워크 관계를 구축하고, 이들을 통해 지역기업들에 필요한 선진지식을 학습하고 이를 지역에 전파하는 세계로 열린 네트워크 매개자 기능도 담당하고 있음.
-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ERVET 시스템은 지난 30여년 가까이 에밀리아 로마나 지역혁신체제의 중추적 매개조직이자 기업지원 서비스 조직으로 발전해 왔음.
- 우리나라의 지역산업정책 및 지역혁신정책 틀은 여전히 하드웨어 중심이며, 지역의 고유한 성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공급중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 또한 지역혁신체제를 구성하는 주요 주체인 산·학·연·관 제

도들이 유기적인 협력 관계 속에서 시너지를 창출하기보다는 원자화된 개별 행위자로 파편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혁신체제의 잠재성이 매우 낮은 실정임.

- 더구나 정책의 기획→수립→실행→평가 단계가 수직적이거나 투명하지 못한 의사결정 구조를 가짐으로써 정책결정 자체가 태생적으로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지역혁신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각 광역자치단체 별로 ERVET 시스템을 비롯한 선진 지역개발기구의 운영사례를 설립하는 것이 필요함. 즉, 지역별 지역 개발기구는 매개기관으로서 지역혁신체제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들을 조정·통합할 뿐만 아니라 통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지역혁신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평가·실행하는 것을 주요한 운영목표로 삼을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지역의 산·학·연 네트워크가 효과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 기업들의 수요를 적절히 충족시켜줄 뿐만 아니라 경쟁력 제고로도모하는 리얼 서비스 센터들을 통합 지역개발기구의 하위 조직으로 설정하고 운영하는 방안도 동시에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프랑스

1) 프랑스의 신도시

- 1960년대 후반부터 파리 등 인구밀집 지역의 1960년대 후반부터 무질서한 도시성장에 대처하기 위하여 프랑스 정부는 파리근교에 5개, 기타 주수도 주변에 4개 등 9개의 신도시를 건설하기로 결정.
- 신도시의 계획과 건설과정에서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데 이중에서도 자주적 권한을 지닌 신도시 개발공사(EPA)의 역할이 중요함. EPA는 해당 지방정부 및 중앙정부와 논의하여 신도시개발계획안을 작성하는데 여기에는 장기기본개발계획(SDAU), 세부적인 토지점용계획(POS), 지구개발계획(PAZ) 등이 포함됨. 또 EPA는 신도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계획을 지방정부 및 중앙정부에 제출하며 주택건설, 고용창출, 토목 및 교통시설공사 등을 일관성있게 감독.
- 한편 EPA는 국가를 대신해서 장기토지매입사업, 간선도로건설 등을 담당하며 지방정부 대신 시행하는 사업에는 취수장, 하수도, 배수시설 등 1차 기반시설과 교육, 체육보건시설 등이 포함되는데 이러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는 중앙정부로부터의 보조금으로 충당. EPA의 가장 중요한 수입원은 주거용 토지매각 대금. 신도시에 건설되는 주택은 대부분 국가의 보조를 받는 주택이므로 EPA 택지공급가격, 특히 임대주택건설용지 공급가격은 중앙정부의 통제. 그러나 공업용지나 사무실건설용지 분양가격은 대체로 시장여건에 의해 형성.
- 끝으로, 민간개발을 가능케 하는 제도로써 개발협의지역(ZAC)을 들 수 있음. 개발지역협의에서는 주택용지, 상공업용지의 확보 등 포괄적인 시가지개발과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사업에 대해서도 구역의 지정이 가능. ZAC내에서는 규제가 블록단위로 행해져 필지 단위의 규제시보다 높은 용적율이 적용. 또한 상하수도, 학교, 병원 등 기반시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발업자에게 부동산 평가액 대비 세율 1-5%의 설비 지방세를 부과하는 대신 일정한 시설정비를 의무화 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개발주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모두에게 유리한 방안을 선택하도록 함.
- 프랑스의 경우 1940년대 중반이후 파리를 중심으로 한 대도시권의 성장은 인

구의 과밀, 지역불균형, 도시 기능의 중앙 집중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발생. 그라비는 1947년에 <파리와 프랑스 사막> 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지역문제의 심각성을 말하였는데 그는 프랑스의 국토공간구조를 중심지-변경 모델로 보고 파리와 지방도시의 지역 간 격차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함.

- 프랑스의 대표적 신도시 중에서 가장 먼저 개발이 이루어진 이브리는 인구수 용목표가 약 50만명이나 되는 대규모 신도시로서 면적은 넓지만 인구밀도는 56명/ha 밖에 되지 않음. 유럽의 다른 신도시들도 마찬가지로지만, 여기에서도 기존의 마을들을 그대로 보전하여 계획에 수용하였으며, 이 때문에 도시가 비교적 빠른 기간 안에 개발. 도시구조상의 특징은 주거지역은 비교적 고밀도로 유도하고, 그 대신 도시내부에 큰 녹지와 공원을 조성하는 점. 주거지의 건물은 도시형 연립주택이 대부분이며, 대개는 4-5층 이내의 저층으로 어느 한 건물도 같은 것이 없는 다양한 형태를 취함.
- 파리 주변에 건설된 신도시는 처음에는 경제적 자족성을 강조하여 고용지수를 높게 책정하고 통근인구의 증가로 인해 도시의 자족성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함. 프랑스의 도시정책에서 신도시가 갖는 특징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신도시의 상업지역이나 중심지의 고밀도 개발(에브리 신도시, 마르나 발레 신도시).
 - 둘째, 신도시 교통망의 확충과 공공하부구조의 건설 및 배치형태에 있어서 창의적인 도시계획 수립.
 - 셋째, 신도시의 계획인구규모가 크다는 점. 신도시의 인구규모는 최소 평균 30만명이상 170만명에 이름.
 - 넷째, 도시기반시설을 갖추고 도시이미지 조성에 신경을 쓴 후에 주택건축을 실시함으로써 입주주민의 불편을 덜어 줄 수 있음.

2) 파리의 신도시 개요

(1) 개관

- 1965년 파리주변의 5대 신도시 건설결정.
- 신도시개발공사(EPA)를 설립하여 신도시건설 추진.
- 자족성이 있는 신도시로 계획 (신도시별로 상호보완기능).

- 유명 건축가들의 작품이 산재된 도시건축의 거대한 실험장.

(2) 파리 주변의 5대 신도시 제원 및 특징

- 파리의 50%수준인 주택가격과 넓은 녹지 및 공지의 확보로 주거환경의 쾌적성 제고.
- 현상설계를 통한 다양한 주거형태의 실험장.
- 파리와의 접근성 양호 (TGV, RER고속전철, 일반전철,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 등 다양한 교통수단 제공).
- 첨단산업으로서 정보통신산업의 유치 (생강땡-이블린의 영상회의센터, 마르느-라-발레의 영상 및 정보산업단지).
- 각 신도시마다 대학이 입지 (건축학교, 토목학교, 공과대학 등) : 대학유치를 통하여 신도시의 초기인구 정착을 유도하는 정책.
- 50%를 넘는 높은 고용자족율.
- 유치업종의 다양화로 경기침체에 대비.

구분	세르지-뵁뚜와즈	에브리	마르느-라-발레	믈렁-세나르	생강땡-이블린
도심에서 거리(km)	30	28	13	30	20
인구수(인)	180,000	75,000	218,000	82,000	140,000
주택수(호)	65,000	27,700	75,000	26,000	44,000
면적(ha)	8,000	4,100	15,000	11,800	7,000
개발년도	1969	1969	1972	1973	1970

[표 3-1] 파리 주변의 5대 신도시 제원 및 특징

3) 라데팡스(La Defense)의 개요

(1) 배경 및 개발 Concep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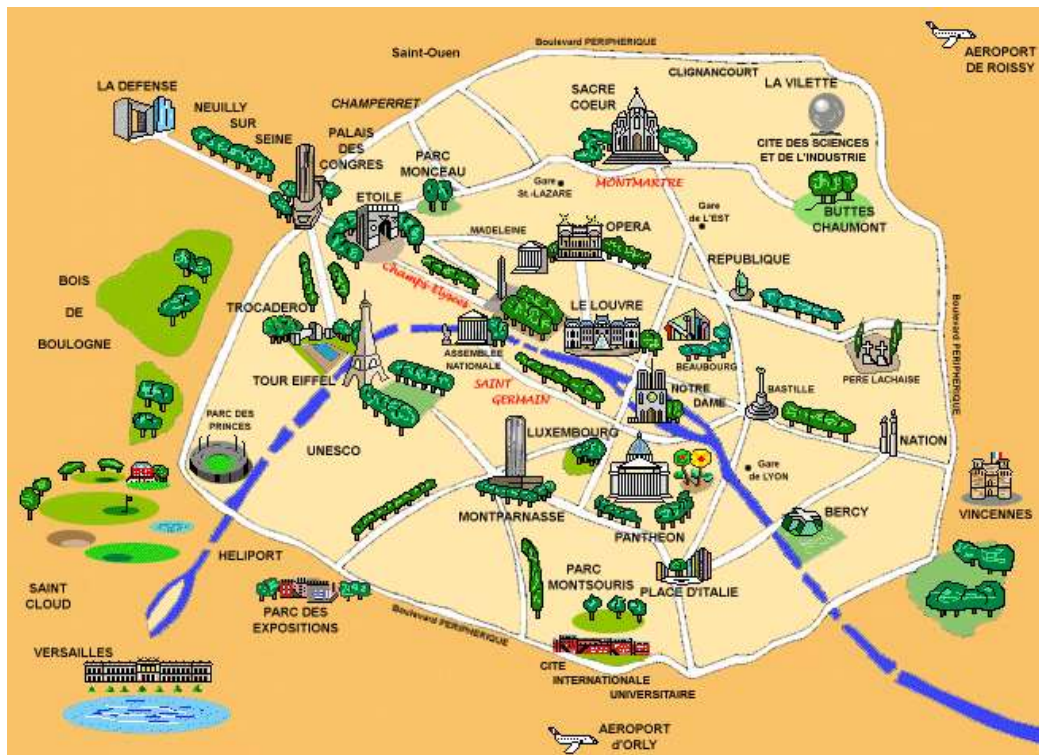
- 유럽 최대의 비즈니스파크(업무단지)인 프랑스 라데팡스(La Defense). 세느강을 사이에 두고 파리도심의 서북쪽에 있는 라데팡스는 유럽 신도시 개발의 대명사. 라데팡스는 특히 새로운 주거 공간 확충이라는 일반적인 개념이 아닌 업무기능 창출에 주안점을 두고 개발된 "경제 지향적" 신도시의 전형으로 꼽힘.
- 라데팡스 개발계획은 개발한계에 부딪친 파리의 업무기능과 인구를 분산하기 위해 수립되었음. 더욱이 라데팡스는 과거 파리의 관문 역할을 한 지역이었고 게다가 개

선문에서 일직선대로(그랜드 아미)로 파리로심과 이어져있어 최적의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었음.

- 라데팡스는 파리 중심부에서 서쪽으로 약 6km에 위치한 프랑스의 대표적인 개발 사례. 파리 시내의 주요 건축물이 19세기 나폴레옹3세 집권시에 도시계획이 완성되어 현재에 이르렀고 이러한 19C 건축물을 내부개조를 통해 상업시설로 활용한 반면 라데팡스는 도시외곽의 신도시를 조성, 업무·주거·상업·숙박·문화 등의 복합 기능의 부도심을 형성한 대규모 복합단지임. 프랑스 최대기업 20개 가운데 14개 기업의 본사가 이곳에 있음.
- 라데팡스 개발의 의의로는 파리권의 이 같은 강점을 더욱 살리고 약점을 보완하는 개발의 기본이념을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업무지구의 확충과 기존 산업연구부문의 체계화와 종합화를 정보화라는 흐름에 반영했다고 할 수 있음.
- 라데팡스 지구의 개발을 통해 현재는 약 10만명 이상의 관리직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을 수용하고 있는 900여 개의 회사는 프랑스 정부예산과 거의 맞먹는 매출을 기록.



[그림 3-1] 라데팡스 전경



[그림 3-2] 라데팡스 위치도

(2) 라데팡스 지구 개발사업 과정

- 1956년 정부의 개발계획 승인.
- 1958년 라데팡스지구 정비공사(EPAD)가 개발의 주체가 되어 225만평(750ha)에 달하는 이곳의 개발계획 수립.
- 1964년 마스터플랜이 완성.
- 1970년 마스터플랜 변경계획.
- 1988년 2단계의 과정을 거쳐 개발의 대강이 완성되었고, 파리의 라데팡스에서 완공한 신개선문 사업을 시발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후속적인 건설 사업이 추진.

(3) 규모 및 시설구성

- 라데팡스는 파리 서측 도심중심축상 상징적인 개발계획에 의해 개발된 대규모 복합기능 시설. 이러한 상징적 의미를 대표하기 위해 연면적 36,000평, 층수 35층, 건물높이 110m의 프랑스 혁명 2백주년 기념물로 제 2의 개선문을 건립.

- 라데팡스는 독특한 디자인이 구현된 각 건물의 개성이 장르의 종합이라는 하나의 분위기로 창출되는 특징을 지니며 단지전체에 조형물, 공원, 광장 등 체계적으로 배치함으로써 도시적 이벤트 및 활동을 유발시키고 도시, 건축, 조각, 오픈스페이스를 일체화시키려는 기획력이 돋보임.
- 인공지반의 도입과 다층구조에 의한 도로, 철도, 지하철, 주차장 등의 입체 교통시스템 처리 등이 그 일례라고 할 수 있음.

구분		주요내용
위치		파리 중심부 서쪽 6km 지점
규모		- 부지면적: 약 230만평 - 투자규모: 약 25,7000억원
개발 컨셉		- 업무, 주거, 상업, 숙박, 문화 등의 복합기능 - 파리 서측 도시중심축사의 기념비적 개발
시설 구성	상업기능	- 6만평: 대형전문상가 등
	주거기능	- 2만호
	문화·위락기능	- 국제회의장(55,000평), 자동차 박물관, IMAX 극장, 시청
	기타	- 옥외 조각 전시장, 인공지반, 공공정원(33,000평) - 주차장 25,000대 규모

[표 3-2] 라데팡스의 개요

(4) 토지이용 구성

- 개 황
 - 라데팡스 지구는 파리의 중심 콩코드 광장에서 북서로 약4Km, 꾸불꾸불 흐르는 세느강에 걸쳐 있는 일대의 구역.
 - 파리에서는 시를 둘러싼 성벽으로 교외로의 시가지 확대가 막혀 있고 전후의 인구 증가와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초 과밀의 상태. 이를 위해 정부는 1960년의 파리 수도권 계획으로 교외로의 인구 분산을 꾀하는 한편 도심의 포화된 업무시설을 번두리로 옮기고 이렇게 함으로서 업무시설 건물을 주택으로 바꾸도록 결정. 1964년의 종합계획 확정까지 실제 파리 수도권계획과 부합된 계획으로서 굳혀져 상제리제를 중심으로 한 파리의 중심축의 연장선상에서 국제적 수준의 업무지구를 조성하려는 것으로서 구주공동체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힘을 보여주는 일환으로서의 기대도 담겨져 있음.

- 라데팡스 지구는 상업, 업무중심의 A지구와 주거중심의 B지구로 크게 나뉘어 있음.

○ 계획 및 사업

- A지구는 많고 다양한 초고층 건축물로 구성된 도시계획이라는 의미에서 그 규모의 크기에서 획기적인 것이며, 업무용 빌딩 26개동, 주택 7개동 및 철도, 도로 등을 포함한 도시축으로 구성되어 있음.
- A지구의 계획 책정의 경위는 다음과 같음.
 - 1955년 업무지구 건설에 관하여 세느 현 의회가 제안
 - 1958년 라데팡스 지구 정비 공사(EOAD)설립
 - 1964년 마스터플랜 승인
 - 1967년 제1호 초고층인 노벨빌딩건설
 - 1970년 마스터플랜의 변경(건축물 형태의 자유화), ZAC(협업정비구역)변경, 용적률의 완화
- 이 계획은 당초의 마스터플랜에서 사무실은 초고층 30층 건물, 주택은 중층의 8층 건물로서 4각형, 상업용은 저층으로 되어있고 또한 각 건물의 평면은 42M*24M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개성이 없는 획일적인 경관과 수요에의 부적응이 문제로 된 결과, 1970년의 계획의 수정으로 이들 건축에 대한 규제가 탄력성 있게 됨.
- 이 계획 수정은 주로 경제적인 이유에서 민간 개발자에게 환영을 받았으나 한편에서는 건설된 건물의 통일감의 결여가 문제화 된 것.
- 이 지구의 계획에 있어서는 대담하게 인공지반을 도입함과 동시에 다층 구조에 의한 교통축의 구성을 중심으로 하여 주로 기반정비를 EPAD가 하고 건축물의 건설은 민간이 시행.
- 1972년에 발표된 아 요 계획은 라데팡스 계획의 대표라고도 할 수 있는 것으로 호화 호텔과 상업의 중심지로서 Mirror Class건물 2개동, 삼각형, 사각형, 원형이라는 기하학 형태의 건물이 각 1동씩 건설되어 당해 지구의 계획의 중추가 형성됨.
- 이 사업은 결국 당초의 예정인 통일된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기 위한 건물에 대한 규제는 시행단계에서 파리 도심의 기업체의 이전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 경제적 효율성을 중시하는 방향에서 건물의 디자인, 볼륨 등의 자유화가 이루어져 결과적으로 스카이라인 및 거리의 불통일성이 문제가 된 도시계획이었음. 이 문제는 그 후의 재개발에 커다란 교훈을 남김.
- 한편 B지구에서는 주택 주체의 재개발이 이루어져 있어 원통형으로서 특이한 창문과 외관 디자인의 고층주택을 위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개발 현황

- 앙드레 말로공원이 있는 공원지역(27만평)은 주거 및 레저 교육중심 지역으로 80년대 들어 개발되기 시작. 또 파리10대학(낭테르대학)이 있는 나머지 미개발지역(150만평)은 오는 2007년까지 주거시설을 비롯하여, 각종 편익시설이 들어설 예정.
- 주택은 대부분 고층아파트로 서민주택, 학생주택, 퇴직자주택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해 건설됨. 지역별로는 비즈니스지역에 1만100여 가구, 공원지역에 5,600여가구가 있으며 이곳에 약 3만9,000여명이 거주. 현재 라데팡스에 있는 기업에서 근무하는 인원 14만여 명인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활동인구가 파리를 비롯한 외부에서 들어오는 셈. 앞으로 미개발지역을 추가로 개발, 오는 2007년까지 약 10만 명의 인구를 수용한다는 게 EPAD의 방침.
- 교육시설로는 예술성이 강조된 신도시임을 반영하듯 오페라무용학교인 파리 오페라 학교와 건축학교를 비롯해 10여 개의 학교. 이밖에 유럽에서 가장 큰 쇼핑센터인 4계절쇼핑센터(매일 5만명 이용)와 각종 편익시설이 들어있으면서 우리의 KOEX 역할을 하는 CNIT(연면적 7만여 평)등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음.



[그림 3-3] 라데팡스의 개발계획

- 이러한 도시기능 말고도 라데팡스에는 "가장 프랑스적인" 설계구조가 도시전체를 수놓고 있음. 다른 아닌 40년 가까운 개발기간동안 변함없이 적용되고 있는 "역사적 중심축(Great Axis) 연결" 작업. 라데팡스는 루브르박물관, 콩코드광장, 샹제리제 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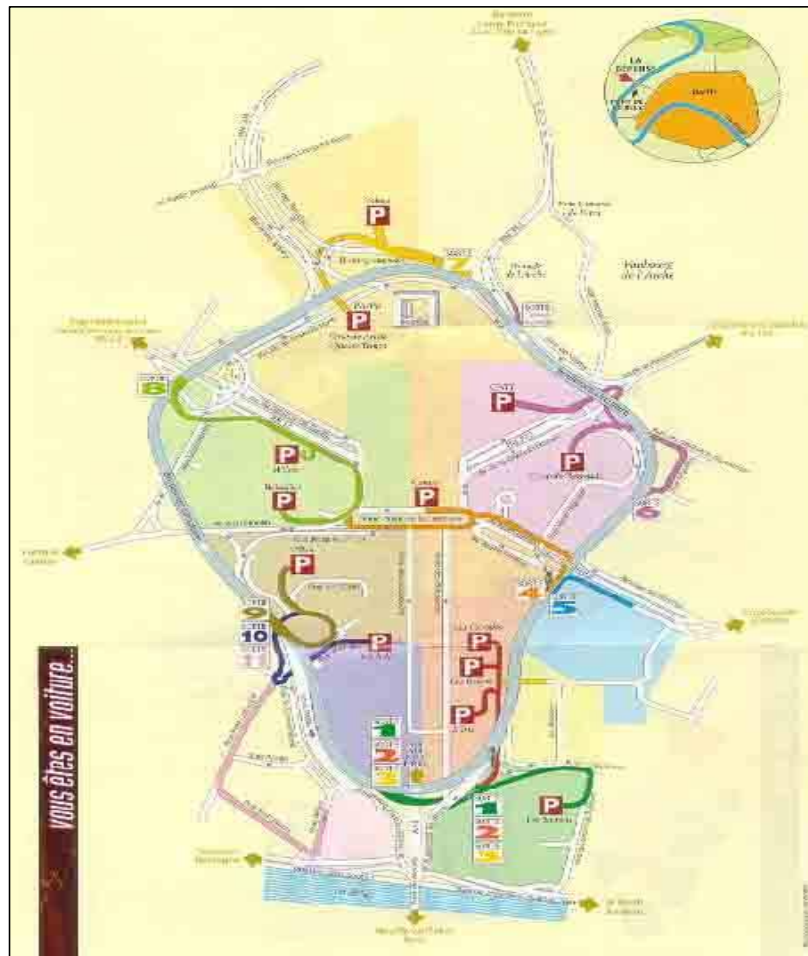
[그림 3-4] 라데팡스의 안내도

개선문 등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중심축 선상에 놓여 있음. 이를 위해 라데팡스 신도시는 낭테르 쿠르브부와 뤼토 등 3개시에서 일부 지역을 흡수, 중심축 좌우가 대칭이 이뤄지게 구획.

- 프랑스의 업무중심지로 자리를 굳힌 라데팡스. 유럽 최대의 비즈니스파크라는 분명한 성격을 규정하고 여기에 잘 맞는 완벽한 교통, 업무 환경을 창출해낸 장기적이고 일관된 계획이 "베드타운"이 아닌 "살아 숨쉬는 신도시"로 만들어낸 원동력.

(5) 교통계획 구성

- 정부보조와 건축권 판매로 조성된 자금의 대부분이 교통시설에 집중 투입됐다. 14번 고속도로(A14), 지하철인 메트로 1번선, RER(고속철도) A선, SNCF(국철), 버스 18개 노선 등을 모두 복층도시의 지하로 집어넣었음. 이는 지상에서의 도로확장, 신규도로개설 등에 따른 보상비부담, 공기장기화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고 공간이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임.



[그림 3-5] 교통체계도

- 지하철교통망은 하루에 15만여 명을 실어 나름. 이를 통해 파리주변 모든 신도시에서 1시간, 대부분의 공항에서 45분, 모든 파리기차역에서 35분, 파리의 중심업무지구(상제리제-파리증권시장)에서는 15분에 이곳과 연결됨.
- 외부에서 라데팡스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80%가 이 지하철교통망을 이용. 특히 이러한 복층 도시구조의 지하철교통망은 "보행자 지상주의"라는 새로운 환경을 창출. 관광버스를 제외한 모든 차량은 지하로 다니고 지상통행을 금지함으로써 교통사고 등의 우려가 없는 "자동차로부터 해방된 도시"를 구현.



[그림 3-6] 라데팡스 도로 현황

(6) 라데팡스 관광신도시

- 라데팡스 신도시는 프랑스에서 가장 큰 기업 활동 무대로 개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관광적 요소가 극대화된 도시. 라데팡스는 최고의 비즈니스단지를 지향하고 있으나 기능만을 중시, 무미건조한 초고층 빌딩 숲만을 건설하는 방식을 피함. 전체적인 도시설계에는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건축물에는 예술적 감각을 가미하는 한편 트인 공간 곳곳에 예술품을 설치했음. 그래서 라데팡스는 "미학과 기능이 조화된 도시"로 불리기도 함. 예술작품의 경우 세자르 미로 등 전 세계의 유명 예술가들이 참가, 60여 개의 조각품 등이 설치.
- 89년 프랑스혁명 200주년을 기념해 건설된 그랜드아치 등 대형 건축물 및 설치물로 볼거리를 이룸. 현지에서는 이들 두고 "야외박물관"이라고 부르며 실제로 많은 관광객과 조각가 지망생들의 발길이 이어짐.
- 루브르박물관~개선문~라데팡스로 이어지는 8km의 일직선 길을 일컫는 "역사적 중심축"을 살린 도시설계는 매우 인상적. 이 일직선 도로를 통해 라데팡스에서 파리의 개선문이 곧바로 보임. 중심축은 17세기부터 프랑스의 각 왕조나 정부에 의해 건설되기 시작한 일직선의 대로로 프랑스는 파리에서 라데팡스를 거쳐 북서쪽 25km에 위치한 세르지퐁트와즈 신도시 전망대까지 이 축이 연장.

- 라데팡스는 이를 관광 상품화하여 다른 신도시에서는 보기 드문 기념품상점까지 비즈니스지역 한가운데 설치해 놓고 예술작품에 대한 설명책자 10여종을 만들어 판매.



[그림 3-7] 역사의 중심축

- 그랜드아치에 전망대를 만들고 전망대에 예술작품을 전시, 외부인들을 끌어모음. 연간 방문객은 약 100만 명이나 됨. 특히 비즈니스지역의 복층구조물 위층인 지상으로는 자동차가 전혀 다닐 수 없는데도 둘러보는데 40분 걸리는 소형 관광버스만은 다닐 수 있도록 허용. 최상의 업무기능을 살리면서 "관광신도시"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있는 대목.

(7) 라데팡스의 건축물

- 라데팡스의 상징물로 중앙에 자리잡고 있는 거대한 조각적 입방체는 그 규모가 초기안보다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00m×100m로 루브르궁의 사각 궁전과 거의 비슷한 척도. 이는 내부 중앙이 빈 입방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흰 대리석으로 마감되어 아이들의 유희처럼 아주 단순하지만, 그 열린 공간은 ‘세계를 향한 창’을 표방하면서 전 지구적인 하나의 공감대 의미. 유행과 양식적인 형태를 벗어나 주변의 건물들과 달리 친근감을 주는 순수한 기념비적 의미를 지님.
- 상부 옥상을 지탱하고 있는 두 개의 아치에는 옥상으로 올라가는 5대의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이 엘리베이터는 양쪽 끝을 반원형 유리 돔으로 막은 유리 원통모양으로 고안. 비록 유리원통이라고 하지만 그 강도와 기술적 정교함은 비행기의 창유리와 비교될 정도로 단단해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



[그림 3-8] 라데팡스의 신개선문



[그림 3-9] 라데팡스의 건축물

- 라데팡스는 다른 지역에 비해 우수한 현대 건축물들이 많이 들어서 있는데, 시내 중심부에서는 건축물 보호에 따라 대규모의 신축건물을 지을 수 없기 때문임. 이 지역은 크게 상업지구와 주택지구, 공원지구로 구분됨.
- 그랑 다르슈는 하이테크 건축 기법을 사용, 천정을 구름모양의 텐트로 덮은

구조물임. 이 앞의 넓은 광장은 파리의 새로운 만남의 장소로서 여름이면 음악회나 연주회 등 많은 행사를 개최하고 있음. 새로운 현대식 건물이나마 또 하나의 역사적인 장소로 만들어 내고자 노력한 그들의 건축의식과 설계 개념이 돋보이는 건물임.

- 이곳을 현대의 개선문이며 미래를 향한 희망의 심벌이라 표현했던 덴마크 건축가 스프레켈센(Johan Otto von Spreckelsen)의 디자인과 논리적인 창의성에 경탄하지 않을 수 없음. 그러나 그는 그랑 다르슈가 준공된 것을 보지 못한 채 타계. 그랑 다르슈는 그가 죽은 뒤 프랑스 건축가인 폴 앙드로와 프랑수아 델로지가 함께 완성함.

4) 시사점

- 프랑스의 신도시는 기존 도시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로 인해 그것을 보전하는 것이 국가의 관광산업을 지켜나가는 것이라는 공감대속에 이루어진 사례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러한 문화적 유산보다는 경제발전을 추구하면서 새로운 것을 건설하고 만들어 가는데 주력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이러한 전통적인 건축양식과 새롭게 변해가는 트렌드의 적용으로 다양한 도시개발 모델을 만들어 나간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서 최근 이러한 기조를 수용하여 생태주거를 지향하는 신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프랑스의 신도시 특히 라데팡스를 보면, 매우 경제적인 논리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음.
- 구시가지보다 높은 건축물,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 참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의 실현(차로가 없는 도시 : 도로의 지하화) 등 혁신적인 도시개발 추진.
- 업무지구의 개발시 국제적인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
- 다양한 실험적인 도시설계를 통해 학문적인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관광 및 교육의 장으로 활용.
- 라데팡스는 우리나라 수도권의 신도시개발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으나 농촌

지역의 지역개발에서는 적용이 거의 불가능함. 하지만 차별화된 테마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실현 및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등은 농촌지역의 지역개발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라데팡스의 개발사례가 주는 시사점을 고려할 때, 향후 농촌개발은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농촌적인 특징으로 소규모 시가지에서의 보행공간의 확보와 보행공간에서의 다양한 활동(예술, 문화, 공연 등)을 가능하도록 기반정비를 추진.
 - 지역을 연고로 하는 기업의 도시개발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부족한 재정뿐만 아니라 활동인구의 확보 차원에서 도입이 필요.
 - 지역특성과 조화를 이룬 건축형태 및 자재활용을 통해 지역색을 차별화함으로써 지역 정체성을 재정립.

4. 영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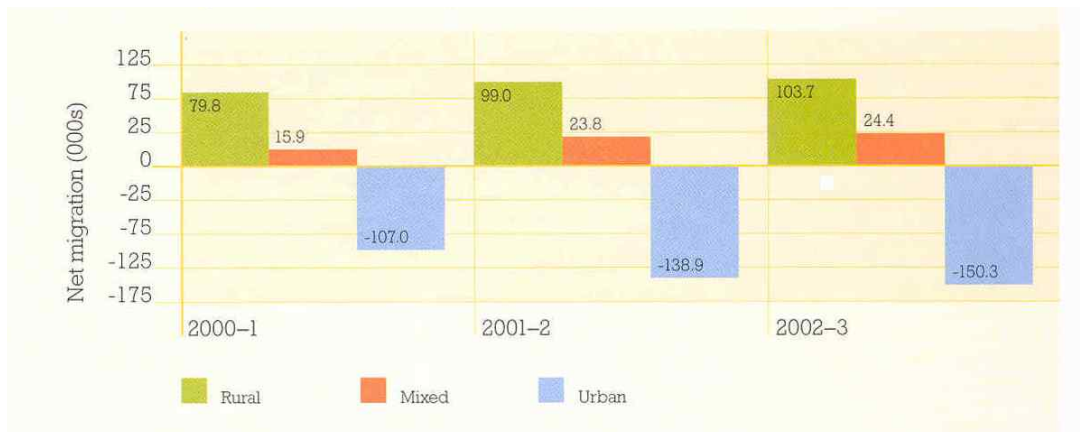
1) 영국 농촌의 일반현황

- 1980년대 이후 영국의 지역별 인구변화 추세를 보면 대도시의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소도시·산업지구·신도시 및 전원지역을 포함한 농촌지역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역도시화 현상(Counter-urbanization)’이 나타남.
- 실제로 1981년부터 2003년까지 영국 전체의 인구는 6.5% 성장하였지만 같은 기간 동안 영국의 농촌인구는 14.4% 증가하였음.

[표 4-1] 지역 유형별 인구추세 변화(1981-2003)

	Population change 1981-1991	Change as % of 1981 population	Population change 1981-2003	Change as % of 1991 population	Population change 1981-2003	Change as % of 1981 population
Rural	656,200	6.4	816,000	7.5	1,472,200	14.4
Mixed	519,100	4.2	575,500	4.5	1,094,600	8.9
Urban	-121,100	-0.5	589,200	2.4	468,100	1.9
England	1,054,200	2.3	1,980,700	4.1	3,034,900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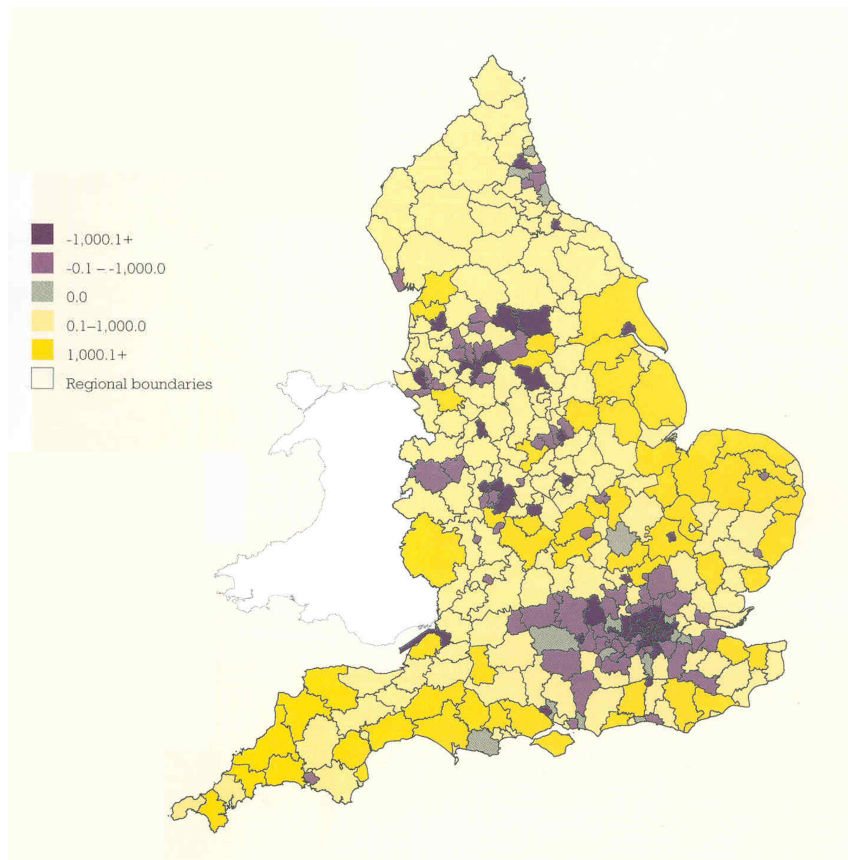
자료: Countryside Agency(2005).



자료: Countryside Agency(2005).

[그림 4-1] 지역 유형별 순인구 유입 현황

- 최근 인구이동 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 그림과 같음. 그림에 제시된 바와 같이 최근에는 해안과 농촌지역에서의 인구유입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



자료: Countryside Agency(2005).

[그림 4-2] 영국내 인구이동 결과(2002-2003)

- 또한 농촌지역의 고용구조면에서도 농업종사자 비율이 평균 10%에 불과한 반면 서비스업종사자 비율은 62%로 대도시 수준에 육박하는 현상이 나타남.
- 이와 같은 농촌지역의 인구 및 고용구조의 변화는 영국 농촌의 사회 경제구조가 기존의 농업·농민 중심에서 비농업·비농민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농촌의 사회경제적 문제와 발전을 위한 중요 이슈들이 기존의 1차 산업 중심에서 소비중심 이슈로 변화되었음을 의미함.
- 결국 비농업부분의 역할과 비중이 증대된 현재 농촌지역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업발전과 농촌발전을 동일시하는 기존정책에서 탈피해 농업뿐만 아니라 비농업 부분을 포괄하는 농촌발전정책이 필요하게 되었음.

2) 영국 농촌발전 프로그램의 주요내용

(1) 농촌발전 프로그램의 개요

- 2000년에 발표된 영국의 농촌발전 프로그램은 잉글랜드·스코틀랜드·웨일즈·북아일랜드 등 네 국가의 전국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들 각각은 각 지역의 특성과 다른 유럽연합(EU) 지역정책(목적1·2정책)의 적용 여부에 따라 농촌발전정책의 구성과 내용이 서로 다름.
-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의 농촌발전정책 규정(CEC, 1999)이 기존의 CAP에서 시행하던 동반시책(accompanying measures)과 구조기금정책에서 지원하던 비동반시책(non-accompanying measures)을 모두 포함하게 되면서, 각 지역이 유럽연합(EU) 지역정책의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농촌발전정책의 내용이 상이하게 나타나게 되었음.
- 잉글랜드 농촌발전 프로그램(England Rural Development Programme: ERDP)은 크게 전국계획과 지역계획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전국 계획은 현재 환경식품농촌부(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DEFRA)의 전신인 농수산 식품부(Ministry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od: MAFF)에서 작성한 것으로 농촌지역의 현황과 농촌발전의 목표 그리고 7년간 운용될 예산내역과 정책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지역계획은 지방행정체제와 지리적 여건을 고려해 구분된 9개의 지역에서 각각 작성된 것으로 각 지역의 사회적·경제적 현황 및 특성에 대한 분석과 구체적인 정책목표, 지원 및 예산조달, 집행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전국계획에 제시된 영국 농촌 및 전원지역에 관한 정책의 기본목표는 모든 국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영국 농촌의 독특한 환경·경제 및 사회구조를 유지·강화시키는 것이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하위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 첫째, 농촌지역의 빈곤을 제고하고, 농촌지역에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시키는 것.
- 둘째, 농촌지역주민들이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촌 공동체를 유지·발전시키는 것.
- 셋째, 야생동식물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농촌경관을 보전하는 것.

- 넷째, 일반인들이 농촌의 다양한 가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다섯째, 중앙정부·지방정부·정부기관·민간단체 간의 협력을 통해 농촌공동체에 대해 정부가 효과적인 정책을 실시하도록 유도하는 것.
- 다섯 가지 목표 중에서 영국 농촌발전정책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목표로는 첫 번째 목표인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촌경제를 창출하는 것'과 세 번째 목표인 '농촌 환경의 보존·강화'가 선정.
-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영국정부는 2000~2006년에 총 17억 파운드(약 27억 유로)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고, 각 연도별·정책분야별 배분율은 아래 표와 같음.
- 환경보존과 농촌지역에 다양한 경제활동을 창출하려는 농촌발전의 목표는 2000~2006년에 실시될 정책과 예산사용계획에도 잘 나타나 있음. 즉 약 73%의 예산을 환경농업과 농지조림화 정책에 지원하고, 특히 유럽연합(EU)규정 1259/1999의 4조에 따라서 '농업보조금 조정(Modulation)'정책을 사용해 농업환경정책 및 산림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재원을 마련하고 있음.
 - 또한 대부분의 정책분야에 대한 연간 예산지원 비율이 7년간 큰 변화는 없지만, 조건불리지역정책의 경우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4-2] 잉글랜드 농촌발전 예산지원 분야 및 계획(단위:%)

사업분야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총계
농가개선을 위한투자	0.0	0.5	0.7	1.9	1.2	1.3	1.5	1.0
직업훈련	0.0	1.1	1.2	1.5	1.5	1.4	1.8	1.3
조건불리지역 보조	28.4	22.6	18.9	15.5	12.9	9.6	8.5	15.2
농업환경정책지원	56.0	57.5	56.4	56.8	57.0	59.6	57.5	57.4
가공·유통개선사업	0.0	1.2	2.9	3.3	3.0	2.8	3.6	2.6
농지조림사업	10.4	10.5	11.1	10.8	10.1	10.2	9.4	10.3
기타조림사업	5.2	4.4	4.5	4.0	3.6	3.4	3.1	3.9
농촌기업지원사업	0.0	2.2	4.4	7.2	10.7	11.7	14.7	8.4
총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자료 : MAFF(2000a)

(2) 농촌발전 프로그램의 유형

- 농촌발전 프로그램은 토지기준 지원정책(Land-base scheme)과 사업별 지원정

책(Project-based scheme)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음.

- 토지기준지원정책들은 농지의 소유 또는 경영면적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며, 유럽연합(EU)의 조건불리지역정책으로 실시되었던 '구릉지 축산업보조정책(Hill Livestock Allowance: HLAC)'을 개정한 '구릉지 농장지원시책(Hill Farm Allowance: HFA)'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존에 동반정책으로 CAP 예산인 유럽농업지도보증기금(European Agricultural Guidance and Guarantee Found: EAGGF)의 보증부문(Guarantee Section)에서 지원하던 정책들임.
 - 이들 정책은 모두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농민에 대해서만 토지면적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 각각의 정책에 따른 보조금은 기본적으로 지역적 차별없이 영국 전역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농민은 여러 가지 정책에 동시에 지원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 다만 HFA의 경우는 기존에 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하되 지역의 농가만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ESA는 선정된 지역의 토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사업별 지원정책에 따른 지원금 농민뿐만 아니라 일반주민과 지역단체를 대상으로 함. 각 지역의 농촌발전 프로그램 시행기관인 농촌발전부(Rural Development Service: RDS)가 농민이나 단체 등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지원대상사원과 지원금액을 결정함.
 - 사업별 지원금액 중 공적예산에서 지원하는 비율은 해당사업의 공공성과 사적인 이익수준을 감안해서 각 지역 RDS가 독자적으로 결정함.
 - 토지기준 지원정책들이 주로 CAP에서 이전부터 실시해왔던 정책인데 비해, 사업별 지원정책에 해당하는 세 가지 시책들은 「아젠다 2000」 개혁에 따라 CAP에 새롭게 추가된 사업들이지만, 사실상 농촌발전 프로그램 형성 이전부터 MAFF의 독자적인 정책 또는 구조기금의 목적 1 또는 5b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던 사업들임.

[표 4-3] 영국 농촌발전 프로그램의 종류

정책분야	프로그램의 종류
토지기 준 지원시책	전원관리정책(Countryside Stewardship Scheme)
	환경민감지역정책(Enviornmentally Sensitive Areas Scheme)
	유기농업지원정책(Organic Farming Scheme)
	산림지원정책(Woodland Grant Scheme)
	농지조림지원정책(Farm Woodland Premium Scheme)
	에너지작물지원정책(Energy Crops Scheme)
	구릉지농장지원정책(Hill Farm Allowance)
사업별 지원시책	농촌기업지원정책(Rural Enterprise Scheme)
	직업훈련지원정책(Vocational Tranning Scheme)
	가공·유통사업지원정책(Processing and Marketing Grant Scheme)

* 자료 : MAFF(2000a)

(3) 농촌발전 프로그램의 주요내용

■ 전원관리 정책(Countryside Stewardship Scheme: CSS)

- 이 정책은 자연적인 미관과 야생동식물의 다양성, 그리고 역사적 또는 레저상의 가치 때문에 선정된 특정한 경관을 보존·강화·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적합한 토지의 관리·운영을 조건으로 농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임.
- 영국 전역에서 경종작물 경작지(arable farmland), 석회질 초지(chalk and limestone grassland), 해안지대(coastal areas), 도시인근 전원지역(Countryside around towns), 토지 경계물(field boundaries), 전원지역의 접근로(new access), 옛 목초지(old meadows and pastures), 옛 과수원(old orchards), 고지대(uplands), 수변지역(waterside land)등을 대상지역으로 함.
- 이외에 각 지역차원에서 독자적으로 특정한 경관 및 서식지를 보조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의 독특한 환경과 지역발전계획에 따라 각 지역의 관련단체들이 협의해 매년 조정할 수 있음.
- 보조금은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토지 또는 유적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해당토지에서 10년 동안 준수하겠다는 계약을 한 농민 또는 토지관리자에게 지급.
- 보조금액은 해당부문의 관리에 따른 소득감소분과 비용 그리고 일정한 인센티브를 감안해서 계산하며, 각 토지 및 유물의 특성에 따라 차등 지급.

■ 환경민감지역정책(Environmentally Sensitive Area: ESA)

- 1987년 이 정책을 처음 도입한 이래 현재까지 총 22개 지역은 ESA로 지정.
- 이미 선정된 22개 지역에서 농업 생산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들에게만 적용되는 이 정책은 10년간 관리계약에 동의한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며, CSS와는 달리 5년 후 농민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음.
- 대상토지면적에 상한이나 하한은 없지만 ‘전체농장규정(Whole Farm Rule)’을 적용해, 참여농민이 소유하거나 경영하고 있는 토지가 모두 ESA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전체 농지가 ESA 정책의 관리 규정을 적용받도록 규정.
- 보조금은 소득감소분과 비용 그리고 인센티브 등을 감안해서 지급하지만, 각각의 ESA 지역은 독특한 환경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급액수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음.
- ESA도 CSS와 마찬가지로 유럽연합(EU)에서 규정하는 보조금 이외에 잉글랜드 정부에서 독자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 농장의 장기적 보존계획(Conservation Plan)에 따라 ESA에서 규정한 것보다 환경보존의 효과를 좀 더 높이기 위해 추가적인 자본투자가 필요할 경우 영국정부가 별도로 지원.

■ 유기농업지원시책(Organic Farming Scheme: OFS)

- 농민들에게 유기농법을 장려해 농지의 환경보존효과를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된 것으로, 유기농산물의 정상적인 생산이 가능할 때까지 약 5년간 소득 감소분과 유기농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임.
- 특별히 지역은 지정하지 않고 잉글랜드 전역에서 1헥타르 이상의 농지를 유기농산물 생산으로 전환하려는 농민을 대상으로 지원.
- OFS에 지원하려는 농민은 영국의 유기농협회 등 관련기관에 등록하고 해당 기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함.
- 보조금액은 [표 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차별로 지급비율을 줄이고 초직보다는 경종작물을 재배하는 토지에 좀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표 4-4] 유기농업지원시책의 연차별 보금

£/ha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총액
경종작물재배 토지	225	135	50	20	20	450
기타 개간지	175	105	40	15	15	350
개간되지 않은 목초지	25	10	5	5	5	50

* 자료 : MAFF(2000a)

- 이 보조금은 소득감소분을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CSS나 ESA에 적용되는 인센티브는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데 이는 OFS 보조금을 받으면서 동시에 CSS또는 ESA 보조금을 받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임.
- 한편 농민이 등록되어 있는 유기농업 관련기관의 자문에 따라 유기농산물 생산시설을 구입할 경우 농가당 총 600파운드를 3년간 분할 지급하며, 이는 유럽연합(EU) 지원금과는 별도로 잉글랜드 정부에서 지원함.
- 이상에 세 가지 시책은 유럽연합(EU) 규정 1257/1999의 22~24조에 따른 농업-환경정책(agri-environmental schemes)의 일환으로 실시되며, 1999년 이전까지 실시되었던 기타 시책들이 이들 세 가지 시책으로 통합된 것임.
- 이들 세 가지 시책은 공통적으로 농민의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건전한 영농방법을 위한 수칙의 준수'가 보조금 지급의 기본조건임.
- 보조금의 액수는 유럽연합(EU)규정 1257/1999에 규정된 것처럼 일반적인 경종작물재배지에 대해서는 헥타르 당 600유로, 다년생작물에 대해서는 900유로, 그리고 기타 토지에 대해서는 450유로를 최고한도로 지급하지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영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지급하는 별도의 보조금이 있음.

■ 산림지원시책(Woodland Grant Scheme: WGS)

- 유럽연합(EU) 규정 1257/1999 29조~32조에 따라 잉글랜드 농촌발전 프로그램에서는 산림조성을 위해 산림지원정책(Woodland Grant Scheme: WGS)과 농장조림지원정책(Farm Woodland Premium Scheme: FWPS)등을 도입.
- WGS는 잉글랜드 전역의 농지뿐만 아니라 일반토지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산림위원회(Forestry Commission)가 운영하며, FWPS는 현재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지를 대상으로 하며, 농민만이 보조금 대상자가 될 수 있음. 따라서 그 운영도 DEFRA에서 담당.

- 농지와 비농지 모두를 포함하는 WGS 시책은 ㉠임업생산물의 증가, 경관개선, 임지의 생물다양성 개선, 휴양지조성 등을 위해서 새로운 산림지 조성을 장려하고 ㉡임지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도모하며,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농촌경제의 다원화에 기여하고, ㉣농지의 대안적 이용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함.
- WGS에서는 모두 세 가지의 형태의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첫째, 일정한 품목의 산림지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비용 가운데 고정된 금액을 보조(Standard rate grant), 둘째, 고정 지원금에 추가해 특별히 산림조성의 가치가 높은 지역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추가지원금을 지급(Additional contribution)하는 것임.
- 셋째는 챌린지 펀드(Challenge Fund)라고 불리는 지원금인데 이 펀드에서 설정한 세부적인 목적을 만족하는 특정한 지역과 품목에 대해 지원하는 것으로, 앞의 두 가지 보조금과는 별도의 지원신청 및 선발과정을 거쳐 산림의 가치나 공익성을 감안해 산림위원회에서 결정.
- 지원금 액수는 앞서 언급한 두 가지의 경우 표준지원금이 수종에 따라 전국적으로 일정하지만, 챌린지 펀드는 산림의 위치나 품목에 따라 신축적으로 지원 금액을 결정.

■ 농장조림지원시책(Farm Woodland Premium Scheme: FWPS)

- 현재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를 임지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도입된 이 정책은 구체적으로 ㉠산림의 조성을 통한 경관의 개선, 새로운 서식지 조성, 생물의 다양성을 증가시킴으로써 환경개선을 도모하며, ㉡이에 따른 소득감소분을 직접 지불함으로써 농민들에게 현재의 소득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
- FWPS는 WGS와 연계해 운영되며 농지에 산림을 조성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WGS를 통해서 보조받고, 산림전환에 따른 소득감소분은 FWPS의 보조금에서 지급하고 있음.
- 농민의 소득감소분에 대해서는 5년마다 재검토해 액수를 조정하고 있음. 보조금의 지급액수와 지급년한은 농지의 형태와 수종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높은 농업생산성을 갖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높은 비율의 보조금을 지급.

- 현재 지급되고 있는 보조금의 일반적인 수준을 살펴보면 아래 [표 4-5]와 같음. 즉 농업생산성이 높다고 간주되는 조건불리지역 이외에 지역 가운데 경종농업보조금을 받고 있는 농지에 대한 보조금이 가장 높고, 조건불리지역 중 농업생산성이 매우 낮아서 토지개량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농지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보조금을 지급.

[표 4-5] 농장조림지원시책의 보조금액

농지분류	지역분류	보조금액 (£/ha/년)
경종농업 보조금 적용농지	LFA 이외지역	300
	LFA의 불리지역(DA)	230
	LFA의 심각한불리지역(SDA)	160
기타 경종작물 재배지/개간초지	LFA 이외지역	260
	LFA의 불리지역(DA)	200
	LFA의 심각한불리지역(SDA)	140
기타 비개간초지	LFA 지역	60

* 자료 : MAFF(2000a)

■ 에너지 작물 지원시책(Energy Crop Schemes)

- 「아젠다 2000」 개혁에 따라 농촌발전정책에 새롭게 도입된 에너지작물지원시책은 화석연료의 대체 에너지로 사용화가 가능한 두 가지 작물 [억새(Miscanthus)와 작은 관목(Short Rotation Coppice, SRC)]의 재배를 장려하기 위한 것임.
- 두 가지 중 현재 대체에너지로 사용이 가능한 억새의 경우 재배비용이 헥타르 당 2,300파운드 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총비용의 40%인 920파운드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 그리고 만약 농민이 현재 휴경중인 토지에 억새를 재배할 경우 휴경에 따른 보조금은 그대로 지급.
- 그러나 농민이 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억새를 원료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업체와 체결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해야 하며, 또한 산림위원회로부터 환경영향평가(환경보존, 경관, 휴양 및 공공접근성, 고고학적 영향, 건전한 영농방법 수칙 준수 여부 등)를 받아야 함.
- 버드나무나 포플러에 적용되는 SRC는 억새에 비해 상대적으로 에너지로의 이용가능성은 떨어지지만, 농지 또는 일반토지에서 작은 관목들의 식수를 통

한 환경보존효과를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SRC 재배에 따른 보조금은 이들을 식수하기 위한 비용으로 헥타르 당 2,000 파운드가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 기존의 초지로 사용되던 토지를 전환할 경우 헥타르 당 고정금액으로 1,600 파운드를 지급(가축생산에 대한 보조금 지원 자격을 잃기 때문에)하고, 그 이외의 토지에 대해서는 헥타르 당 1,000 파운드의 보조금을 지급.
- 에너지 작물 지원시책은 RDS가 담당하고, 보조금 역시 이 기관을 통해서 지급되지만 신청된 지원서상의 재배계획에 대한 평가나 심사는 산림위원회가 담당.

■ 조건불리지역지원시책(Hill Farming Allowance)

- 유럽연합(EU) 규정 1257/1999 포함되면서 CAP 농촌발전정책에 포함된 조건불리지역 지원시책은 그 목표가 기존의 농업생산성 향상에서 전원경관 및 환경보존으로 전환되었음.
- 유럽연합(EU)규정 1257/1999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건불리지역정책의 목표는 첫째, 농업의 지속성을 지원함으로써 농촌공동체의 지속에 기여하는 것, 둘째, 전원을 유지하는 것, 셋째, 환경보존 및 이와 연관된 지속가능한 농업시스템을 유지·촉진하는 것 세 가지임.
- 이번에 개정된 조치에서는 기존에 사육가축 마리당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집약적 농업을 촉진해 환경파괴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수용해, 보조금이 농업생산을 자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소유면적당 보조금(최하25유로에서 최고 200유로)을 지급하는 것으로 전환하였음.
- 이와 함께 각 회원국들이 환경조건을 부가할 경우 보조금 지급한도 내에서 추가적인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음.
- 잉글랜드의 경우, 개혁된 조건불리지역정책을 수용해서 기존의 '구릉지 축산업보조정책(Hill Livestock Compensatory Allowance: HLCA)'을 '구릉지 농장지원대책(Hill Farm Allowance: 이하 HFA)'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의 불리지역(Disadvantage Area: DA)과 매우 불리한 지역(Severely Disadvantage Area: SDA)에 추가해 황무지(Moorland)와 황무지 이외의 공동초지(Common Land)를 대상지역에 포함하였음.

- 이는 토지를 기준으로 하여 보조금을 지급함에 따라 추가적인 토지형태의 도입이 필요했기 때문임.
- 보조금 지급의 기본조건은 다음의 여섯 가지를 만족해야 함. 첫째, 최소 10헥타르의 초지를 경영하며 토지구분을 위해서 도입된 IACS(Integrated Administration Control System)에 지원한 농가, 둘째, 양 또는 젖소를 사육하는 농가, 셋째, 최소 0.15 가축단위를 사육하는 농가, 넷째, 토지면적당 초과사육을 금지하는 지침(Good Farming Practice)을 따르는 농가, 다섯째, 가축질병 등의 처리에 금지품목을 사용하지 않는 농가, 여섯째, 최소 5년간 경영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
- 이 가운데 첫 번째 조건인 최소 10헥타르의 기준은 1997년 조건불리지역정책에 대한 평가 보고서(Drew Associates, 1997)의 건의사항을 수용한 것으로 기존에는 3헥타르 이상의 농가가 대상이었지만, 경제적인 기준에서 10헥타르 이상이어야만 농가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 이러한 지급기준에 따라 2001~2006년에 계획된 헥타르 당 보조금수준을 살펴보면 [표 4-6]과 같음.

[표 4-6] 구릉지농장지원시책의 연도별 보조금

£/ha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황무지	13.02	11.91	11.76	11.27	9.39	9.39
공동초지	13.02	11.91	11.76	11.27	9.39	9.39
기타DA	18.60	17.03	16.80	16.11	13.42	13.42
기타SDA	34.40	31.49	31.08	29.80	24.82	24.82

* 자료 : MAFF(2000a)

- 이러한 기본보조금 이외에 환경보존을 위한 추가적인 보조금 지급 규정도 도입되었는데, 총 여섯 가지 추가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그중 하나를 준수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10%를 추가 지급하고, 둘 이상을 준수할 경우 20%를 추가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추가적인 환경보존 보조금 이외에 기존에 사육가축 마리당 지급하던 보조금을 토지면적 단위로 지급함으로써 발생할 농가소득감소분을 보상하기 위한 안전(Safety-Net)조치로서 2001년부터 3년 동안 일정액의 보조금을 보장하는 조치가 추가되었음.

- 즉 2000년에 받은 조건불리지역 보조금을 기준으로 2001년에는 농가가 최소한 기존 보조금의 90% 수준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며, 2002년에는 80%, 2003에는 50%가 될 수 있도록 보장한 뒤 2004년에 폐지하는 것임.
- 보조금의 수준은 토지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농민이 경영하는 토지면적의 350헥타르까지는 규정된 보조금의 100%를 지급하며, 350헥타르에서 700헥타르까지의 면적에 대해서는 50%, 그리고 그 이상의 경영면적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 이는 기존보조금이 대규모 농가에게 유리하게 시행되었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임.

■ 농산물 가공·유통지원 시책(Processing and Marketing Grant Scheme)

- 1차 농산물의 가공·유통 사업을 지원하는 이 시책은 농민뿐만 아니라 농산물의 가공·유통에 관련된 단체나 회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실제 그 주된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의 가공·유통업체들임.
- 각 지원자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사를 거쳐 지원액과 대상자를 선정하는 이 정책은 건물의 신축·개축,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새로운 설비의 도입, 외부 전문가의 고용에 따른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총투자비용의 30%를 최고한도로 하는 지원금은 최소한 7만 파운드 이상의 총투자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이어야 하고, 또 지원 금액의 최고상한선은 120만 파운드로 설정하고 있음.
- 따라서 이 시책에 따른 지원은 농민 개개인이 소규모로 추진하는 가공·유통 사업보다는 큰 규모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특징은 지원 예외규정에도 나타나 있음.
- 즉 소매업수준의 투자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고, 유럽연합(EU)이외 지역에서 수입한 농산물을 주로 가공·유통하는 사업과 우유나 유제품의 가공·유통 사업은 지원하지 않음.

■ 직업훈련지원시책(Vocational Training Scheme: VTS)

- 이 시책은 주로 농업이나 임업 종사자들에게 환경이나 경관보호를 강화하고, 동물복지나 강화된 위생기준에 적합한 방법과 기술, 또는 농가의 경제력 생존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경영교육 등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제공되는 교육 분야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정보통신기술·경영교육 등 총 11개 분야가 선정되었고, 이외에 각 지역에서 특정한 교육훈련의 제공을 목적으로 선정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심사 후 지원함.
- 따라서 프로젝트의 신청자들은 주로 지역단체라고 할 수 있고 수혜자는 농민과 일반 주민임.
- 신청한 사업의 심사과정에서 다른 농촌발전 프로그램과 연관되는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사업의 경우 상호보완 효과를 감안해서 좀 더 높은 점수를 받게 됨.
- 한편 농촌발전 프로그램에 따른 직업훈련교육과 유럽연합(EU) 지역정책인 목적 2·3 정책에 따른 직업훈련간의 중복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음. 하지만 목적 2·3 정책에 따른 직업 훈련교육이 주로 경제적·사회적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농촌발전 프로그램의 직업교육은 주로 농업·임업 또는 1차 산업수준에서의 경제적·환경적인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서로 중복되는 부분은 매우 적다고 볼 수 있음. 그렇지만 유럽연합(EU)예산이 중복 보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목적 2·3 정책의 지원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농촌발전 프로그램에서 지원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각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비용의 75%를 최고한도로 하는 지원금은 특정분야 교육훈련의 필요성에 대한 조사비용, 교육 자료와 강사의 임금, 평가비용, 그리고 기타 교육시설의 구입을 위한 자본투자(감가상각부분만)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 농촌기업지원시책(Rural Enterprise Scheme: RES)

- 유럽연합(EU) 규정 1257/1999의 33조는 농촌발전을 위한 조치로 열세가지들 각 회원국의 자율에 따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영국은 이 가운데 아홉 가지 조치¹⁾를 농촌 기업지원시책(RES)이라는 단일 시책으로 통합·운영하고 있음. 각 지역의 독특한 사회적·경제적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각 지역별로 아홉 가지 분야에 대해 지역의 농민이나 비농민이 지원한 프로젝트를 심사하는 위원회(Regional appraisal panel)를 구성해, 이

1) 이들 아홉 가지 조치는 ①농장구제 및 농장경영 관련 서비스의 설립, ②양질의 농산물 유통, ③농촌경제와 주민들을 위한 기본서비스, ④농촌유적지의 보존 및 마을의 발전·재활, ⑤농업 및 기타 경제활동의 다원화, ⑥농업용수관리, ⑦농업발전과 관련된 인프라의 개선, ⑧관광·수공업 활동장려, ⑨농업·임업·경관보존 및 동물복지와 관련된 환경보호 등이다

들이 프로젝트 선정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는 체계를 형성하였음.

- 선정된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금은 대체로 세 가지로 나누워서 그 지원율을 적용하고 있음.
 - 첫째, 경제적 이익의 발생이 매우 적거나 없는 공공적 성격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투자비용의 50~100%를 보조하며, 특별한 경우에 100%를 보조.
 - 둘째, 신청한 프로젝트가 기본적으로 사적인 이익을 목표로 할 경우 보조금은 총투자비용의 30~50%를 지원.
 - 셋째, 프로젝트를 통한 사적인 이익이 매우 큰 경우 15~30%의 보조율을 적용.
- 이러한 비율 내에서 각 지역이 독자적인 심사과정을 거쳐서 농촌기업을 지원하고 있음. 보조금 이외에 나머지 투자비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신청자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사업계획서상에서 이런 비용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해야 함.
- RES 시책에 대한 지원자는 농민이나 지역단체 등이 모든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특히 여러 분야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지역기관이나 단체들간에 소위 '대표자 지원시책(Delegate grant scheme)'을 형성해서 농민이나 개인들이 지역 RES의 운영기관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대표자 지원시책을 형성한 단체를 통해 지원하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음.
- RES 시책은 기본적으로 모든 잉글랜드 지역에 적용되지만, 지역이 유럽연합(EU) 구조기금의 목적지역으로 선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실제 운영기관이나 지원예산의 출처가 다름.
- 즉 목적 1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서는 RES 시책이 목적1정책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실시되기 때문에 그 운영주체가 RDS가 아니라, 구조기금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정부 지역사무소(Government Office for Regions: GO)가 되고 이에 대한 유럽연합(EU)의 지원예산도 구조기금인 EAGGF 지도부문에서 지원.

3) 농촌발전 프로그램의 추진체계

(1) 추진체계 및 관련기구

- 「아젠다 2000」 개역에 의해 CAP이 농촌발전정책을 주도하게 되면서 유럽연합(EU)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각 회원국에서도 지역발전정책의 실시체계와 농촌발전정책의 실시체계가 분리되었음.
- 영국의 경우에는 유럽연합(EU) 구조기금에 따른 지역발전정책이 각 지역의 중앙정부 지역사무소를 중심으로 별도의 운영체계를 형성해 추진하는 반면, 농촌발전 프로그램은 DEFRA의 중앙조직과 각 지역의 RDS가 주관하고 있음.
- 중앙정부차원의 농촌발전 프로그램 실행기구 또는 정책담당자 그룹을 살펴보면, 첫째, 농촌발전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해 중앙부처들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촌발전 프로그램 정책자문그룹(Policy Advice Group: 이하 PAG)'을 설치하였음.
 - PAG에 참여하고 있는 정부부처 및 기관들은 환경식품농촌부(DEFRA), 부총리실(ODPM), 문화체육부(DCMS), 통상산업부(DTI), 지역청(RDA : 남서부 RDA가 대표), 자연청(The Environment Agency)등이며, 여기에 남서부지역 중앙정부 지역사무소의 농촌분야 책임자와 농촌지불청(RPA) 대표가 포함됨.
 - 이 그룹의 의장은 DEFRA의 토지이용 및 농촌분야 책임자(Director)가 맡고 있으며, 농촌발전 프로그램의 실시와 관련해서 DEFRA가 초점을 두고 있는 사안에 대해 논의하며 부처간의 협력을 조율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
 - 농촌발전프로그램에 관한 정책결정의 주요 권한은 '농촌발전 프로그램 이사회(Ministry of Board)'에 있음.
 - 이사회는 DEFRA 내 4명의 차관(Ministries)과 각 분야 책임자들로 구성되며, 농촌분야 차관이 의장을 맡고 있음.
 - 이들은 PAG의 자문 및 건의를 받아서 실제적인 정책을 결정함. 이 결정을 직접 실행하기 위한 기구로 '농촌발전 프로그램 운영부(Programme Board)'가 있고, 이 기구는 각 지역 RDS에 정책결정사항이나 지침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
- 중앙정부차원에서 농촌발전 프로그램에 대한 자문기구로는 PAG이 이외에도 1년 반에 두 번 개최하는 전국 단위의 심포지엄이 있음. '농촌발전 프로그램

컨설팅그룹(Consultation Group)’이라고 불리는 이 기구는 중앙 정부 부처의 정책담당자 뿐만 아니라, 농촌발전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그리고 농민과 지역의 대토지 소유자들이 참여하고 있음.

- 정례화 되어 있는 이 기구의 심포지엄을 통해서 농촌발전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개선점 그리고 정책 프로그램의 추가 여부가 논의되며, 이 기구의 논의사항 또는 합의사항은 문서로 DEFRA에 전달됨.
- 각 지역 단위에서 농촌발전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기관으로는 RDS, 지역심사위원회(ERDP Regional Appraisal Panel: RAP), 지역프로그래밍그룹(ERDP Regional Programming Group: RPG), 지역컨설팅 그룹(ERDP Regional Consultation Group: RCG) 등이 있음.
 - RDS는 농촌지불청(RPA)이 주관하는 조건불리지역지원시책(HFA)과 산림위원회가 주관하는 산림지원시책(WGS)을 제외한 모든 농촌발전 프로그램에 대해서 농민이나 지역사업자로부터 신청서를 접수 받고 있음.
 - 그리고 지역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을 RPA에 청구하고, 각 프로젝트의 진행사항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
 - RAP는 신청된 프로젝트가 농촌발전에 미치는 영향, 각 사업체의 장기 전망, 고용 및 환경보존에 미치는 영향, 투자비용의 적정성 등을 점수로 평가해 일정점수 이상인 프로젝트를 선발하고 사업계획서의 비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최종 지원비율을 결정해 RDS에 통보하는 기능을 담당.
 - RAP는 지역 RDS의 책임자가 의장이며, 중앙부처 지방사무소(Government Office for regions)의 담당자와 그 외에 회계분야에 대한 전문가로 구성됨.
 - 중앙부처의 정책자문그룹(PAG)처럼 지역 RDS에 자문하는 ‘RPG’가 있음. 이 그룹은 초기 농촌발전계획의 지역계획작성에 참여했던 기관이나 단체로 구성되기 때문에 중앙 단위에서 참여하고 있는 자문기관과 유사하지만, 각 중앙부처 대표로 중앙부처 지방사무소의 담당자가 참여하며 또한 정부 출연 공공단체의 지역지부 대표자가 참석하고 있음.
 - 농촌발전 프로그램에 대한 지역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1년에 두 번 개최하는 심포지엄으로 RCG가 있음. 이는 전국 단위의 컨설팅 그룹과 유사한 구성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농촌발전 프로그램의 문제점 및 개선점을 논의하고 RDS에 건의하는 기능을 담당.

- 구조기금에 의한 지역정책이 별도의 지역추진체계를 갖고 있는 것과는 달리 영국의 농촌발전 프로그램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음. 각 지역의 RDS가 중심이 되어서 지역의 특성이나 요구를 수용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중앙정부의 인식과 이해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 「아젠다 2000」 개혁에 의해 기존의 농업정책을 수행하던 기관(CAP와 DEFRA)이 농촌발전정책에 참여하게 되면서 1988년 이후 구조기금의 수행과정에서 일정하게 진전되었던 지역주도의 발전정책이 오히려 후퇴했다고 볼 수 있음.
- 구조기금정책 분야에서는 지역위주의 발전정책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지만, 농촌발전정책과 관련해서는 과거 중앙정부 위주의 농업정책 실시전통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임.

(2) 지원과정 및 모니터링 체계

- 농촌발전 프로그램 가운데 토지기준지원시책은 보조금 신청 및 지급절차가 잉글랜드 전역에서 동일한 기준에 따라 [그림 4-3]과 같은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지만, 사업기준지원시책의 경우 지역별로 서로 다른 과정을 거칠 수 있음.

■ 지원 및 초기 심사과정

- 신청자는 농촌발전 프로그램 지원서와 농촌기업지원시책 지원서 등 두 가지 신청서를 작성해야 함.
 - 신청서에는 계획하는 사업에 대한 자세한 계획서가 첨부되어야 하는데, 그 내용은 시행하려는 사업의 내용, 예상이익과 비용, 공적 또는 사적 자금조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추가로 현재 본인의 재정상태 등을 나타내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지원자는 이러한 신청서의 작성을 컨설턴트에게 무료 또는 유료로 위탁할 수도 있음.
- 작성된 신청서를 지역 RDS에 송부하면, 신청사와 구비서류의 간단한 첨부여부에 대한 점검과 해당신청자가 자격조건에 적합성 여부를 간단하게 초기서류심사로 진행.

■ 지원서 평가 및 보고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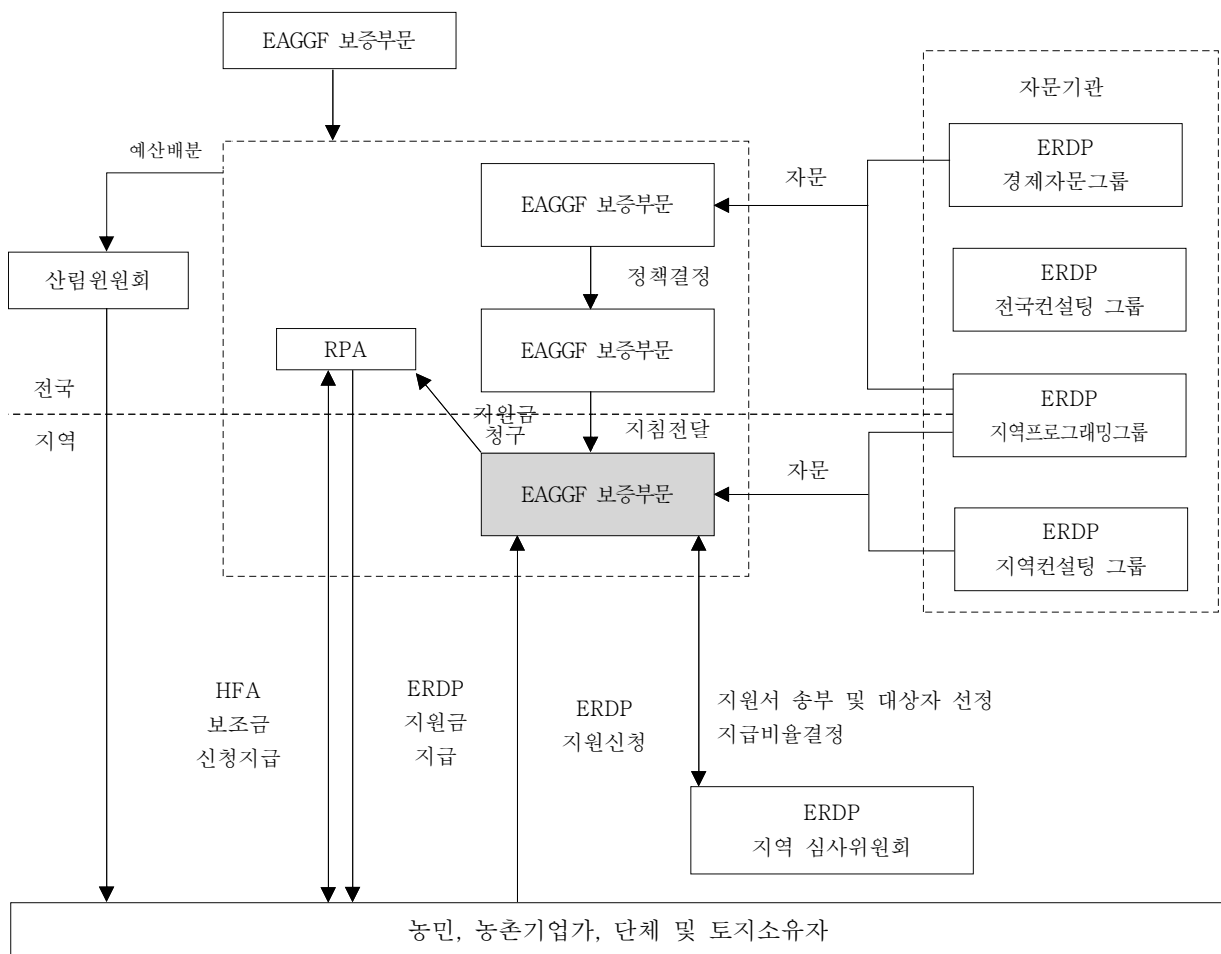
- 초기 심사과정을 거친 신청서에 대해서 지역 RDS의 직원이 기술적 평가를 실시하고 보고서를 작성.
- 신청서에 대한 기술적 평가에는 프로젝트의 필요성, 프로젝트의 성과, 경제적·환경적·사회적 영향 측면에서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 넓은 의미에서 농촌발전정책의 목표달성에 대한 기여도, 재정적인 면에서의 생존 가능성과 위험도, 공적인 예산지원의 필요성 여부, 프로젝트의 관리와 실행계획, 위험 평가, 지역농촌발전정책의 목표와의 정합성 여부, 공적 예산지원의 효율성 평가 등의 요소들이 고려됨.
-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RDS는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지역평가위원회 (Regional appraisal panel)에 송부.

■ 최종심사 및 결과통보

- 지역평가위원회는 지역 RDS의 대표, 지역 RDS의 농촌기업지원시책 담당자, 그리고 중앙부처 지역사무소의 관계자 등 3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분기마다 위원회를 개최해 신청서를 검토함.
- 송부된 평가보고서와 신청서를 기초로 지역평가위원회는 지원한 프로젝트가 지역 농촌발전정책의 목적과 사업 분야에 적합한지, 예산계획이 타당한 지 등을 재검토하고, 프로젝트의 승인·거부·보류 등을 결정.
- 거부·보류된 신청서에 대해서는 거부·보류된 이유를 적시한 문서를 보내며, 때로는 서류를 보완해 재신청하도록 권고하기도 함. 또한 필요한 경우 적절한 사업계획서의 작성을 돕는 기관들을 소개하거나, 사업에 「토지계획법」상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에 허가신청서를 보내기도 함.
- 승인된 프로젝트는 지역평가위원회 명으로 '지원승인서류'를 송부하며, 이 서류에는 프로젝트의 운영과 정책적 지원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됨.
 - 승인서류에는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총비용과 비용의 세부항목별로 구체적인 액수가 명시되고, 또 지원자가 받는 총 지원 금액과 지원 비율이 명시되는데, 이는 예상되는 지출에 대한 분기별 액수를 기초로 계산되어 있음.
 - 서류에 제시된 분기별 지출계획에 따라 사업은 분기별로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조금

을 신청해야 함.

- 만약 분기별 지출내용이 변경되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지역 RDS 담당자와 논의해야 하며, 사전논의 없이 변경된 지출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이 거부될 수도 있음.
- 이와 함께 승인서류에는 신청자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달성해야 할 목표와 단계별 성과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음.
- 이러한 목표와 단계별 성과는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토대로 승인 당시 신청자와 논의해서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분기별로 제출하는 '프로젝트 진행상황 보고서'에 그 달성여부가 기록되어야 함.
- 만약 합의된 단계별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는 보조금의 지급이 유예되거나 또는 거부될 수도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는 지급된 보조금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음.



[그림 4-3] 영국 농촌발전 프로그램의 시행체계

■ 모니터링 과정

- 프로젝트에 대한 모니터링은 주로 보조금 지급신청과 연계되어 이루어짐. 모니터링은 지원승인서류에 기록된 사항을 중심으로 분기마다 이루어지는 일반 모니터링과 프로젝트가 완료된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모니터링, 그리고 사후 모니터링 등 세 가지로 구분됨.
- 분기별 모니터링은 지원자가 작성해서 분기마다 제출해야 하는 분기별 프로젝트 진행상황 보고서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정해진 항목에 따른 지출이 이루어졌는지, 단계별 성과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점검함. 필요에 따라서는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함.
- 프로젝트가 완료되었을 경우 모니터링은 지원금의 마지막 15%를 지급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지원승인서류에 기록된 목표가 달성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것임. 이를 위해서는 지역 RDS의 담당자가 반드시 현장방문을 실시.
- 사후 모니터링은 지원이 완료된 프로젝트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으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프로젝트에 한해서 이루어지고 있음. 프로젝트를 지원한 후 그 사업의 지속성과 영향 등을 평가하기 위한 과정임.

4) 시사점

- 산업적인 의미에서의 농업정책이 아닌 공간적 개념에 입각한 농촌정책의 관점에서 보면, 유럽연합(EU)의 농촌발전정책은 1998년 구조기금의 개혁에 의해서 시행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영국의 경우에도 구조기금 정책의 하나인 목적5b정책을 실시하면서 농촌발전정책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음.
- 유럽연합(EU)정책의 시행 초기에는 각 회원국 및 지역차원에서의 역량미비로 지역별로 차별적인 추진체계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하는 농촌발전정책이 모두 순조롭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초기 5년간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대부분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에서 지역 주도 정책으로 변화했다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유럽연합(EU) 구조기금정책의 발전과정에서 CAP이 「아젠다 2000」 개혁을 계기로 농촌발전정책을 주도하게 되면서 일정부분 지역중심의 정책 시행체계에서 중앙정부중심의 정책시행체계로 변화되었지만, 영국 농촌발전

프로그램 중 사업기준지원시책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지역별로 다양한 목표를 형성·추진할 수 있는 자율성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 이와 같은 유럽연합(EU)나 잉글랜드의 농촌발전정책 실시체계를 우리나라가 그대로 도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농업정책에서 농촌정책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 첫째, 지역적 추진체계의 형성임. 잉글랜드의 경우 지방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과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이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분권적인 농촌발전 프로그램의 실시가 가능했음. 그러나 아직 행정체계 중심의 예산지원체계를 갖고 있는 우리 실정에서 농촌발전 프로그램의 계획과 추진뿐만 아니라 예산지원도 지방행정기관과 독립적으로 실시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가능한 행정구역의 범위를 넘어서서 농촌발전 추진기관들과 인근의 여러 지자체가 함께 파트너십을 형성해 운영하는 지역추진체계를 형성하는 것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음. 이 경우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지역추진체계의 책임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개입은 단지 예산지원범위만을 개략적으로 제시하는데 그쳐야 하며 세세한 지원조건이나 규정을 적용해 개입하는 것은 지양해야 함.
- 둘째, 지역 내 전문가그룹의 육성과 참여임. 잉글랜드 농촌발전정책 실시체계의 장점이자 단점은 많은 지역단체들이 정책의 계획단계뿐만 아니라 실시과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임. 이로써 발생하는 실시체계의 복잡성이 최근 개편논의의 중심주제가 되고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지자체 의존적 또는 중심적인 정책시행체계를 개편하고 지역 내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정책시행체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내 전문가그룹의 육성 및 활용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음.
- 셋째, 지원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시스템의 구축임. 잉글랜드처럼 보조금의 지급과 모니터링 결과를 연계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지역 내에서 발전계획에 따라 시행된 각종 사업들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의 정착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음.

5. 스위스

1) 일반현황

(1) 개요

- 스위스는 유럽 대륙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토의 2/3가 알프스 산지로 이루어진 산악국가로서 4만 1284km² 면적에 약 733만 6000명이 거주하고 있음.
- 수도는 베른이고, 언어는 독일어·프랑스어·이탈리아어·레토-로만어 등이 사용되고 있음.
- 북쪽으로 독일, 동쪽으로 리히텐슈타인, 오스트리아, 남쪽으로 이탈리아, 서쪽으로 프랑스와 접하고 있음.



[그림 5-1] 스위스 지도

(2) 자연현황

- 스위스는 지형에 따라 북동에서 남서 방향으로 쥐라산맥 지역, 중앙저지(스위스고원) 지역, 알프스산맥 지역의 3지역으로 구분됨.
- 쥐라산맥은 남쪽의 알프스산맥에 비해 해발고도가 낮으며, 주로 중생대의 석회암으로 되어 있는 전형적인 습곡산지임. 쥐라산맥 지역은 농업과 임업이

활발한 지역이었는데, 겨울철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시작된 시계공업이 지금은 스위스의 대표산업이 되었음.

- 북쪽의 쥐라와 남쪽의 알프스의 두 산지에 낀 중앙저지는 습곡작용을 그다지 받지 않은 곳이며 주로 제3기층으로 된 해발고도 300~800m의 완만한 구릉성 지역으로 레만·뇌샤텔·취리히 등의 대도시가 있고,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임.
- 중앙저지의 남쪽은 스위스 국토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알프스산맥 지역임. 알프스는 론강(江) 및 라인강(江) 상류의 동서 방향으로 된 계곡에 의하여 당뒤미디(3,257m)·융프라우(4,158m)·핀스터아르호른(4,274m) 등을 포함한 북(北)알프스와 프랑스·이탈리아 국경에 있는 몽블랑(4,807m)·마터호른(4,478m)·몬테로사산(4,634m) 등을 포함한 남(南)알프스로 양분됨.

(2) 경제

- 스위스는 국토가 좁은 데다 산이 많고 농지가 적으며, 이렇다 할 지하자원도 별로 없음. 하지만 국민총생산은 자본주의국가 중 상위그룹에 속하며,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6442달러로 세계 최고수준에 속함.
- 주요수출품은 기계금속제품·화학제품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농림산물·석유·기계 등으로 원자재와 식량을 수입하고 고도의 완성품을 수출하는 선진국형 무역으로 되어 있음. 스위스는 자유무역주의이기 때문에 관세율이 세계 최저에 속하며, 수입제한도 없고 통화·외환 등의 제한도 없음. 인구당 무역액이 많고 국내생산품의 1/3이 수출되는데 그 대부분이 가공품임.
- 무역수지의 적자는 관광·수송·해외투자이자 등의 수입으로 메울 수 있고, 또 외자(外資)가 대량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국제수지 흑자가 계속되고 있음. 따라서 스위스프랑은 국제적으로 가장 안정된 통화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음.

(3) 교통

- 프랑스의 철도 총연장은 4,492km이며, 도로 총연장은 7만 1059km로 모두 포장되어 있음. 라인강을 중심으로 한 수로의 총연장은 65km임.

- 알프스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곳에는 터널이 만들어져 있는데, 생고타르터널은 길이 15km, 생플롱터널은 19.8km임.
- 1931년에 창립된 반관반민의 스위스항공(SA)은 세계 각지에 항로를 확대하고 있으며, 주요 공항은 취리히·제네바·바젤 등에 있음.

[산악열차]



[산악 케이블카]



[그림 5-2] 스위스의 교통수단

(4) 관광

- 대표적인 관광지로는 루체른호(湖)·브리엔츠호·마조르호·루가노호 등의 호수와 루체른·인터라켄·로잔·로카르노·루가노 등의 호반도시를 들 수 있음. 또 하나의 관광 중심은 산악으로 마티호른 산록의 체르마트, 앵가던의 장크트모리츠, 다보스 등의 휴양지가 유명함.
- 관광수입은 무역수지의 적자를 메우고, 경제를 윤택하게 해주므로 교통기관의 정비, 8,000개에 이르는 숙박시설, 400명이 넘는 가이드의 교육, 산막(山幕)의 정비 등에 투자되고 있음. 여름의 알피니스트와 관광객뿐만 아니라 동계(冬季) 스포츠를 위해서도 철도에서 분기하는 많은 등산철도와 리프트가 부설되어 있음. 2000년 관광수입액은 227억 프랑으로 국민소득의 5.6%에 해당함.

[알프스의 전경]



[스위스 전원풍경]



[그림 5-3] 스위스의 관광자원

2) 제네바의 개요

- 인구규모 약 17만 5000명의 제네바는 취리히와 바젤 다음가는 스위스 제3의 도시이며 가장 국제화 되어 있는 도시 중에 하나임.
- 시가지에는 서유럽 호수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레만 호수(Lac Lemman)가 자리잡고 있음.

[레만호수 전경]



[레만호수 주변 공원]



[그림 5-4] 제네바의 전경

- 서쪽은 쥐라산맥, 남쪽에는 몽블랑산(4,807m)을 중심으로 하는 사브와 알프스가 가까이 있으며 관광지인 동시에 각종 국제기관이 모여 있어 국제회의가 자주 열림

- 제네바에는 유엔유럽본부,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유니세프, 유럽경제위원회, 국제전기통신연합, 세계기상기구, 국제노동기구, 관세무역일반협정, 세계보건기구, 유엔무역개발회 등 매우 많은 국제기구가 입지해 있음.
- 스위스의 남서부에 있기 때문에 프랑스와 스위스를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가 지나고, 시 북서쪽 5km 지점에는 크왕트랭 국제공항이 있어 스위스 서쪽 교통의 요충지임.
- 시가지는 론강으로 양분되어 있으며, 좌안의 구릉지에 구시가지가 있음. 그 중심은 12~14세기에 건립된 생 피에르 교회이며, 청동 첩탑을 시내 어디에서나 바라볼 수 있음. 구시가지에는 골동품상과 화랑 등이 있으며, 작은 분수와 처마마다 매달린 등에서 중세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음.
- 시의 남부에는 종교개혁 기념비가 있고, 1559년 종교개혁자 J.칼뱅이 선교사 양성을 위해 창설한 뒤 1872년에 종합대학이 된 제네바대학이 있음
- 우안의 신시가지에는 국제연맹의 본부였던 팔레테나시옹이 있으며, 현재는 국제연합 유럽본부(UN), 이를 중심으로 국제노동기구(ILO),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적십자본부, 국제통신연합 및 유럽 핵연구소 등이 있음.
- 주요 산업은 시계·보석 정밀기계·화학약품·담배 등의 제조업이며 특히, 시계 공업은 스위스가 발상지로 1587년 이래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대표적 산업임.



[그림 5-5] 제네바 시가지



[그림 5-6] 제네바의 도심공원

6. 오스트리아

1) 일반현황

(1) 개요

- 오스트리아는 8만 3871km²면적에 약 805만 4000명이 거주하고 있음. 수도는 빈이고 공용어로 독일어를 사용함.
- 빈 북쪽은 체코, 동쪽은 헝가리·슬로바키아, 남쪽은 슬로베니아와 이탈리아, 서쪽은 스위스와 독일과 국경을 접하고 있음.



[그림 6-1] 오스트리아 지도

(2) 자연환경

- 오스트리아는 국토의 2/3가 동(東)알프스의 산지이며, 동서로 길게 뻗은 골짜기(인강·잘차흐강·엔스강·드라바강·무르강·뮌츠강)에 의해서 산지가 크게 북(北)알프스·중앙알프스·남(南)알프스 3지대로 구분됨.
- 최고봉은 중앙알프스의 호에타우에른산맥의 그로스글로크너산(3,798m)임. 석회암 알프스는 험준한 데다 암벽이 노출되어 험한 산릉(山陵)을 이루고 있으며 현재의 설선(雪線)은 거의 2,700~2,900m이며 그보다 높은 곳은 두꺼운 빙하(氷河)로 뒤덮여 있음.

- 알프스 산중에는 U자곡 ·현곡(懸谷) ·빙하호 퇴석(堆石) ·양배암(羊背岩) 등 각양각색의 빙하지형이 빙하기(氷河期)의 유물로서 남아 있음.

(3) 경제

- 오스트리아의 주요산업은 제철업, 금속가공업, 관광산업임. 오스트리아 경제 체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최대의 특색은 자본주의를 기조로 하면서도 주요 기간산업의 국유화·국영화가 추진되고 있다는 점임.
- 국토의 45%(386만ha)를 산림이 차지하고 있으므로 임업은 오스트리아의 중요 산업 가운데 하나이며, 세계 6위의 침엽수목재 수출국으로서 대부분(85%)을 수출하고 있음.
-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유럽자유무역연합)에 소속되어 있는 오스트리아의 경제는 수출이 국내총생산의 약 40%를 차지하는 대외의존형 구조로서, 무역면에서 EFTA 국가들과 EC(European Community:유럽공동체) 국가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
- 2000년의 무역실적은 수출 617억 5000만 달러, 수입 680억 1000만 달러로 적자를 기록하였음. 주요 수출국은 EU(European Union:유럽연합) 국가들로서 전체의 62.6%를 차지하며 그중에서도 독일이 34.8%를 차지함. 주요 수입국은 역시 EU 국가들로서 전체의 68.4%를 차지하며 그중 독일이 41.7%를 차지.
-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전기 제품, 기계, 철강 등이고 주요 수입품은 자동차, 전기제품, 기계, 섬유제품 등임.

(4) 관광

- 오스트리아를 찾아오는 외국인 관광객의 수도 해마다 늘어 이에 의한 외화수입이 국제수지 적자를 메워주고 있음. 알프스산맥이 동서로 국토를 길게 관통하고 있어 예로부터 산악관광이 발달하여 왔음.
- 1999년 현재 숙박업·요식업 종사자는 전체 고용인구의 4.7%를 차지. 관광업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현재 6.4%로 EU 국가 중 제일 높은 수준임.

(5) 교통

- 오스트리아는 동서교통의 요충지였고, 특히 도나우강(江)의 수상교통은 일찍부터 발달하였음.
- 철도는 동부 지방에 발달해 있으며 반 정도는 전철화(電鐵化)되어 있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도로교통이 급격히 발달하여 빈~잘츠부르크~인스부르크에서 이탈리아로 이어지는 자동차 전용도로가 개통되었음.
- 철도보다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경향을 보이며, 알프스 지방에서는 등산전차·리프트·케이블카 등의 관광시설이 발달되어 있음.
- 빈을 비롯한 6개 주요도시에 공항이 있고 국영오스트리아항공회사(AUA)가 국내 및 유럽 여러 나라에 취항하고 있음.

2) 인스브루크 개요

- 오스트리아 서부 티롤주(州)의 주도(州都)로서 약 11만명이 거주하며 인강(江)이 시가지 내부를 관통하고 있는데서 도시명이 유래되었음.
- 이탈리아에서 브레너 고개를 경유하여 독일로 이어지고 또 스위스에서 서부 유럽으로 연결되는 주요 무역로의 교차점이라는 전략적인 위치에 있어 로마 시대부터 동부 알프스의 교통요지로서 발전하였음.

[시가지 전경]



[시내를 관통하는 인강]



[그림 6-2] 인스부르크 시가지 전경

- 구시가지는 이미 12세기에 건설되었으며, 15세기에는 지방 도시로써의 지위

를 확립하였음. 당시 이곳에 거소(居所)를 두었던 황제 막시밀리안 1세가 건조한 '황금의 지붕'은 지금도 시의 상징임. 이외에도 옛 도시에 있는 좁은 가로들의 양옆에는 중세 주택들과 상가들이 늘어서 있음.

- 인스부르크는 중앙 유럽에서 가장 인기있는 관광지와 보양지이자 겨울 스포츠 중심지임. 이곳에서 동계 올림픽 대회가 1964년과 1976년에 개최되었음.
- 철도 교차점이자 시장 중심지인 이곳의 산업으로는 식품가공업과 금속세공업, 그리고 직물·신발·맥주·음악기기 제조업 등이 있음.
- 그 밖에 막시밀리안 1세의 묘비가 있는 호프킬헤교회, 1677년 설립된 대학, 페르디난트 박물관, 민예관(民藝館), 고산식물원 등이 있음.



[그림 6-3] 인스부르크 황금지붕



[그림 6-4] 인스부르크 구시가지

2 북유럽 지역의 인적자원개발 사례 연구

백 남 훈 | 충남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장

이 형 복 | 충남발전연구원 정책연구위원

선진지역의 지역개발 사례 연구

백 남 훈 / 이 형 복

(충남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장 / 충남발전연구원 정책연구위원)

I. 출장개요

1. 출장목적

- 북유럽의 인적자원개발 사례조사를 통하여 지역인적자원개발에 필요한 정보의 획득과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향후 충청남도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함
- 지역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북유럽선진국의 다양한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모델을 벤치마킹함으로써 지역인적자원개발에 대한 방향설정에 참고를 하고자 함
- 타 지역인적자원개발 담당자 및 유관기관과의 교류 및 업무협력방안 모색하고 나아가 충남지역인적자원개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2. 출장자

소속	출장자
충남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백남훈 센터장
충남발전연구원	이형복 정책연구위원

3. 출장일정

○ 연수기간: 2006. 5. 12 ~ 5. 20 (7박9일)

일자	방문지	방문기관
2005. 5. 12 ~ 13	네덜란드, 핀란드	핀란드 폴리테크닉
2005. 5. 14	스웨덴	시민교육협의회, 학습씨클
2005. 5. 15 ~ 18	노르웨이	오슬로시청, 오슬로대학, 네트워크 대학교
2005. 5. 19 ~ 20	덴마크	달룸대학교

II. 출장내용

1. 핀란드

1) 일반현황

- 핀란드는 지리적으로 3분된 본토 지역들과 근해의 일부 섬지역으로 이루어졌다. 대체로 높이 455~1,328m(최고봉은 할티아툰투리)에 이르는 둥근 정상의 산봉우리들이 있는 북서쪽 가장자리의 소규모 고지대를 제외하고, 이 나라는 해발 180m 이하의 저지대이다.
- 고도가 가장 낮은 지역은 서부 및 남부 해안을 따라 너비 32~96km로 펼쳐져 있는 해안지대로 이 지역의 고도는 대체로 18m가 안 된다. 남서쪽 해안선에서 수km 떨어져 올란드제도(아베난마)를 이루는 섬들은 해안저지대의 연장부이다. 내륙지역은 해발 45~180m에 이르는 북부 고지대에서 점차 경사져 낮아지면서 남부의 광활한 호수지역(해발 18~45m)으로 이어진다. 전 국토 면적의 1/10에 해당하는 내륙수계는 면적 3만 3,522km²로 벨기에 국토 면적과 비슷하다.
- 5만 개가 넘는 호수들은 대부분 면적이 25km² 이하의 작은 규모이며, 가장 큰 호수는 남동부에 있는 사이마 호(약 4,400km²)이다. 핀란드의 하계(河系)는 대부분

호수들과 연결되어 있는데, 사이마 호는 부오크시 강을 경유하여 동쪽으로 흘러 러시아 연방의 국경선 근처에 있는 라도가 호로 흘러든다.

○ 주요특징

- 인구: 5,185,000.
- 인구밀도: 17.0명/km².
- 도시·농촌 인구분포: 도시 60.4%; 농촌 39.6%{4}.
- 성별분포: 남 48.79%; 여 51.21%.
- 연령별분포: 15세 미만, 18.2%; 15-29세, 18.7%; 30-44세, 21.8%; 45-59세, 21.5%; 60-74세, 13.4%; 75세 이상, 6.4%.
- 예상인구: 5,252,000(2010년); 5,292,000(2020년).
- 언어구성: 핀란드어 97.5%; 러시아어 0.6%; 스웨덴어 0.5%; 기타 0.2%.
- 종교분포: 복음주의 루터교 85.2%; 핀란드(그리스) 정교회 1.1%; 무교 12.6%; 기타 1.1%.





[사진] 핀란드 국립박물관(위) / 시벨리우스 공원 전경(아래)

- 핀란드는 인구 520만명에 불과한 유럽의 작은 국가이지만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나 세계경제포럼(WEF) 등의 국제경쟁력 평가에서 항상 최상위권을 유지하는 강소국이다.(2004년 IMD 경쟁력순위 8위, WEF 경쟁력순위 1위) 핀란드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과학기술과 교육훈련에서의 경쟁력이 핵심요인이다. 핀란드는 과학기술강국, 인적자원강국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핀란드의 혁신역량과 교육시스템, 대학배출인력의 질, 기업의 재직근로자 교육훈련 등은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수준으로 정평이 나 있다.
- 2003년 핀란드의 노동인구는 약 260만명, 실업률은 9.1%였다. 프랑스나 그리스 등 일부 유럽국가에 비해서는 실업률이 낮지만, 미국(6.0%)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7.1%)보다는 높다. 장기실업은 줄어들고 있지만 구조적 실업이 여전히 인력부족 속에서도 실업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핀란드 정부는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고용증대를 경제 및 노동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 핀란드의 교육제도는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 크게 차이가 없다. 기본적으로 기초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과 성인교육으로 구분된다. 기초교육은 7살에 시작해서 9년 동안 이루어지고, 의무교육이다. 중등교육은 인문학교와 직업학교로 나누어지고, 인문학교에서는 3년 동안 일반교육과정을 제공하고, 학생들은 3학년에 대학

입학자격 시험을 쳐야 한다. 모든 인문학교는 국가 핵심교육과정을 따라야 하지만 최근에는 각 학교의 특색에 따라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2) 인적자원개발 사례

○ 폴리테크닉

- 고등교육의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시장을 단순화하면서 동시에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이에 가장 적합한 형태가 바로 폴리테크닉이다. 경제원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인데, 고등교육에서도 그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시장을 단순화하면서 동시에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전문대학을 비롯한 직업교육기관을 통합하여 새로운 고등교육체제로 개편하는 체제이며, 이에 가장 적합한 형태가 바로 폴리테크닉(Polytechnics)이다. 폴리테크닉은 변화하는 산업사회에 재빠르게 적응토록 만들어진 대학이다. 특히 핀란드의 폴리테크닉은 경쟁력이 뛰어난 시스템을 자랑한다.
- 교육목표는 '산업사회 전문 인력 양성'으로 명료하며, 교육프로그램도 수업연한에 따라 다양하게 그리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교육과정도 산업현장과 매우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교수진도 산업체 유경험자로 구성되어 있다. 영국과 핀란드의 폴리테크닉이 대표적이다. 특히 핀란드처럼 작은 나라가 노키아같이 세계 일류의 제품을 만들며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것도 바로 폴리테크닉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이들 선진국은 이미 1980년대부터 고등교육제도를 개혁하여 일반대학과 폴리테크닉의 단순화한 이원적 시스템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 직업학교에서는 학교에 따라 다른 프로그램을 갖고 있고, 직업교육과 직업과의 연계성을 위하여 실습 비율을 높이고 있다. 직업학교도 3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대학교육은 대학과 폴리테크닉으로 구분되고 대학교육이 연구와 교수에 초점을 맞춘다면 폴리테크닉은 직업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 인적자원개발 제공자로서 기업의 역할강조

- 핀란드에서 성인 대상의 교육훈련은 재직근로자 훈련(PT·Personnel Training), 자기주도적 성인 직업훈련(SMT·Self-Motivated Adult Training), 노동시장훈련(LMT·Labor Market Training)으로 구분할 수 있다. “투지아 레미넨” 핀란드 노동부의 노동력개발·지도팀장은 “과거에는 이들 훈련과정이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했으나, 최근에는 이 세 가지 영역이 중첩되는 분야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 재직근로자 훈련은 평생학습 시스템 아래 기업에서 제공되는 교육훈련을 의미한다.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기업의 경쟁력은 결국 인적자원의 경쟁력에 좌우된다는 점에서, 과거와 같이 교육훈련의 최종수요자로서가 아니라 적극적인 교육훈련의 제공자로서의 기업의 역할 변화가 요구된다. 근로자의 지속적인 능력개발을 위해서는 평생학습이 중요하며, 평생학습의 장으로서 기업 내 교육훈련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2004년 IMD보고서는 핀란드를 재직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교육훈련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는 국가로 꼽았다.
- 핀란드 수출액의 3분의 1을 담당하는 노키아(Nokia)의 경우 인적자원개발은 기업의 핵심전략으로서 강조된다. 안나 타비스 노키아 인사담당 부사장은 “최고의 인재들을 채용,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함으로써 최고의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노키아의 인사관리 전략”이라고 말했다. 총급여액의 3~4%를 교육훈련비로 투입하며, 근로자 1인당 연간 70시간 안팎의 교육훈련을 제공한다. 교육방식은 정규교육훈련과 상급자의 지도(mentoring), 현장학습(talent management system)으로 이뤄진다. 근로자와 상급자, 인사담당 관리자간의 상호 유기적인 연계에 의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또 대학 교과과정이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주요 대학들과 다양한 산학협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그러나 핀란드에서도 중소기업의 교육훈련투자는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따라서 핀란드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교육훈련 확대를 위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제공한다. 중소기업은 인력부족 때문에 근로자를 생산현장에서 빼내 교육훈련을 제공할 만한 여유가 없다는 점에서 노동부는 ‘직무순환(Job Rotation)’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 차원에서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이 프로

그럼은 대체근무에 대한 비용지원 프로그램으로서, 중소기업이 근로자를 외부 기관에 위탁교육 보내는 동안 정부가 실업자 풀(pool)에서 대체인력을 투입해 준다.

이와 함께 개별 중소기업에서 교육훈련을 하기 어려우므로 소규모 사업장의 훈련수요를 취합, 훈련기관에서 수요에 적합한 맞춤형의 집합적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 성인학습

- 핀란드에서는 성인학습에서도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학습권이 확립돼 있어 평생학습이 상대적으로 쉽게 이뤄질 수 있다. 재직 중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필요에 따라 '학습휴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기업은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휴가기간 중에도 고용은 보장된다. 노동의 유연성이라는 면에서 기업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핀란드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작동하고 있다. 학습휴가 동안에는 기술직업 대학인 폴리테크닉(Polytechnic)이나 대학에서 정규교육을 받거나 기타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기도 한다. 대학·폴리테크닉은 기업과의 산학협동이 활발해 교육훈련의 현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 노동시장훈련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일부로서 성인 인구의 직업능력 향상, 인력수급의 균형 유지 및 촉진, 실업과 인력부족 해소 등에 목적이 있다. 노동시장훈련은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의 양적·질적·지역적 수요변화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게 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근본적으로 성인들이 노동시장에 계속 머물러 있거나 되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향상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노동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직업훈련의 성격을 갖는다. 주로 실업자 대상의 훈련이지만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은 사람이나 재직근로자도 훈련대상이 될 수 있다.
- 직업훈련은 현재 200개 이상의 다양한 직업 영역에 걸쳐 연간 4000~5000여개의 훈련과정이 제공되고 있다. 노동부의 재정지원 하에 성인훈련센터나 폴리테크닉, 기타 직업교육기관 등에서 연간 6만 4000여명이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노동시장훈련은 숙련수요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지역 단위에서 설계되며, 훈련 과정의 70%가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자격제도와 연결돼 있다. 훈련 이수생들은 피드백 시스템을 통해 훈련과정을 평가하는데 3분의 2 정도가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3) 시사점

-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기능대학이 한국 폴리텍 대학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기술교육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과거에는 이러한 직업훈련과정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실질적으로 지역의 인적자원개발에 기여할 수 없었으며, 지역의 노동시장에서 직접 필요한 인력을 적극적으로 수급하고 재직근로자의 평생학습시스템을 통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교육훈련체제는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준다고 하겠다.

2. 스웨덴

1) 일반현황

- 공식이름은 스웨덴 왕국으로, 노르웨이와 함께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위치해 있다. 국민은 인종·언어·종교면에서 두드러진 동질성을 지니고 있으며, 공식언어인 스웨덴어는 북독일어군에 속하며 노르웨이어·덴마크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구구성에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으며, 1990년대 초까지 주민의 1/10이 해외에서 출생한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이민자들의 자녀였다. 이민자 대부분은 다른 북유럽 국가 출신이고, 나머지 소수는 라틴아메리카·중동·유고슬라비아·터키·그리스 등지에서 온 사람들이다. 스웨덴에는 두 부류의 소수 원주민이 있는데, 하나는 북동부 지역의 핀란드어를 쓰는 민족이고, 다른 하나는 북부 내륙의 라프족(사미족)이다. 인구의 90%가 스웨덴 복음주의 루터교 신자이며 나머지는 로마 가톨릭교, 그리스 정교회, 이슬람교 신자들이다.



[사진] 스톡홀름 항만 전경

○ 경제적으로 스웨덴은 주로 서비스업·중공업·국제무역 등을 기초로 한 선진화된 시장경제체제를 이루고 있다. 국민총생산(GNP)이 인구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해 1인당 GNP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이다.

○ 사회복지 및 교육

- 외국인들이 스웨덴에 대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인상은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사회보장 및 부의 평등 분배와 같은 준(準)사회주의 정책을 추구하는 현대 복지국가라 할 수 있다. 스웨덴은 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인 사회복지제도를 수립했는데 비용은 개인 소득에 대한 세계 최고의 세율에 의해 충당된다. 사회보장 제도는 거의 무제한적인 혜택을 주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의료보험 제도는 진료비의 거의 전액을 부담한다. 그러나 대도시 주변이나 도시에서는 신축·개축 계획에도 불구하고 주택부족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문자 해독률 100%가 말해주듯이 교육제도는 실질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적용된다. 7세에 입학하는 종합학교는 9년간 의무적으로 다녀야 하며 1991년부터는 6세 아동까지 확대되었다. 그밖에 수많은 주요대학과 전문대학이 있다.



[사진] 노벨 박물관 전경

2) 스웨덴의 학습서클

- 스웨덴의 인적자원개발의 출발점은 성인교육에서 시작되었다. 성인교육은 스웨덴에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19세기 초 첫 국민고등학교가 덴마크를 모델로 세워졌고, 19세기말 대중성인운동의 결과로 첫 토론 사회와 학습 씨클이 시작되었다.
- 학습씨클(learning circle)이란 스터디서클(study circle) 또는 호주의 학습동아리 또는 일본의 자주학습조직(自主學習組織)과 유사어로써, 같은 주제에 관심있는 성인들이 함께 모여 공부하는 소모임을 지칭한다. 보통 5명-15명 내외의 성인들이 둥근 테이블에 둘러앉아 관심 주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이는 모습이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장면이다. 나라마다 또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본래는 같은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함께 부딪치는 문제에 대하여 공동의 해결방안을 찾거나 생각해보는 이슈 중심 토의가 중심이다.
- 20세기초반 스웨덴에는 시와 개인의 노력으로 많은 기술야간학교, 상업전문대학, 직업학교들이 생겨났다. 특수 야간과정은 많은 성인 단체에 의해서 생겨났

고, 성인을 위한 두개의 주립학교(SSV)가 생겨났다. 이중 하나는 Norrkoping(1956)에 하나는 Harnosand(1962)에 성인에게 적절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 1960대와 1970년대의 교육개혁

- 세계2차 대전이후 스웨덴 학교제도는 개혁되었다. 9년제 의무교육이 도입되었고 상급중등교육이 빠르게 확산되었다. 1960년대, 숙련된 노동자가 부족하였고, 젊은 세대와 나이든 세대의 차이가 점점 명확하게 되었다. 교육의 중요한 개혁은 1968년 시작되었다. 각 시에서는 상급중등학교에서의 의무교육에 상응하는 성인교육을 제공하도록 하는 책임을 가지게 되었다. 그 결과 교육은 스웨덴의 경제발전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그 이후 교육은 사회에서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초 국가는 재분배 정책을 중점화 하였다. 이런 계층의 참여를 쉽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회교육이 개혁하였고, 학습휴가의 권리가 법률화되었다. 1970년대 시차원의 성인교육이 놀라운 증가를 보였고, 1982년 그것은 커리큘럼(Lvus 82)을 갖는 교육제도가 되었다.

○ 1980년대와 1990년대의 교육개혁

-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 교육제도에서의 책임의 분화에서 변화가 일어났다. 국가 승인 제도에서 탈중앙화, 교육목표와 제도에서의 지방자치화를 의미한 변화였다. 이에 따라 새로운 커리큘럼(Lpo82)이 이전 것(Lvux82)으로부터 발전되어 나왔다.

1991년 스웨덴 국회는 이전까지 모든 성인 교육을 담당했던 the National Board of Education을 해산하였다. 이 책무는 여러 부서로 나누어졌다. 1996년 노동 시장을 위한 훈련은 새로운 독립부서 the Labor Market Board로 넘어갔고 국민고등학교는 정부에 의해 새로운 비 상업적 기관인 the Swedish National Council of Adult Education 의 설립을 촉진하였다. 그리고 이전의 the National Board of Education대신 세워진 the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은 시와 주정부의 성인교육을 포함한 학교 교육제도 전부에 대한 책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3) 시사점

- 스웨덴의 학습 씨클은 최근 우리나라 평생학습도시들에서 기 시행하고 있는 학습동아리형태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를 교육정책개혁과 지역의 기술대학과 직업학교 등과 적절히 연계하고 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3. 노르웨이

1) 일반현황

- 노르웨이의 총면적은 약 32만 4000km²이며, 국토의 30%가 북극권에 속해 있다. 수도는 오슬로(Oslo)로, 인구는 약 64만 명. 스칸디나비아 반도 북서부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동부는 북쪽으로부터 러시아, 핀란드, 스웨덴과 접하고 있고, 서부는 노르웨이 해, 북해와 접해 있다. 나라의 형태가 남북으로 좁고 길어서 가장 좁은 부분은 폭이 6.3km밖에 안 된다. 섬은 약 15만 개이지만,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은 2000여 곳에 지나지 않는다.
- 북유럽 국가 중에 비교적 국가 통일이 늦은 편으로, 872년에야 비로소 여러 지역이 합쳐 하나의 통일국가를 형성했다. 그 후 14세기경 ‘칼마르 연합’에 따라 덴마크 왕이 스웨덴, 노르웨이 왕을 겸하게 되었다. 1523년 스웨덴은 덴마크로부터 독립했으나, 노르웨이에 대한 덴마크의 지배는 19세기까지 계속되었다. 1814년 킬 조약에 따라 스웨덴의 지배에 들어가게 된 노르웨이는 노르웨이 왕을 겸하고 있던 스웨덴 왕인 카를 14세 때 노르웨이 헌법을 제정하였고, 마침내 1905년 국민투표로 독립을 선언하고 호콘 7세를 노르웨이 국왕으로 맞이하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침략을 받기도 했으나, 현재는 서방 선진국의 일원으로 활발한 대외활동을 보여 주고 있다.
- 6~8월에는 오슬로의 한낮 기온이 30℃ 이상 치솟지만, 내륙의 산림지역은 꽤 서늘하다. 특히 북부 지역은 두툼한 스웨터가 필요할 정도다. 겨울에는 바다와 접한 곳은 멕시코 난류의 영향으로 북극권 지역으로서는 따뜻한 편이지만, 내륙 지역은 상당히 추운 특징을 나타낸다.



[사진] 베르겐 항 전경

○ 주요특징

- 수도: 오슬로(Oslo)
- 인구: 약 428만명
- 면적: 324,000km² (한반도의 1.6배)
- 언어: 노르웨이어(영어도 가능)
- 민족: 노르웨이인이 대부분, Sami족(1%)
- 종교: 루터파 크리스트교

2) Network University 및 원격교육

- 노르웨이는 원격교육에 대한 정치적 관심으로 1948년에 독립된 법으로 민간 원격교육을 규제한 세계 첫 번째 국가이다. 이에 따라 원격교육과정과 원격교육 기관에 대한 정부감독이 강화되었다. 1993년에는 통신학교법이 폐기되었으며 독립적인 원격교육 기관 활동에 대한 규제는 성인 교육법 아래 두었다. 이러한 개혁으로 원격교육은 국가 인적자원개발 체계로 통합할 수 있게 되었다.
- 현재 교육부가 공인한 원격교육 기관은 대략 20개이며, 가장 큰 두개의 원격교육 기관인 NKS 원격교육과 NKI원격교육은 비영리 기관이며 매년 원격교육과

정 등록자의 약 80%를 점유하고 있으나 최근 전체 등록학생의 수는 감소하고 있다

- 노르웨이에서 사립원격교육의 지위는 특이하다. 역사적으로 노르웨이의 원격 교육은 민간기관에 의해 시작되었다. 1941년에 세워진 North Korrespondanse Skole(NKS)는 노르웨이의 첫 번째 원격교육 기관이었다. 오늘날 NKS에는 중등학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코스에 연간 70,000명의 학생이 등록하고 있다. North Korrespondanse Institute(NKI)에는 기술, 직업, 행정 분야에 집중된 코스에 연간 45,000명이 등록하고 있다. 두 기관 모두 인쇄가 원격 교육의 유일한 매체였던 시기에 시작했지만, 지금은 오디오, 비디오, 텔레비전, 라디오, 컴퓨터 매개통신 등의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고 있다. NKS와 NKI는 최근에 원격 학습을 위한 다양한 비디오컨퍼런스 시스템 유형들의 활용을 알아보고자 노르웨이 통신과 공동으로 작업하고 있다.
- 노르웨이 정부는 원격 교육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1948년에 통신 프로그램과 기관에 관한 규정을 입법화하였고, 1975년에는 국회가 학점 이수 학교의 통신 학생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하기로 결정하였으며, 1977년에는 노르웨이 원격교육 기관(Norwegian State Institution for Distance Education : NFU)을 창설하였다. NFU는 전국의 방송사, 출판사, 공립학교, 대학들과 연계하여 원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확산에 있어서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1991년에는 NFU가 원격 교육 코스의 멀티미디어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약 20여개의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 학점이수 통신 학교 협회로서 1968년에 설립된 노르웨이 원격 교육 협회(Norwegian Association for Distance Education : NADE)는 1984년에 NFU와 SOFF처럼 원격 교육에 관련된 모든 기관을 포함하여 재조직 되었다. 1988년에는 NFU, NKI, NKS에 의해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할 목적으로 노르웨이 원격교육센터(Norwegian Center for Distance Education : SEFU)가 세워졌다. 또한 노르웨이 정부는 1988년에 오슬로에 ICDE의 상임 사무국을 설치하고 현재까지 지원하고 있다.

3) 시사점

- 노르웨이는 교육부에서 공인한 원격교육 시스템과 네트워크 대학 등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기술, 직업, 행정 분야의 집중코스를 개설하고 이를 전국의 방송사, 출판사, 공립학교, 일반대학들과 직접적으로 연계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으며, 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국가경제성장의 초석이 될 수 있다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4. 덴마크

1) 일반현황

- 유럽 북부의 유틀란트 반도 및 그 동쪽 해상의 셸란·롤란·핀 등 다수의 부속도서(附屬島嶼)로 구성된 왕국(王國)으로서 면적은 4만 3094km², 인구는 537만 7000명(2002)이다. 인구밀도는 124.8명/km²이다. 덴마크어로는 단마크(Danmark)라고 한다. 정치체제는 입헌군주제이고 수도는 코펜하겐이며, 공용어는 덴마크어이다.
- 북해(北海)와 발트해를 가르는 곳에 위치하여, 남쪽으로는 독일과 국경을 접하고, 북쪽으로 스카게라크 해협, 동쪽으로 카테가트 해협을 끼고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노르웨이·스웨덴과 대한다. 해외 영토로 페로 제도와 그린란드가 있다.
- 기후는 남쪽의 북아틀란틱 해와 걸프 만으로부터 난류가 흘러 들어옴에 따라 북쪽 지방의 겨울철 기온을 높여 주며 여름철에는 오랫동안 구름 없는 날씨가 계속되어 기온이 35.8℃까지 올라가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1년 중 가장 추운 달은 2월로 평균 기온이 -0.4℃이며 가장 따뜻한 달은 7월로 평균 기온이 16.6℃로서 전형적인 섬 기후를 보여 준다. 연 강수량은 600mm이며 1년 중 8, 9월에 비가 가장 많이 오고 봄,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적다. 특히 덴마크는 1년 내내 평균 초속 7.6m의 시원한 바람이 부는 나라이기도 하다.

○ 주요특징

- 위치 : 유럽의 유틀란트 반도
- 면적 : 4만 3094km²
- 인구 : 537만 7000명
- 인구밀도 : 124.8명/km²
- 수도 : 코펜하겐
- 정체 : 입헌군주제
- 공용어 : 덴마크어
- 통화 : 덴마크 크로네(Dkr)
- 환율 : 7.56덴마크 크로네 = 1달러
- 1인당 국민총생산 : 3만 2280달러



[사진] 코펜하겐 시청 앞 전경

2) 인적자원개발 사례

○ 기업교육: 학습하는 노동자에게만 복지혜택을

- 덴마크는 국가 생존을 위해 기업에서 자생적으로 인적자원개발 모델을 개발하였다. 즉 기업에서는 사(使)측이 원하는 대로 고용의 유연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해고된 노동자는 직업 훈련을 통해 새 일자리를 바로 찾아줘 결과적으로 안정성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른바 ‘유연한 안정(Flexicurity→flexibility와 security의 합성어)’모델로 실업률을 낮춰 창조적 공존을 성공적으로 이뤄냈다.

○ 달롬대학교의 직업교육

- 코펜하겐에 있는 이 학교의 ‘농업 경영전문가 과정’은 덴마크에서 손꼽히는 농업 관련 직업교육으로 유명하다. 이 과정에는 외국인이 비교적 쉽게 입학할 수 있지만 학사관리가 엄격해 입학만큼 졸업이 쉽지는 않다. 아스게르 클라우센(61) 부학장은 “입학생 40명 중 10%인 4명 정도는 중도에 포기하고, 12%인 4, 5명은 최종 졸업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 학교 ‘농업 경영전문가 과정’ 졸업생이 수준을 유지하는 배경에는 덴마크 농업의 특수성이 놓여 있다. 덴마크 농업은 크게 낙농과 양돈의 두 가지 부문. 두 부문 모두 국내 소비량의 400~500배에 이르는 농산물을 만들어 전 세계로 수출한다. 튀게 모르텐센(46) 교수는 “덴마크 농산물은 품질이 우수하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도 비싸다”고 스스럼없이 말했다.

이렇다 보니 덴마크에서는 아무나 농업에 종사할 수 없다. 9년간의 초등, 중학교 의무교육을 마친 뒤 농업 직업학교를 나와야 한다. 농업 직업학교에서는 ‘2개월 수업→12개월 실습→5개월 수업’의 1과정과 ‘17개월 실습→6개월 수업’의 2과정이 개설돼 있다. 1, 2과정을 차례로 마쳐야 비로소 ‘국가공인 보통 농부’로 인정돼 농장 운영이 허용된다. 보통 농부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농장 경영에 관해 배울 수도 있다. 물론 단순 농업 노동자라면 직업학교까지 마칠 필요는 없다. 덴마크에서는 모두 17개의 농업 직업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농업 경영전문가 과정’은 ‘덴마크 농부 수업’을 국제화시켰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학생들은 2년간 크게 농학과 경영학의 두 가지 분야를 집중적으로 배우게 된다. 1학년 때는 생물학과 경제학 경영학 마케팅 등을, 2학년 때는 그동안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학생 각자가 주제를 선택해 심화 학습한다.

특히 ‘농업 경영전문가 과정’ 졸업생들은 세계무대에서 활동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영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졸업생들은 국가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일해야 하므로 영농과 사회, 문화, 국제관계 등의 다양한 주제를 영어로 익히게 된다.

- 영어교재들도 각국의 문화 차이를 미리 익힐 수 있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중국 출신의 1학년생 왕펑(王鋒·25) 씨는 “덴마크의 높은 농업수준뿐만 아니라 영어를 집중적으로 익힐 수 있어 좋다”며 “졸업 후 귀국하면 영어 실력을 토

대로 괜찮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했다.

학교에서는 이론을 위주로 공부하지만 1, 2학년 말에 각각 한 차례씩 덴마크의 농업 관련 기업에서 실습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약 2개월간 실습할 기업을 선택할 때는 학생들의 의사가 거의 전적으로 반영된다. 학교는 기회를 제공할 뿐이다. 케냐 출신의 1학년생 폴 은잠와야(33) 씨는 “실습 과정에서 익힌 여러 가지 노하우를 조국에 돌아가 농장을 경영하면서 활용하고 싶다”고 말했다.

- ‘농업 경영전문가 과정’에서는 1, 2학년 말에 각각 한 차례씩 시험을 치른다. 1학년 말 시험 때 적어도 6점(최고는 13점) 이상을 얻지 못하면 2학년 과정으로 넘어갈 수 없다. 2학년 말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더 열심히 할 것인가, 아니면 집으로 돌아갈 것인가”라는 ‘최후통첩’을 받은 뒤 두 차례 더 응시 기회를 제공받는다. 만약 세 차례 시험을 모두 통과하지 못하면 1년간 다시 수강해야 한다.

강의는 모두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입학하려면 토플 성적이 560점(CBT 220점 상당)을 넘어야 한다. 지난해 9월 시작된 2005~2006학년도까지는 유럽 지역 출신이 아닌 학생들은 2년 과정의 학비로 입학금 1만 크로네(약 156만원)만 내면 됐다. 덴마크 출신 학생들은 아예 학비를 내지 않는 게 원칙. 그러나 2006~2007학년도부터는 덴마크 정부가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지원을 없애 총학비가 9만 크로네(약 1400만원)로 크게 오른다. 졸업생들은 농업 컨설턴트 또는 농업생산 관리자 등으로 활동하거나 개발도상국의 농업계획에 참여하기도 한다.

3) 시사점

- 덴마크의 사례는 인적자원개발 영역에서 기업과 대학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중요한 예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정책적으로도 기업의 노동자에게 지속적인 평생학습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전문가 과정을 선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가차원을 넘어 세계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글로벌 시스템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유용한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3 아시아의 혁신 도시

강 영 주 |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아시아의 혁신 도시

강 영 주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I. 연수 개요

1. 연수 목적

-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혁신을 위한 마인드 향상
- 지역혁신 협의회 구성원 간의 네트워킹 형성
- 지역별 혁신활동 방법에 대한 기본구상 수립에 활용

2. 연수 방향

- 혁신의 모범 사례를 보여주고, 현재까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례를 발굴할 수 있도록 아시아 사례와 자료를 다양하게 확보
- 벤치마킹의 자세한 사례발굴을 위한 핵심 기관 섭외와 핵심인물 면담을 통한 사례 발굴 및 보도
- 방문단 구성
: 광역지역혁신협의회 및 기초지역혁신협의회 위원

3. 방문대상 지역

국가명	대상 도시명		
	High-Tech형	Low-Tech형	기타형 (환경, 신도시, 투자유치)
중국	상해/둥관	상해	광저우/홍콩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	.	Genting Highland

- 방문지 선정 기준
 -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혁신거점을 발굴하여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지역혁신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High-Tech, Low-Tech, 기타 혁신 유형 지역을 안배하여 탐방
 - 한정된 날짜에 맞는 적합한 이동경로와 여행여건 고려

4. 세부 프로그램

○ 방문지역 및 기관 개요

일	국가	도시	방문지역 및 기관	주제	내용
2일차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Genting Highland	낙 후 지역 개발	과거 영국 식민지 시대에 개발된 광산이었으나, 90년 이후 호텔 및 카지노 조성으로 세계적 관광 리조트로 전환됨. 1,000에이커(백만평규모)의 면적에 특급호텔 2개, 카지노, 놀이공원, 컨벤션센터, 쇼핑센터 등 입지
					숙박지 : 말레이시아
3일차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푸트라자야	신 행정 수도 조성	외교, 입법부를 제외한 전 행정부 이전. 인구 25만명을 수용토록 건설됨. 전자정부 구현의 시범케이스로 중이 필요없는 업무환경 구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숙박지 : 홍콩
4일차	중국	홍콩	홍콩 디즈니랜드	외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다국적기업과 지자체간의 전략적인 제휴를 통하여 침체되었던 지역관광산업을 다시 부흥시킨 사례
					숙박지 : 심천
5일차	중국	동관	동관시청	투자유치	제조 및 IT분야의 국내외 기업 입주를 유도하여 각종 다국적기업들이 입주하여 있으며, 새롭게 도시를 계획 구성함으로써, 국내 혁신도시의 또 다른 모델
					숙박지 : 광저우
6일차	중국	광주	광저우시청 / 광저우항	물류중심 도시	동북아 최고의 물류중심도시 구출을 위한 정부 지원방안 및 기반구축 사례를 통한 학습
					숙박지 : 상해
7일차	중국	상해	손교 현대농업 개발국	첨단/친환경 농업 시범구	상해 유일의 국가급 생태 시범구로써, 첨단 및 친환경 농업시범단지(첨단시설 및 무농약농업)
					숙박지 : 상해
8일차	중국	상해	장완 경공업 도매시장	재래시장 활성화	기존의 재래시장을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특정부분에 집중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이바지
					16:00경 인천도착 후 해산

○ 이동경로



■ 겐팅하이랜드 : 말레이시아 최고의 관광 · 휴양 리조트

: 쿠알라룸푸르에서 51km 북동쪽, 해발 1천800m 열대 우림에 자리 잡은 고원 휴양형 리조트

1. 겐팅하이랜드 개관

겐팅하이랜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0년 10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카지노리조트로 우리나라의 강원랜드와 같이 말레이시아의 이슬람교도를 제외한 내국인의 출입이 허용되고 있다.

겐팅하이랜드리조트는 6개 호텔에 약 6천개 이상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휴양지로서는 보기 드물게 연평균 객실점유율 85%이상의 매우 높은 객실예약 실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지상에서 겐팅하이랜드리조트까지 연장 3.4km의 케이블카가 설치되어 시간당 2천명을 수송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산중 골프코스 와 골퍼 전용 호텔이 있어 세계 각국의 많은 골프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주요시설은 호텔, 아파트형 호텔, 컨벤션센터, 테마파크, 인터내셔널쇼룸, 스포츠 시설, 카지노 등 7개로 구분되며, 카지노시설은 테마파크시설 중 일부로 운영되고 있다. 카지노는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일반용 카지노장과 회원 및 초청 고객들만 이용할 수 있는 회원용 카지노장으로 구분 된다.

인공호수, 마상 스포츠를 할 수 있는 목장, 16레인의 볼링장, 실내온수 수영장 은 이 시원한 산지 휴양지의 매력을 더해 주고 있고, 914m높이에서 해발 1,768m에 있는 리조트까지 이어지는 케이블카도 고객들에게 색다른 스틸을 제공하고 있다. 골프 애호가들을 위한 파 71의 18홀짜리 아와나 골프 컨트리클럽이 있으며, 실내의 겐팅템 박은 오락게임과 하이 케트의 조이 라이드 등으로 대중오락을 제공하고 있다. 겐팅 극장식당은 훌륭한 정찬과 국제 디너쇼를 보여주며, 겐팅 카지노에서는 블랙잭, 바커, 키노우, 프렌치 볼, 룰렛, 타이 사이, 슬롯머신 등의 게임을 즐길 수 있다.

2. 개발배경

겐팅하이랜드리조트는 당초 시원한 고원지대에 휴양을 위한 휴양리조트로 건설되었던 것이 카지노리조트로 발전되었다. 보통 카지노리조트의 개발 배경상 외

국인 허용 카지노리조트는 외화 획득이 주목적이고, 내국인 허용 리조트는 지역 경제 발전 및 지역 주민의 소득향상이 주된 목적이 되지만 겐팅하이랜드는 허용되는 내국인 자체가 이슬람교도가 아닌 사람들로 대부분 화교로 구성되기 때문에 외화의 획득이 주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1964년 겐팅하이랜드의 창시자인 임고동은 말레이시아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열대 기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시원한 곳에 휴식처를 설립할 생각으로 고원지대에 산악리조트를 만들기 를 희망하였다. 그는 이에 적합한 지역을 찾아내기 위해 연구한 끝에 쿠알라룸푸르에서 약 58km 떨어진 근처에 이상적인 장소를 발견했으며, 1965년 모두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 이곳에 그의 친구인 하지모하메드 노아빈 오마르와 함께 겐팅하이랜드리조트를 건설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열대 정글을 통과 하는 25.5km의 도로를 건설하는 엄청난 일을 포기하지 않고 4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결국, 이 산지를 말레이시아 최고의 휴양지로 만들기 위해 접근 가능한 지형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 후 꾸준한 개발노력 끝에 지금의 동양최대의 종합 리조트를 건설하게 된 것이다.

3. 개발 테마 · 컨셉

1) City of Entertainment

겐팅하이랜드의 가장 대표적인 컨셉은 Entertainment이다. 이는 Pleasure와 Enjoying외에도 Resting, Amenity, Recreation, Prestige등의 다양한 의미를 모두 뜻한다. 한마디로 복합리조트로서의 모든 메리트를 강조하는 것이다. 겐팅하이랜드는 리조트 내의 대형 카지노로 비교적 큰 명성을 얻고 있지만, 사실상 그에 못지않은 규모와 수준의 호텔, 테마파크, 컨벤션센터, 골프장, 스포츠센터, 극장, 식당 등의 종합적 리조트 시설을 갖추고 있다.

2) Plateau Resort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카지노리조트인 겐팅하이랜드는 일단 그 입지 조건 하나만으로도 커다란 attraction을 가진다. 해발 2000m의 고원에 위치한 겐팅하이랜드는 이곳을 찾는 고객들에게 구름 위의 또 다른 세상을 만나는 즐거움을 제공한다. 또한 더운 기후의 말레이시아 내에서 이색적인 고원지대의 서늘한 기후를 만끽할 수도 있다.

3) Eco Resort

겐팅하이랜드는 자연과 함께하는 진정한 휴양 리조트이다. 숲과 강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자연, 그 곳에서의 휴식뿐만 아니라 그 공간 위에 조화롭게 구성

된 복합 리조트 시설의 편리성이라는 매력을 더해 편안함과 즐거움을 동시에 제공한다. 이는 라스베가스의 다른 카지노리조트들이 내세우는 뽁뽁한 고층건물, 화려한 네온사인, 잘 닦여진 도로 등의 도시적 매력과는 차별화된 메리트다.

4. 개발규모 및 과정

겐팅하이랜드리조트는 면적 12,000acres (약 1,469만평), 지상에서 정상까지의 도로 길이 약 25km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리조트 단지이다. 1965년에 파향 지역의 12,000acres, 1970년 셀랑고 지역 2,800acres 를 각 정부로부터 양도 승인 받았다.

1965년 8월 18일 기술팀과 건설팀이 겐팅하이랜드 꼭대기까지 연결되는 길을 건설하는데 착수하여 4년 만에 이를 완성하였다. 1969년 3월 31일 이 프로젝트는 말레이시아 최초 수상이었던 툰쿠 압둘라만에게 인정받았고 기업의 첫 번째 호텔인 하이랜드호텔(현 테마파크호텔)의 건립이 시작되었다. 정부는 당초 정부지원 없이 순수하게 민간자본으로 시작한 이 리조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카지노 허가권을 주었으며 이때부터 말레이시아 내 유일한 독점적 카지노로서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다.

1971년 하이랜드호텔이 성공적으로 완성되었고 빠르게 증가하는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해서 두 번째인 리아 호텔이 1972년에 완공되었으며 뒤이어 1975년에 펠랑지호텔과 스리라양호텔 등이 완공되었다. 또한 1급 호텔인 겐팅호텔이 1978년 부분적으로 오픈하였고 1981년 완공되었다. 그 후로 많은 인프라 구축에 힘써 1982년 통신시설과 소방대 시설, 도로 시설 등이 개통되었다. 1984년에는 전기 공급도 완벽해졌다. 1990년부터 5개년 개발 계획이 시행되었는데 이 기간에 여러 시설의 증가와 더불어 교통 시스템의 심도 있는 개발이 진행되었다. 또한 직원들의 숙박시설이 스리라양 지역에 만들어졌고 펠랑지호텔에서 테마파크로 연결되는 다리가 만들어졌다. 겐팅테마파크에는 더 많은 게임과 기구, 쇼핑센터와 음식점이 개발되었다. 1995년에는 실내, 실외 테마파크에 롤러코스터가 완공됨으로서 카지노관광 이외의 목적을 가진 많은 관광객들에게 더 많은 흥미를 제공하게 되었다.

5. 투자방법

젠팅하이랜드리조트는 창시자인 임고동이 개인자산을 이용하여 설립한 민간투자기업 젠팅 버하드(Genting Berhad- 젠팅 버하드는 주로 투자 점유와 투자매니지먼트를 하는 회사)의 주도로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 없이 개발을 시작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서 리조트의 주식을 거래하기 시작하면서 개발이 활발해졌으며, 그 후로 꾸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6. 운영상태

젠팅하이랜드리조트는 카지노를 포함한 리조트 단지 매출액에 관한 손익계산서와 대차 대조표를 Annual Report로 작성하여 매년 공개하고 있다. 젠팅하이랜드리조트의 영업수익에는 호텔, 레스토랑, 레크레이션 및 유흥, 교통, 게임운영 수입(Net house taking)이 포함되며 공식자료에는 카지노 수입을 별도로 분리시키지 않고 있다.

젠팅하이랜드리조트의 2000년도 총 영업수익은 33억 8,600만 링깃이었으며, 법인세 납부 후 순손실은 2.5억 링깃이었다. 다음해인 2001년도 총 영업수입은 31억 4,800만 링깃이었고, 법인세 차감 후 순이익은 4억 5,300만 링깃으로, 한화 약 1,548억원에 달하는 흑자를 기록하였다. 또한 2001년도 젠팅하이랜드리조트가 세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5억 8,100만 링깃(약 689억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젠팅하이랜드의 이용자 수는 연간 1,500만 명을 넘고 있다. 당초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운영되었던 젠팅하이랜드는 이슬람교도를 제외한 내국인의 출입이 가능하며 방문자 수는 1994년 660만 명, 1995년 670만 명에서 1999년 1,210만 명, 2000년 1,340만 명, 2002년 1,500만 명, 2004년 1,740만 명, 2005년 1,870만 명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 방문객 수 또한 증가하여 2005년 현재 전체 방문객의 50%를 외국관광객이 차지하고 있다.

7. 운영성과

Malaysia 기업 중 최고 세금 납부 및 외화를 획득하였고, 2005년 아시아 최고 및 세계 최고 카지노리조트 상을 수상하였다.

■ 주강델타 : 광저우, 심천, 동관

1. 광둥성 및 주변지역 기본 현황

광둥성은 역사적인 이유와 지리적인 이점으로 인하여 중국 개혁개방의 시발지로서 중국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 31개 성시 중 GDP 규모 1위(중국 전체 GDP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수출의 30%를 점유하고 있다. 廣東省의 성도인 광저우시는 작년 1인당 소득이 8,300불로서 상해, 심천 다음으로 번영을 구가하고 있다.

작년 중국 중앙정부의 경제발전 4대 중점지구(중, 동, 북, 서)에서 광둥성을 위시한 화남지방이 제외되었으나, 이는 광둥성 등이 중앙정부의 제도 없이도 자력으로 계속 경제발전을 해 나갈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구 분	광둥성	복건성	해남성	광서자치구
면 적	17.98만km ²	12.14만km ²	3.54만km ²	23.67만km ²
인 구 (04년말 기준)	12,100만명	3,511만명	828만명	4,889만명
省會	廣州	福州	海口	南
GDP (성장률)				
- 05년	21,701억 원 (12.5%)	6,560억 원 (11.3%)	904억 원 (10.1%)	4,063억 원 (12.7%)
- 06년 1/4분기	5,206억 원 (13.7%)	1,349억 원 (12.7%)	216억 원 (11.7%)	965억 원 (13.5%)
교역규모 (수출/수입)				
- 05년	4,280억 불 (2,382/1,898)	544억 불 (348/196)	26억 불 (10/16)	52억 불 (29/23)
- 06년 1/4분기	1,058억 불 (583/475)	130억 불 (82/48)	6.4억 불 (2.8/3.6)	15.1억 불 (7.4/7.7)
대외투자유치 (05년말 누계)	127억 불	62억 불	7억 불	4억 불
한국의 대관할지교역 (수출/수입/수지)				
- 05년	205억 불 (160/45/+115)	27억 불 (20/6/+14)	62백만불 (17/45/-28)	195백만불 (99/96/-3)
- 06년 1/4분기	55억 불 (45/10/+35)	7억 불 (5/2/+3)	19백만불 (3/16/-13)	52백만불 (31/21/+10)
한국의 대 관 할 지 투 자 (2004년)	114백만불 (86건)	6.6백만불 (13건)	2.5백만불 (3건)	-
우리기업 (05년말 추정치)	2,000	270	40	55

교민수 (05년말 추정치)	39,800	1,200	110	150
유학생수 (05년말 현재)	2,823	207	18	68

2. 우리 기업의 진출 동향, 현지투자 여건

광둥성은 중국의 3대 경제축인 화남경제권의 중심이나,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광둥성이 지리적으로 비교적 원거리인 데다가 조선족 동포가 적어 경제적인 중요도에 비해서 인지도가 낮다. 그러나 광둥성은 중국 개혁개방의 선두지역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로서는 중요한 교역대상 지역의 하나이다.

한국 · 광둥성 교역액(205억불)은 우리의 제4대 교역국을 능가하는 규모이고, 대광둥성 수출액(160억불)이 우리의 제3대 수출 대상국(일본)에 대한 수출액 다음으로 많다. 우리나라의 대광둥성 무역흑자(115억불)는 제3위 흑자 대상국(미국)과의 흑자 규모를 상회하고 있다.

최근 들어 동 지역의 경제적 중요성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 2001. 8월 영사관 개설시만 해도 광둥성 내 우리 교민 수는 5,000명을 밑돌았지만, 현재는 4만명을 상회하고 있다. 금년 1월 중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 개혁개방 학습차 광저우 및 심천을 방문한 것도 한국인의 광둥성에 대한 관심 제고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광둥성에는 세계 500대 기업 중 200여 개 기업이 이미 진출해 있으며, 우리나라의 대기업도 거의 대부분 진출하고 있다. 광둥성에는 주요 대기업을 포함하여 2,000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고, 특히 *광주개발구에는 LG화학 등 우리기업 6개가 입주해 있으며, 최근에도 한국의 강판회사가 동 개발구에 공장을 건설 중이다.

**광주개발구 : 제작년에 이어 작년에도 중국의 국가급 개발구(54개) 중 GDP 1위를 기록*

심천시에는 우리 기업 1,000개사가 진출해 있어서 역내 최대규모를 보이고 있다. 주로 중소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전기, 전자, 봉제, 완구, 가방, 악세사리, 물류, 서비스업(요식업, 이용업) 등에 종사하고 있다. 특히 광주-심천간 고속버스도 우리기업이 운영하는 버스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관과 해주에는 우리 기업이 각각 400개사 및 100개사가 진출하고 있다.

현지투자 여건을 살펴보면, 광둥성을 비롯한 화남지방은 중국에서 가장 먼저 경제적으로 발전한 지역에 속하며, 79년의 개혁개방 정책 시행에 따라 80년에 최초로 지정된 *경제특구 4곳이 모두 동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

* 4개 경제특구 : 광둥성의 深圳·珠海·汕頭, 복건성의 廈門

주로 하이테크 산업, 에너지 절약형 산업, 그리고 환경친화형 산업이 환영을 받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으로 인해 노동집약적 산업의 투자는 어려운 상황이다.

* 심천특구 최저임금(06.7.1부터) : 810元/월 (중국 최고수준)

이미 준비된 사회간접자본(SOC)과, 임금이 상대적으로 좀 높기는 하지만 질 좋은 노동력, 그리고 대외적으로 개방적인 사회분위기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의 진출이 유망하다. 2001년말 중국의 WTO 가입과 더불어 외국기업에 대한 우대 정책이 차츰 줄어드는 추세에 있으나, 기 진출한 우리 기업들 중 좋은 성과를 도출한 기업도 다수 존재하고 있다. 한 컨테이너 제조업체는 세계 3위의 생산량을 자랑하고 있으며, 작년 말에 진출한 TV 프로그램 공급업체는 동사가 공급한 한국의 오락 프로그램이 남방 TV에서 시청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다.

한편, 복건성은 예전에 대만과의 대치상태 중 최전방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연안지역에 비해 아직 개발이 많이 진행되지 않아, 앞으로 투자진출의 여지가 크다. 地價·임금 등이 여타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고, 성정부차원에서도 투자유치 등 대외경제협력에 매우 적극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 공업용지(05년) : 복주시 334元/m², 광주시 583元/m², 남경시 865元/m²

* 최저임금(05년) : 복건성 470元/월, 광둥성 684元/월, 강소성 690元/월

■ 장강하이테크 단지 : 중국 IT, BT 산업의 중심지

1. 중국경제성장의 엔진과 장강델타

중국의 IT 산업기지로는 상해 포동(浦東)을 중심으로 한 장강(長江)델타 지역, 중관촌(中關村)을 중심으로 한 북경지역, 심천을 중심으로 한 광둥성의 주강(珠江)델타 지역이 있으며, 이 3개 지역이 각기 다른 특징을 갖고 보완관계를 이루어 중국 IT산업의 3대 지역 축을 이루고 있다.

이들 지역은 각각의 특징을 갖고 발전하고 있는데, 최근 가장 발전하고 있는 장강델타지역은 하이테크의 산업 집중화 단지를 이루고 있고, 중관촌 등 북경지역은 연구개발 단지, 주강델타 지역은 IT산



업 제조기지로 발전하고 있다. 최근에는 서부대개발 바람을 타고 중경(重慶), 성도(成都), 서안(西安) 등 내륙지역에서도 첨단산업이 태동하고 있다.

2. 포동신구 개관

▣ 면적

522km²

- 포서지역 기존시가지: 351km²
- 상해시 전체면적 : 6,340.5km² (市區: 3,248.7km²)
- ※ 상해시 행정구역은 황포강 서쪽의 포서지구에 13개의 市區 및 시외곽의 6개의 郊縣과 포동신구로 구성되어 있음

▣ 인구

240만명

- 상해시 전체인구 : 1,674만 명

▣ 위치

상해시를 東西로 가르는 黃浦江 동쪽에 위치

▶ 개발단계

3단계 개발계획

- 1단계(1991-1995년) : 개발초기단계. 4개의 국가급 개발구를 중점 개발하여 중국인 및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여건 조성
- 2단계(1996-2000년) : 중점개발단계. 사회간접자본을 계속 확충하여 비교적 완비된 포동신구 형성
- 3단계(2001-2010년) : 전면적 개발단계. 외향경제를 중심으로 현대화된 공업기지와 금융·무역·과학기술정보의 중심으로 발전

▶ 외자유치 현황

투자건수 급증

구 분	2002	2003	2004년 1-10월
프로젝트 수(개)	964	1,672	1,431
금액(억\$, 계약기준)	26.68	28.75	28.55

※ 자료출처 : 《2004 상해통계연감》, 《상해무역통계월보》

- '04년 말 현재 포동에 설립된 외국기업은 약 1만 여 개, 계약 기준 외자유치액 220억 달러. 중앙정부와 타 지방정부에 의한 투자 건수는 8,000여 건, 투자액은 천억 위안 (약 120억 달러)
- 500대 기업 중 180개 기업, 다국적기업의 R&D 센터 91개가 포동에 입주

▶ 포동 4대 국가급 개발구 현황

○ 육가취(陸家嘴) 금융무역개발구

- 육가취 금융무역 개발구는 南浦와 楊浦 두 개의 교량과 황포강 河底 터널로 포서지구와 연결되어 있으며 제3차 산업 중심지로서 개발 (계획면적 28km², 개발면적 5.8km²)
- 이 지구는 다시 금융무역구, 竹園무역구, 龍陽무역구로 세분화되며, 황포강을 사이에 두고 포서의 외탄을 마주하고 있는 포동신구의 중심지역
- 현재 동 개발구에는 400여 동의 현대화 빌딩이 건설되어 있음. 금융, 보험, 투자, 무역부문의 내외자기업 1,000여개 설립. 그 중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및 대표처 34개,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기구 143개(외자계 은행 63개)
- 최근 CBD(Central Business District)기능에 필요한 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유통업 발전에 중점

○ 외고교(外高橋) 보세구

- 외고교 보세개발구는 포동의 동북부에 위치, 양자강 하구에 접하고 있으며 종합자유무역구로서 보세창고, 수출입 가공산업, 중계무역, 관리단지 등으로 구성(계획면적 10km², 개발면적 7.52km²)
- INTEL, HP, 필립스, IBM, JVC, 삼성, 대우 등 유명한 다국적기업이 진출. 금년 말 현재 72개 국가의 6,000개 기업이 입주, 총 투자금액 73억 달러.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 중 73개 기업이 투자
- 2003년 외고교 항구 화물처리량은 3억 1,800만 톤, 컨테이너 처리량은 1,128만 TEU로 화물선적량 세계 1위, 컨테이너 처리량 세계 3위를 기록

○ 금교(金橋) 수출가공개발구

- 금교수출가공개발구는 포동신구의 중부에 위치. 전체 계획면적 27 km²의 수출 가공 및 국제무역 개발구. 최근 다국적기업의 지역제품 생산기지, R&D 센터, 국제구매센터로 발전하고 있음
- 2003년 역내 공업생산액은 1,083억 위안, 상해시의 1/10, 포동의 1/4. 전자통신, 현대가전, 의약, 자동차제조 4대 산업의 생산기지로 자리 매김
- GM, KODAK, VOLVO, SKF, HITACHI, SIMENS, LG 등 세계 유수기업 60개 업체가 입주, 총 투자액 102억 달러.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 중 32개 기업이 투자. 개발구내의 공업 총 생산액은 매년 50% 증가속도로 증가
- 진출기업의 주요 생산 품목은 완성차 및 부품, 가전, 컴퓨터 소프트웨어, 의약제품 등

○ 장강(長江) 하이테크개발구

- 포동신구의 중부에 위치, 계획면적 25km², 개발면적 10km². 국내의 선 진기술을 도입하여, 마이크로 전자, 컴퓨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신소재 등 첨단 분야의 산업을 육성하는 데 중점
- 중국 국무원 機電部가 5억원을 투자하여 통신 분야 소프트웨어기업을 설립한 것을 비롯하여 미국의 모토롤라, 스위스 호프만제약 로쓰제약, 미쓰시다, SKB 등 주로 통신 및 제약업체가 진출. 2002년 말 현재 투자 프로젝트 564건, 투자액 90.01억 달러
- 첨단기술을 접목한 문화산업 육성에도 역점을 두고, 문화산업과 문화시장 시스템을 구축. 금년 말 시공, 2006년 완공 예정으로 애니메이션 박물관 건설
- 장강 첨단기술구에는 100여 개 첨단기술 창업기업과 50여개 연구개발 기구, 전문가 3만 명이 집적. 이러한 관련 기술을 활용하고, 점차 커지고 있는 아동시장을 겨냥하여 애니메이션, 온라인 게임, 전자출판 등을 위한 하드웨어 구축

▶ 투자인센티브 제도

구분			지원내용
세 제 지 원	법 인 세	적용세율	포 동지역 : 15%(일반세율 30%)
		감면기간	- 생산형 기업 : 2 년간 면제 , 3 년간 50% - 인프라형 기업 : 5 년간 면제 , 5 년간 50% - 금융형 : 1 년간 면제 , 2 년간 50%
		수출기업우대(수출비 중 70% 이상)	10%(경감세율)
		선진기술 기업우대	10%(경감세율)
	지방소득세		3%(상해시 정부가 결정)
	수출품의 관세 공상통일세		생산설비 , 원재료 등에 면세 (원유 등 국가가 규정하는 제품 이외)
	송금세		면제
	재투자에 대한 환급		기납부금액의 40% (제품수출 , 선진기술기업 100%)
	토지 관련		
행정 지원			원스톱 서비스

※주요지원대상 : 금융, 무역, 정보통신

3. 포동구 장강하이테크단지

상해 인근 장강(張江)하이테크 단지는 포동 신구 중부에 위치한 국가급 하이테크 단지로 포동신구 4대 중점개발소구 가운데 하나이며 총 면적은 25km²이다.

이곳은 기술혁신구와 하이테크실험산업구, R&D교육구, 생활서비스센터구, 거주단지와 파기산업구 등 6개의 기능구로 나뉘어져 있다. 소주공업원구가 국제간 정부합작 형식으로 형성된 반면, 장강단지는 중국 대기업이 투자해 만든 공업단지다.

이곳에서는 정보기술과 생물의학의 양대 하이테크산업을 주도산업으로 기업혁신과 창업기능강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단지 내에는 42개의 국내외 일류 제약회사들이 활동 중이고 중국과학원 약물연구소와 국가 인류유전

자팀 등 31개의 연구개발기구가 있다.

장강단지 내에서 가장 큰 IT 기업으로는 중홍통신이 있다. 중홍통신은 중국 최대 통신장비 제조업체이자 무선서비스 업체로 국무원의 인정을 받은 중국 520개 중점육성 국유기업 가운데 하나이다. 동시에 근래 중국 시장에서 성장속도가 가장 빠른 통신관련 제조 업체의 하나로 휴대폰을 포함한 무선제품을 주로 생산하고 있다.



지난 1월 전격적으로 상하이를 방문한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포동(浦東)을 배우자'며 찾아간 곳이 바로 장강(長江)하이테크 단지였다.

장강하이테크 단지는 지난 91년, 중국 정부가 포동 개발을 시작할 때 루자쭈이(陸家嘴) 금융무역구, 와이가오차오(外高橋) 보세구, 진차오(金橋) 수출가공구와 함께 포동의 4대 중점 개발구로

만들어진 중국의 대표적인 IT단지다. 지난해에만 645개의 기업이 새로 입주했고, 이 중 191개가 외국기업이다.

1993~99년에 이곳 장강하이테크 단지에 대한 투자액은 1억~2억 달러 수준에 지나지 않았으나 지난해 투자액이 급증하기 시작해 무려 34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투자액 34억 달러 중 32억 달러를 외국인이 투자했다.

단지 중심부에 위치한 푸동생산력촉진센터(浦東生產力促進中心)는 장강 하이테크 단지에 들어서는 국내외 업체들을 위해 각종 기초자료와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고급 인력을 소개하거나 창업자금을 융자해 주는 역할까지 떠맡고 있는 투자유치의 산실이다.

1998년 8월 상해시위원회와 시정부는 “장강으로의 결집”이라는 정책전략을 내걸고, 생물 의약과 정보기술 양대 하이테크 산업을 주요산업으로 하여 이 단지를 집중 육성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이에 장강단지는 급속한 발전을 경험하게 된다.

현재 장강단지는 개발면적 10km²의 규모를 갖추고 10년의 개발과정을 거쳐, 3대 국가급 기지(국가 상해 생물의학 과기산업기지, 국가 정보기술산업 기지, 국가 과기창업기지)의 큰 틀을 조직하고, 그 안에서 생물의학, 집적회로, 소프트웨어의 3대 주도 산업을 구성하였다. 생물의학산업분야에서는 현재 Roche, 글락소, Smith Kline, 선봉제약회사 등 43개 국내외 일류 제약회사들로 구성된 산업단체를 형성하고 있으며, 중국과학원 약품연구소, 국가 인류 게놈 남방연구개발센터 등 23개 연구개발 조직을 동원하는 한편, 120여 개 중소형 과학기술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창업단체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정보산업기지는 집적회로와 소프트웨어 산업을 동력으로 컴퓨터와 통신, 광전자, 정보보안, 은행카드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에 SMIC, 핑력, 패링 등 IC 제조업체의 뒤를 이어 44개의 칩 설계회사, 3개의 실리콘칩 제조회사, 10개의 광모듈 및 장착실험기업, 10개의 연구개발 교육기구 및 25개의 부대설비 제공 회사가 장강으로 모여들어 집적회로 산업의 기초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몇 년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면적 12만m²의 포동 소프트웨어 단지는 국가 소프트웨어 산업의 기지로 거듭났다. 미국의 블랙보드 소프트웨어 개발센터, Synopsys, 시티뱅크 아태지역 연구개발센터, 일본 소니 상해소프트웨어연구개발센터, 코세라, 인도의 TCS, 새티암 등 저명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이곳에 집중되어 있어, 소위 “국가 소프트웨어 산업기지”라는 이름에 걸맞는 면모를 자랑하고 있다.

과기창업기지는 각종 모델, 형식의 창업 인큐베이터로써 독보적인 창업기능을 발휘하였고, 신경제기업들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내고 있다.



중국 경제 개방의 상징으로 처음 경제특구를 설치한 광둥성(廣東省)의 심천특구의 IT단지가 하드웨어와 주변기기 중심으로 구성되었다면 상하이 장강하이테크 단지와 베이징 중관춘은 주로 소프트웨어 분야의 진출이 활발하다.

장강 하이테크 단지에는 IT업체들뿐만 아니라 생물분야를 연구 개발하는 바이오 분야의 연구소와 기업들이 즐비하다. 미국의

모토로라, 스위스의 로쉬, 독일의 베링거인겔하임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통신회사와 제약회사들이 모두 입주해 있다. 베이징의 IT단지로 유명한 중관촌이 주로 중소 IT기업들이 경쟁하는 곳이라면 상하이의 장강하이테크 단지는 국내외 통신 및 바이오 관련 대기업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원천 기술개발에 몰두하는 곳이다.

■ 푸트라자야 : 2012년 완성될 최첨단 신행정 도시

1. 푸트라자야 개관

말레이시아는 1993년부터 지금의 수도인 쿠알라룸푸르 인근인 푸트라자야에 최첨단 행정도시를 건설해오고 있다.

푸트라자야(Putrajaya)는 쿠알라룸푸르부터 차로 50여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말레이시아 행정도시 푸트라자야의 건설은 말레이시아를 동남아시아 정보통신 및 멀티미디어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푸트라자야에는 1999년 총리실 이전을 시작으로 현재 약 2만 5000명의 공무원이 이 전해 있고, 앞으로 공무원 및 일반시민의 입주가 완료되면 약 33만 명이 거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호수를 중심으로 건설된 정부 건물과 주거지역

말레이시아 최대의 도시 개발 프로젝트인 푸트라자야 건설은 1993년 당시 마하티르 총리에 의해 계획된 '말레이시아 첨단기술발전 중장기 프로젝트'에 포함된 계획의 하나로 말레이시아 최초의 인텔리전트 도시를 지향하였다. '푸트라자야'란 명칭은 말레이시아 초대 수상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

2. 최초의 인텔리전트 도시 지향

이 도시는 쿠알라룸푸르 남단에서부터 최근 포물러1 자동차 경주와 국제공항으로 널리 알려진 세팡에 이르는 '멀티미디어 수퍼 코리도'라는 지역 안에 건설되

고 있다. 멀티미디어 수퍼 코리도는 신도시와 최첨단 사무실, 공원 등을 갖추고 있으며, 고속도로와 신속한 운송망, 고속 통신망이 서로 연결된 정보 도시 권역으로 개발 중이다.

말레이시아인들의 21세기를 향한 이상이 깃든 이 도시는 약 1천100만평의 면적에 대략 33만 5천 명을 수용할 계획이다. 이 건설 프로젝트는 총 2단계로 진행되고 있는데 완공 목표는 2012년이다. 1단계 공사는 1996년에 시작되어 2004년 초에 완공됐으며, 정부청사, 공공위락시설, 사회기반시설, 주거시설, 습지대 및 공원 등이 들어서 있다.



낮에 본 수상집무실

푸트라자야는 핵심지역인 5개 구역을 포함한 20개 구역으로 나뉜다. 이 외에도 14개 구역에 54만 평의 주거지역과 습지대가 조성될 예정이다. 주거지역은 총 면적의 약 30퍼센트에 해당하는 330만 평을 차지한다. 이 밖에 12곳의 공원과 정원, 습지대가 조화롭고 자연 친화적인 형태로 조성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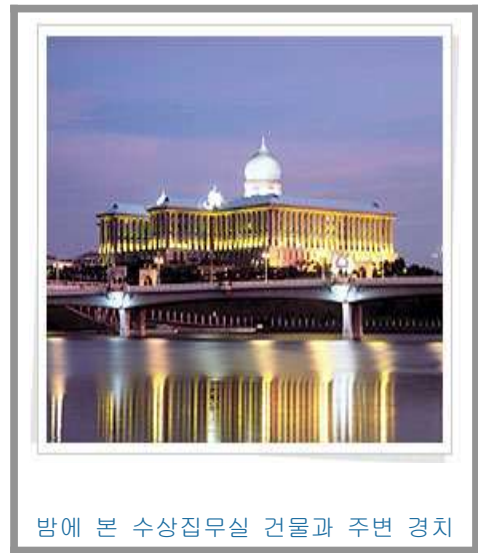
또한 버스, 경전철, 해상교통, 공원형의 여객터미널 등을 지닌

‘도시내’~‘도시간’ 완벽한 운송시스템과 인프라를 갖춘다. 커뮤니케이션, 엔터테인먼트, 안전관리 및 에너지관리 등 미래형 첨단 도시의 시설 구축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우리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푸트라자야는 막대한 개발비용의 부담을 덜기 위해 개발 시행을 이원화해서 병원, 학교, 시장, 식당가, 공동모임 시설 등은 정부가 직접 공급하고 정부청사, 공무원주택단지, 기간시설, 일부 공공편의시설은 민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민간개발의 관리 및 책임은 ‘푸트라자야 홀딩스’가 담당하고 있다. 푸트라자야 홀딩스는 투자자로부터의 자금 유치, 은행으로부터의 차입, 채권발행을 통한 차입 등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푸트라자야의 건축물들은 웅장하면서도 독특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환경 친화적인 주변녹지와 더불어 한 폭의 그림과 같다는 평을 자주 듣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곳의 상징은 무엇보다도 ‘페르다나 푸트라’라 불리는 수상집무실 건물이다. 주변에 푸트라자야 호수를 끼고 있으며 이슬람 및 16세기 무굴시대 건축양식을 엿볼 수 있는 건축물이다. 독특한 석조건물 위에 양파모양을 본뜬 모자이크식의 녹색지붕은 마치 인도의 타지마할을 연상시킨다. 특히 야간에는 다양한 주변 조명 빛과 어우러져 경관이 압권이다.



밤에 본 수상집무실 건물과 주변 경치

세리 페르다나(수상 관저)는 호수를 끼고 돌아 수상집무실 건물 북쪽에 위치한다. 수상의 공식 행사 및 주요방문객 접대장소로도 사용되고 있다. 전통 말레이 및 이슬람 건축양식을 중심으로 한 동양미와 곳곳에 가미된 서양 건축양식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푸트라 모스크 전경

수상집무실 바로 앞쪽 광장을 끼고 위치한 핑크 색채를 띤 웅장한 건물은 이슬람사원 푸트라 모스크다. 독특한 색채와 웅장함이 방문객들의 시선을 집중시킨다. 이 사원은 총 1만5천 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카사블랑카에 있는 하싼사원을 본떠 지어졌다.

3. 인근 과학 도시 사이버자야와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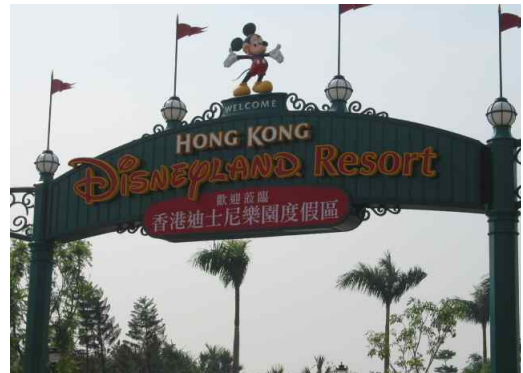
푸트라자야와 인접한 사이버자야는 2011년까지 멀티미디어산업, 연구개발센터, 멀티미디어대학, 멀티미디어기술을 이용한 세계적인 제조 및 무역활동을 지위할 다국적기업의 운영본부를 갖춘 정보도시로 건설되고 있다. 따라서 푸트라자야의 행정 및 주거기능도 이웃한 사이버자야의 산업기능과 조화를 이루도록 추진되고 있다.

■ 홍콩디즈니랜드 : 란타오섬의 테마파크

1. 개요

2005년 9월 12일 개원, 세계에서 5번째의 디즈니리조트로 디즈니테마파크로서는 11번째이며, 아시아에서는 동경디즈니리조트에 이어 두 번째의 시설이다.

장소는 란타오섬 북부의 페니만, 1998년에 개항한 홍콩국제공항의 인근이다. 공항 건설시에 인근까지 지하철이 개통되었고, 단거리의 디즈니랜드선이 2005년8월1일 개통되었다. 홍콩지하철中環역에서 약 25분 거리, 면적은 126헥타이다.



홍콩디즈니랜드 입구

2. 위치

홍콩은 크게 나누어 九龍, 香港島, 新界, 大嶼山(란타오도)등의 지역·섬을 포함해 대소120여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다. 홍콩디즈니랜드는 그 중에서 최대의 면적을 자랑하는 大嶼山(란타오도)의 북동쪽 끝에 위치하고 있다.

홍콩디즈니랜드가 위치한 大嶼山(란타오도)은 섬전체가 산으로 이루어져 있어 디즈니랜드 주위에는 홍콩국제공항과 寶蓮寺(보련사)의 거대한 불상 이외의 시설물은 드물다.

홍콩은 좁은 토지위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어 테마파크를 건설할 만한 넓은 토지가 드물어 란타오도에 건설된 것으로 보인다.



홍콩디즈니랜드를 중심으로 한 홍콩지도

3. 민관 합작투자(홍콩정부-월트디즈니사)의 추진

1999년 11월에 홍콩특별행정구정부는 공항이 있는 첵랍콕도에 인접한 란타오섬 북동부의 페니만 126ha에 월트디즈니사(由迪士尼公司)와 테마파크'홍콩디즈니랜드(Hong Kong Disneyland; H K D 香港迪士尼樂園)를 건설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계획에 합의하고 이를 공표하였다. 이 계획에 의해 홍콩디즈니랜드는 2003년부터 착공을 시작하여 2005년 개원을 맞이하게 되었다.

홍콩정부와 디즈니사 양자는 테마파크의 건설·운영을 위해 홍콩국제테마파크유한공사(Hong Kong International Theme Park Ltd; H K I T P 香港國際主題公園有限公司)를 설립하고, 초기자본 57억 달러 중 홍콩정부가 57%인 32억5천만 달러를 출자하고 월트디즈니사는 43%인 24억5천만 달러를 출자하였다. 이러한 초기 자본투자에 대해 홍콩정부는 장래 제3자의 투자 확대시 디즈니사가 최소 19억주(1달러당 1주)의 지분을 소유토록 제한조항을 설정하였다.



건설현장(2004년10월)

디즈니랜드건설을 위한 총 투자비는 140억 달러로 이중 초기자본투자 57억 달러를 제외한 84억 달러는 부채로 조달되었다. 부채 중 61억 달러는 정부대출로 충당되었고(25년 상환조건), 나머지 23억 달러는 시중은행에서 충당되었다.

또한 홍콩정부는 인프라구축을 위해 136억 달러를 투자하여 기타 기초시설과 교통망 정비를 추진하였다.

제1기 계획은 디즈니테마파크, 디즈니를 주제로 하는 리조트·호텔·복합시설 및 상업·음식·오락센터로 구성되어 2005년에 개원하였으며, 제2기 계획에서는 면적을 180ha로 확대할 예정이다.

홍콩디즈니리조트의 건설은 향후 40년간 1,480억 달러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개장과 함께 직간접적으로 18,4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리조트 건설공사만도 6,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어 홍콩 경제에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 홍콩국제공항과 홍콩디즈니랜드의 관계

홍콩국제공항은 홍콩도의 서쪽에 위치하는 란타오도의 해안에 조성된 첵랍콕(Chek Lap Kok, 赤鱗角)島에 설치되어 있으며 1998년 7월에 개항하였다. 신공항은 1,248ha로 구.홍콩국제공항(啓德空港)의 4배의 넓이이며, 개항당초의 처리 능력은 여객이 연 4,500만명(啓德空港은 96년 실적으로 2,950만명), 화물이 동 300만톤(동156만톤)으로 세계유수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홍콩국제공항으로부터 홍콩도의 중심부까지 35.2km를 地鐵公司(MTR Corporation)가 경영하는 에어포트익스프레스로 23분에 갈 수 있다.

개항초기 홍콩국제공항은 아시아 경제위기의 영향을 받아 공항의 승객수가 감소하고, 높은 수준의 착륙, 주차비 등의 영향으로 항공기의 이착륙이 당초 예상한 수치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홍콩특별행정구정부(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Government)가 전액 출자한 홍콩공항공단(the Airport Authority Hong Kong, 香港機場管理局)은 여객수를 늘리기 위하여 2001년부터 착륙료, 주차료를 15% 인하하고, 공항주변의 개발을 추진하였는데 그 일환으로 계획된 것이 홍콩디즈니랜드 리조트 건설이다.

5. 타 디즈니랜드소재지와 비교

[기후]

구분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우량(mm/年)
캘리포니아	18.6	29	9	379
플로리다	23.8	33	9	1455.7
동경	16.2	31	1	1405.2
파리	11.5	25	1	647.9
홍콩	22.5	31	13	2222.7

기후적으로는 애너하임의 디즈니랜드가 가장 쾌적하고, 플로리다와 홍콩은 더운 편이다.

[교통과 주변인구]

구분	교통편	주변인구(만명)
캘리포니아	로스엔젤레스국제공항으로부터 차로 약 50분	3,614
플로리다	올랜드국제공항으로부터 셔틀버스로 약 30분	1,598
동경	동경역에서 JR케이바선, 무사시노선으로 약 15분 하네다공항으로부터 직행버스로 약 50분 나리타공항으로부터 직행버스로 약 50분	4,067
파리	샤를 드 골 공항에서 전차로 약 10분 샤를 드 골 공항에서 셔틀버스로 약 45분	219
홍콩	미발표	698

6. 홍콩디즈니랜드의 경영혁신

2005년9월12일 개원 첫날, 홍콩디즈니랜드는‘스태프의 서비스가 나쁘다, 면적이 좁다, 어트랙션 프로그램이 적다’는 등의 불만이 분출하였고, 현지시간 오후4시에는 투머로우랜드의 어트랙션 ‘스페이스 마운틴’이 고장나는 등의 트러블이 발생하였다.

이와 함께 중국 본토로부터의 서비스객 중 매너가 좋지 않은 서비스객이 많다는 사실이 미디어에서 소개되어, 개원 초년도의 중국 국경일을 낀 대형연휴에 홍콩을 방문한 서비스객은 홍콩의 여행업계가 예측한 70만명, 홍콩정부예측의 50만명에 크게 못 미치는 42만명에 불과하였다.

이에 따라 2006년 1월 10일 미국 디즈니파크&리조트사는 업적부진을 이유로 홍콩디즈니랜드 리조트의 디즈니측 총책임자인 돈 로빈슨을 경질하고, 후임으로 디즈니 크루즈라인을 설립한 실적이 있는 ‘빌 어네스트’를 기용하여 개원 4개월 만에 대대적인 개혁을 가하였다.

‘빌 어네스트’를 중심으로 디즈니랜드는 운영혁신을 통해 서비스를 개선하고 타 디즈니리조트보다 열악한 기후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장외 행사(이벤트)와 놀이기구를 최소한으로 하고, 대부분의 어트랙션과 놀이시설을 실내로 하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더불어 장내에서 벌어지는 뮤지컬, 3차원입체영상 등 볼거리의 수준을 높여 경쟁력을 확보하였다.

■ 해외정책연수 시사점

금번 해외연수를 통해 우리 지역개발 및 성장동력의 창출에 있어 비자원의 자원화, 유니크한 프로그램의 개발, 선택과 집중의 실천, 효율적인 민자유치, 랜드마크의 개발, 경관에 대한 고려 등과 같은 6가지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1. 비자원의 자원화 전략

비자원의 자원화 개념은 일본 토호쿠대학의 권기철 교수에 의해 처음 주창된 개념으로 기존의 자원 활용 개념에서는 비자원으로 구분되던 것을 독자적 사업 개발 혹은 프로그램개발을 통해 자원화하는 지역개발전략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스웨덴의 노르보텐(Norrbotten)지역은 황량한 바위와 험악한 지형으로 유명하고 지하자원이 적은 지역이다. 이러한 험악한 지형과 지하자원의 부족이라고 하는 비자원을 스웨덴은 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이곳에 험악지형 자동차 시험장을 건설하였고 이를 통해 자동차 테스트 산업을 발전시켰다. 이번 해외 연수중에도 특히 홍콩은 매우 자원이 적은 곳으로 비자원의 자원화 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화강암층으로 구성되어 식물이 거의 자랄 수 없고, 기존의 시설물이 없는 란타오섬을 이용해 공항을 만들고 이러한 시설의 동반 활성화를 위해 아파트촌이 건설되고, 디즈니랜드가 건설되었다.

특히 디즈니랜드는 더운 날씨라고 하는 비자원을 자원화 하기 위해 모든 어트랙션 시설을 실내에 설치하고, 더운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시원함과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야외의 이벤트를 줄이고 실내의 각종 수준 높은 공연을 확충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었다.

말레이시아의 겐팅하이랜드 또한 해발 2000m가 넘는 고지와 험악한 산지라고 하는 지형을 자원화 하여 동양최장의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관광의 재미를 더하였으며, 화교자원에 의한 경제력 집중이라고 하는 비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외국인 뿐 아니라 국내인 중 화교의 출입을 허가하는 카지노를 설치하고 막대한 세수를 거둬들이고 있다. 더운 날씨라는 비자원을 높은 산지 위에 리조트를 건설함으로써 자원화한 것도 홍콩디즈니랜드의 예처럼 주목해 볼만 하다.

우리 지역의 경우도 이러한 비자원 중 자원화 가능한 것이 없는 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간단히 검토할 수 있는 것이 농촌의 고령인구이다. 농촌 고령화 문제는 농촌의 비자원화라고 치부하고 복지정책에만 치중할 수도 있지만, 체험 관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하나의 자원화가 가능하다. 도시의 매마른 환경에서 생활하던 도시민들이 체험관광을 찾게 되는 이유는 농촌체험의 각종 어트랙션뿐만 아니라 소박한 고향의 부모님에게서 느끼던 정을 느껴보고자 하는 측면도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고향의 부모님을 느낄 수 있는 시골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겨울눈이 많이 오는 평창은 겨울스포츠의 대명사가 되었고, 폐탄광으로 활력을 잃어가던 강원도 정선 등은 카지노 산업의 대명사가 되었고, 보잘 것 없던 함평은 나비축제의 고장, 환경친화적인 농산물의 대명사로 바뀌었다. 그렇다면 과연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 우리 지역은?, 여름철 매년 수해가 나는 우리 지역은?, 산악지형이 많아 지역경제가 열악한 우리 지역은? 등 지역의 비자원에 대한 전략적 검토가 다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유니크한 프로그램의 개발

작년 대구에서 개최된 지역혁신박람회에서 세미나에 강사로 초빙된 일본의 한 교수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왜 우리 일본의 지역개발정책이 대부분 실패로 끝났는지 그 원인을 아십니까?”, 이에 대한 그의 대답은 명쾌했다. “우리 지역개발이 실패한 것은 모방 때문입니다.” 한 지역이 독자적인 지역개발 프로그램을 내 놓으면 이 프로그램에 대한 전국적인 이미테이션(모방)이 일어나게 된다. 혁신적인 사례로 정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소란을 떨고, 이러한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해야 한 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게 된다면 처음 시작한 지역뿐 아니라 나중 참여하게 되는 모든 지역들이 동시에 실패하게 되는 Lost-Lost의 상황이 실현되고 만다. 따라서 지역들은 Lost-Lost의 상황을 유발하는 레드오션을 지양하고 블루오션을 추구해야 한다.

지방자치제는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지표를 이용한 타 지역과의 비교를 통해 단기적인 성과에 너무 집중해 버리는 단점을 내포하고 있다. 인근 지역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사업에 대해 왜 우리 지역에서는 추진하지 않느냐고 하는 비판이 날아들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주체적인 전략을 수립하지 못하고 모방에 달려들어 버리는 폐단을 내게 되는 것이다.

말레이시아의 겐팅하이랜드는 카지노의 영업권을 엄격히 한 지역에만 제한함으로써 지역 간 과도한 경쟁의 확산을 막고 있다. 중국의 동관지역은 타 지역보다 한 발 앞서 외자기업에 대한 전담부서를 확충하고 지역에 진출하는 기업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홍콩은 관광자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야시장과, 고층건물의 점등을 통한 야경 정비, 홍콩 시내 유일한 작은 산을 이용한 야경 관광코스 개발, 전통음식 등으로 해마다 수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3. 선택과 집중의 실천

지역개발에 있어 선택과 집중의 원리는 하버드 대학의 허슈만 교수의 불균형성장론에서 그 원류를 찾아볼 수 있다. 허슈만 교수는 기술개발에 있어서나 지역개발에 있어서나 가장 보틀넥(장애)이 되는 부분을 찾아내 자원을 집중함으로써 성장에 대한 자원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미국에서는 정책적으로 활용하여 일본의 반도체 산업에 대항하기 위한 제5세대 반도체 라인 연구시설을 설치시에 전국에서 공모를 받고 선택기준(지역사회의 참여정도, 연구대학의 존재, 대학과 지역사회의 연계정도 등)을 충족하는 대상지중 텍사스 오스틴에 각종 연구시설을 설치하고 이곳을 중심으로 반도체관련 핵심역량을 집중하게 된다.

우리나라도 지방자치체가 해를 거듭하고 참여정부에 들어서 지역의 내발적 성장에 대한 주장들이 제시되면서 균형발전과 함께 선택과 집중의 논리가 지속적으로 주창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보다는 실천이 더욱 중요하다 할 것이다. 경제적으로 가장 보틀넥이 되고 있는 부분을 해결함에 있어 정치적인 논리가 끼어들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사항이 구호에 그치고 균등배분이 되고 있는 않은가를 반성해야 할 것이다.

말레이시아의 겐팅하이랜드나 푸트라자야의 개발은 장기적 비전과 전략, 그리고 이의 실천을 위한 부족한 자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각종 경제특구(우리가 방문한, 심천, 동관, 상해 등)는 이러한 선택과 집중의 세계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물론 이로 인한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나,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타 지역과는 또 다른 선택과 집중이 일어나 균형성장을 이루어간다는 것이 이론의 요지이므로 선택과 집중으로 인한 단기적인 부작용에 대한 염려보다는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4. 효율적인 외자유치

외자유치의 효과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 중 주로 제시되는 것이 고용증대효과, 세수확보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이다. 그러나 이러한 직접적인 효과 뿐 아니라 기업 간 관계에서 발생하는 부차적인 효과 또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지역경제의 장기적인 활성화가, 설비투자 뿐 아니라 지역의 혁신주체가 총체적으로 참여하는 혁신체계의 구축에 의해 좌우되는 지식경제시대에는 기업 간의 관계, 기업과 대학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통적 기업 간 관계는 하청관계로 대변되는 대기업과 주변의 하청 중소기업들로 구성되는 수직적인 형태로 구성되어 왔다. 혁신체계의 구축에는 이러한 지시와 복종에 의한 수직적인 관계보다는 지식의 공유와 학습의 확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직적인 형태의 기업 간 관계를 좀 더 유연한 수평적 관계가 가미된 형태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수평적 기업 간 관계를 유지해 온 해외기업의 유치는 우리나라의 기업 간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기술이전에 의한 기술고도화 또한 부차적이지만 중요한 효과중의 하나이다. 충남의 홍성에는 텐소풍성이라는 자동차 부품 1차 벤더가 진출하여 이와 같은 기업 간 관계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방문지 중 홍콩의 디즈니랜드는 홍콩정부와 미국 디즈니사의 공동투자로 건설되었다. 공동투자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국 디즈니사의 뛰어난 콘텐츠와 지금까지 축적된 경영노하우가 홍콩디즈니 성공의 열쇠라고 볼 수 있다. 또 하나의 열쇠를 쥐고 있는 홍콩정부의 인프라 투자지원과 디즈니의 운영능력이 결합되어 비록 면적은 작지만, 매력적인 테마파크가 조성된 것이다. 외자유치의 효과를 직접적인 효과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부차적인 효과까지를 내다 보고 유치에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5. 랜드마크의 개발

대전역에서 열차를 내리면 외국인들이 처음 하는 말이 있다. 대전은 첨단과학기술의 도시라고 들었는데, 첨단과학의 냄새를 전혀 느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상이 외국인들에게 전해지게 된 원인은 역 앞에 첨단과학기술을 상징

할 수 있는 랜드마크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나마 엑스포 공원에나 가야 특이한 건축물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들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말레이시아의 푸트라자야에 건축된 수상집무실, 상해 중심부 푸둥지구에 건설된 동방명주 타워 등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실용적인 면에서 이러한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겠는가? 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으나, 최근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을 짓기 위한 중국, 미국, 두바이 등의 경쟁은 세계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건축물은 지역의 랜드마크로서의 기능을 담당한다. 맨하탄의 자유의 여신상, 이번에 뉴욕에 건축되는 평화센터 또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의 쌍둥이빌딩 등은 단순한 임대건물로서의 기능 뿐 아니라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명소가 되고 있고, 그 도시를 떠 올릴 때 그 도시의 이미지를 제공한다. 우리 도시지역에 부족한 이러한 랜드마크의 건설은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그 지역을 대표하는 건물로서 손색이 없도록 설계되고 건축되어야 할 것이다.

6. 경관에 대한 고려

금번 연수 중 가장 눈에 띄게 우리나라의 도시와 비교되는 대상지역 도시의 특징은 경관에 대한 심각한 고려라고 할 수 있다. 푸트라자야는 중석을 채취하고 파여진 땅에 호수를 조성하여 도시의 온도를 쾌적하게 낮추고, 경관을 미려하게 바꾸어 놓았고, 홍콩은 고층건물들로 꽉 찬 비좁은 도시를 아름다운 관광명소로 바꾸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고층건물들에 조명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상해나 심천 등지도 경관조성을 위해 건축물들의 배색, 배치, 설계가 다양하게 고안되고 있었다.

앞으로의 도시는 꼭 생산적이고, 살기편한 밀집지역으로서의 도시가 아니고, 편안함과 아름다움이 조화를 이룬 도시로 건설되어야 할 것이다.

산업의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첨단농업개발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 도시 경관 및 랜드마크의 건설, 유니크한 자원을 활용한 관광활성화 등 금번 연수단이 방문한 지역은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례의 모델들을 제시하여 주었다. 우리나라에서도 각 지역별로 독특한 자원을 이용한 사례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 지역에선 다른 지역이 아니까 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프로그램들을 늘려가는 사례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우리지역들이 전부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편리하면서도 아름다운 지역들로 발전되어 나갈 것을 기대해 본다.

4 창조도시와 클러스터

백운성 |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원

창조도시와 클러스터

백운성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원)

序

21세기는 창조도시가 주도한다. ‘창조계급’의 저자인 리차드 플로리다는 “창조계급이 살고 싶어 하는 도시가 미래의 창조적 중심지로 번성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산업 국가이고 가장 풍요로운 나라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또, 미국이 발전하여온 전략은 가장 진보된 국가이고, 적어도 발전전략이라는 측면에서는 지구상의 어느 국가보다도 많은 경험이 축적되어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면에서 미국은 세계 각국으로부터 국가발전전략 및 지역발전 모델에 대한 선진국으로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21세기는 창조도시가 주도한다. ‘창조계급’의 저자 리차드 플로리다는 “창조계급이 살고 싶어하는 도시가 미래의 창조적 중심지로 번성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창조적 계급이라 함은 재능(Talent), 기술(Technology), 관용(Tolerance)이라는 3T로부터 이윤을 창출하는 새로운 계층을 일컫는 말이다.

1. 랄리(Raleigh)

; 미 동부의 실리콘밸리, RTP

R&D중심의 혁신클러스터, 리서치트라이앵글파크(Research Triangle Park, RTP)



리서치트라이앵글파크(Research Triangle Park, RTP)는 대서양 연안 미 동부지역 노스캐롤라이나주 중부에 위치한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혁신클러스터로서 사업과 커리어를 위한 최고의 장소로 잘 알려진 곳이다. 리서치트라이앵글파크는 노스캐롤라이나의 중소도시 랄리(Raleigh)-드럼(Durham)-채플힐(Chapel Hill)을 중심으로

로 지역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새로운 벤처기업의 산실이 되어 세계적인 연구단지로 조성하여 동부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지역이다.

경제력 쪼찌의 도시에서 가장 살고 싶은 도시로!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섬유, 담배, 가구 등 세 가지 전통적 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곳이었다. 그러나 60년대 이후 섬유는 아시아 생산자와의 경쟁에서 뒤처지고, 담배는 자동화 생산 시스템의 도입과 수요 급감으로 위기를 맞고, 가구는 미국 내 북동부로의 공장 이전이 진행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하기 시작하였다. 경제적 위기는 지역 내 대학의 졸업생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인재유출 및 고갈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우수한 인력들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면서 지역은 더욱 빈곤해지는 악순환을 끊고자 지역 내 리더들의 논의 과정에서 고안된 것이 바로 RTP다. RTP의 개발과 운영은 주정부, 지방정부, 참여업체 등으로 구성된 민간 비영리법인 리서치트라이앵글재단(Research Triangle Foundation, RTF)에서 맡고 있다. RTF는 1959년 고용창출과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졸업생의 타주 유출을 방지할 목적으로 당시 와코비아 은행과 개인투자자들이 주민들에게 채권을 발행해 모은 200만 달러를 기초로 약 500만평의 토지를 매입하면서 활동을 시작하였다. RTF는 Triangle지역과 노스캐롤라이나내의 학술연구의 유지와 개발, 과학기술적 편의 제공, 대학·연구소·기업·정부의 협력 활성화를 기본 목표로 하여 출발했다. 50여년전, 미국 50개 주 가운데서 경제력이 48위로 거의 쪼찌였던 노스캐롤라이나주는 90년대 초엔 30위로 도약했고, 2002년에는 미국 첨단과학기술 잠재력 평가에서 17위를 차지하는 놀라운

발전을 이룩했다. 또한 미국 언론에 소개된 오늘날의 RTP 권역은 '살면서 근무하기 좋은 곳 1위', '교육환경 1위', '사업과 취업 여건 3위' 등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각광을 받고 있다.

현재 840만 평 규모의 RTP는 글라소 웰컴, 시스코 시스템, 노텔 네트워크, 모토롤라 등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대기업과 연구기관들이 소재하고 있다. IBM의 가장 큰 사업장도 이곳에 있으며, 대외적으로 13개 카운티, 63개 시, 34개 상공단체가 이곳과 연관을 맺고 있다. 현재 RTP지역의 전체 종사자는 4만 3천명으로 이 중 99%가 R&D 관련 일을 한다. 지난 15년간 고용 증가율이 53%로 노스캐롤라이나 주 전체 고용의 22%, 첨단 분야 고용은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다. 미국 20대 병원 중 2곳이 이곳에 있다. 이런 여건을 통해 지난해만 투자유치 금액이 10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RTP의 성공요인은 대학과 지역사회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



노스캐롤라이나 세계무역센터 더글라스 아이킨 대표는 RTP의 성공배경을 "정부, 기업, 대학의 삼위 일체 노력"이라고 말하고 있다. 대학들은 고급 두뇌를 제공하고 기업은 이익을 다시 교육여건 개선에 투자했다. 교육여건이 좋아야만 우수 인력이 몰려든다는 것을 기업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주 정부와 카운티, 시정부는 완벽한 후

원자 역할을 했다. 자연히 산·학·연 협동 복합체의 시너지 효과가 발휘됐다. 또한 이곳을 경쟁력 있게 만드는 또 하나의 요인은 낮은 부동산값이다. 실리콘밸리는 방 4개, 정원 딸린 집이 12억 원 정도 하지만 이곳은 2억 5천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물가도 그곳의 4분의 1수준이다 보니 우수 인재들이 몰려든다. 이곳의 구성원들은 실리콘밸리에서 연봉 10만 달러를 받는 것보다 RTP에서 5만 달러를 받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다.

혁신의 중심은 대학

RTP의 세 꼭지점을 이루고 있는 곳의 중심에는 대학이 있다. 랄리에는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학(NCSU: 2만9000명), 드럼에는 듀크대학(6000명), 채플힐에는 노스캐



롤라이나대학(UNCC: 2만6000명)이 있다. 이들은 대학간 협력과, 산·학·연, 산·산 등 대학과 기업간의 다양한 산학협력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등 우수한 고급인재를 육성 제공하고 있으며, 리서치 파크를 건설함으로써 자신들이 배출한 고급두뇌들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RTP지역에 정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학은 맞춤형 고급인력 양성과 연구개발 및 기술 이전을 통해 지역기업과 끈끈한 유대를 맺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랄리의 NCSU는 현재 100여 개의 중소 벤처기업, 연구소, 정부기관이 입주해있는데 이곳 입주업체는 기존의 NCSU의 교수나 학생과 마찬가지로 도서관을 비롯해 캠퍼스의 모든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물론 필요시 강의도 들을 수 있도록 유기적 연계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현재는 20년 전부터 개교 100주년을 기념해 센티니얼 캠퍼스를 조성중이다. 기존의 NCSU와 별도의 160만 평 규모의 산학협동연구 캠퍼스이다. 이곳 캠퍼스 내에는



는 상가와 아파트 등을 입주시키고, 건물의 접근성을 강조해 상호 유기적인 교류를 유도하고 있다. 캠퍼스 내 건물은 대학과 관계가 있거나 앞으로 관계가 있을 업체에게 임대해 주고 있고, 골프장과 호텔도 계획되어져 있다. 센테니얼 캠퍼스는 의약 벤처기업과 연구소 등을 캠퍼스 내에 입주시켜 산·학·연 협력체계를 조성하고 있다.

‘헝그리 정신’의 RTP 입주 벤처기업들

‘퍼스트 플라이트 벤처센터(FFVC)’는 RTP의 창업보육센터로 벤처기업에 사무실과 연구 공간을 임대해주고 있었다. 1991년 설립된 이 센터(John C. Draper 대표)는 High tech(BT, IT) 기술에만 집중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FFVC는 2명의 지원 Staff(설립당시 21명)만 있어 기업과 의사소통이 신속하고, 편하게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하다 하며, 2명으로도 충분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센터는 임대료 수입만으로 운영하고 있다. 임대료는 시장가격보다 30% 저렴한 12~13\$/sq.ft이



며, BEP는 93% 입실률이나, 현재 96% 정도 입실되어 있어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존 드래프 대표(John C. Draper)는 조직의 슬림화에 의한 의사소통의 신속성과 철저히 '헝그리 정신'으로 강력한 생존 정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기업이 자신의 기술로 자신이 성공해야함이 타당하고, 정부가 지원하면

100% 실패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과거에는 주정부 및 시정부에서 연간 20억원~40억원 정도를 지원받았으나, 지금은 정부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 정부에 지속적으로 의존하게 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FFVC에는 현재 37개 회사가 입주해 있으며, 인력은 18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유연한 공간과 임대기간, 자본과 기술 접근의 용이성, 서비스 및 강력한 기술지원, 현장 비즈니스 지원 및 지도, 서비스 공급자와의 네트워킹, 입주 및 졸업기준의 엄격성 등에 기인해 경쟁력 제고에 주력할 수 있기 때문에 뉴욕, 캘리포니아, 캐나다에서까지 이곳으로 몰리고 있다. 지금까지 불과 몇 명으로 시작한 벤처기업을 종업원 1000명, 연 매출액 수천만 달러에 이르는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킨 것만도 지금까지 100여개나 된다는 것이다.

기업의 입학과 졸업... 그리고 성공!!



FFVC에서 기업을 선택할 때는 기술의 시장 진출 가능성, 그리고 시장규모를 우선으로 본다. 때문에 시장에서 그 기술에 대한 욕구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그리고 시장에서 겪을 많은 어려움 혹은 기술개발의 문제들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선택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다. 해결책은 바로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다. 제

품과 서비스는 시장에서 기업의 준비성을 말해준다. 또 다른 해결책은 지적재산권과 특허다. 그리고 나서야 기업들은 FFCV내에서 경험을 공유하고 사업시작시기의 난관 그리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운다.

졸업은 시장에서 용인될 만큼 완벽한 제품을 만들 수 있을 때 가능하다. 하지만

졸업 이후에도 지속적인 수익모델이 필요하다. 상품이 계속 팔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초기 펀드 투자에 의존하지 말고 지속적인 투자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많은 기술벤처기업들이 기술개발에 몰두해 경영부분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시장상황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내릴 소지가 높아 반드시 경영팀이 구성되어야만이 졸업이 가능하다. 보통 졸업하는데 18개월에서 30개월 정도 걸리지만, 도중 실패하거나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은 하루라도 빨리 퇴출시킨다. 실패한 회사의 분위기는 전염병 바이러스처럼 타 기업으로 옮겨 다녀 다른 기업가들에게 의욕부진 등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지 않는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많은 돈을 투자한다면 그 기업은 실패할 확률이 거의 100%라고 할 수 있다. FFVC의 대부분 회사들은 정부나 대기업 투자가 아닌 개인투자에 의해 운영된다고 할 수 있다. 개인들은 기업의 기술을 보고 그 가능성에 투자하며, 회사들은 제품을 믿고 연구개발에 몰두해야 성공할 수 있다.

FFVC는 RTP지역 대학생들을 졸업 후 창업보육센터로 배치한다. 그들로 하여금 창업보육센터 기업들의 기술들을 습득하게끔 하고 있다. 이는 창업보육센터 기업들이 우수 인재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과 지역 학생들이 새로운 기술과 경험을 얻는다는 좋은 모델로 정착하고 있다.

연구 개발 인력을 흡입하는 쾌적한 도시 환경

RTP권역은 대도시에서 즐길 수 있는 각종 박물관, 아이맥스영화관은 물론 쇼핑까지 즐길 수 있는 곳이며, 대도시에선 느낄 수 없는 시골 같은 푸근함을 가지고 있어 교육·문화 환경적 요인이 뛰어나다. 랄리는 미국의 '가든 디자인 매거진'에서 미국 8대 정원도시에 선정됐을 정도다. 랄리시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이 'Trees, Tees, Ph D's'인데 이는 숲과 골프장과 박사학위가 많은 도시라는 뜻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 숲이 많은 도시인 랄리는 '오크(떡갈나무)의 도시'라고도 한다. 랄리의 공원 면적은 500만 평이 넘는다. 숲길만 120km로 크고 작은 150여 개 공원들이 사방팔방 연결돼 있다. 공원을 비롯한 박물관 등 문화시설이 대부분 무료입장이다. 그래서 실리콘 벨리에서 연봉 10만 달러 받는 것보다 RTP의 5만 달러가 더 낫다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이다.

또한, RTP는 기업하기 좋은 곳이면서도 환경규제에 있어서는 엄격하다. RTP의 환경문제에 대해선 RTP소유자및입주자협회(RTPOTA)가 지난 2002년 구성한 RTP서비스자문위원회를 통해 행해지는데 이 위원회에는 경관디자인위원회와 환경소위원회가 있다. RTP의 경관형성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RTP내의 부지는 최소한 약 1만 평 이상 매입해야 하며, 경관 형성을 위해 건물 설계도 반드시 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RTP는 지역사회에 미치는 환경문제를 최소화하고 최소 비용으로 효율적 환경관리를 위해 권역내의 공기, 물, 쓰레기 그리고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와 환경교육에 특히 중점을 두고 있다.

2. 리치몬드(Richmo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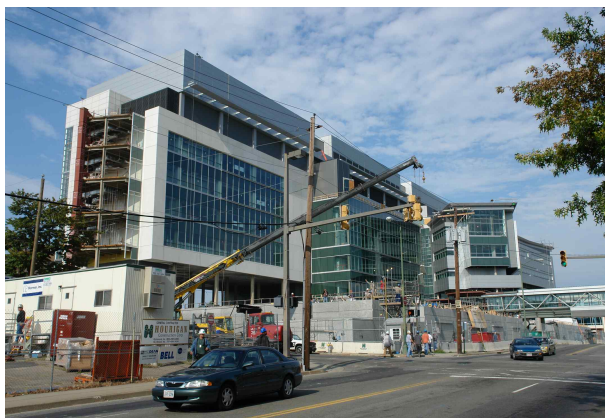
; BT로 새롭게 부상하는 버지니아 버바이오 파크

기업 내쫓던 보수적 도시 美 '톱10 BT단지'로 변신

미국의 수도 워싱턴DC 남쪽, 자동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버지니아 리치몬드시. 필립 모리스가 생산하는 담배 '버지니아 슬림'으로 더 잘 알려졌던 도시가 이제는 세계적 바이오 클러스터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

리치몬드 시내에 들어서면 곳곳에 VCU(버지니아 커먼 웰스 대학교)라는 건물을 볼 수 있다. 바로 버지니아 주립대가 있다는 표시다. 우리나라처럼 대학과 기업체가 어떠한 영역을 이루며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 도시전체가 대학교고, 도시전체가 기업체며, 도시전체가 삶의 터전이다. 이곳에서 대학, 기업, 연구소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세계적 바이오센터인 버바이오 파크(버지니아 바이오테크 리서치파크)가 활동하고 있다.

버바이오 파크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미국 연구단지 '톱 10'에 진입했다. 현재 버



바이오 파크의 8개의 '바이오텍'은 주로 약품 개발, 바이오 메디컬, 엔지니어링, 법의학, 환경 분석 분야 등을 연구한다. 필립모리스사가 3억5000만 달러를 투자해 현재 필립모리스USA 연구기술센터인 '바이오텍 9'을 짓고 있는데 내년 7월 완공 예정이다. 이는 담배산업에서 바이오산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필립모리스사의 전략과 리치몬드시의 바이오산업 육성정책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완공되면 이곳에만 500~600명의 연구 인력이 배치될 예정이라고 한다. 버바이오파크는 생명과학 중심의 연구단지로 특허 관련 전문가와 대학과의 연계가 좋고, 창업보육시설이 잘 갖춰져 현재 24개사가 이미 졸업한 상태이며, 파크가 완공되는 2008년까지 연구 인력만 3,000여 명이 수용될 예정이다.

리치몬드는 공사중, 성장하는 버바이오파크



리치몬드 시내로 들어서면 완공된 건물과 함께 건축 중인 건물들 사이로 주차장이나 잡풀들이 돋은 빈 공터가 보인다. 이는 애초 주차장 등으로 놓고 있던 곳에 버바이오파크(버지니아 바이오 테크놀로지 리서치 파크, VABIO PARK)를 단계적으로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92년부터 이곳엔 지난 수십 년간 비어있던 땅에 새로운 연구 개발

단지가 속속 들어서고 있다. 우리가 이곳을 찾은 날도 공사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1990년대 초, 버지니아주가 차기 산업으로 바이오산업 육성을 계획하고 있던 차에 VCU와 리치몬드시가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수십년을 내다보는 장기 청사진을 수립하게 된다. 대학은 연구수준의 향상을 위해, 리치몬드 시는 놓고 있는 토지를 활용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 지역혁신시스템을 공동으로 구축하게 된 것이다. 주정부가 500만 달러를 투자하고 VCU와 리치몬드시가 건물과 땅을 제공해 조성 중인 버바이오파크는 도심의 약 4만 1,000평의 부지에 현재 8개 동의 '바이오텍' 건물이 있다. 이곳에는 현재 세계적인 제약회사 베링거인겔하임을 비롯한 50여 개의 각종 기업 및 연구기관이 입주해 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리치몬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리치몬드는 20여년전만 해도 기업 유치는커녕 오는 기업도 쫓아내는 도시였다. 그것은 지역의 보수적인 정서가 기업에 비우호적이었고, 특히 민·관 협력이 잘 안되는데서 비롯됐다. 그런 풍토로 인해 당시 '익스프레스 카드'나 '캐넌' 등이 본사를 노스캐롤라이나 등지로 옮겨버렸다. 뒤늦게 시민과 상공인들이 위기감을 느껴 지난 94년 만든 비영리기관이 '리치몬드경제개발공사(Greater Richmond Partnership, GRP)'를 설립했다. 그 뒤 리치몬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이미지 홍보를 하는 데만 100만 달러를 투자했고, 기업 유치를 위해 버지니아주는 법인세율을 6%(미국 평균 6.97%)로 내리고 과거 30년간 한 번도 인상하지 않았다. 또한, 소득세나 부동산세를 감면하고 노동력 제공 프로그램을 통해 인력을 지원했다. 아시아 국가들에게까지 연락사무소를 설치, 외국 자본을 유치하려 노력했다. 이러한 GRP의 적극적인 기업유치와 함께, 살기 좋은 곳이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생각하고 환경 보전에 가장 철저한 기준을 갖고 임하고 있다. 기업은 사전에 대

기오염물질, 특정오염물질, 폐수, 소음 먼지 등 시설 계획에 대한 허가를 받은 뒤 시설 장비의 내용, 오염물질 배출의 수준, 독성물질의 저장 및 사용에 관해 일일이 기록해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함께 리치먼드의 경제를 살리는 데는 지역 대학과 시 그리고 기업 간의 긴밀한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지난 96년 지역 기업인의 요청으로 4000만 달러를 모금해 VCU에 공과대학을 신설해 철저히 산학협동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기업이 대학 건물을 짓고, 지방정부가 교수 봉급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민관 파트너십이었다. 그 뒤 모터롤러 등 대기업 자금 15억 달러 정도를 대학에 들여와 반도체산업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이제 베링거인겔하임과 같은 대기업이 미국 전역에 흩어져 있던 연구 시설을 리치먼드로 모으고 있을 정도이다.

버지니아주 산업의 중심 '리치먼드광역권'

리치먼드시의 인구는 19만 명이지만, 인근 하노버·체스터필드·헨리코 등 주변의 카운티와 합쳐 115만 명 정도의 리치먼드광역권을 형성하고 있다.

리치먼드의 가장 큰 강점은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는 교통망과 가까운 곳에 바이오관련 각종 주요기관들이 인접해 있다는 것이다. 제임스강을 끼고 리치먼드는 20분대에 시내 어디라도 접근이 가능하고, 도심에서 10분 거리에 리치먼드국제공항(RIC)이 있다. 공항 내에는 '무역자유구역'이 설치돼 있다. 제임스강 하류에는 리치먼드항만 터미널이 있고, 고속도로는 동서남북으로 연결돼 워싱턴 DC까지 2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다. 또한 워싱턴과 식품의약국(FDA)이 2시간 거리에 있고, 바이오테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립보건원(NIH)이 3시간 거리에 있다. 이와 함께 리치먼드의 주택구입 비용은 전국 평균보다 16%나 싸고, 물가도 다른 도시에 비해 낮은 편이다. 리치먼드가 급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지역 혁신주체들의 노력과 함께 교통의 요충지로서의 지리적 여건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3. 볼티모어(Baltimore)

; 내항 친수공간 재개발로 도시 이미지 개선

조선산업의 도시에서 낭만적인 도시로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북동쪽으로 약 60km 떨어진 항구도시인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시. 조선, 정유 등 공업도시이기도 한 볼티모어는 한 때 '마약과 범죄'로 도시 이미지가 좋지 않았으나 시민의 참여 속에 '믿음 캠페인'을 통해 자부심을 키우고, 내항(Inner Harbor)의 친수공간이나 전통건축물 복원 등을 통해 도시를 재창조하는 데 성공했다.

한때, 조선 산업으로 융성했던 볼티모어는 조선소가 폐쇄되면서 화력발전소는 용도 폐기되어 방치된 건축물이 되었다. 볼티모어는 이 건물을 철거하는 대신 내부를 개조하고 외관을 정비하여 서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사라질 뻔한 건축물은 볼티모어의 화려했던 조선 산업 시대를 상징하며 여전히 중요한 건물로 남아 이 지역을 찾아오는 사람들과 반기고 있다.

바닷가를 활용한 관광특구



볼티모어시 체사피크만의 이너하버. 이 일대는 '하버플레이스 & 갤러리'라는 대규모 식당가 및 쇼핑몰이 있고, 하버 크루즈, 국립볼티모어수족관, 볼티모어해양박물관, WTC(세계무역센터) 빌딩 등이 자리 잡고 있다. 주변엔 특급호텔들이 즐비하다. 지난 1960년대부터 이너하버에 대한 재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 결과 이곳은

볼티모어의 '매력 포인트'로 변했다. 그 중 하버플레이스는 100여 개의 레스토랑, 상점 등이 있는데, 여러 곳에 산재하던 바닷가 전문음식점을 사람이 많이 모이는 해변인 이너하버에 집중적으로 유치, 바닷가 전문음식점 타운을 이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만들었으며, 일대를 관광단지로 만들어 지역특산물의 세계화에 성공했다. 시는 이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초창기 시에서 직접 '필립스'란 음식점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주변에는 일정수준 이상의 수준 높은 음식점이 자연적으로 형성되도록 유도했으며 바닷가를 활용한 다양한 기념품과 이벤트를 상품화하여 수입을



올리기도 했다고 한다. 또한 이너하버에는 미국사람들 조차 한번쯤은 꼭 가보고 싶어 하는 국립볼티모어수족관이 있다. 이곳에는 상어나 가오리 등을 비롯해 1만 여종의 바다 생물 및 양서류 파충류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자랑한다. 볼티모어를 찾는 관광객은 연간 1300만 명으로 볼티모어 인구 63만5000여 명에 비해 엄청난 숫자이다.

전통 건축물 복원을 통한 도시 재창조 국립볼티모어수족관 인근에는 100년 전의 화력발전소를 리모델링한 건물에 카페와 서점이 들어서 있다. 또한 볼티모어시는 메이저리그 야구팀인 볼티모어 오리올스 홈구장을 20세기 초의 모습의 복고풍으로 새롭게 단장해 도시 이미지 쇄신을 도모

했다.

볼티모어의 도심 재생은 지난 58년 기업가들의 비영리조직인 볼티모어광역권위원회가 시와 함께 '찰스센터플랜'을 수립하고, 민관협력기구인 '찰스센터 관리공사'가 조직되면서 부터 시작됐다. 또한 연방정부의 고속도로 건설 계획으로 전통건축물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시와 시민이 뜻을 모아 지난 64년에는 역사건조물보전위원회(CHAP)를 만들어 70년대 초반에 펠스포인트, 페더럴 힐 등 80개의 국가등록 및 지역역사지구를 지정해 5만6000여 동을 보전했다.

볼티모어는 전통 및 문화의 복원과 함께 공동체를 강조하는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애쓰고 있다. 특히 도시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지난 97년에 비영리조직인 '라이브 볼티모어 홈센터' 설립에 나서는가 하면, '전략적 이웃 만들기 플랜(SNAP)'을 추진해 볼티모어로의 이주도 적극 나서고 있다. 또한 재개발 플랜도 이너하버 인근의 펠스포인트, 리틀 이태리지구 등 20여 개 지구로 확대하고 있다.



4. 해리스버그(Harrisburg) ; 달콤한 문화관광 기업도시 허쉬파크

Factory Park 형태의 테마파크와 허쉬기업의 도시 해리스버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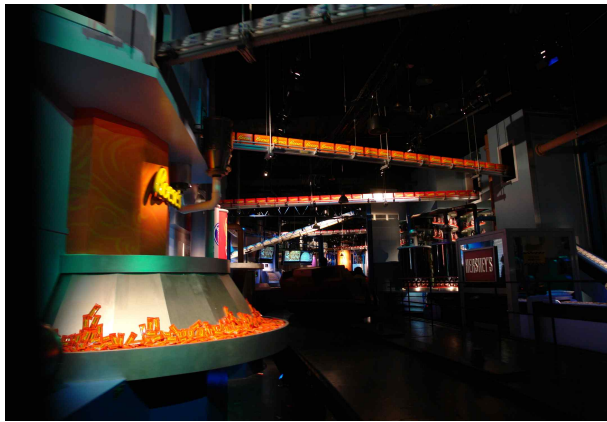
펜실베이니아주 해리스버그(Harrisburg)는 초콜릿으로 유명한 허쉬(Hershey)사의 공장과 테마파크를 연결하여 공장 주변의 환경과 조화를 도모함으로써 기업과 도시의 이미지를 한층 높은 수준으로 격상시킨 곳이라고 볼 수 있다.

초콜릿을 생산하고 있는 허쉬는 1894년 밀톤 허쉬(Milton Hershey)가 설립, 110년의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 제1의 초콜릿 회사이며 세계 65개국 소비자들에게 초콜릿을 판매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이다. 허쉬는 1905년 초콜릿 생산에 필요한 신선한 우유를 공급받기 위해 펜실베이니아 낙농지역의 중심인 이곳에 공장을 설립하였고, 현재까지도 세계 최대 규모로 손꼽히고 있다.

초기 완공된 공장은 많은 노동자들이 필요했고, 외부지역에서도 사람들을 끌어들리게 되었다. 허쉬로 인해 해리스버그는 낙농업중심의 농촌지역이 도시발전의 기틀을 갖추고 공장의 가동률과 기업의 성공이 바로 이 도시의 성장으로 이어져 왔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제조업유치로 인한 지역경제의 부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곳에 매년 200백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가고, 허쉬가 지역주민들과 소비자들에 더욱 친숙하게 다가설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



허쉬는 회사의 이익금 일부를 지역개발에 투자해 백화점, 학교, 공원, 교회, 골프코스, 동물원, 대형호텔, 운동경기장 등을 거쳐 오늘날의 '허쉬타운'과 '허쉬파크'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허쉬 초콜릿공장의 기계화된 제조공정은 새로운 문화를 보여주는 좋은 자원이 되었고, 방문객들에게 달콤한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이 제조공정은 산업시설로서 훌륭한 자원이 되었고, 멀리 있는 도시로부터 가까운 지역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여 생동감 있는 공장으로 변모시켰다. 또한, 허쉬



타운 내에는 독특하고 흥미로운 전시품들로 매혹적인 허쉬의 역사와 창립자의 삶을 알게 하는 허쉬 박물관, 125개가 넘는 고풍스러운 자동차를 소유한 앤틱 자동차 박물관, 세계 허쉬 초콜릿 월드 등 다양한 볼거리로 가득하다. 허쉬 마을거리에는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은은한 초콜릿 향이 퍼져 있고 먹거리, 초콜릿 머드 팩 등 초콜릿을 이용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곳에서 소비자들은 허쉬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

허쉬는 초콜릿산업으로 벌어들이는 자본을 자본가의 이익으로만 충당하는 것이 아닌 공장주변의 삭막한 농장지대를 농업을 기반으로 한 제조업의 성공, 관광객의 유입,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도시로 발전시켜 연쇄적으로 시너지효과를 얻고 있는 것이다.

5. 피츠버그(Pittsburgh) ; 철강도시에서 녹색도시로의 변신

철강도시 피츠버그!? 바이오·문화 도시 피츠버그



미국 워싱턴 D.C.에 인접한 펜실베이니아주 남서부의 피츠버그(Pittsburgh)시. 최근 미국 슈퍼볼의 영웅 한국계 하인즈 워드 선수가 소속한 '피츠버그 스틸러스'가 있고,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가 살았던 곳이 바로 피츠버그이다. 지난 1758년 세워진 피츠버그 시는 2008년이 되면 250주년을 맞는다. 인구는 피츠버그시가 40만 여명이지만 인

근 9개 중소도시를 합친 '피츠버그광역권'은 260만 명 정도 된다.

한때 미국 산업의 중심지로 가장 부유했던 지역이었던 피츠버그는 50년대 이후 쇠퇴의 길을 걸으면서 '공해 도시'란 오명도 함께 해왔다. 80년대 철강 산업의 중심이 한국, 일본 등의 아시아 국가들로 넘어가면서 극심한 경제침체와 몰락의 길을 맞았다. 지난 79년 12만4800명이던 금속업체 종사자수가 94년에는 2만8000명으로 무려 77.6%나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에 지역 상공인과 지방정부 그리고 대학이 피츠버그의 부흥을 위한 민간파트너십을 구축해 공해 탈출과 도시 재개발에 성공했다. 이로 인해 79년 당시 6만7000명이던 보건업체 종사자들이 15년 뒤엔 11만8500명으로 늘어났다. 피츠버그시의 'ACCD(앨러게니지역개발연합:피츠버그광역권 상공회의소와 지역시민경제단체의 연합체)'의 F. 마이클 랑리 회장은 "지난 80년대 초부터 90년대 초까지 10여 년간의 불황은 10만 여명의 일자리를 잃게 했지만 지역이 합심해 10년 만에 회복하면서 공업도시를 상업도시로 바꾼 게 큰 소득"이라고 말한다.

현재 피츠버그에는 바이엘, 미쓰비시전기, 노바, 웨스팅하우스전기 등 세계적인 기업 70여개사의 본사가 자리 잡고 있다. 이들의 전략산업은 생명과학, 의료기기, IT, 첨단 금속, 전자광학 등이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그동안 축적된 부와 기술에다 미국 유수의 보건기관과 톱 랭킹의 대학, 지역사회의 후원 그리고 문화적 자산 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피츠버그개발연구소는 올해에만 1만 3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밝히고 있다. 피츠버그는 핵심 성공요인을 민관 파트너십의 구축 및 체계적인 작동, 지역의 강점을 살린 산업구조 재편 성공,

인재를 모이게 하는 지역의 삶의 질 개선 프로그램의 성공의 결과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정부가 지원은 하되 후원자 역할에 머문 것도 주요한 성공 요인이다. 기업이 하고 싶은 것을 주문하면 정부는 무엇이든지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기업들은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받지 않을 뿐, 행정·조세 등 모든 분야에서 정부와 밀접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도심을 바꾼 '피츠버그 문화 트러스트'

피츠버그의 성공 요인은 무엇보다 공해도시란 이미지에서 벗어나 환경을 중시하는 세계적인 도시브랜드 마케팅의 성공에 있다. 이것이 바로 '피츠버그 문화 트러스트(Pittsburgh Cultural Trust: PCT)'이다.

1960년대부터 피츠버그는 공해도시 탈출을 위해 '제1, 2차 르네상스' 캠페인에 돌입, 민관파트너십을 통해 도시 재개발에 나서 수질 대기오염 극복, 공공녹지 및 도시 경관 조성을 적극 추진하였고, 그 결과 오염됐던 도심의 앨러게니강에는 10여년 전부터 송어와 배스 등 50여종의 물고기가 사는 맑은 강으로 변했다. 이러한 성공적인 '제1, 2차 르네상스'에 이어 도심지역을 '문화특구(Cultural District)'로 만들자는 운동을 추진했고, 이를 계기로 지난 84년 비영리조직인 PCT가 설립되었다. 피츠버그의 도시재생전략은 용도가 폐기된 공장대신에 도시문화시설을 유치하고, 제조업중심에서 3차 산업인 문화서비스산업 중심으로의 변신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산업적 변신과 함께 도시를 가로지르는 강변과 도심지 재생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다. 강과 강이 만나는 삼각지는 트라이앵글파크로 조성하여 쾌적한 공원으로 조성하였고, 강변에 컨벤션센터를 유치하여 문화행사가 가능하도록 도시를 문화적인 생태 공간으로 재생하였다. 이러한 '문화 트러스트'라는 도시 환경 개선 운동을 통해 깨끗한 도시와 좋은 교육 환경이 마련됐고 저렴한 부동산 가격이 기업 유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피츠버그의 지역 경제발전과 문화 진흥을 목표로 87년까지 4,300만 달러가 투입된 '문화특구 개발 플랜' 결과, 하인즈홀과 컨벤션센터밖에 없었던 중심가가 14개의 문화시설과 공원 광장 그리고 상가가 들어선 '문화특구'로 변신했다. 요즘엔 한해 1,500여건의 각종 공연 전시 등이 이뤄지고 있다.

학제적 연구의 선두 '카네기멜론대학'



피츠버그의 성공에는 피츠버그와 함께한 미국의 명문대학 2곳을 빼놓을 수 없다. 피츠버그대학과 카네기멜론대학(CMU)이 그것이다. 줄기세포 연구로 알려진 새튼 교수가 있는 곳이 피츠버그의대이고, 카네기가 설립한 카네기멜론대학은 IT분야에서 MIT 하버드와 함께 미국 3대 대학중의 하나다. 카네기멜론대학은 공학과 사회과학의 접목 등 학제적 연구가 강하고, 기업과의 협력도 좋아 미국 기업이 가장 선호하는 대학 1위를 자랑하고 있다.

제조업 중심의 피츠버그를 카네기멜론대학은 IT, 피츠버그공대는 생명공학분야의 R&D 역량을 이용, 보건의료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해 지식기반산업으로 구조를 개편했다. 대기업 본사가 지역 내 다수 존재하고, R&D 센터가 집적되어 있는 강점을 살려 금융 및 생산자 서비스산업을 적극 발굴하고 육성한 것이

오늘의 피츠버그를 만들었다.

세계최초의 녹색 건축물 '데이비드 L. 로렌스 컨벤션센터'



피츠버그시 앨러게니강의 '레이첼카슨대교' 인근 9번가에는 '데이비드 L. 로렌스 컨벤션센터'가 있다. 이 센터는 '세계 최초의 녹색 컨벤션센터'로 유명한 친환경 빌딩이다.

지난 2000년 4월 4만2000여평의 부지에 착공해 지난 2003년 9월에 완전 개관했다. 이 건물이 그린 빌딩인 이유는 다른 컨벤션센터에선 볼 수 없는 '녹색기술'을 활용해 건립했기 때문이다. 이곳은 자연 환기, 일광 센서, 일산화탄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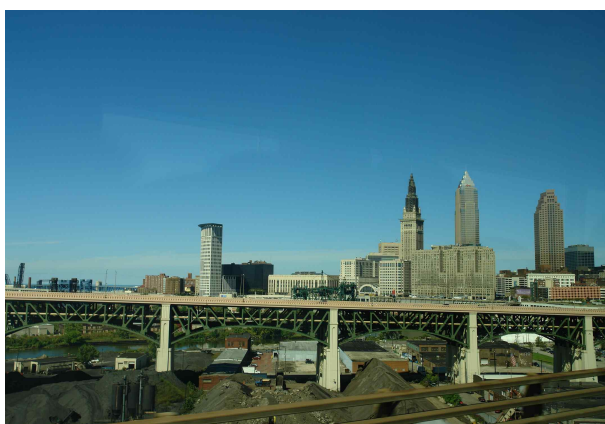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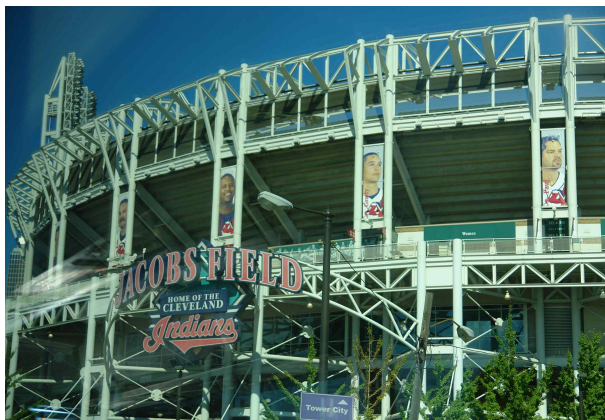
센서, 물재활용시스템 등으로 물 소비를 60% 절약하는 등 전체 에너지를 35%나

줄이는 시스템으로 설계된 것이다. 자연채광 지붕과 유리벽은 햇빛으로 온도를 자동조절하며, 전시공간의 75%를 자연 채광으로 하고 있다. 또한 앨러게니강에서 올라오는 자연 기류를 빌딩의 통풍이나 냉방에 활용하고 있고, 페인트나 카펫 등에 유독화학제품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피츠버그 시는 이를 계기로 그린 빌딩의 산업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피츠버그의 비영리조직인 그린빌딩연대(GBA) 리처드 오버모이어 프로젝트담당부장은 "그린 빌딩 건축기술은 앞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돼 피츠버그를 비롯한 서부 펜실베이니아에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맥그로힐건설이 지난해 말 작성한 '그린 빌딩의 서부 펜실베이니아 지역 시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그린 빌딩의 경우 건축비용은 5% 정도 증가되나, 운영비용은 8~9% 절약되고 건물 가치가 7% 향상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 규모도 2004년에 전체 건물의 2%로 102억 달러 수준이지만 2010년에는 5~10%(290억~59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었다.

피츠버그광역권에는 1800여개 건축업체가 있는데 그중 600여개가 그린 빌딩 건축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그린 빌딩 활성화를 위해 미 연방차원에서도 세금혜택 등을 고려중이라고 한다.

6. 클리블랜드(Cleveland) ; 'Rock'n Roll' 클리블랜드



클리블랜드는 문화산업을 중심으로 긍정적인 지역이미지를 구축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킨 창조도시 성공 사례로 손꼽히는 곳이다. 오하이오 주 북부에 있는 인구 50만명의 클리블랜드는 몇 십 년 전까지는 제철, 자동차 공장이 늘어난 미국 굴지의 공업도시였다. 지금도 미국 일류기업 30여 개 회사의 본사가 있는 중요한 도시임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단 10년 전과 비교해보더라도 클리블랜드의 모습은 완전히 바뀌었다. 검은 연기를 내뿜던 공장 굴뚝들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고, 공장 폐수로 검게 물들었던 이리호는 깨끗해졌다. 공장 부지에는 레스토랑과 클럽이, 어두침침한 창고 거리에는 깨끗한 쇼핑 아케이드가, 화물선만 오가던 이리호에는 요트와 크루저의 모습이 눈에 많이 띈다. 다운타운에는 쇼핑 몰과 야구장이 생겼고 새롭게 단장한 옛 극장들이 화려하게 다시 문을 열었다. 완전히 새로운 환경·문화도시가 된 것이다. 이런 변화는 누가 어떤 방법으로 이룬 것일까?

1970년대 경제 침체로 위축된 클리블랜드는 고용감소와 인구감소에 직면

했다. 여기에 케야호 강의 화재를 계기로 오염된 도시라는 이미지도 덧씌워졌다. 1978년에는 대공항 이후 미국에서 상환금을 연체시킨 최초의 도시로 전략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이 상환금 체납사건을 계기로 클리블랜드는 다시 태어난다. 주역은 시와 주민들이었고, 방법은 대대적인 홍보마케팅이었다. 시와 주민들은 도시 이미지 향상을 위해 The Greater Cleveland Growth Association를 조직한다. 2004

년 3월에는 이 조직과 협의기구인 Greater Cleveland Roundtable, 그리고 주요한 회사들이 합친 Greater Cleveland Partnership이 만들어진다. 이 조직들이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대대적인 캠페인 'The New Cleveland Campaign'을 추진하면서 문화도시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문화시설 건축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미국은 1990년대에도 세계를 이끌 것인가? 클리블랜드는 힘차게 그렇다고 말한다.'와 같은 화려하고 세련된 판촉자료들이 만들어져 미국 전역에 뿌려졌다. 시장을 세분화하여 도시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특정한 집단(여피, 여성)에게 호소하는 전략을 주로 선택했다.

이미지 향상 전략과 더불어 미국 최대 극장 복구사업인 Playhouse Square사업, 돔구장 사업 등 문화시설을 중심으로 한 도심 재개발이 진행되었고, 도시이미지를 중공업 중심에서 기업 본사 중심지로 변화시켰다. 이런 노력의 결과 1984년 클리블랜드는 PR Society of America로부터 최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클리블랜드의 대표적인 문화시설은 1995년 9월1일 문을 연 로큰롤 홀 오브 페임 & 박물관(Rock'n Roll Hall of Fame & Museum)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총 공사비가 8,400만 달러로 피라미드가 로비 위로 치솟아 있고, 건물의 날개는 호수 쪽으로 나와 있어 초현대적인 모습을 자랑한다. 미국 문화를 대표하는 'Rock'을 주제로 꾸민 박물관으로, 록의 문화적인 이해와 음악적 가치를 알기 쉽고 흥미진진하게 전시한다. 필름, 비디오, 사진, 포스터, 라디오 프로그램, 컴퓨터 등 록 뮤직에 관련된 모든 것을 전시한다. 멤피스 선레코드사 스튜디오의 초창기 녹음장비, 젊은 나이에 요절한 전설적인 흑인 기타리스트 지미 핸드릭스의 기타, 비틀즈의 멤버 존 레논이 입었던 옷, 엘비스 프레슬리, 척 베리, 제니스 조플린 등 명예의 전당에 헌정된 록 아티스트가 직접 적은 악보 등이 비치되어 있다. 'Rock'n Roll'이라는 단어는 1951년, 전설적인 DJ 앨런 프리드가 클리블랜드의 한 방송국에서 처음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클리블랜드는 이러한 과거의 역사를 바탕으로 도시를 이미지화하여 로큰롤의 연고권을 확실히 챙기고, 문화도시로 거듭나면서 황폐한 도시의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7. 앤아버(Ann Arbor) ; 자율과 창의, 신뢰가 공존하는 Smartzone

새로운 성장동력 '앤아버 스마트존'



미국 최대 자동차공업도시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서쪽으로 한 시간가량 거리에 '앤아버'라는 도시가 있다. 포드, GM, 크라이슬러 등 3대 자동차 본사가 있는 디트로이트는 극심한 노사 분류와 도시 발전계획 미비로 서서히 쇠퇴하는 반면, 앤아버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다. 앤아버는 인구 10만 8,000여 명에 미시간대학 등 대학 인구만 4만5000여 명인 대학도시이다. IT산업과 첨단 재료공학이 발달해 있고, 현대자동차·닛산을 비롯한 유명 자동차 메이커와 부품회사들이 잇따라 연구소를 설립하면서 디트로이트를 능가하는 산업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곳이다. 과거 디트로이트가 미시간주의 성장을 견인했다면 현재는 이 도시가 중심이 되면서 미시간주를 '미국에서 가장 잘

사는 주'로 성장시키고 있다.

앤아버 스마트존은 대학과 산업체, 연구기관, 지자체, 그리고 지역 조직이 기술기반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협력해 만든 혁신단지이다. 미시간주에는 이 같은 스마트존이 10개가 있는데 그 중 앤아버 스마트존은 주로 IT, 첨단제조업, 대체에너지, 생명과학 그리고 무선기술분야에서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앤아버 스마트존의 벤처기업 육성센터 역할은 '앤아버 스파크(SPARK)'가 맡고 있다. 앤아버 스파크는 민관파트너십으로 앤아버광역권의 혁신 기반 산업의 개발을 촉진시키는 것이 주 목적이며, 미시간주와 앤아버시, 그리고 대학 간의 협력도 가장 잘 이뤄지고 있다.

창의와 자율, 미시간 경제개발공사와 스마트존

미시간주 경제를 움직이는 힘은 주 정부의 전폭적인 후원 아래 미시간 경제개발공사(MEDC, 1999)에서 나오고 있었다. 정부와 민간이 50%씩 출자한 반관반민 단체인 MEDC는 정부와 적극 협력해 부문별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사들로 위원회를 구성해 미시간주 전체의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면서 혁신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한 미시간주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 부지 선정에서부터 직업훈련비 지원, 세금 감면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에 처리해 주는 '원스톱체제'를 자랑한다. 그 결과 앤아버를 포함한 미시간주는 미국에서 '상업 성장 및 프로젝트 확장 1위 도시'로 자리 잡았다. 지난 9월부터는 세계적인 인터넷회사인 '구글'이 앤아버 시내 중심가에 임시사무소를 개설, 향후 5년간 약 1000명의 인력을 고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미시간주는 주 차원의 '21세기고용기금' 20억 달러를 마련해 스마트존과 지역대학 등에 연구 및 상용화사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MEDC의 특이한 점은 하부 조직으로 12개 카운티에 스마트존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스마트존은 지역별로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홍보, 자금조달, 개발계획 등을 망라하는 일을 한다. 창업보육센터를 핵심 거점으로 산·학·연·관이 집적된 소규모 혁신 클러스터로 볼수 있다. 중요한 것은 모두 자율성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재정구조는 연방정부로부터 자금을 MEDC가 받고 있고, MEDC는 이를 스마트존에 공급하며 6개월 단위로 상향식 보고서가 제출된다. 스마트존이 이룬 성과는 최근 1년 새 만든 일자리만 5천700여 개. 곧 6천700여 개가 더 생겨날 전망이다. 상업화가 가능한 연구 프로젝트 850여 개로 미시간 주 전체의 성장 동력이 되고 있다. 스마트존의 성공 비결에 대해 MEDC는 무엇보다도 관계기관의 협력이 유기적으로 이뤄지고 원활한 자금조달과 시의적절한 기업 서비스가 뒷받침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즉, 고난도 기술 클러스터 건설, 산학협력체계 구축, 숙련되고 강한 파트너십에 의해 이끌어지는 작은 조직, 주정부의 강한 육성 의지, 미시간대학의 확고한 역할, 미래 성장 산업 집중 육성 목표가 어우러지면서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스마트존의 성장에 있어 미시바이오(MichBio)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다. 대학 기업 등이 참여하는 비영리기관인 미시바이오는 미시간주 바이오 육성 주관사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은 대기업과는 달리 대학과 연구 계약을 체결하기가 어려우므로 미시바이오가 이들 업체들의 수요와 애로 사항을 파악해 대학과 연결해준다. 또 지역 기업들에게 대학의 최신 기술을 이전해주고 핵심 연구기관들 간의 인력과 장비를 공유하게 하는 역할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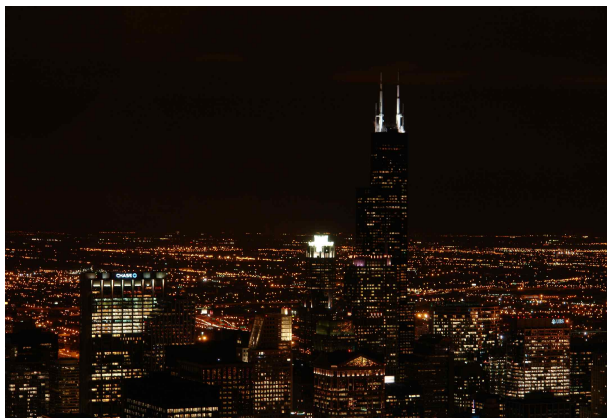
'지역 혁신의 중심' 미시간대학



1817년 디트로이트에서 설립된 주립 미시간대학은 1837년 앤아버로 옮겼다. 철저한 '연구중심대학'임을 자랑하는 이 대학은 총예산이 2조 원을 넘는다. 이 대학의 도서관 겸 미디어센터인 '두더스타트센터'는 전 총장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건물로 24시간 학생들에게 개방되는데 이곳에는 학생들을 위한 3차원 랩, 연구프로젝트 룸, '미디어 컨버전 룸' 등이 있었다. 두더스타트 전 총장은 "학문의 경우 밤낮이 없기에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창의적 사고를 키우고, 여기서 좋은 아이디어는 대학이 필요하면 상업화도 한다"고 말하고 있다.

8. 시카고(Chicago) ; 문화의 도시 시카고

새로운 역사가 세워지는 도시, 시카고



시카고는 운하를 통해 캐나다와 연결되는 내륙 수운(水運)의 중심지이며 세계 선물(船物)거래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다. 하늘 높이 치솟은 고층빌딩들이 가장 인상적이지만, 현대적인 도회지의 모습 한편으로 근면을 미덕으로 여기며 가정을 중요시하는 좋은 전통을 이어가는 모습도 있다. 때문에 다른 도시에 비해 보수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알고 보면 외지인을 선입견 없이 맞아주는 따뜻한 정이 느껴지는 곳이다.

‘갱들이 지배했던 도시’라는 이미지가 강해서 위험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도시치고는 치안상태도 좋고 깨끗한 편이다. ‘윈디 시티’라고 불릴 만큼 바람이 강하고, 겨울에는 눈과 추위가 매섭다. 인구는 약 300만명이며, 면적은 585km²이다.

시카고의 특징은 각양각색의 고층빌딩들의 디자인이다. 새롭다. 그러는 새로움을 추구하면서도, 1870년대에 있었던 시카고 대화재 때에 불타지 않고 남아있던 건물을 역사적인 건축물로 존치하고 있다. 역사적 자원을 소중하게 가꾸어 가는 것이야 말로 도시창조의 원동력으로 보인다. 워터 타워

(Water Tower)가 바로 시카고 대화재 때 타지 않고 남은 유일한 건축물이다. 1867년에 급수탑으로 세워진 것인데, 현대적인 빌딩들 사이로 서있는 47m 높이의 고풍스런 탑의 모습은 시카고의 상징으로 남아 있다. 그 이외에도 시카고에는 볼거리가

많다. 존 행콕 센터(John Hancock Center)는 높이 344m, 100층 규모의 세계 5위의 고층 빌딩이다. 사다리꼴의 독특한 모양을 하고 있어, 멀리 시카고 스카이라인에서도 금방 눈에 띈다. 빅존(Big John) 이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시카고에서 인기 있는 빌딩이다. 바닥에서 94층 전망대까지 39초 만에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엘리베이터라는 기록도 가지고 있다.

박물관 문화의 도시

자치단체의 유인 정책으로 기업체는 끌어올 수 있지만, 지속적인 인재 공급과 장기적인 산업혁신을 위해서는 문화가 필요하다. 지역산업체의 기술혁신을 위해 단기 투자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박물관 등의 기술·문화 인프라 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필요하다. 시카고는 기업의 개발요구도 충족하면서 천연자원도 보존하는 혁신 도시를 실험 중인 곳으로,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The Museum of Science and Industry)을 중심으로 기술문화 확산에도 노력하고 있다.

시카고의 중소기업 사장이었던 로젠 왈드는 1911년에 뮌헨에 있는 도이치 박물관(Deutschers Museum)을 방문하고 깊은 인상을 받고 돌아와, 미국에서 최초로 과학교육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산업문명관을 세울 것을 결심하고 1933년 과학산업박물관을 설립했다. 과학산업박물관은 다운타운 남쪽, 잭슨공원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며, 시카고에서 관람객 수가 가장 많은 박물관이다. 연면적 5만 7000㎡의 건물에 테마별(농업·교통·커뮤니케이션·건강·의학·에너지·사진)로 나뉜 75개의 전시실에서 2,000점이 넘는 소장품을 전시하고 있다. 특히 유명한 것이 탄광의 전시인데, 갱도용 엘리베이터로 지하로 내려가 전동차로 바꿔 타고 작업현장까지 가면, 실제로 일리노이주 탄광에서 사용하던 기계·설비와 채탄작업 과정을 볼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박물관의 하이라이트는 B-727기와 제2차 세계대전 때 나포되었던 독일 잠수함 U-505, 아폴로 8호의 지령선을 전시한 코너. 어린이에게 가장 인기 있는 코너는 정교하게 만든 '동화나라의 성'과 '태아의 성장과정' 코너다. 최근에 문을 연 '해군 코너'에는 F-14 톱 키트의 비행 시뮬레이션도 설치해 놓았다. 국제우주정거장 모형 전시실에서는 각종 우주과학에 관한 정보와 전시물을 접할 수 있고, 박물관 주최로 교사를 위한 연수회도 개최한다. 워낙 볼거리가 많아 제대로 관람하려면 반나절 이상 걸린다.

이 박물관의 대규모 전시실은 이공계 박물관의 본보기가 되고 있으며, 시카고를 중심으로 하는 주요 기업의 기기·자료 및 개인의 제공을 전제로 운영되고 있다. 새로운 제품이 나올 때마다 기기의 갱신도 가능하기 때문에 과거의 전시물만이 아니라 언제나 최신의 전시물을 접할 수 있는 이점을 갖추고 있다.

[표] 방문기관 및 연락처

방문지역 및 기관	구 분	방문일시 및 연락처
North Carolina Research Triangle Park	방문일시	2006.9.21
	연락처	2 Hannes Drive PO Box 12255, RTP, NC USA 27709 TEL : 919-549-8181 Fax: +49 89 61384 111 www.rtp.org
First Flight Venture Center(FFVC)	방문일시	2006.9.21 09:00
	연락처	2 Davis Drive, RTP, NC 27709 TEL : 919-765-0033 Fax: 919-558-0156 www.ffvcnc.org
	장소	First Flight Venture Center(FFVC) 회의실
	브리핑	John. Draper, President
Research Triangle Regional Partnership(RTRP)	방문일시	2006.9.21 11:00
	연락처	10900 World Trade Drive Boulevard, Suite 112, Raleigh, NC 27617 TEL : 919-840-7372 www.researchtriangle.org
	장소	RTRP 2층 회의실
	브리핑	Mr. Ted Abernathy, Executive Vice President
North Carolina Department of Commerce	방문일시	2006.9.21 14:00
	연락처	301 N. Wilmington Street, Raleigh, NC 27699 TEL : 919-733-5743 www.nccommerce.com
	장소	노스캐롤라이나 상무부 회의실
	브리핑	Mr. Mark Lombard, Business Development Manager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Centennial Campus	방문일시	2006.9.21 15:30
	연락처	1005 Capability Drive, Raleigh, NC 27695 TEL : 919-5153-7036 www.ncsu.edu
	장소	Research Building 111, Room #229
	브리핑	Ms. Amy Lubas, Partnership Development Coordinator
Richmond, VABIOPARK	방문일시	2006.9.21 15:30
	연락처	800 East Leigh Street, Richmond, Virginia 231219 TEL : 804-828-6884
	장소	VABIOPARK 센터 회의실
	브리핑	Ms. Nicole M. Colomb, Business Development & Communications Coordinator

리치몬드 경제개발공사 Greater Richmond Partnership(GRP)	방문일시	2006.9.22 14:00
	연락처	901 East Byrd Street Suite 801, Richmond VA 23219 TEL : 1-804-643-3227 FAX : 1-804-640-5382
	장소	리치몬드 경제개발공사 회의실
	브리핑	Gregory h. Wingfield, President & Dara, Glass Vice President
Baltimore	방문일시	2006.9.23 09:30
	연락처	510 E. pratt Street, Baltimore, MA 21202 TEL : 410-576-3800
Harrisburg	방문일시	2006.9.24 14:00
	연락처	100 W. Hersheypark Drive, Hershey, PA 17033 TEL : 800-236-8216
Allegheny Conference on Community Development	방문일시	2006.9.25 08:00
	연락처	425 sixth avenue, suite 1100 Pittsburgh, PA 15219-1811 TEL : 1-412-392-4555 FAX : 1-412-392-1040
	장소	ACCD 31층 회의실
	브리핑	F. Michael Langley, Chief Executive Officer Jim Futrell, Vice President(Market Research)
Cleveland	방문일시	2006.9.26 12:00
	연락처	601 Lakeside Ave. Cleveland, OH TEL :
Ann Arbor SPARK	방문일시	2006.9.27 09:00
	연락처	330 East Liberty Street, Lower Level, Ann Arbor, Michigan 48104 TEL : 734-761-9317
	장소	스마트존(SPARK) 회의실
	브리핑	Michael A. Finney President & CEO

5

일본의 지역활성화 전략

송 두 범 |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일본의 지역활성화 전략

송 두 범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1. 출장 개요

- 주제 : '살고 싶은 지역 만들기' 성공사례 연수
농촌지역 자치단체 혁신역량 강화
- 목적 : 지역축제를 주제로 한 지역혁신 성공사례 연수
전통문화 보전을 통한 지역활성화 전략 연수
스포츠를 통한 '살고 싶은 지역 만들기'
농촌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한 지역혁신 역량 강화
문화예술 창조도시 정책 연수
- 기간 : 2006년 8월30일(수)~9월7일(목)
- 대상 : 19명
- 방문 : 난토, 가나자와, 타테야마, 도쿄, 시미즈, 유후인, 구마모토

2 출장 내용

1) 축제를 테마로 한 지역활성화 전략, 토가무라

토가 마을은 토야마현의 서남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면적은 177.58km², 그 중 임야가 96%를 차지하는 전형적인 산골마을이다. 가파르고 험준한 산을 수원으로 하는 쇼우가와와 그 지류 토가가와, 모모세가와 세 개의 하천이 북쪽으로 흐르고 그 하천을 따라 산중턱 완사면 위에 자리잡고 있다.

산지성 기후이고 12월 초순에서 4월 초순까지 눈이 녹지 않고 적설이 3m를 넘는 일도 있는 특별 폭설지대이다. 인구는 1948년에 4,203명을 기록한 것을 정점으로 그 이후에는 매년 마을을 떠나는 사람이 늘어 현재는 약 80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다.

토가무라는 2004년 11월 시청 합병으로 인해 난토시로 편입되었다. 난토시는 지방자치단체 자율 통합 방침에 따라 토가무라를 포함한 인근 9개 지역을 합병하여 탄생한 신생 자치

단체라 할 수 있다. 지방경쟁력 강화와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합병정책에 대한 주민의 동의를 거쳐 탄생한 시로 현재 인구는 약 8만 명이라고 한다.

합병 시 지역주민의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시 위치 선정, 시 명칭, 의회 통합, 주민투표를 통한 단일시장 선출 등의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했다. 또한 공무원을 34명이나 감원하여 연간 6억 엔의 재정절감 효과를 얻었으며, 이렇게 절감된 재정의 전반은 낙후지역에 지원하고 있다.



토가무라 행정센터 현관

난토시라는 명칭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 5천여 명이 응모한 이름 가운데 선정했다고 한다. 또한, 기존의 합병 전 옛 청사건물들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행정센터로 활용하고 있었는데 연수단이 굽이굽이 산속을 1시간가량 달려 찾아간 곳이 바로 토가무라 행정센터였다.

일본은 40여 년 전부터 이농현상이 심화되어 노동력이 대부분 도시로 집중되었고, 마을은 인구가 격감하였다. 이러한 급격한 인구의 감소는 지방 산업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들었고,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도시에 나가서 공부를 하는 것이 보편화 되었다. 합병된 8개 지방 중에서 토가무라는 도시에서 가장 먼 마을이고, 겨울에는 눈이 가장 많이 오는 지역이었다.

이곳은 적설량은 4미터 정도 까지 눈이 내리는 날도 있어 국가에서도 눈이 많이 오는 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곳이다. 40년 전까지만 해도 눈 때문에 1년 중 절반은 교통이 단절되어 있던 곳이었다.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새들도 안다니는 지역, 육지의 고립된 섬나라'라 말하고 있다.

반년동안 눈으로 덮여 있어 교통이 불편하다는 악조건 때문에 산업이 발달할 수 없어서 토가무라는 인구가 급격히 감소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토가무라의 혁신,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는 시작된 것이다.

주민들은 우선, 교통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국가에 도로정비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난토시의 8개 마을 중에서 국제·국내교류가 가장 많은 곳이 토가무라라고 어필을 해야 했다. 토가무라의 지역활성화 운동은 이런 현실적인 요구에서부터 시작됐다. 1976년 도쿄 와세다 극장을 주도해 온 스즈키 단장과 토가무라의 만남은 지역혁신을 가속화시켰다.

스즈키 단장은 마을 주민들과 함께 토가무라의 전통적인 가옥양식인 합장가옥(갓쇼)의 활용방안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를 했다. 그 결과 갓쇼를 개조하여 연극무대로 하려는 스즈키 단장의 아이디어가 주민들의 호응을 얻어, 토가무라에서는 갓쇼를 연극무대로 개조하는

작업이 벌어졌으며 해마다 이곳에서 연극공연이 이뤄졌다.

이런 준비과정을 거쳐 1982년 세계 연극페스티벌이 개최되었다. 이 축제를 계기로 토가무라는 연극촌으로써 국내외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으며, 이 작은 마을에서 약 1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기에 이르렀다.

세계 연극페스티벌로 성공을 거둔 토가무라는 지역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테마를 찾기 시작했다. 첫 번째 모티브가 주(住)였다면, 두 번째는 식(食)이었다. 1985년 겨울부터 매년 3일간의 일정으로 메밀축제를 개최해오던 토가무라는 1992년 세계 메밀박람회를 개최하여 31일 동안 진행하였다. 이 기간 동안 13만 5천 300명의 관광객을 불러 모았으며, 해외 8개국 및 일본 내 38개 자치단체가 참여한 성공적인 축제를 개최했다.

세계 연극페스티벌과 메밀박람회에 이어 지역 활성화를 위해 광대한 자연환경과 사계절의 변화를 활용한 행사를 계절별로 개최하는 4계절 축제전략을 추진하였다. 여름의 '세계연극제', 5월 '봄놀이·사자춤', 10월 '토가산 축제', 2월 '토가메밀축제'의 4대 축제가 이 작은 마을에서 이뤄지는 사계절 축제에 해당한다.

자그마한 산골마을에서 세계 연극페스티벌 및 세계 메밀박람회 등 큰 행사를 개최할 수 있었던 것은 꾸준한 국제·국내교류를 통한 노하우가 있었다고 한다.

우선 연극에 관해서는 그리스비극의 발상지로 알려진 그리스 델피시와 20년째 교류하고 있으며, 1989년에는 메밀의 원산지인 네팔의 스쿠지에 도시와, 그리고 2002년에는 메밀의 주산지인 한국의 평창군과 소바 자매 결연을 맺어 메밀의 고장이라는 마을이미지를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도쿄의 무사시노시와 자매 결연을 맺고 있으며, 전 일본을 대상으로 지역별 토가무라추진회 등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토가무라 행정센터에서 진행된 브리핑

자녀를 적게 낳고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현재 토가무라의 인구는 800여명 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축제가 더 이상의 인구 감소를 억제시키고 전통적 농업을 유지시키는 효과를 가져온 것 또한 사실이다. 또 국가의 지원을 받아 행사를 개최하면서 관광객을 유치하여 농업 외 소득을 올리고 도로가 정비되는 등의 성과도 분명히 존재한다. 지역주민 스스로의 문제의식과 자발적 참여로 시작된 토가무라의 지역 활성화 운동에서 볼 수 있듯이 주민들이 어떻게 협력해 나갈 것인가, 지금까지 얻은 성과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들은 주민들의 의식전환을 통해 고민하고, 결정해 나가야 할 시기이다.

작고 아담한 크기의 난토시 토가무라 행정센터를 배경으로 단체사진을 찍은 연수단은 브리핑을 해주신 나카타니씨가 미리 예약해 주신 식당으로 향했다. 식당은 산속에 자리잡은

조용한 곳이었는데 해마다 메밀박람회가 열리면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는 축제현장이었다.

13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했다기에 근사한 관광지를 기대했던 우리는 너무도 소박한 모습을 보고 정말 중요한 것은 시설이 아니라 콘텐츠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축제가 열리면 직접 소바를 만들어 볼 수도 있는데, 아쉽게도 직접 체험은 하지 못하고 만들어주신 소바로 만족해야 했다. 그 유명한 소바를 처음 맛본 순간에는 한국에서 먹어본 소바와는 달리 쫄쫄한 맛도 없고, 오히려 '이게 뭐야'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먹을수록 담백한 맛이 느껴져 한 그릇씩 더 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었다.

나중에 알았지만, 밀가루가 적게 들어가고 소바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한국에서 먹었던 면과는 다른 맛이 난다고 한다. 약간 중독성이 있는 맛이라, 한국에 돌아가도 가끔은 생각이 날 것 같다.

연수단을 태운 버스가 식당을 돌아나와 멀어져 갈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시던 식당에 일하는 분들을 보면서 우리도 어색하게 손을 흔들어 답례를 했다. 이곳을 다녀간 관광객들은 이런 작은 친절까지도 모두 담아가지 않았을까 싶다.

토가무라는 지역을 일으키기 위해 지역 내에 있는 폐농가와 일본 전통식 건물인 합장가옥들을 이전하여 '토가문화 예술공원'을 조성하고 도시와 교류하는 거점으로 활용했다. 토가무라에서는 1982년 이래 해마다 7월 중순에서 8월 하순까지 세계 연극 페스티벌이 열리는데, 연극 공연은 이 문화예술공원 안에 있는 토가 연극촌에서 이뤄진다.



예술공원을 구성하고 있는 토가산보 앞에서
기념사진 촬영

토가 연극촌은 갓쇼를 개조한 토가산보와 신토가산보, 팔각형 현대식 건물인 토가 스튜디오, 호숫가에 자리 잡은 야외극장 등 네 개의 극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두개의 건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전하여 복원한 것이라 설립비용은 많이 소요되지 않았고, 보조금은 토야마현에서 지원을 받았다고 한다.

전통가옥 4~5채를 분해해서 만든 실내에 들어서면 널따란 마룻바닥이 무대가 되고 층층이 다다미를 깔 자리가 400석의 객석이 되며, 관객들은 신발을 벗

고 들어와 다다미에 걸터앉게 배치되어 있다.

실내는 삼나무 향기로 묘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으며, 배우들의 발 구르는 마루바닥이 미세한 울림부터 쿵쾅거리는 강한 울림까지 호소력을 가지고 울려 퍼지는 역할을 한다. 3백년이나 됐다는 갓쇼에서의 연극은 신비로움을 연출한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4m의 눈으로 둘러쌓여 따뜻하다고 한다. 또한, 배우의 얼굴, 눈물, 땀을 가까이서 볼 수 있고 긴장감을 느낄 수 있어 배우에게도 관객에게도 최고의 조건이라고 생각되었다.

야외극장은 호수를 배경으로 무대가 설치되어 있고, 객석이 800석 정도 계단식으로 되어 있다. 일본의 공공시설에서는 불꽃이나 조명 등에 대한 제한을 받지만, 이곳 야외무대에서는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시설 면에서의 장점과 더불어, 토가무라가 예술가들로부터 사랑받는 가장 큰 이유는 자유로운 예술 활동이 보장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대개의 경우 행정이 주도적으로 건축을 하고 감독을 지정해 가는 절차를 밟게 되어 감독이 자유로운 활동을 하는데 제약을 받게 된다. 그러나 토가무라는 사정이 다르다. 스즈키 단장으로부터 시작된 즉, 예술가로부터 시작된 극단은 행정에서 정한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예술가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고 예술가에 의해 이곳 토가무라의 역사가 써여지고 있는 것이다.



호수를 배경으로 설치된 야외극장

2) 창조도시 가나자와

가나자와 시청으로 향하는 중에 지나가면서 바라본 가나자와성은 도심 한복판에 자리잡고 있으면서, 자연과 도시가 묘하게 어우러져 있어 전통과 현대가 어울리는 문화예술의 도시 가나자와시의 도시전략을 상징하는 듯 했다.

가나자와시청의 첫인상은 주황색 벽돌건물에 검정색 창살이 쳐져있어 왠지 교도소처럼 보이기도 했다. 연수단은 여성참가자들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남성참가자들만 기념촬영을 마치고, 7층 회의실로 올라가 가나자와시의 창조도시 전략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



가나자와시청 앞의 단체사진

가나자와가 가진 고유한 재산은 자연과 조화된 역사적인 길거리, 생활 속에 뿌리박은 전통문화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에도시대 이후로 학술도시로서 역사를 쌓아왔고, 공예와 학술이 융합된 전통적인 지역산업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가나자와는 이런 고유의 자연과 역사, 문화를 초석으로 하면서 그것들을 현대에 계승하는 동시에 환경문제, 고령화, 정주인구 감소 등의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발전

시키고 있다. 중추 거점 도시로서의 기능향상, 살기 좋고 질 높은 생활환경의 조성을 목표로 거주지역, 상업·업무지역, 공업·유통지역과 자연 환경 보전 지역을 균형있게 배치하고 각각에 적합한 도시환경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가나자와시는 가나자와의 뛰어난 개성과 매력을 높임과 동시에 도시 기반을 충분히 확충하고 시민 본위, 시민 주체의 여유 있는 시민 생활을 한층 더 풍부하고 안정되게 하기 위하여 1995년에 [가나자와 세계 도시 구상]을 확정했다.

이 구상에 따라 1996년도를 시작년도로 하는 [가나자와시 신기본계획]을 추진하여, 2005년도에 종료되었고, 2006년도를 시작년도로 하는 향후 10년간의 행정 운영의 지침이 되는 [제2차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제2차 기본계획은 구상의 3대 목표인 '고차원 도시기능을 정비한다', '개성을 창출한다', '풍부한 인간 환경을 쌓는다'를 계승하면서 새로운 목표로써 '건강한 거리, 가나자와를 만든다', '아름다운 거리, 가나자와를 만든다',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거리, 가나자와를 만든다' 등 세 가지 목표를 내걸고 도시를 가꾸고 있다.

가나자와는 번정기(藩政期) 이래 호쿠리쿠 지방(중부지방에 있는 4현의 총칭)을 대표하는 도시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앞으로 새로운 도시 기반 정비에 맞춰 가나자와시의 거점성을 더욱 향상시키는 한편 사람, 사물, 정보의 유동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다른 도시와의 경쟁도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가나자와시는 개성이 풍부한 호쿠리쿠 지방의 중추 거점도시로서 그 역할을 다해가기 위해 △광역 교통 기



가나자와 역사지구의 한 신사

반을 살린 거점성이 높은 도시 조성 △국내외와의 교류 촉진 △시대를 선도하는 제품을 만드는 산업 형성 △매력 있는 고용 창출 △학술 도시의 특성을 살린 인재 만들기 등에 힘쓰고 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품격과 번영이 있는 '건강한 거리, 가나자와를 만든다'를 첫 번째 목표로 세운 것이다.

'아름다운 거리, 가나자와를 만든다'를 두 번째 목표로 세운 이유는, 가나자와의 마을들은 시로야마 산계에 연결된 3개의 대지, 구릉과 그 사이를 흐르는 2개의 맑은 물줄기 등 자연 조형이 그 기반이 되고 있고, 이러한 풍요로운 자연 환경 위에 선인의 지식이 축적된 역사와 문화, 아름다운 거리가 숨 쉬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소중한 자원을 보전하기 위해 가나자와시는 역사와 문화를 살린 마을 조성에 특히 노력하는 등 사람과 자연과의 공생 및 자연과 조화된 도시 환경의 창출에 주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거리, 가나자와를 만든다'를 세 번째 목표로 내

세웠는데, 이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든다는 시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가나자와는 생활 속에서 길러져 온 커뮤니티가 맥맥이 이어져 지역의 삶을 유지해 왔다. 시민들의 풍요로운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안전과 안심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근래 몇 년 사이 커뮤니티의 약체화가 지적되는 한편 NPO 등에 의한 지역과 세대의 틀을 넘는 새로운 활동도 계속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가나자와만이 가능한 시민과 행정이 일체가 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커뮤니티를 소중히 하고 모든 사람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 조성, 젊은 세대가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써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마을 가나자와를 만들고자 노력하자는 것이다.

가나자와는 이 3가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새롭게 부분별로 시책을 중점화, 종합화한 10가지 중점 프로젝트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다.

▶ 프로젝트 1 : '세계로 열린 교류도시' 형성

가나자와항, 호쿠리쿠 신간선 및 광역도로의 정비를 추진하고 고마츠(小松) 공항의 기능을 살려 가나자와를 중심으로 한 권역에서 국내외의 인간, 사물, 정보의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세계로 열린 교류도시의 형성을 도모한다.

▶ 프로젝트 2 : '매력과 활기가 넘치는 쾌적도시' 창조

본래 가나자와가 갖고 있는 콤팩트 시티로서의 도시구조를 잘 살려 쾌적하고 활력으로 넘쳐나는 중심 시가지를 만들고, 환상(環狀)도로와 중심시가지, 그리고 교외시가지를 원활히 연결하는 교통체계를 정비하여 자연환경과 도시기능 두 가지 모두를 향유할 수 있는 쾌적한 도시를 창조한다.

▶ 프로젝트 3 : '독자적이고 창조적인 제작산업' 육성

무엇인가를 만들어 내는 제작의 전통과 풍부한 문화적 특성, 그리고 항만 등의 도시기반, 또 학술의 집적을 활용하여 가나자와가 배출해 내는 사람, 사물, 문화를 '가나자와 브랜드'로 한 독자적이고 창조적인 산업을 창출한다.

▶ 프로젝트 4 : 지성과 감성을 갖춘 '다음 세대를 짊어질 인재' 육성

풍부한 개성의 도시 가나자와를 어린이와 함께 성장해 가는 지역으로 만들어 미래로 전하기 위해, 지성, 감성을 갖춘 뛰어난 인재를 육성한다.

▶ 프로젝트 5 : 빛나는 자연에 둘러싸인 '인간과 지구환경' 공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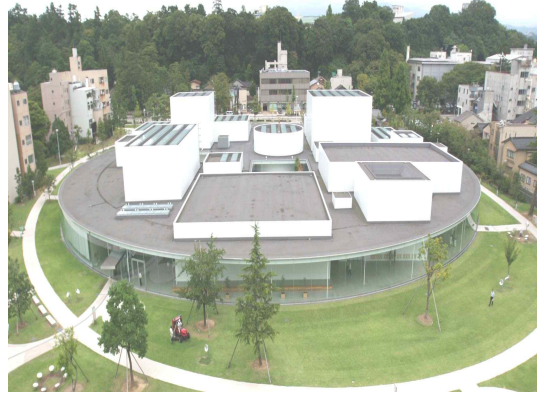
가깝게는 생활 속에서 가나자와 자연환경의 보존·함양에 힘쓰고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지구온난화 방지 등의 글로벌한 과제에 대한 대응으로 풍요롭고 윤기나는 자연과 인간, 그리고 지구환경이 공생하는 아름다운 가나자와를 만들기 위한 환경친화적인 활동을 추진한다.

▶ 프로젝트 6 : 전통과 첨단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경관' 형성

역사를 소중히 하는 마음을 기본으로, 역사적인 도시모습과 건축물 등의 전통적인 경관의 보존 및 근대적 도시경관의 창출을 조화시킴으로써, 전통과 첨단이 매력적으로 조화를 이룬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사회 형성을 지원한다.

▶ **프로젝트 7 : 문화와 예술이 미래를 여는 '다채로운 공간과 활동' 창조**

가나자와를 수놓고 있는 고유의 문화를 소중히 하고, 예능, 공예, 음식문화 등의 전통문화를 다음 세대로 계승함과 동시에, 혁명적인 노력을 통해 새롭고 다채로운 문화활동의 장과 기회를 창조하는 등 특색있는 교육의 추진으로 새로운 예술활동을 창출한다.



가나자와시 21세기 미술관

▶ **프로젝트 8 : '평생 건강사회' 형성**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모든 인생의 무대에 걸쳐 시민의 마음과 건강 만들기를 지원함과 동시에, 정이 든 지역에서 서로가 도우며 건강하고 풍요롭게 살아 갈 수 있는 건강복지 사회를 위해 고령자를 보살피는 체제를 형성한다.

▶ **프로젝트 9 : '육아의 기쁨을 실현 할 수 있는 고장' 추진**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대응한 지역과 세대를 초월한 새로운 육아 지원을 완성하기 위해 육아지원체제를 충실히 구축하고, 지역사회가 하나가 되어 육아를 실시하는 환경을 만들어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가나자와를 만든다.

▶ **프로젝트 10 : 시민과 서로 돕는 '안전한 생활' 실현**

시민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자연재해와 범죄에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도시기반을 정비하고 기능을 보강하며, 재해에 강한 고장 만들기를 추진함과 동시에, 경찰, 소방, 지역 커뮤니티와 연계한 방재, 방범, 교통안전활동을 추진한다.

가나자와는 기업유치나 중앙정부의 개발 사업으로 인한 발전이 아니라 내부의 자원을 조화롭게 활용한 '내생적으로 개발된 창조적 도시'이다. 외부의 자본 유입에 목마른 다른 도시와는 달리 지역이 가진 전통적 산업을 보존하고 경제적 효과를 지역 내에 남기는데 성공한 것이다.

이를 위한 첫 출발은 '문화의 보존'이었다. 가나자와시는 2차 대전이 끝나자마자 일본에서 가장 먼저 문화재보존조례를 제정했다. 에도시대의 게이샤거리로 불렸던 히가시차야 거리는 일본 전통차와 지역의 특산물을 파는 거리로 재정비했고, 가가유젠(일본 전통 의복을 만드는 염색 옷감), 금박, 구다니 등의 지역 전통산업이 시대에 맞게 다시 태어났으며, 우다쓰야마 공예공방에서는 전통 장인들을 기르고 있다.

그러나, 가나자와의 보존은 단순히 옛것을 지키는데 그치지 않고, 전통산업을 발달시키는 동시에 독특하고 풍부한 예술과 문화자원을 현재에 맞게 혁신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전통문화가 단순히 보존이나 복원, 육성의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와의 결합을 통해 현대적 전통으로 재탄생하는 것이라는 이해에 바탕한 발전 전략으로 성공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가나자와시의 사례를 토대로 도시의 창조성 및 지속가능성 지표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고 있다. 첫째, 예술가와 과학자들이 그들의 창조력을 발전시키고 확장해야 할 뿐 아니라, 노동자와 장인들도 창조적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그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을 느낄 수 있다.

둘째, 시민들의 일상생활이 예술적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충분한 소득과 여간 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며, 문화예술을 낮은 가격으로 감상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대학, 기술학교, 연구기관, 극장, 도서관 등 문화시설들은 도시 내 창조적 활동을 지원하는 인프라로써 기능해야 한다. 넷째, 환경정책은 역사유산과 도시환경을 보존하고, 어메니티를 증가시키는데 핵심이다. 다섯째, 도시는 균형잡힌 경제적인 기반을 가져야 한다.

창조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는 문화정책 및 환경정책과 연관된 산업정책과 함께 공공재정에 대한 민주적 관리를 통합한 창조적 도시정책으로 구성된다.

지역주민의 문화향수, 토착 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문가 양성, 전통의 재창조를 위한 노력, 도심 문화 공간 개선사업을 통한 가나자와의 사례는 우리에게 치밀한 구상, 종합적인 연계성, 타 지역과의 차별성을 통한 새로운 대안을 강구하도록 시사하고 있다.

가나자와에서 브리핑을 마치고, 시민예술촌 입구에 있는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가나자와에서는 도시의 주요 건물들이 교외로 이전한 장소 또는 공장부지 등이 거의 대부분 문화공간으로 재 활용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곳이 시민예술촌이다.

식사 후 예술촌 촌장님에게 간단한 브리핑을 받고 예술촌을 돌아보기로 했다. 가나자와에는 방직공장이 많이 있었다. 방직공장이 세워진 것은 1919년으로 약 87년 전이었다.

종업원이 많았을 때는 2,000명가량 되었고, 면적은 10만㎡ 정도였다.

1994년 공장이 폐쇄되자 가나자와시가 매입하여, 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공간으로 만들었다. 공장이 있던 자리는 잔디로 변했고, 창고는 연극, 음악, 미술 등 시민들이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예술촌이 개장된 지 10년이 지났는데, 이곳을 이용한 시민의 수가 2006년 7월 31일까지 통계로 216만 9천명이다. 연 평균 약 20만명이 이용하는 셈이다.

가나자와 시민 3명 중 1명은 스스로를 '아마추어 문화 예술가'로 생각한다. 상당



공장부지를 재활용한 시민예술촌 입구

수 시민들이 음악, 미술, 공연 동호회원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의 중심에는 가나자와 시민이라면 누구나, 또 아무 때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시민 예술촌'이 있다.

시민예술촌이 가나자와에 자리잡게 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가나자와는 일본무용, 차, 꽃꽂이 등 전통예능이 발달한 지역이어서, 문화 활동을 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요즘 젊은 청년들은 전통악기보다는 기타나 락음악, 재즈음악을 선호하고, 일본무용보다는 플라멩고를 원한다. 하지만 전통이라고 해서 무조건 낡은 것으로 배척하기 보다는 전통에 새로운 것을 가미하여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젊은 청년들이 좀더 자신을 표현하고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갈 공간이 필요했던 가나자와이기에 시민예술촌이 이처럼 시민들 속에 자리잡을 수 있었던 것이다.



시민예술촌의 호소카와 촌장

한국에도 시민예술촌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시설들이 많이 있다. 일본 역시 이러한 시설이 2,500여 곳이나 있지만 가동율은 연간 52%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호소카와 촌장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러한 시설의 가동율이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타까워했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것에 주목했다.

그리고는 오케스트라와 미술관을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점에서 바라보고 사업에 착수했다. 대부분의 시설은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개방을 하고, 주1회 휴관 및 명절에도 휴관을 하는데, 시민들의 가장 큰 두 가지 요구 중 하나가 '언제 어느 때 가더라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낮에 직장을 다니고, 저녁 6시 이후부터 3시간정도 밖에 시설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한창 연습을 하다가 폐장시간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불만이 많았던 것이다. 이를 위해 시민예술촌은 24시간 365일 개방을 하고 있다. 24시간 개방 이후, 연간 방문했던 20만명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시간이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로 전체 이용자의 60% 이상이 이 시간대에 몰렸고, 단 하루도 방문자가 없는 날은 없었다.

나머지 하나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였다. 현재 예술촌의 이용요금은 6시간에 일천 엔이고, 여러 가지 시설 및 비품들은 무료로 빌려주고 있다.

시민예술촌이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1년 365일 내내 이용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이러한 요구를 적극 반영했을 뿐 아니라, 시설을 시민이 직접 운영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기존의 시설들은 가나자와시의 직원들이 관리 운영하고 있었는데 시민예술촌은 시민들이 직접 맡아하기로 한 것이다. 시민들은 행정의 권

리를 시민에게 어느 정도 양도했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관리 규칙을 엄격하게 정해놓지 않았다. 예를 들어, 기둥에 못을 박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규칙을 미리 정해 놓지 않고, 이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직접 규칙을 만들고 지키도록 한 것이다.

연극을 하는 건물에는 연극을 하는 사람들이 규칙을 만들고, 음악을 하는 건물에는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규칙을 만들기로 했다. 만약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 적절한 규칙을 만들기로 하고, 시민 중에서 감독을 선정하여 분야별로 2명씩 총 6명을 두어 관리하도록 했다.

다만, 행정에서는 두 가지를 부탁하고 있다. 건물들이 모두 목조건물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불사용을 금할 것을 요구한다. 연극 등을 할 때 불사용이 불가피하다면 사전에 소방허가를 받고 사용을 하도록 하고, 절대 금연을 하도록 하고 있다. 나머지 한 가지는 시설을 자유롭게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원상복귀 시킬 것을 요구한다. 벽을 뜯어내거나, 기둥을 잘라 내더라도 원래 상태로 복원만 해 주면 되는 것이다.



시민예술촌 입구에서 단체사진

이처럼 최소한의 간섭으로 예술가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운영해 가며, 24시간 개방하는 동안에도 저녁 9시 30분부터는 상주하는 직원이 한명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운영상의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시민들 모두가 이곳은 자신들의 공간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직접 관리하고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나자와시의 시민의식이 다른 도시에 비해 월등히 뛰어난 것일까? 촌장의 대답은 'No'였다.

공원에만 가보더라도 망가진 벤치가 많고, 낙서된 벽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지만 이곳에서 만큼은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바로 시민들 스스로의 주인의식 때문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빵과 밥을 통해 몸을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라면, 음악과 예술은 마음을 키우는 재료가 된다. 이러한 재료를 위해 행정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주 작다. 훌륭한 시설을 만들고, 엄격한 관리를 통한 시설보존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만 제공해 주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다.

시민예술촌 안에 있는 직인대학(職人大學)은 일본 전통 목조건물을 짓는 데 필요한 기술자들의 재교육 공간이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가나자와에 있는 낡은 목조건물을 보존하고 수리하기 위해 옛 기술과 옛날 재료를 그대로 사용하는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다.

50여명이 3년간 교육을 받고 있으며, 대부분이 7~8년 이상의 경험자이다. 학비는 전액 가나자와시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학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 교육은 대부분 1:1로 이루어지며, 3년간 공부한 후 상위 단계에서 다시 3년간, 총 6년의 과정을 마쳐야 가나자와의 주요 문화재를 보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 있다.

더구나, 직인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은 10년간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직인대학은 초보자가 아닌 전문가를 대상으로 다시 6년간의 과정을 거쳐 진정한 프로를 양성하는 곳이다. 또한 이곳의 학생들은 자신들의 본업을 가지고 있어, 낮에는 직장에서 일을 하고, 저녁시간을 이용해 교육을 받고 있다. 예술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다.



직인대학에서 이루어진 현장 브리핑

3) 친환경 산지개발, 타떼야마 구로베



일본의 '북알프스'란 혼슈 중앙부 나가노현에서 도야마현에 이르는 산맥으로 동쪽 하쿠마연봉에서 서쪽 타떼야마 연봉 일대의 산맥을 지칭하는데, 3,000m 이상 되는 봉우리만도 9개 이상 되는 이곳은 유럽의 알프스산맥과 같은 분위기라서 서양인 선교사가 일본의 알프스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타떼야마 구로베 알펜 루트는 버스, 케이블카, 로프웨이, 지하 케이블 등을 갈아타면서 일본의 지붕인 북알프스 타떼야마 연봉의 산허리를 관통하는 산악관광 루트인데, 최소한의 시설만 가지고 자연환경을 잘 보전하면서 관광 상품을 개발한 선진 사례로 꼽히고 있다.

타떼야마에는 유황의 냄새가 일대에 가득 차, 풀 한포기 나지 않는 지고쿠(지옥) 계곡과 타떼야마 최대의 화산 호수인 '미쿠리가 못' 외에 여름에도 녹지 않는 눈 계곡 등 관광객을 유인할 자연환경이 풍부하게 있어 전부터 등산과 스키, 캠프 등의 산악 레크리에이션의 장소로 알려져 왔다. 타떼야마 구로베 알펜 루트는 구로베 강 제4발전소 건설의 공사용 기자재 수송로로 건설되었으며, 1972년에 발전소의 완공과 함께 완전히 개통되었는데, 이때부터 관광객이 급증했다.

구로베 계곡은 수백 미터에 달하는 일본에서 가장 깊은 협곡이다. 일본의 특별



타떼야마 구로베 전경

경승지로 지정이 된 아루토비 협곡 외에 구로베 강의 상류에는 일본에서 가장 높은 186m를 자랑하는 거대 아치형 댐 구로베 댐이 있다.

타떼야마 역에서 나가노현의 오오기사와까지 약 86km에 이르는 산악 루트는 자연의 위대함이 빚어낸 뛰어난 풍경과 계절마다 드러내는 빼어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알펜 루트 도중에는 거대한 암벽인 아쿠시로노카베를 비롯하여 낙차 350m로 일본 최대급의 박력을 자랑하는 쇼우요 폭포와 한여름에도 2~5도의 샘물이 솟아나는 무로도 등의 경승지가 있다.

4) 테마와 상업을 결합한 임해부도심 개발

동경 도심에서 전철로 30분 거리에 있는 오다이바의 옛 이름은 시나가와 다이바라고 한다. 시나가와 다이바는 에도 막부가 공식적으로 개항을 선언하기 직전인 1853년, 쿠로후네, 즉 서양 함선의 침입을 막기 위해 대포를 설치한 인공섬이었다.

이 인공섬에 대규모 위락 쇼핑시설을 건설하여 지금은 새로운 부도심으로 개발되었다. 포화상태에 놓인 도시의 역할을 분담시키기 위해 신 도심지를 물색하던 도쿄도는 바다 위에 외로이 떠있는 조그만 섬에 눈길을 돌렸고,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새로운 인공섬, 오다이바를 탄생시킨 것이다.

최근 개발된 곳답게 오다이바에는 넓고 쾌적한 공원, 거주자의 편의를 고려한 각종 근린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게다가 세련된 쇼핑센터와 각종 전시장이 저마다 특징적인 테마로 사람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여성을 위한 테마파크인 비너스포트관, 메가@웹으로 불리는 도요타자동차사의 시티쇼케이스, 빛의 세계 등 서로 개성이 다른 확실한 테마에 의한 운영으로 평일에도 관광객과 쇼핑객들로 붐비는 동경의 새로운 명소가 되었다. 관광과 쇼핑을 결합한 신도시로 곳곳에 ‘Panasonic Center’ 등 일본 유명 기업의 상품을 전시·판매하고, 전시물을 이용한 관광시설을 배치하고 있는데, 테마를 활용한 상업 공간 구

성의 모범적인 사례라 할 만하다.

선견지명을 가진 누군가가 이 작은 섬을 매입했었다면 지금쯤 인생이 바뀌지 않았을까?

오다이바에 입주한 빌딩은 테마를 활용한 상업공간이라는 줄기에서 뻗어나가 각기 자기만의 테마를 가지고 다양한 모습으로 자리잡고 있다. 각각의 개성을 살펴보기로 하자.

▶ **후지 텔레비전 본사** : 관람객들이 방송국 테마관을 관람하면서 TV방송을 소재로 한 방송장비, 스튜디오, 연예인 등 방송과 관련된 정보도 얻고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단순히 방송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휴식 공간 및 관광객을 유도하기 위한 전망대 등 상업성에 있어서 일본인의 치밀함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사례이다.

▶ **비너스스포츠관** : 이국적인 유럽의 거리를 모티브로 꾸민 여성을 위한 쇼핑몰이다. 이곳에 처음 들어서는 사람은 유럽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고풍스러운 느낌이 감도는 건물 벽과 벽돌, 포석이 깔린 바닥, 중간중간 나타나는 분수대와 석상, 엄숙한 분위기의 교회당 등 유럽의 어느 한 도시를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하다. 천장에는 매시간 다른 색의 조명을 비춰 새벽부터 저녁까지의 하늘을 보는 듯한 효과를 낸다.

▶ **텍스도쿄 비치** : 오다이바 해변 공원과 나란히 붙어있는 쇼핑센터이다. 시사이드 몰과 아일랜드 몰로 나뉘어 있다. 취급 품목은 젊은 층이 선호하는 영캐주얼, 아웃도어 의류, 캐릭터 상품, 인테리어 소품 등이다. 아일랜드 몰 6, 7층에는 형형색색의 간판으로 뒤덮인 홍콩의 거리를 그대로 재현한 다이바 리틀 홍콩이 있다. 홍콩에서 직접 수입한 의류, 소품을 파는 상점과 중국 음식점 등이 한자리에 모여 마치 홍콩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심지어는 소음과 냄새까지도 그대로 재현했을 정도이다. 시사이드 몰 4층에는 이와 비슷하게 일본의 1950~1960년대 거리를 재현한 다이바잇쵸 메쇼덴가이가 있다.

▶ **메디아 주** : 극장과 백화점이 한데 합쳐진 복합 쇼핑센터이다. 눈길을 끄는 매장은 감쪽한 문구, 소품, 인형, 가방을 파는 3층의 Mother Garden과 일본풍의 젓가락, 부채, 술잔과 직접 빚은 니혼슈를 파는 하나시베 Shop, 코카콜라를 테마로 만든 티셔츠, 유리잔, 소품 등의 캐릭터 상품을 취급하는 6층의 월드 오브 코카콜라 등이다. 메디아 주 3, 4층에 위치한 소니의 쇼룸에서는 소니의 PC, 오디오, 영상기기 등 최신제품을 하나하나 만져 볼 수 있다. 5층으로 올라가면 소니에서 직접 운영하는 어린이 과학교실, 소니 익스플로러 사이언스가 있다.

▶ **아쿠아시티 오다이바** : 패션, 잡화, 인테리어 소품 등을 주로 취급한다. 1층에 장난감 전문 매장 토이 자러스, 3층에 디즈니 스토어와 저렴한 생활 잡화를 파는 3Minutx Happiness, 4층에 아톰 등의 캐릭터 상품을 파는 테즈카 오사무 월드 등이 있다.

5) 맥주 공장부지를 활용한 도심 재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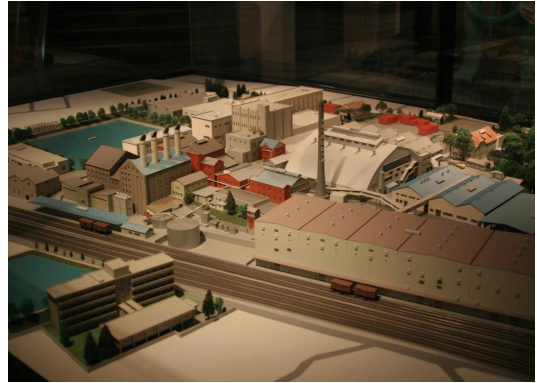
1887년에 설립된 일본맥주 양조회사는 2년 후인 1889년, 도쿄부하 에바라군 메구로마을 미타에 맥주 양조장을 건설했다. 이 벽돌구조 3층 건물은 맥주의 본고장 독일의 양조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았다. 양조장이 건설될 당시 이 근처는 민가도 별로 없는 농촌 지역이었는데, 당시 밭 한가운데에 갑자기 세워진 근대 건축물은 설립 당시부터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독일제의 설비로 독일인 양조 기사가 만드는 독일풍 맥주로써 1890년에 태어난 '에비수 맥주'는 1896년 업계 1위를 차지하며 다시 한번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고 한다.

1901년은 맥주 수송 측면에서 획기적인 해로 기록되고 있다. 일본 철도가 회사의 의향을 접수해서 화물 수송을 개시했던 것이다. 이로 인해 주요 도시에 더욱 빠르게 에비수 맥주를 수송할 수 있게 되었다. 정거장명은 맥주 브랜드를 그대로 사용하여 에비수 가든 플레이스에 있는 에비수역의 기원이 되었다.

이 곳에 있던 에비수 공장은 1988년 도쿄도가 수립한 '에비수지구 정비 계획'에 의해 치바현 후나마시시로 이전해 갔다. 그리고 1991년 공사가 착공되어 1994년 10월 8일 맥주공장 부지 8.23ha가 현재의 에비수 가든 플레이스로 재탄생한 것이다.

에비수 가든 플레이스는 백화점, 레스토랑, 전시장, 비어가든, 호텔, 극장 등이 한데 모인 복합공간이다. 마치 유럽의 테마 파크처럼 한껏 멋을 부린 건물과 세련된 시설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 여행자는 물론 도쿄 시민도 즐겨 찾는 명소가 되었다.

입구에 있는 엔트런스 퍼빌리온의 시계탑에서는 정해진 시각마다 인형들이 나와 유럽의 맥주 축제 모습을 재현한다. 건물 가운데에 넓게 펼쳐진 센터 광장에서는 매일 다채로운 야외 공연이 펼쳐진다. 시민들에게 맛있는 맥주를 제공하기 위해 치열했던 맥주 양조장이 이제는 모습을 바꿔 시민들의 여유로운 휴식처가 되어주고 있는



과거의 맥주양조장 모형



삿쵸로 맥주기념관에서의 맥주시음



맥주기념관 내부

것이다.

에비수 가든 플레이스 공사는 공장으로 사용하던 근대 건축물을 그대로 두고 시작되었다. 약 1세기에 걸쳐서 맥주를 만들어 온 장소에 역사성을 부여하고 새로운 역사를 이어갈 공간을 만들었다. 기념관은 일본의 대표적 맥주 가운데 하나인 에비수 맥주의 역사와 주조공정을 소개하고 있다. 입구 안쪽에는 이 기념관의 상징인 구릿빛으로 빛나는 대형 맥주 발효통이 있다. 그리고 에비수 맥주 100년의 역사와 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 도구, 옛 사진, 맥주 주조 과정 등이 전시되어 있다.

과거 맥주 공장이었던 도쿄 외곽인 이곳을 지역특색과 시대 흐름에 맞게 맥주 기념관과 미술관, 야외 공연장, 백화점 등으로 연계 개발함으로써 주민들이 문화와 쇼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공장 부지의 활용도 제고를 통해 인근 지역 슬럼화를 방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발전에도 이바지 했다는 평을 듣는다.

역사라는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화려한 전성기를 보내고 15년 전 사라져 버릴 뻔했던 맥주 공장이 맥주 기념관으로 재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다.

에비수 가든 플레이스는 도시 기능의 갱신, 도시주택의 공급, 서구의 정원도시 건설 등을 목표로 건설되어, 대표적인 대규모 단지식 복합개발로 유명하다. 여기에는 주거, 업무, 상업, 숙박, 문화오락 등 다양한 기능들이 복합되어 있다.

전체 부지면적의 60%를 오픈 스페이스로 조성하고 차량의 진입과 주차공간 등을 완전 지하화하여 보차분리를 실현함으로써 지상공간을 안전하고 활성화된 보행공간으로 조성하는 한편, 중심 광장에는 지붕을 씌워 날씨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다.

또한, 에비수역과 에비수 가든 플레이스를 연결하는 '스카이워크'라는 움직이는 도로를 건설하여 사람들이 역에서 내려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단지 안에 있는 15m의 도로를 이용해 샷쵸로 본사 기념관과 상업, 오피스, 다목적 홀 등 도시성이 강조되는 시설들은 2가구에 집합시켰으며, 주택과 호텔 등 좋은 거주환경이 요구되는 시설들은 분리하여 1가구의 녹지공간에 건설하여 도시형 영역과 주거부 영역을 분리했다. 주거동은 중정을 갖는 타워형으로 만들었으며, 실질 거주계층을 고려하여 임대주택 비율을 72%로 높였다.

일본의 치밀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주거·업무·상업·숙박·문화오락 시설 등 모든 방면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 놓고, 보행 공간, 스카이워크 등 세부적인 부분까지 세심하게 배려한 대규모 단지식 복합개발을 통해 한 번에 세 마리, 네 마리의 토끼를 잡았다고 할 수 있다.

6) 축구를 통한 도시정체성 확립, 시미즈 에스펠스

하루의 3분의 2를 버스에서 보낸 일행은 해가 질 무렵 시미즈에 도착했다. 인구

약 24만의 항구도시 시미즈는 스루가만[駿河灣] 북서 해안에 있으며, 일찍이 도카이도[東海道] 가도의 역참 및 지방물자 반출항으로 발전해 왔다. 그 후 항만을 중심으로 석유·조선·통조림·철강·비철금속·합판·목재·제약·식품 공업 등이 일어나서 임해공업도시가 되었다. 시미즈항은 무역항으로 수출액 기준 7위이며 주요 수출품은 오토바이, 자동차, 자동차부품 등이다. 또 주변 일대는 차, 밀감 및 딸기, 온실 토마토, 오이 등의 원예농업지로 유명하다. 미호술밭[三保松原]은 유명한 경승지이고, 시미즈사[清水寺]를 비롯한 사찰 및 해양과학박물관 등이 있어 관광광객이 많이 찾는다고 한다.



S-PULSE 포스터

저녁식사 후 자유롭게 항구주변을 산책도 하고, 식당 옆에 있는 쇼핑센터에서 시간도 보내며 오래간만에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 쇼핑센터에는 1개 층 전체가 S-PULS 기념품과 사진 등을 판매하고 있어, 시미즈의 축구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덕분에 우리는 반가운 조재진 선수의 얼굴을 포스터를 통해 만날 수 있었다.

혹시나 조재진 선수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살짝 가지고, 버스에 올라탄 연수단은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유소년 축구 및 한·일간의 축구교류에 힘쓰고 계신 나가자토씨로부터 사전학습을 받으며 시미즈 내셔널 트레이닝 센터로 이동했다.



시미즈 내셔널트레이닝센터 브리핑 장면

회의실로 안내를 받아 잠시 기다리자, 시즈오카시의 아야베 미치에씨, j-step의 스기야마 요이치씨, 진흥공사의 운노 히로시씨가 차례로 들어와 스포츠 마케팅 및 스포츠센터에 관심을 가지고 방문한 연수단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었다.

이행봉 연수단장님의 인사말이 끝나고 아야베 미치에씨가 가장 처음 던진 질문은 "여러분은 이곳에 도착하셔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였다. 이곳은 한걸음 들어

서면 왠지 몸을 움직이고 싶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한다. 언뜻 당연하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간략한 한마디 속에 스포츠센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담겨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시미즈 내셔널 트레이닝 센터는 천연잔디축구장, 인공잔디축구장, 조깅코스 800m, 수영장, 체육관, 숙박시설, 식당, 200대의 주차 공간, 레스토랑, 회의실 등 스포츠 훈련을 위한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현재는 시즈오카시가 되었지만 3년 전 통합되기 전까지는 시미즈시였다. 당시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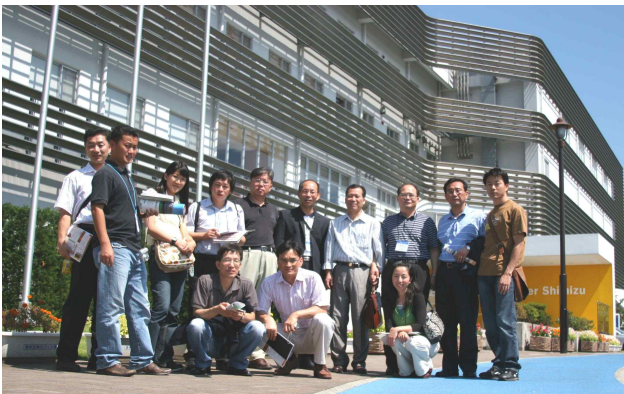
미즈시는 시민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국가대표는 물론이고 아마추어 선수, 생활체육 동호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훈련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였고, 그 결과 스포츠 거점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시민들의 건강 촉진을 위해 스포츠를 장려한다는 목적으로 시작했지만, 시를 대표하는 스포츠를 하나 만들자는 생각으로 축구가 선정된 것이다. 그 영향으로 시미즈 출신의 프로 선수들이 J리그에서도 많이 활약하고 있다고 한다.

1970년대 축구협회에서 축구국가대표선수를 위한 연습공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당시 스포츠센터를 건설할 장소로 시미즈가 선정된 이유를 시미즈 시민의 관점에서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로, 시미즈에는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축구가 시미즈를 대표하는 스포츠가 되면서 시미즈 시민은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축구를 즐기게 되었고, 그 집대성으로 시미즈 S-PULS라는 축구단이 형성되기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리고 둘째 이유로는 이 지역에는 연습할 대상이 많다는 것이다. 소학교 축구대회에서 시미즈 선수들은 여러 번 우승을 했고, 고등학교는 4개의 학교가 각각 한번 씩은 우승을 하는 등 전적이 화려한데, 그 배경에는 S-PULS 프로팀이 연습을 해 주고 있었다는 것이다.

일본에는 두개의 국제 트레이닝 센터가 있는데, 이곳은 일본에서 두 번째로 생긴 국제트레이닝센터이다. 때문에 여기 시설은 시미즈 시민들의 건강을 촉진하는 센터인 동시에 국제적인 트레이닝센터의 역할도 하고 있다.



시미즈 내셔널트레이닝 센터를 배경으로
단체사진 촬영

공용지 8ha가 국제 트레이닝 센터로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다.

2002년 3월 오픈 당시, 한국에서도 많은 기자들이 방문하고 취재를 했는데, 합숙 훈련을 위한 시설에 대한 취재가 주목적이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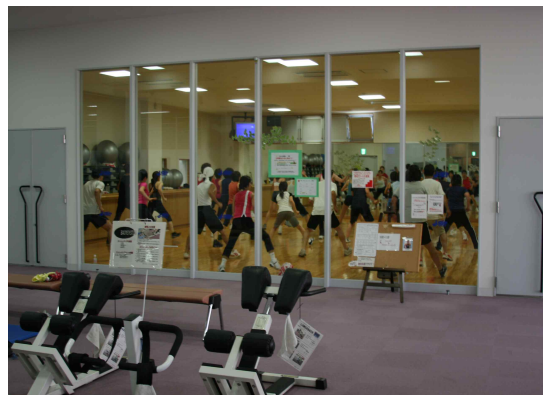
이렇게 설립된 센터는 잘 관리되고 있는 잔디구장을 기반으로 국내외 대표팀, J리그 소속팀의 합숙훈련에서부터 대학·고등학교 전지훈련, 감독, 코치, 심판 등 스포츠 관계자의 연수 등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센터는 일반 시민들에게도 개발하고 있으며, 축구뿐만 아니라 야구 등 다른 스포츠도 즐길 수 있다.

단 두개의 국제 트레이닝 센터 중 하나를 유치할 수 있었던 객관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20년에 1번 눈이 오는 등 자연조건이 아주 좋다. 또한 도쿄에서도 한 시간, 나고야에서도 한 시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조건도 빼놓을 수 없다.

이러한 자연적·지리적 조건 때문에 1980년부터 1999년까지 전국적으로 산을 농지로 개간하는 과정에서 생긴 공

주로 시미즈 S-PULS라는 일본 프로축구 J리그 1부 팀이 많이 이용하는데, 시미즈 S-PULS는 지역의 100여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설립한 에스펄스(주)가 운영하고 있는 시민구단이다. 시민들의 축구 사랑을 바탕으로 매년 우수한 선수를 많이 발굴하여 전력이 상당히 안정되어 있으며 국가대표선수를 많이 배출하는 구단으로 알려져 있다. 에스펄스(주)는 그동안 모기업이 도산되는 등 여러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시민들의 따뜻한 사랑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정체성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맡아오면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스포츠 마케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또한 지역의 어린 학생들이 축구를 통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고 장래성 있는 축구선수 육성을 목적으로 축구 보급을 위한 보육원·유치원 순회교실, 지도자 강습회, 메디칼 강습회, 각종 이벤트 축구교실, 체력측정, 인재 육성을 위한 활동도 하고 있다.

트레이닝 센터의 프로그램 하나를 예로 살펴보면, 이탈리아에서 하드웨어를 구입하여 일본식으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 개인별로 열쇠처럼 생긴 측정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측정기에 꽂으면 각자에게 가장 알맞은 트레이닝 메뉴가 나온다. 개인의 신체적 조건이 다 입력되어 있어, 매일 그날에 맞는 종목, 무게, 횟수 등을 적절하게 측정해 준다. 전문적인 트레이너 3명이 6천명을 관리하고 있고, 하루에 160명쯤 이용한다고 한다.



시미즈 내셔널트레이닝 센터 내부

시즈오카시에는 7개의 스포츠 시설이 있는데 시에서 자금을 지원하고 운영 및 관리를 해 왔다. 현재까지와는 다르게 이번 해부터 민간업체와 경쟁을 통해 운영주체를 선정하기로 했다. 치열한 경쟁을 통해 진흥공사에서 계속 관리하는 것으로 결정되기는 했지만, 관리비의 사용 및 목적에 맞는 운영을 위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민간업체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공익성 또는 수익성에 대한 답변을 기대했던 연수단은 '정열과 마음'이라는 의외의 대답을 들었다. 시민들이 좋아할 수 있는 곳으로 운영해 가고자 하는 시민에 대한 정열과 시민을 향한 마음이 전해졌다고 얘기하는 모습에서 시즈오카 스포츠의 미래가 보였다.

이러한 시설들을 통해 시즈오카에서는 시민 한 명당 한 개의 운동을 하게 된다. 축구뿐만 아니라 아웃도어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도 있고, 바다에서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도 많다. 이러한 시설을 통한 스포츠의 영향으로 시민들의 건강이 증진되어 시에서 운영하는 병원은 상당한 적자가 나고 있어 울상이라고 한다.

시미즈 내셔널 트레이닝 센터는 스포츠 선수의 체력, 근력, 정신력, 기술력의 향상을 목표로 하는 것과 동시에, 지도자, 심판 등의 종합적 인재를 육성하는 시설이

면서, 스포츠이벤트를 개최하는 등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즐기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도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국내의 많은 축구장들을 일부 소수 스포츠 엘리트들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과는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주위 스포츠시설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종합스포츠 시설의 거점적 역할은 물론이고, 시의 상징적인 시설로써 시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역할까지 담당하고자 한다. 시미즈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축구에 관련 되는 지역의 모든 시민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커뮤니케이션과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작은 도시 시미즈가 스포츠의 메카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뜨거운 스포츠사랑과 행정편의 보다는 시민들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운영, 그리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이해가 함께 이루어낸 결과라 할 수 있다.

월드컵 이후 텅빈 K리그 경기장 관람석과 사용하지도 않는 월드컵 경기장 잔디 유지비에 대한 해답을 이곳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7) 농촌경관 유지와 어메니티 자원 활용의 성공사례, 유후인



전통적인 모습을 보존하고 있는 유후인

일본의 유후인은 이 문제에 대한 하나의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다. 유후인은 주민의 자발적 운동으로 아름다운 전원풍경과 전통적인 농업생산 과정을 지켜내면서 청정이미지를 구축하여 지역활성화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힌다. 유후인은 완만한 능선미를 자랑하는 유후다케 산에 둘러싸여 있어 온화하고 투명하며 부드러운 물이 끊임 없이 솟아나는 마을이다. 또한 이곳은 일본 여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휴양지 중의 하나

이다. 온천이 딸린 오래된 여관과 깔끔한 펜션, 개성적인 미술관과 작은 갤러리, 고급 식당과 찻집이 조화를 이루어 마을 전체에서 독특하고 세련된 분위기가 느껴진다.

때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공격이 새로운 혁신의 동력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사례를 우리는 종종 볼 수 있다.

독일의 프라이부르크와 유후인이 대표적인 곳이다. 독일의 환경수도 프라이부르크는 원자력발전소 반대운동으로 시작되었고, 수백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인근 벧부 온천촌과 달리 가난한 산촌에 불과했던 유후인을 '살고싶은 마을'의 대표주자로 만든 것 역시 댐건설 반대운동이었다. 1952년, 일본 중앙정부는 유후인 분지에 댐을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오이타강을 분지의 남단으로 모아 거대한 댐을 만들

고, 이로 인해 생기는 호수 인근을 리조트관광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정부가 엄청난 수준의 보상금을 제시했지만 유후인 농업인협회와 청년회를 중심으로 격렬한 댐건설 반대운동이 시작됐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산천을 수몰시킬 수는 없다는 게 그 이유였다. 1년 이상 지속된 찬반 논란 끝, 결국 댐건설 계획은 무위로 돌아갔고, 이를 주도한 이와오 히데카즈(岩男顯一)씨 등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마을 가꾸기 운동'이 시작됐다.

유후인 주민들은 댐건설 반대운동을 계기로 뱃부식 대규모 개발 보다는 '자연을 지키는 개발'을 자연스럽게 선택하게 된다. 유후인의 첫 번째 성공비결은 '차별화'인 셈이다. '뱃부와 달라야 한다, 조용한 휴양지를 만들자'는 지역만들기 운동은 이렇게 시작됐다.

두 번째 성공비결은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벤치마킹'이었다. 마을 지도자들은 '선진국에서 철저히 배운다'는 원칙을 세우고 독일 등 선진 농촌을 방문해 정보를 수집하고 토론을 한 뒤, 유후인을 건전한 보양온천지로 개발하기로 했다. 당시만 해도 일본의 온천은 유곽과 어우러진 퇴폐적 이미지가 강했고, 난개발도 심각한 수준이어서 유후인의 이 같은 전략은 새로운 시도였다. '누구나 편하게 찾아와 쉬고 갈 수 있는 온천 조성'을 목표로 시작된 '마을 가꾸기 운동'이 계속되면서 유후인은 건전한 온천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댐 건설 추진 시도 이후에도 몇 차례 위기가 있었다. 1970년에는 골프장 건설계획이 발표됐고, 1975년에는 규슈 대지진으로 '유후인이 완전히 망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1980년대에는 일본 거품경제의 영향을 틈탄 대규모 리조트 건설계획이 발표됐다.

이런 위기 돌파의 계기는 항상 유후인 주민들로부터 나왔다. '유후인의 자연을 지키는 회'가 결성돼 골프장 건설계획을 무위로 만들었고, 이를 계기로 만들어진 '유후인의 장래를 생각하는 회'는 들판의 황폐화 때문에 개발계획이 잇따라 발표된다고 판단, 들판을 살리기 위해 '소한마리 목장 주인 운동'을 펼치기도 했으며 고유의 육우 상표를 개발하고 '소고기 먹고 고함지르기 대회' 등을 개최했다.



유후다케의 스카이라인을 보전하고 있는 유후인 거리

1975년 대지진의 피해는 1976년 '영화관 하나 없는 마을, 그러나 그곳에 영화가 있다'라는 표어로 시작한 영화제에 이어 음악제 개최, 미술관 유치운동 등으로 극복했다. 유후인의 이벤트는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언론을 통한 지역알리기에 성공했다. 이때부터 시작된 음악제와 영화제는 올해로 30주년을 맞고 있다.

1980년대 '개발 붐'은 가장 큰 위기였다고 할 수 있다. 1988년 '리조트법' 시행에 따라 유후인 같은 관광지에 대규모 리조트 맨션을 건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자 전국에서 투기꾼이 몰려든 것이다. 이 위기는 유후인 자치조례 제정을 통해 극복했다. 땅값이 평당 10만 엔을 호가하자 유후인 주민들은 1990년 "건평 1,000평을 넘는 건물을 신축할 때에는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한 것이다. 그 결과 전국적인 개발 붐에도 불구하고 유후인에는 5층을 넘는 건물은 들어서지 못했고, 유후다케의 스카이라인도 그대로 보존할 수 있었다.

유후인은 사라져가는 전통 영농방식을 보전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1991년 지역 어메니티를 보전하기 위해 지방정부, 숙박업소연합, 관광연합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벚꽃공급보장을 통한 농촌경관보존프로그램'을 시작한 것이다.

지역혁신을 위한 교육시스템 또한 거의 완벽하게 구축했다. 유후인은 유무형의 관광자원을 유지하기 위해 관광협회가 주관하여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관광객 접객 교육을 실시하고, 요리협회와 교류도 갖고 있다. 특히, 젊은이들을 농촌으로 유입하기 위해, 20년 동안 농촌연수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첫 연수프로그램 대상자들이 현재 유후인 지역을 이끌고 있는 50대 사람들이라 한다. 나가서 배워도 또다시 자긍심을 갖고 지역으로 돌아와서 살기 좋은 마을을 가꾸는 교육 시스템은 유후인 신화의 숨은 공로자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950년대 유후인보다 잘 살던 마을들은 상당수가 개발과정에서 도태됐지만, 고유의 정신과 자연을 지켜낸 유후인은 지속적으로 발전했다. 1만2천의 작은 도시 유후인의 관광객은 1965년 7만 명에서 420만 명으로 증가했고 연중 1800억원의 관광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이 방문객 수는 한창 때의 하우스텐보스가 1년간 유치하던 숫자에 해당하고, 에버랜드 방문자의 절반에 가깝다. 막대한 자금을 시설투자에 쏟아 붓고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하우스텐보스와 비교하면, 눈에 띄는 시설 하나 없이 오직 주민의 힘으로 지역을 가꾸어 온 결과이기에 더욱 놀랍다. 큐슈의 가장 가난한 마을이 가장 유명한 관광지로 성장한 성공신화를 이룩한 것이다. 유후인의 숙박시설 가동률은 90%를 넘고, 70%가 재방문자들이고, 30%가 숙박을 하고, 그 가운데 25% 정도가 2박 내지 3박을 한다.

'있는 자연과 영농생활을 지킨다'는 보존 정신, 마을의 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키고, 농촌 경관을 만들어 주는 전통적인 영농방식을 보존한다는 원칙으로 관광상품을 만들어 놓은 유후인의 전통적인 경관은 연수단에게 관광지로써의 역할은 물론 훌륭한 마을만들기의 학습장으로써 손색이 없었다.

유후인역에서 이곳 주민들이 수호신처럼 여기는 유후다케(由布岳, 해발 1,584m)로 뻗어있는 작은 길을 따라가면 인사동을 연상시키는 전통공예품 상가와 장인(匠人)들의 작업실을 볼 수 있는 민예촌이 있다.

민예촌에서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서민들이 사용하던 생활도구를 전시한

민구관 외에, 전통공예 장인이 손으로 만드는 일본 종이나 죽세공, 유리 공예의 실연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 남빛 염색이나 일본 종이 등은 체험제작도 할 수 있다.

유후인에는 유후인 미술관과 샤갈미술관 등 30여개에 달하는 미술관과 잉어비늘이 금빛으로 보인다는 작고 아름다운 긴린(金鱗湖)호가 있다. 긴린호는 호수 바닥에서 차가운 샘물과 뜨거운 온천수가 동시에 솟아나 수면 위로 물안개가 피어오르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 독특한 호수. 물이 맑고 투명해서 물속의 고기떼가 지나가는 모습이 훤히 들여다보인다.



긴린호의 전경

긴린호 주변에 자리한 일본 전통식 여관과 온천탕 등을 돌아보며 시간가는 줄 모르던 연수단의 눈길을 끈 것은 길가에서 흐르고 있는 온천이었다. 거리 한복판에 있는 작은 분수대처럼 생긴 곳에서 나오는 온천은 손이 빨갛게 익을 만큼 따끈따끈해서 아름다운 긴린호를 제치고, 단연 최고의 인기를 누렸다.

유후인의 대표적 관광명소인 야스라기 유노쓰보요코초는 옛날 분위기가 물씬나는 민가 구조로 된 가게 17개가 모여 있는 복합 시설이다. 음식점·토산물 판매점 등 약 15종류의 상점이 있으며, 휴일에는 많은 관광객으로 붐빈다.

대표적인 상점은 두부 푸딩(1개에 200엔~)을 판매하는 '하나코지키쿠야', 규슈 특산물 판매점 '잇손잇핀관(일촌일품관)', 유리구슬 공방 '유후인 창작관', 전 세계에서 수집한 축음기 65점과 축음기 옆에 세워두던 에디슨의 애견 니퍼(Nipper) 인형 등을 전시한 '유후인 음악시대관' 등이 있다.



시대음악관에서 차 한잔

유후인이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면서 유후인으로 들어가는 열차 노선도 신설되고 JR특급도 유후인에 정차하게 되었다.

유후인은 작은 온천마을이기에 마을 내에는 별다른 대중교통수단이 없다.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유후인의 4대 탈거리인 렌탈 자전거, 클래식카, 관광마차, 관광택시가 있다.

새로운 건축물을 조성하는 방법이 아니라 지역의 역사와 선조들의 생활이 묻어 있는 오래된 시설들을 활용하여 창조한 작은 공방과 작은 박물관들, 지역 특산물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깨끗한 식당과 가정집인지 온천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 온천들은 진정한 지역개발이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한다.

부슬부슬 내리는 빗속을 달려 유후시청에 도착하자, 시장님께서 먼저 기다리고

계셨다. 유후인은 주민들 스스로 유후인을 조용한 온천지대로 만들어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인사말과 함께 연수단의 방문을 진심으로 반가워해 주었다.

시장님의 인사말씀과 연수단장님의 답사가 끝나자 담당자가 나와 유후인의 입장에서 브리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연수단이 사전에 보낸 질문지를 가지고 연수단이 궁금해 하는 부분부터 설명하기 시작했다.

처음에 시장님께서 직접 나와 계셨을 때는 작은 마을이니까 가능한 것이라고 단순히 생각했는데 연수단에 대한 배려와 친절을 보며, 관광명소가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첫 번째 질문은 벳부 온천과의 차별화 전략을 통한 효과에 대한 것이었다. 벳부시는 항구가 가까웠기 때문에 항구를 통해 쉽게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었던 반면, 유후인은 산속에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약점을 역이용해 조용한 산간마을이라는 점과 산속의 자연을 이용해서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 내고 조용한 휴양지라는 점을 홍보하기 시작했다.

또한 토지개간사업을 통해 방목지를 넓혀 축산업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지역의 문화와 접목시키고자 노력했다. 예를 들어, 소불고기 먹고 고함지르기 대회는 30년 넘게 이어져 오는 유후인만의 독특한 행사이다. 이 시기에는 한국에서도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든다고 한다.

지역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살펴보면 영화제, 음악제를 들 수 있다. 영화관이 없는 마을에서의 영화제, 콘서트홀이 없는 마을에서의 콘서트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데, 이러한 산업들은 민간단체인 유후인관광협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유후인의 자연을 이용한 테마 아이탬은 '윤택한 마을만들기'라는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과 주민이 함께 지켜가고 있다. 예를 들어, 건물을 지을 때 높이제한과 색채에 대한 제한 등을 조례로 만들어 유후인의 시골스러운 자연경관을 보존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러 개발업자들이 유후인을 개발하기 위해 제안서를 제출하기도 하지만, 유후인 자체 조례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지 않고 있어 때때로 법률과 충돌하는 부분이 생기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률에 위배되는 조례를 계속 주장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규모를 최소한으로 축소시킨다든지, 조금이라도 자연과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유후인의 또 하나의 특징 중 하나는 전통적인 영농방식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에는 쌀의 잉여생산량이 많아, 토지의 25%~30%는 벼를 심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때문에 그만큼의 토지에는 쌀 이외의 다른 곡식을 심어야 하는데, 이곳은 기온이 낮아 재배가 가능한 작물이 제한적이다. 때문에 농가의 수입원을 확보하기 위해 시금치, 블루베리 등을 재배하고는 있지만 농가의 경제적 여건은 그다지 좋은

형편이 아니다.

연수단이 가장 관심을 가진 부분에 대한 질문은 역시 마을 만들기가 주민들의 힘으로 시작되어 유지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는가? 하는 부분이었다. 그 근원적인 힘은 마을 만들기에 대한 주민들의 자발성과 끈기가 밑바탕이 되었다고 한다.

단순히 외형적인 혁신만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마을을 보존하고 그 보존된 자연을 가지고 발전전략을 찾아내고자 노력했던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사람은 시민 속에서 선발된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농업협회의 회장직까지 겸임하면서 유후인의 힘을 잃지 않기 위해 애쓴 시장과 시민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다.

그렇다고 국가에서 전혀 도움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노력 위에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보태어져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농기구의 개량과 관련된 보조금을 일정부분 국가에서 보조받아, 아름다운 풍경과 전통적인 농업방식을 통해 청정이미지를 지켜가고 있는 것이다.

8) 예술도시 창조 전략, 구마모토 아트폴리스

1987년 가을에 베를린에서 개최된 국제 건축전(IBA)에서 힌트를 얻어 1988년 5월부터 시작된 구마모토 아트폴리스 사업이 금년으로 19년째를 맞이한다.

아트폴리스 사업이 시작되기 이전에는 구마모토 현 내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물이 거의 없는 상태였다. 아트폴리스 명칭은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라는 의미를 지닌 '폴리스'에 '아트'라는 의미를 더하여 만든 명칭으로, 구마모토를 예술도시로서 만들어 간다는 포부가 담겨져 있다.

아트폴리스의 기본이념은 '구마모토의 풍부한 자연과 역사, 풍토 속에서 가꾸어온 다채로운 지역문화와 전통 속에서 탁월한 기술을 지닌 건축가가 후세에 남길 수 있는 우수한 건축물을 건축함으로써, 새로운 지역문화를 창조하고 구마모토의 수준 높은 생활공간을 실현화한다.'라는 구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현에서는 우수한 건조물을 창조하는 프로젝트 사업과 현 내의 우수한 건조물을 표창하는 사업, 강연회, 심포지움, 전람회 등을 개최하는 홍보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3개 사업 중, 주요 프로젝트는 커미셔너 선정사업이다. 이것은 지역주민들이나 기업, 지자체가 커미셔너에게 설계자 선정을 요구하면 현에서 지정한 커미셔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 연수단

너가 국내외로부터 가장 적절하고 능력을 지니고 있는 건축가를 선정하여 사업주의 승낙을 받은 후 그 건축가와 사업주가 계약을 맺도록 해서 좋은 건축물을 짓도록 하는 것이다.

커미셔너로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건축가가 취임하고 있다. 초대 커미셔너로는 1988년 5월에 이소자키 아라타씨가 취임했고, 1998년 5월에는 2대째로 다카하시 데이이치씨가 취임했다. 이 때 이토 도요오씨가 부커미셔너로 취임함으로써 2인체제가 되었다.

그리고 2005년 6월부터는 3대째 커미셔너로서 이토 도요오씨가 취임하고 3명의 건축가가 어드바이저로서 취임하여 현재는 4명 체제로 되었다. 이 커미셔너 제도는 건조물의 설계를 추천받는 설계자가 자유로운 발상으로 설계를 하는 선진적인 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구마모토 현에서는 건축물 등 사업주를 대상으로 아트폴리스 참가모집 설명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구마모토 현에 참가신청이 있을 경우, 현은 커미셔너에게 설계자 선정을 의뢰한다. 한편, 커미셔너가 설계자를 추천하고 사업주의 승낙이 떨어지면 설계자가 선정되는 시스템이다.

설계자 선정 후에 설계, 시공, 완성까지 현에서 조연 등 씨포터 역할을 하고 있다. 사업주는 민간, 공공을 가리지 않고 전체가 대상이 된다. 대상물은 건축만이 아니라 다리 등의 토목건축물 공원, 경관 환경정비 등 광범위하다. 또한, 학식경험자나 건축전문가로 구성된 추진검토위원회가 설치되고,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아트폴리스 프로젝트에서는 공공시설의 설비에 있어서 이용자와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주민, 행정, 건축가가 하나가 되어 계속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지역 만들기에 새로운 발상을 넣은 설계가 추진된다.

현재까지 참가는 74건, 준공한 것은 67건, 구상완성이 6건, 나머지 1건은 현재 74번째의 프로젝트로서 캠프장의 방갈로를 설계하고 있다. 일본건축학회가 건축에 관한 우수한 학술 및 기술 업적에 대해 증정하는 일본건축학회상의 작품상도 6건이나 있다. 그리고 구마모토 아트폴리스 사업 그 자체도 1993년에 일본건축학회상 중문화상을 수상하였다.

구마모토 아트폴리스 사업에는 3가지 효과가 있다. 먼저 후세에 문화적 자산으로써 남을 수 있는 우수한 건조물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구마모토현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효과가 크다. 아트폴리스 사업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건축 관계 연구가와 학생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매년 다수 시찰방문을 오고 있는 등, 구마모토 현의 이미지 선전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오는 효과가 있다. 이 프로젝트로 건설된 세이와 분라쿠, 우시부카 하이야대교, 아유노세대교 등은 관광거점으로서 다수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

세이와분라쿠는 관광에서 뒤떨어져 있던 마을이 아트폴리스에 참가하고 전통예능을 공연하는 건물을 짓고 나서부터 관광객이 연간 15만명이 방문하게 되고, 지역이 활성화된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작년 8월에는 분라쿠를 해설하거나 중국어와 한국어의 통역을 위해 가이드가 세이와분라쿠에 배치되었다.

구마모토 아트폴리스에서는 프로젝트 사업 외에 표창사업과 홍보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표창사업으로는 1992년 구마모토 현 내의 역사적 또는 친근감이 있는 대표적인 건조물 46건을 '아트폴리스 92 선정' 기존건조물로 선정하였다.

1995년부터는 매년 구마모토현 내의 수준 높고 우수한 건조물을 대상으로 '구마모토 아트폴리스 추진상'을 수여하고 있는데, 작년 11회까지 65건을 선정하였다.

끝으로, 구마모토 아트폴리스에서는 4년에 한번씩 아트폴리스 성과를 세계에 알리고 구마모토현의 건축문화를 고양하는 동시에, 아트폴리스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국제건축전을 개최하고 있다. 2004년에 제4회 구마모토 아트폴리스를 개최했다.

구마모토는 아트폴리스 사업을 통해 다채로운 지역문화와 전통에 세계적 건축가와 디자이너들의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결합시키고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초현대적이고 창조적인 건물을 만들고 있다.

구마모토 아트폴리스의 핵심은 행정의 혁신과 주민의 참여인데, 커미셔너 제도를 통해 창조적이고 재능 있는 우수한 건축가나 디자이너를 추천하거나 국제경기를 개최하여 세계적인 건축가의 안목을 반영하고 입주자와 사업주가 만족할 수 있는 건물을 짓게 되는 것이다.

또한 창조적인 건축물을 직접 이용하게 되는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새로운 독자적인 문화생활을 창조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쏟고 있다. 즉 지역주민과 힘을 합쳐 창조적인 건축물을 기반으로 명소를 만들어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파급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구마모토 현청 외관

6 지역교류 활성화의 거점, 『미찌노 에끼』

임 준 홍 |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지역교류 활성화의 거점, 「미찌노 에끼」

임 준 홍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일본의 「미찌노 에끼(道の驛, Road Station)」는 우리나라의 휴게소와 유사하나 그 규모와 역할,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점이 있다. 지역교류의 장으로서, 지역 활성화의 거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에끼의 도입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1. 「미찌노 에끼」의 도입배경과 기능

「미찌노 에끼(道の驛, Road Station)」는 장거리 운전자, 여성 및 고령 운전자의 증가에 대응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도로와 인접한 지역에서 안심하고, 여유 있는 쾌적한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조성된 장소이다.

이와 더불어 지역의 역사, 문화, 관광, 특산물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활성화 및 활력 있는 지역 만들기의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미찌노 에끼」의 주요 기능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가장 기본적으로 도로이용자에게 휴식을 제공하기 위한 「휴게기능」과 이용자나 지역민에게 도로정보, 지역의 역사·문화·관광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발신기능」, 그리고 이를 통해 마을과 마을이 함께하는 활력 있는 지역 만들기를 위한 「지역제휴기능」이다.

「미찌노 에끼」가 조성되는 위치는 주로 지역 경관을 살리고, 이용하기 쉬운 장소이며, 시설의 설치에 시정촌(市町村)이 직접하거나, 시정촌을 대신할 수 있는 공적인 단체를 통해 이루어진다.

실제, 「미찌노 에끼」는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및 국도의 휴게소와 유사하나 그 규모와 도입시설 및 기능, 운영 측면에서는 많은 차이점이 있다.



「미찌노 에끼」의 주요 기능

2. 「미찌노 에끼」의 지원 제도

1) 도로개발자금과 특정교통안전시설 등 정비사업

「도로개발자금」은 「도로개발자금대출요강(道路開發資金貸付要綱, 1985년)」 등에 근거하여 운용되는 자금으로 도로와 관련 있는 공공사업 분야에 국가(도로정비 특별회계)가 대출하는 것이다.

한편, 「특정교통안전시설 등 정비사업(特定交通安全施設 等整備事業)」을 통해서 「미찌노 에끼」내의 주차장, 화장실, 도로정보터미널, 휴게시설 등의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2) 등록제도

등록제도는 일정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미찌노 에끼」로 등록하여 국가차원에서 안내·홍보함으로써, 이용자의 편리성 향상과 시

「미찌노 에끼」 심볼

심볼은 1992년 전국 공모에 의해 당선된 작품으로 인포메이션의 “i”와 주차장, 수목, 건물, 사람을 기본으로 디자인 되었으며, 상표법에 따라 상표등록 되었다.



설이용축진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교통환경의 형성 및 지역진흥을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다.

등록된 「미찌노 에끼」의 안내·홍보는 시정촌이나 이를 대행하는 단체를 통해 이루어지며, 1993년 1회 등록 때 전국 103개소가 등록되었으며, 2005년 8월 21회 등록까지 전국에 총 860개소가 등록되었다.

3) 「미찌노 에끼」의 기본방향을 생각하는 연구회

연구회는 「미찌노 에끼」 현황과 과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미찌노 에끼」의 질적 향상과 개성 있는 발전을 위해 설립되었다.

주요 연구 분야로는 첫째, 「미찌노 에끼」 질적 향상을 위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둘째, 「미찌노 에끼」의 개성 창출을 위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셋째, 「미찌노 에끼」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은 무엇인가? 넷째, 「미찌노 에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등이다.

3. 「미찌노 에끼」의 사례

1) 「미찌노 에끼」 - 『그림책의 마을 켄부찌』

(1) 개요

「미찌노 에끼」인 『그림책의 마을 켄부찌(繪本の里けんぶち)』는 아사히카와시(旭川市)에서 왓카나이시(稚内市)로 연결되는 국도 40호선의 북쪽 45km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삿포로시(札幌市)와 왓카나이시(稚内市)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그림책의 마을 켄부찌』는 켄부찌초(剣淵町)의 관문 역할을 하고, 지역의 도로 및 관광 정보 제공, 지역 특산물이나 신선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근처에는 어린이 그림책 박물관 「그림책의 관(繪本の館)」과 희미한 에메랄드색의 「켄부찌 온천 호반 사쿠라오카(剣淵温泉レークサイド櫻岡)」가 있으며, 도호쿠(道北) 여행의 시작점으로서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 소재지 : 카미카와군 켄부찌초 아즈마초 2420번지
- 전화 : 0165-34-3811
- FAX : 0165-34-3811
- 휴관일 : 연중무휴
- 접근 방법 :
아사히카와시에서 국도 40호(약45km, 50분)
켄부찌 IC로부터 국도 40호(약6km, 8분)

(2) 주요시설과 주변 관광 자원

『그림책의 마을 켄부찌』에는 정보 코너, 그림책 코너, 특산물 전시·판매 코너, 농산물 직판소, 레스토랑 등이 있다.

정보 코너에서는 도로 및 기상정보는 물론 켄부찌초 내의 관광·음식·숙박시설의 정보 등을 제공하는 팸플렛이나 사진 등이 제공되고, 세계 각국의 그림책을 모은 그림책 코너(그림책의 광장)에서는 장거리 운전애 지친 어린이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다.

특산품 전시·판매 코너에서는 현지 농산물을 이용한 켄부찌초의 대표적인 특산품을 모두 갖춰 놓고 판매하고 있다. 이 곳에는 켄부찌 지역의 전통 아이스크림(しそソフトクリーム)과 야채 주스 등이 유명하다. 농산물 직판소에서는 지역 생산자의 마음을 담아 재배한 친환경의 안심·안전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그리고 레스토랑에서는 현지의 농산물을 이용하여 만든 차와 식사를 여유롭게 즐길 수 있다.



『그림책의 마을 켄부찌(繪本の里けんぶ)』의 배치도



「미찌노 에끼」 내의 주요 시설

주변의 대표적인 관광 자원으로는 세계 각국으로부터 수집된 그림책 3만권과 일반도서 1만 5천권이 있는 어린이「그림책 도서관(繪本の館)」이 있어, 열람은 물론 대출도 가능하며 언제라도 감성 풍부한 그림책과 접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림책을 이용하여 아이들의 창조력을 기르기 위한 체험 행사도 개최된다.

물, 숲, 태양의 평온함이 있는 호반 「사쿠라오카(レークサイド櫻岡)」에서 여름에는 삼림욕, 캠프나 낚시, 카누, 골프 등의 야외 생활을 즐길 수 있으며, 겨울에는 사쿠라오카 호수에서 빙어 낚시를 즐길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즐거움의 뒤에는 여유롭게 피로를 풀 수 있는 온천도 준비되어 있다.

빼어난 언덕 위에는 자연의 특성을 살린 어린이부터 고령자가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골프장(4 코스 36 홀)과 아름다운 호반을 배경으로 유명한 골프장(2 코스 18 홀)이 있다. 그리고 근처에는 사쿠라오카호수(櫻岡湖)를 보면서 낚시·캠핑, 각종 스포츠, 곤충 채집 등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각종 시설들이 있다.



「미찌노 에끼」 주변의 주요 관광 자원

2) 「미찌노 에끼」 - 「미야마 만남의 광장」

(1) 개요

쿄토부(京都府) 난탄시(南丹市) 미야마초(美山町)에 위치한 「미찌노 에끼」인 『미야마 만남의 광장(美山ふれあい廣場)』은 일본의 전통적 농촌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한 마을이다. 국도 162호선 북쪽으로 56km(약 1시간 30분), 지방도 19호선 북동쪽으로 약 30km에 위치해 있다.



- 소재지 : 쿄토부 난탄시 미야마초 아가케하 23번지
- 전화 : 0771-75-53001
- FAX : 0771-75-5301
- 휴관일 : 연중무휴
- 접근 방법 : 쿄토시에서 국도 162호(약 56km, 1시간반)
- 역장설치자 : 난탄시장/난탄시

「미찌노 에끼」인 『미야마 만남의 광장』은 건강한 마을 만들기의 거점이 되고 있으며, 만남의 광장에 있는 「후랏토 미야마(ふらっと美山)」에서는 가벼운 마음으로 지역 특산품을 살 수 있다. 특히 지역에서 채취할 수 있는 신선한 야채는 인기가 있어 오전 중에 품절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지역의 주요 특산품으로는 닭, 계란, 미야마 우유, 된장, 은어, 청포도 등이 있다. 그리고 봄, 여름, 가을에 「미찌노 에끼」에서는 축제가 개최된다. 봄에는 산채 밥, 여름에는 은어 소금구이, 가을에는 현지산 송이버섯 등이 준비되어 있다. 지금까지 적극적인 홍보는 하고 있지 않지만 우연히 들린 방문객들은 이곳을 알게 된 것이 “행운”이라고 말할 정도로 큰 만족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매월 셋째 일요일은 지역주민과 방문객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함께 즐길 수 있는 「후랏토 만남의 날(ふらっとふれあいの日)」행사가 있다. 뿐만 아니라 관광협회 주최의 사진콘테스트나 회화콘테스트의 입선 작품을 전시 하고 있어 방문객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미찌노 에끼」내의 주요 시설

(2) 주요 시설과 주변 관광 자원

「미찌노 에끼」 내에는 총 73대를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대형차 4면, 보통차 65면, 장애인용 4면)이 있으며, 다른 「미찌노 에끼」와 같이 기본적인 서비스 시설인 공중전화, 화장실 등이 장애인도 이용하기 편하게 설치되어 있다. 그 밖에 관광안내시설, 종합회의실, 도서관, 목욕탕, 야외무대, 골프장, 벚꽃길, 휴게실, 수변공원 등도 조성되어 있다.

특히, 지역관광 거점역할을 하는 관광협회와 특산품을 가공 처리할 수 있는 우유가공장과

정미소 등이 「미찌노 에끼」 내에 같이 있어 마을의 소규모 공장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주위에는 교토방면의 오래된 철교인 유라강의 붉은 철교가 있으며, 전통 가옥의 모습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카야부키 마을(かやぶきの里・北村)」과 지역민을 고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미야마 자연문화촌(美山町自然文化村)」이 있다.

「카야부키 마을」은 1993년에 취락 전체가 문화청(文化廳)의 「중요 건축물군 보존지구」에 선정되었다. 이 지구에서는 「카야부키 마을 보존회」를 조직하여, 역사적 경관 보전과 주민 생활을 양립하기 위해 주민 스스로 출자한 유한회사 「카야부키 마을」을 설립하여,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관광시설 운영 등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모듬나무 지붕을 한 건축물들은 에도시대(江戸時代) 중순부터 말기에 건설된 것으로 일본의 전형적인 전통 민가이다. 마을에는 50호정도의 취락이지만 그 중 38호가 전통 가옥이고, 그 밖에 교류관, 미술관, 민속자료관, 민박을 하는 전통 가옥도 있다.

「미야마 자연문화촌」은 하천에 수변 문화공간인 문화촌을 조성한 것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다가 최근에는 법인을 설립하여 민간이 관리·운영하고 있다. 주요 시설로는 숙박시설, 수제품 체험관, 문화 홀, 캠프장, 통나무 오두막집, 장미정원, 과수원, 야구장, 테니스장 등이 있어 다양한 옥내외 활동을 즐길 수 있다.

이처럼 「미찌노 에끼」인 『미야마 만남의 광장』은 주변의 관광자원과 연계되어 지역의 명물로, 지역교류의 장, 지역 활성화의 거점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미찌노 에끼」 주변의 주요 관광 자원

3) 「미찌노 에끼」 - 「아오가키」

(1) 개요

「미찌노 에끼」인 『아오가키(あおがき)』는 케이한신(京阪神)에서 탄바 지역으로 접근하

는 최단 경로인 국도 176호와 국도 427호 간의 우회도로노선인 주요 지방도 아오가키 카시하라선(青垣柏原線)의 「니시아시다(西芦田)」 지구에 개설되어 있다. 『아오가키』는 푸른 나라라 할 만큼 빼어난 자연환경과 주위에 일급 하천인 카코가와(加古川)의 최상류 지역이다.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예부터 소를 방목시켜 키운 곳으로 소의 산지, 소시장으로 유명한 곳이며, 스카이 스포츠(sky sports)의 메카로 잘 알려져 있고, 지역 특산품으로는 팔, 채소, 아마고, 탄바포(丹波布) 등이 있다.



- 소재지 : 효고현 탄바시 아오가키초 니시아시다자
사사부치 516-1
- 전화 : 0795-87-2300
- 휴관일 : 연중무휴
- 접근 방법 :
지방도 아오가키 카시하라선(현도 7호)
- 역장/설치자 : 오오타니 요시하루/탄바시

(2) 주요 시설과 주변 관광 자원

「미찌노 에끼」 내 주요시설로는 주차장 43면(대형차 8면, 보통차 35면), 공중전화, 화장실 등 기본적 시설과 특산품 판매장이 있다. 그리고 내부에는 관광안내소가 있으며, 안내소는 주변 관광지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자랑인 스카이 스포츠에 대한 안내와 대회 개최나 강습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탄바 고유의 옷감을 볼 수 있는 전승관에서는 전통의상 만들기 등의 강좌가 개설되고, 체험도 가능하며, 근처에는 토산품 가공공장도 있다.

「미찌노 에끼」에서는 연 3회 정도의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다. 벚꽃이 필 무렵에는 특산물 축제를 개최하고, 7월에는 오픈 감사제를, 단풍이 한창인 11월에는 추수 축제를 개최한다.

주변 관광지로는 차로 3분 거리에 온수 풀장과 테니스장, 다목적 운동장 등이 있는 종합운동공원 「그린벨트 아오가키(グリーンベル青垣)」가 있으며, 차로 5분 거리에는 단풍구경과 삼림욕을 하면서 맛있는 전통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코우젠지(高源寺)」가 있고, 산

림 속에는 자연관찰과 자연과 교류할 수 있는 「아오가키 자연체험마을(青垣いきものふれあいの里)」이 있다. 그리고 차로 15분 거리에는 마을의 경치를 한 눈에 보면서 벚꽃향기와 함께 스카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이와야산쵸(岩屋山頂)」가 있다.



「미찌노 에끼」 내의 주요 시설

4. 시사점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휴게소와 유사한 일본의 「미찌노 에끼」는 그 규모와 역할, 운영방법에서 많은 차이점을 갖고 있다.

단순히 휴게기능을 하고 있는 우리의 휴게소와는 달리, 주요 도로변에 위치한 「미찌노 에끼」는 휴게기능, 정보발신기능, 지역 연대 기능을 통해 지역 교류·활성화의 거점으로서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실제 자치단체가 직·간접적으로 운영에 참여하고 있으며, 정부차원의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위치는 지역경관을 최대한 살리는 곳에 입지하여 하나의 작은 생활종합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지역의 명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점은 우리의 휴게소가 단순히 휴식공간만을 제공하고, 때론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해 지역 경관을 훼손시킨다는 측면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농산어촌 지역에 난립한 휴게소를 정비하고, 기능을 재정립함으로써 지역고유의 경관과 문화를 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족한 커뮤니티 시설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곳에서 지역 특색에 맞는 각종 이벤트와 연계함으로써 지역 관광 및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자료>

道路整備促進期成同盟會全國協議會, 2006. 4, 道の驛旅案内全國地図

京都府美山町における村おこしの取り組みと課題, 2006, 美山町自然文化村

美山町自然文化村, 2006, 팜플렛

<http://www.mlit.go.jp/road/index.html>

본 글은 2006년 9월에 이루어진 일본 사례조사에 기초하여 작성한 것임.

7 일본의 낙후지역 활성화 사례 연구

박 철 희 |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윤 갑 식 |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일본의 낙후지역 활성화 사례 연구

박 철휘 / 윤 갑 식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I. 출장개요

1. 목 적

- 청양군 중기발전계획과 홍성군 광천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 일본의 농산촌지역 활성화 성공사례 benchmarking
 - 지역의 고유자산을 활용하여 지역마케팅에 성공한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청양군과 홍성군에 적용가능한 시사점 도출

2. 주요 조사 내용

- 시즈오카현의 도시근교농업 및 도농교류 추진실태
 - 시민농원에 대한 현장견학 및 관련 시책
 - 관련 시책 도입배경 및 운영실태
- 구마모토현의 낙후지역 활성화 정책 및 지역마케팅 시책 추진 동향
 - 낙후지역 활성화를 위한 구마모토현의 프로그램 및 Art Polis 시책
 - 지역의 특성을 활용한 지역마케팅 성공사례와 시사점

3. 주요 조사지역 및 조사기간

- 주요조사지역 : 시즈오카현, 구마모토현 등
- 기 간 : 2005년 10월 30일 ~11월 3일(4박 5일)

4. 조사자 업무

부서 및 직위	성 명	업 무
現.지역정책연구 팀장	윤 갑 식	- 조사 총괄 - 관련 정책, 시책 사전 조사 및 인터뷰 조사 - 인터뷰 조사내용 작성 - 국내 적용 가능성 및 시사점 검토
現.도시계획연구 팀장	박 철휘	- 관련 정책, 시책 사전 조사 - 아트폴리스 정책 관련 인터뷰 조사 - 시사점 검토

II. 출장일정

일 시	세부 일정	방문기관
1일차 (10.30)	09:25 서울(김포공항) 출발 11:25 동경(하네다공항) 도착, 중식 12:56 동경역 출발 → 하마마쓰(浜松) 도착(14:59) 15:30 하마마쓰시청 방문 - 농업수산물 경영지원팀 * 시민농원에 관한 시책 청취 및 현장견학 17:30 숙박지 도착:国民宿舎「奥浜名湖」 * 시즈오카현의 green-tourism 협회회원 * 지배인으로부터 green-tourism 추진활동내용 청취 * http://www.okuhamanako.jp/	신칸센 이용 공용차 이용
2일차 (10.31)	08:00 조식 09:00 미카비쵸(三ヶ日町)로 이동 09:45 「みかんの里資料館:밀감마을 자료관」 시찰 및 담당자의 설명 청취 * 전원정비사업, green-tourism 굴 농장 관련시설 견학 굴 과수원 견학 11:10 이동 12:00 중식 (농가 레스토랑) *마을리더 동석 12:40 「カテキット共和国」라는 green-tourism 및 지역 활성화 추진조직의 리더와의 토론 17:23 이동 하마마쓰(浜松) 출발(14:00) → 동경역 도착(15:26) 18:00 신주쿠 도착, 호텔체크인 * かどや(가도야)호텔 03-3346-2561	공용차 이용 신칸센 이용
3일차 (11.01)	오전 동경(10:55) → 구마모토(12:45) 오후 <u>구마모토 현청</u> - 낙후지역 육성 Program 추진현황 ·현청에서 추진하는 낙후지역(농산어촌, 중산간, 이도지역 등) 활성화 program 추진동향 ·중앙정부, 현, 시정촌의 역할 및 업무 연계 현황 - Art Polis Project 추진현황	구마모토 현청
4일차 (11.02)	오전 <u>구마모토현 농업테마공원</u> ·농업을 테마로 한 관광지 조성 사례 (아소밀크목장) 오후 <u>오구니정(小國町)</u> ·지역자원(나무)을 활용한 지역마케팅추진동향	오구니정
5일차 (11.03)	오전 구마모토 → 유후인 (유후인 시내 답사) 오후 유후인 → 후쿠오카 후쿠오카(20:40) → 인천(22:05)	유후인정

Ⅲ. 출장지 사례 및 시사점

1. 시즈오카현 하마마쓰 및 미카비쵸(三ヶ日町) 사례

1) 사례지역의 개요

□ 시즈오카현 개황

- 태평양에 면한 시즈오카현은 일본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음. 동서 115km, 남북 118km, 7,773km²의 면적을 갖고 있으며 바다, 산, 호수 등의 빼어난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시즈오카현은 사철이 모두 아름다운 일본의 대표적인 특징을 갖추고 있음
- 동서로 긴 해안선은 약 500km에나 이르며 3,000m급의 산들로부터 흘러내리는 하천(후지가와, 오오이가와 등)이 풍부한 수자원을 제공하고 있음
- 기후는 북부 산악지대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온난한 해양성기후로 평지에서는 겨울철의 눈도 거의 볼 수 없을 정도임. 연평균 기온은 16℃, 강수량은 2,360mm임
- 시즈오카현의 주요 특산물로는 일본 전국의 약 절반의 생산량을 자랑하는 고급 차를 비롯해, 각종 과일 등의 농·수산물 있음



[그림 1] 시즈오카현 위치도

□ 하마마쓰 현황

- 일본의 거의 중앙에 위치하는 하마마쓰시는 2005년7월1일 주변의 12개 시정촌(市町村)이 합병하여 새롭게 탄생된 시임
- 하마마쓰시는 「환경과 공생하는 cluster형 도시건설」을 비전으로 정해 풍부한 자연환경의 보전, 활용 및 도시적 기능을 더욱 충실히 하여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음
- 또한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역자치구(地域自治區)를 도입하는 등 도시내분권(都市内分權)과 함께 자치적인 지역발전을 추구하고 있음
- 지리적으로 보면 동쪽에는 강(天龍川), 서쪽에는 호수(浜名湖), 남쪽에는 여울(遠州灘), 북쪽에는 산맥(赤石山脈)이 있어 사방(四方)이 서로 다른 자연환경으로 어울려져 있음
- 현재(2006년 9월말) 인구는 약 820,000명(시즈오카현 제1위)이며 면적은 약 1511Km² 이며 기후는 비교적 온화하나 겨울철에는 강한 북서계절풍이 불어 체감온도는 낮은 편임
- 하마마쓰시는 예부터 공업도시로서 2차 산업 중심으로 성장해왔으며 현재도 운송용기품 등의 제조업이 번창해 있음
- 최근에는 광기술(光技術) 및 전자기술 등 첨단기술산업이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으며 또한 농업생산도 전국유수의 농업생산액(2004년 농업생산액 544억 엔)을 자랑하고 있음
- 특히, 최근에는 시민농원조성에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미까비쵸(三ヶ日町)의 개요

- 미까비쵸는 시즈오카현 서부에 위치하는 정(町)이었지만 2005년7월1일에 하마마쓰시에 합병되었음
 - 현재의 행정구역으로 보면 하마마쓰시 미까비지구(三ヶ日地區)로 되어있으며 인구 약 15,000명의 농촌지역임
 - 총면적은 75Km²이며 논 251ha, 밭 1,903ha, 임야 3,193ha로 구성됨
- 최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전원공간정비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지역주민들(농가중심) 스스로가 조직을 결성하여 도농교류를 도모

2) 하마마쓰의 시민공원

- 하마마쓰에서는 농촌지역의 비활용 토지의 효율적 활용과 함께 도시민의 농촌 체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민공원 조성사업을 추진
 - 하마마쓰에는 2006년 현재 29개소의 시민공원이 조성되어 운영 중
- 시민공원의 규모는 평균 1,000~2,000m² 규모이며, 1구획은 20~40m² 수준으로 소규모임



시민공원 모습01



시민공원 모습 02

3) 미카비초의 밀감마을 자료관

- 미카비초의 「밀감마을 자료관」은 전원공간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조성
- 기존의 폐교를 리모델링해서 도농교류 체험장으로 활용하고 있음
- 폐교의 활용방안은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마을발전위원회에서는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결정되었음
- 특히, 본 사업은 행정기관이 주도하기보다는 지역주민이 주도하되, 행정기관은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되었음



밀감마을 자료관의 내부모습



사업추진 과정에 대한 설명

2. 구마모토현 사례

1) 사례지역의 개요

□ 구마모토현

- 큐슈 지방의 거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구마모토현은 옛부터 큐슈 지방의 정치·경제·문화·교통의 거점으로서 번영하였음
- 세계 제일의 캄데라가 있는 웅대한 아소산, 수많은 섬들로 이루어진 바다의 경승지·마마쿠사섬 등 현내 각지에는 제각기 특색있는 지역문화가 숨쉬고 있으며 수많은 명소가 자리잡고 있음
- 현청 소재지인 구마모토시는 문호 나쓰메 소세키가 “숲속의 도시”라고 불렀던 녹지가 풍부한 거리이며 시의 중심부는 서일본에서 가장 긴 아케이드 상가가 자리잡고 있어 수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음
- 풍부한 자연과 사계의 변화가 뚜렷한 기후 조건으로 농림 수산업이 발달한 구마모토현의 농산물로는 수박, 토마토, 등심초 등과 수산물로는 참새우 등이 질·양 모든 면에서 일본 유수의 생산량을 자랑하고 있음
- 또, 현내의 대부분이 삼림으로 뒤덮혀 있어 양질의 목재 산지로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 최근에는 IT 산업 등도 진출하여 눈부신 발전을 보이고 있으며 일본의 실리콘밸리로서도 각광을 받기 시작하였음
- 더불어 국제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구마모토 아트 폴리스」의 계획은 오랜 역사 속에서 가꾸어 온 전통을 소중히 보존하는 한편, 더욱 큰 비약을 목표로 매력 넘치는 구마모토 지역창조에 노력하고 있음



[그림 3] 구마모토 위치도

□ 오구니마찌

- 오구니마찌는 구마모토현(熊本縣) 북쪽에 위치한 인구1만 정도의 소규모 산촌지

역임

-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구니마치는 아주 평범한 구마모토의 산골마을로 특별히 내세울 것이 없는 지역이었지만 현재 오구니마치는 아주 독특한 공간으로 변화하여 지역 차별화에 성공하였음
- 현재 오구니마치는 일본의 산지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일본 삼나무를 지역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자체이자 그린투어리즘의 메카로 외국에 알려져 있으며, 한국의 생태 관련 학자나 교사, 학생들이 가장 많이 찾고 있는 지역으로 성장하였음

□ 유후인

- 유후인은 큐슈 오이타현의 중앙부에 위치하며, 동서 8km, 남북 22km, 면적은 128 km²에 이름
- 1. ○ 경지가 8%로 현의 전체 평균인 11%보다 낮는데 산림원야가 73.5%를 점하는 중산간지로서 1964년 일본 정부에 의해 '특정농산촌지역'으로 지정되었음. 특히 임야가 점하는 비율은 13.1%로서 매우 높은 편임
- 2. ○ 유후인정의 인구는 현재 약 1만 2천여명으로 오이타현의 약1%를 차지함. 하지만 유후인정의 인구는 1997년을 기점으로 하여 미소하기는 하지만 오히려 조금씩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일본 산촌지역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과소화 현상을 감안할 때 더욱 주목할 만함



[그림 3] 유후인 전경

2) 구마모토현의 낙후지역 육성 정책 추진 현황

□ 일본 「과소지역」의 발생경위

- 1995년 이후 고도 경제성장과 함께 농산어촌 지역에서 도심지로 향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큰 인구 이동이 일어나, 도시 지역에서는 인구 집중에 의한 과밀 문제가 발생하는 한편, 농산어촌 지역에서는 주민 감소에 의해 지역사회의 기초적 생활 조건 확보에도 지장을 초래하는, 이른바 과소 문제가 발생

□ 일본 「과소지역」의 정의

- 인구의 현저한 감소와 더불어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되고, 생산기능 및 생활환경의 정비 등이 타 지역과 비교해 낮은 위치에 있는 지역을 과소지역이라 함

과소지역 지정 요건

- (1) 인구 요건 : 이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것
- 1) 1960년~1995년의 인구 감소율이 30%이상
 - 2) 1960년~1995년의 인구 감소율이 25%이상, 고령자 비율(65세 이상) 24%
 - 3) 1960년~1995년의 인구 감소율이 25%이상, 젊은이 비율(15세 이상 30세 미만) 15%이하
 - 4) 1970 년~1995 년의 인구 감소율이 19%이상
- * 단, 1)2)3) 의 경우, 1970 년~1995 년의 25년간의 10%이상 인구 증가하고 있는 단체는 제외
- (2) 재정력 요건 : 1996 년도~1998 년도 3 년간 재정력 지수가 0.42이하
즉, 공영경쟁수입이 13억엔 이하인 것

□ 일본의 과소지역 대책 프로그램

- 1970 년에 의원입법에 의해 10 년간 한시법으로서 과소지역대책 긴급조치법 제정
- 이 법률은 연율 2%를 넘는 인구감소가 계속 되는 가운데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의해 지역사회의 기반이 변동하고 생활수준 및 생활기능의 유지가 곤란해지고 있는 지역(과소지역)에 대해, 긴급하게 생활환경, 산업기반 등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 그리고 계획적인 대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특별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인구 과도의 감소를 방지하고 지역의 기반을 강화하여 주민 복지 향상과 지역 격차의 시정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
- 이후 1980년에 「과소지역진흥특별조치법」이 제정되고 또, 1990년에 「과소지역자립활성화특별조치법」 제정

- 현재의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은 2000년~2009년도까지 10년간의 한시법으로 시행되고 있음

□ 구마모토현의 시책 (활성화 프로그램) 현황

- 구마모토현 시정촌(市町村)진흥자금 대부사업(과소자금)
- 구마모토현 단독 농업농촌 정비사업(중산간형)
- 지역진흥 종합보조금·지역만들기 파트너십 추진보조금
 - 지역 만들기의 담당인 시정촌과 지역 만들기 단체에 의한 매력있는 지역 만들기를 위해 구마모토현이 설정하는 지역 만들기 테마에 도움이 되는 사업의 기획 제안을 모집해,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 그 실시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제도
 - 보조대상사업 : 매 년도의 구마모토현 중점 시책으로 선정한 지역 만들기의 테마사업
 - 보조율은 전체 사업비의 1/2 이내
 - 보조대상사업자 :
 - 정촌, 일부사무조합, 광역시정촌권협의회(종합보조금)
 - 공공단체, 제3섹터, 민간 비영리단체(PS보조금)

3) 구마모토현 아트폴리스 프로젝트

□ 도입배경

- 구마모토현 아트폴리스 계획은 공공 건축물을 활용하여 도시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일종의 도시미화운동임
- 1980년대에 구마모토현에는 미나마타병이라는 환경재앙이 닥치면서 지역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쳤음. 따라서 추락한 지역이미지를 살리는 동시에 사람과 기업을 끌어들이기 위한 새로운 환경조성은 당시 구마모토현의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로 부각되었음

□ 추진경위

- 1983년 모리히로 호소가와(細川護熙)가 현의 지사로 당선되면서 아트폴리스 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

- 호소가와 지사는 ‘남는 것은 문화 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당선 1년 뒤인 1984년 ‘활력·개성·윤기가 가득한 전통문화권의 창조’를 슬로건으로 한 ‘구마모토, 내일의 시나리오’를 제안
- 이와 함께, ‘문화진흥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공익신탁 구마모토 21’이라는 문화기금을 조성하는 등 그 기반구축에 힘썼고, 시스템이 갖춰지자 마을회관이나 다리, 미술관, 버려진 건축물을 다시 재생시키는 등 총 74개의 프로젝트가 추진되었고 그 중 67개가 완성되었음

□ 정책목표

- 후세에 남길 수 있는 문화적 자산을 창조
 - 현에서 가꾸어 온 다채로운 지역문화와 전통을 보호하면서 일본과 세계에서 활약하는 우수한 건축가와 디자이너들의 풍부한 발상을 그 지역에서 생활하는 주민들과의 협동을 통해 질 높고 뛰어난 건축물을 지역 속에서 창조
- 지역으로의 파급효과를 창출
 - 참가 프로젝트는 단순한 건조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융합하여 새로운 바람을 형성. 그 지역의 명소를 개발하여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시도하는 한편, 상징 건조물, 또는 지역 창조 등의 활동을 중심으로 지역 활성화에 공헌
- 새로운 생활문화를 창조
 - 커미셔너(최고책임자)가 추천하는 재능과 아이디어에 뛰어난 건축가와 디자이너가 세계적인 시야에 입각하여 기능면에서는 물론, 디자인면에서도 뛰어난 건조물을 설계. 또한 사업주와 건조물을 이용하는 입주자와도 적극적인 대화를 통하여 그 지역 고유의 환경과 역사에 배려한 독자적인 새로운 생활 문화를 창조
- 현내 전역으로 확산
 - 참가 프로젝트는 각 지역에서 「점」으로 산재하고 있으나 이것을 「선」으로 연결하여 인근 지역 참가 프로젝트와도 연대하여 최종적으로는 구마모토현내 전역에 「면」으로 확대

□ 구마모토 아트폴리스 시스템

- 현창사업
 - 1992년에 구마모토 현내의 역사적인 건물 또는 호평을 받고 있는 대표적 건

축물을 KAP'92 선정 기존 건축물로 선정, 1995년에 현재의 질 높은 우수한 건축물을 현창하는 「구마모토 아트폴리스 추진상」의 표창(KAP 참가작품은 제외)

○ 프로젝트 사업

- 사업주가 프로젝트 사업에 참가 신청을 하면 자유로운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커미셔너 제도를 도입하고, 커미셔너와 부커미셔너가 적성과 능력을 겸비한 국내외의 건축가를 추천하거나 설계대회 등을 실시하여 그 사업에 적절한 설계자를 선정하여 추천
- 설계자는 그 건조물에 관계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거듭하면서 건조물의 설계를 추진
- 사업주는 민간 또는 공공단체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주택 등의 건축물은 물론 다리 등의 토목구조물, 공원과 경관 조성물 등 환경 정비와 다양한 프로젝트가 참가 대상이 될 수 있음

○ 기획, 홍보, 인재육성 사업

- 심포지엄, 의견 교환회 등의 개최, 홍보지 등의 발행, 홈페이지의 운영, 견학회 개최, 각 단체와의 기획, 홍보 협력 등의 사업

□ 구마모토 아트폴리스의 운영

○ 참가 프로젝트

- 민간이나 공공단체 등에 관계없이 사업주의 신청에 의함. 현재까지 완성되었거나 설계중인 참가 프로젝트는 구마모토 북 경찰서 등 66개로 이중에서 3개는 민간사업이고 나머지 63개는 공공사업임

○ 설계자 선정

- 커미셔너(현재는 다카하시 데이이치 高橋青光一)와 부커미셔너(이토 도요오 伊東豊雄)가 가장 그 사업에 적절한 설계자를 선정하여 추천

○ 어드바이저

- 커미셔너와 부커미셔너는 구마모토현의 사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외지인일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의 사정을 잘 이해하는 현지의 원로 건축가로 선정되며, 커미셔너와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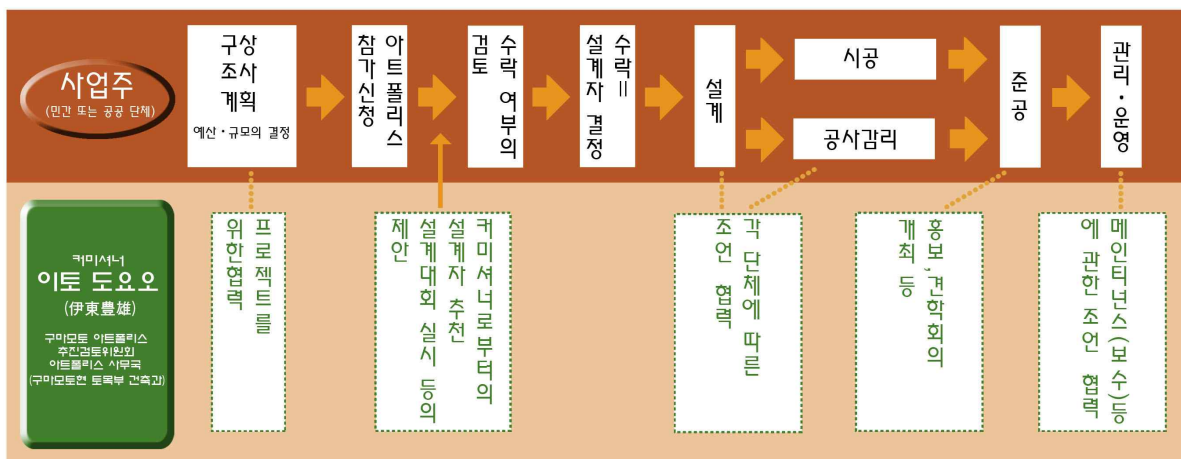
○ 설계자와 커미셔너의 관계

- 초기에는 설계자의 의견을 대폭 수용하였으나 현재는 사용자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커미셔너는 설계자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

거나 설계자를 도와 설계를 완성

○ 사업주의 이익

- 사업주는 자신이 단독으로 설계자를 선정할 때 있을 수 있는 부적합한 설계자의 선정이라는 위험을 피할 수 있고, 또한 좋은 건조물이 완성되었을 때 가지는 자부심 혹은 만족감을 가질 수 있음. 그 이외의 다른 물질적 추가 이익은 없음



[그림 2] 구마모토 아트폴리스 운영체제

□ 아트폴리스 프로젝트의 효과

- KAP는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디자인이 강조된 건축물을 여러 곳에 점적으로 배치하여 이것이 점차 선·면적으로 퍼져 나가도록 한다는 의도에서 시작되었음
- 실제로 이러한 지역색과 지역만의 고유한 문화를 반영한 독특한 건축물 설립을 통해 국내기업뿐 아니라 관광객 유치에 성공할 수 있었음
- 또한, 문화를 모토로 성공적인 지역혁신을 이루었으며, 국제적으로도 유명한 문화도시로 급부상하는 결과를 낳았음



최초의 아트폴리스 작품(경찰서)



아트폴리스 인증

4) 오구니마치의 지역마케팅 전략

- 오구니마치가 평범한 시골마을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모델지역으로 알려진 이유는 지역의 대표적인 자원인 삼나무를 활용해서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추진한 결과임

□ 나무를 활용한 지역마케팅 전략

- 첫째, 나무를 이용하여 지역디자인을 다시 시작하였음. 가장 먼저 한 작업은 일본에서 최초로 나무를 이용하여 실내체육관(오구니돔)을 지어 일본 내에서 화제를 뿌렸고, 다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버스터미널(유우스테이션)을 나무를 중심으로 아름답게 지었음



유우스테이션 전경



유우스테이션 내부

- 둘째, 목혼관(木魂館)이라는 생태학교의 건물도 독특한 디자인을 통해 나무의 질감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설계하여 지역상징물로 이용



목혼관 전경

- 또한 나무의 생활화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100년이 된 초등학교를 나무 그대로 수리하고 복원하여 일본에서 가장 작으면서도 가장 아름다운 학교로 만들었음
- 나무와 지역상징의 접목은 레스토랑 같은 단순한 상업용 건물은 물론이고, 건물 주변의 인도, 공원의 나무의자, 심지어 톱밥을 이용한 눈 미끄럼 방지까지 그야말로 지역의 모든 공간에 적용되어 있음
- 이곳은 단순한 전시공간은 물론이고, 판매 공간으로도 활용되는 일본인들이 오랫동안 벤치마킹의 모델로 여겨온 섬나라 영국에서 이름 있는 소를 수입해서 나무고장의 청정한 곳에서 사육함으로써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영국이라는 이미지와 청정이라는 이미지를 통해 고기 맛 등을 차별화하고 있음
- 또한 다양한 유제품(우유, 아이스크림, 초콜릿, 우유과자 등)을 만들어 최고의 지역상품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음

5) 유후인의 장소마케팅 전략

□ 차별적지역이미지 구축을 통한 장소마케팅 추진

- 일본의 경우 온천관광산업을 통해 지역발전을 추진하려는 지자체들이 많기 때문에 온천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독특한 지역 이미지를 창출하는 것이 요구되었음
- 큐슈지역에서 온천산업은 벳부를 중심으로 일찍부터 형성되었으며, 역사적으로나 규모면에서 벳부는 초일류 온천지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음
 - 벳부는 대체로 '단체관광', '밤', '환락가' 등의 요소를 갖고 있는 일본형 관광지 지의 전형으로 상업주의적 경향에 의해 지배되었으며, 기후나 풍토, 전통문화 등의 지역적 특성은 간과되었음
- 유후인은 벳부와 반대되는 이미지 즉, 이미지 대비전략을 통해 차별화된 이미지 구축을 시도하였음. 이를 위해 지자체에서는 방문객을 적극적으로 선별하고 관광내용을 세분화·개성화하려는 전략을 추진
 - 벳부가 남성중심, 밤, 대형여관, 환락영업으로 특징화된다면, 유후인은 여성중심, 낮, 민박, 문화적 환경 등의 대조적 이미지를 갖는 관광지를 지향
- 유후인에서는 '자연과 인간이 조화되는 유후인', '밝고 건강한 보양 온천지'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여기에 적합한 이미지를 형성
 - 자연의 깨끗함을 알리기 위해 유후인에서 채집한 반디를 도시에서 방사하는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지역의 청정 이미지를 부각



독특한 디자인의 유후인 역



관광객을 위한 손수레

□ 문화이벤트 개최

- 유후인에서는 지역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음악과 영화라는 '문화적

자원'을 통해 지역이미지를 포장하고 각종 이벤트를 축제화하였으며, 이를 홍보하기 위해 TV, 신문, 잡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

- 1975년 7월에 마차를 운행하기 시작하였고 8월에는 제1회 '유후인 음악제'를 개최하였으며 10월에는 '쇠고기 먹고 소리지르기' 대회 등의 독특한 테마의 축제를 개최
- 1976년에는 '유후인 영화제'를 개최하였고 또한 1980년에는 '유후인 민예촌'과 소규모 미술관을 개관하였음
- 음악제와 영화제 등 다양한 문화이벤트는 대도시와 유후인의 교류를 촉진시켰고 지역 이미지를 전국화하는 역할 담당

□ 지역고유의 자연경관 창출

- 영화제, 음악제, 각종 축제 등의 이벤트는 지역이미지를 창출·강화하기 위한 일시적인 수단이지만 항구적인 지역이미지를 창출하는 것은 바로 지역의 자연경관이라고 할 수 있음
- 유후인에서는 지역 고유의 자연경관을 만들기 위해 온천자원의 보호와 경관관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
 - 외부자본에 의해 무질서한 개발을 통제하고 기존의 지역만들기 방식을 지키기 위해 1972년 '자연환경보호조례', 1983년 '모텔 유사시설 등 건축규제조례', 1984년 '주환경(住環境)보전조례', 1990년 '윤기있는 지역 만들기 조례' 등을 제정

□ 자치단체장의 선도적 노력과 주민의 적극적 참여

- 유후인의 자치단체장이었던 이와오는 유후인을 '1차 산업, 온천, 자연의 산과 들'이라는 세 요소를 통합한 역동적인 지역사회 구현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 자치단체에서는 유후인을 '온천보양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일반대중들이 쉽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국민숙사 유희산장(由希山莊)'을 건설하였고 후생연금병원의 유치로 추진
- 지역주민들은 벳부의 환락형 온천지역과 차별화된 온천지역을 만들려는 자치단체의 의지에 부합하여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활용하는 유후인형 여관경영을 추진
 - 또한 젊은 여관경영자들을 중심으로 오토바이로 큐슈일대의 여행 대리점을

순회하면서 유후인을 직접 선전·홍보



유후인 시가지 전경



유후인 시가지 건물 사이의 수공간

8

금강관광경전철 건설을 위한 일본 사례 연구

조 봉 운 |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금강관광경전철 건설을 위한 일본 사례 연구

조 봉 운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제1장 일본 사례 조사 개요

1. 일본사례 조사 배경 및 목적

- 낙후된 금강권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백제문화권개발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계기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자
 - 금강변의 역사문화·관광·산업·도시 등을 연계하여 개발하는 「금강권 광역복합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 이 사업의 핵심으로 행정도시~백제권을 연결하고 지역을 통합하는 관광경전철 사업을 계획하고 있음
- 경전철 건설 사업은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계획 수립에 있어 치밀함을 기할 필요 있음
 - 따라서, 경전철의 선진국인 일본의 사례를 조사함으로써 관광경전철 건설의 타당성, 운영사례, 외자도입 가능성 등을 파악하여 개발계획에 반영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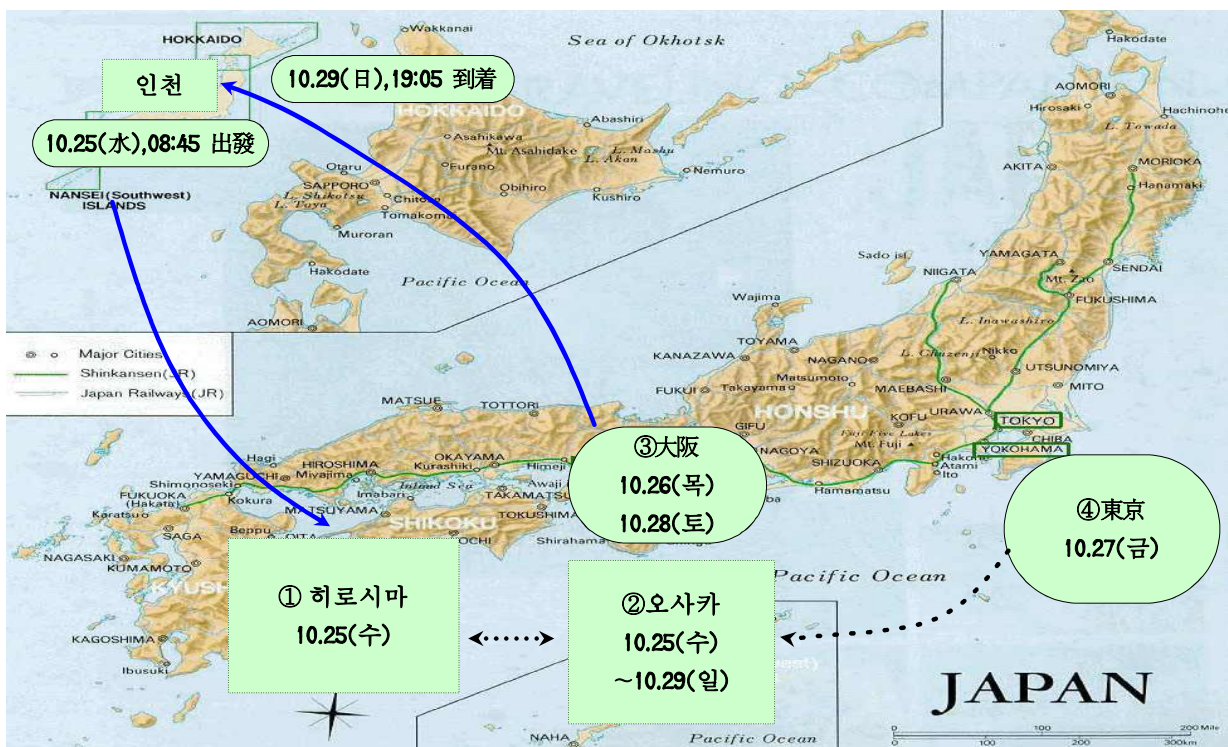
2. 일본사례 조사계획의 개요

- 기 간 : 2006. 10. 25 ~ 29 (4박5일)
- 방문지역 : 일본 동경도, 오사카부, 히로시마현
- 방 문 자 : 2인
 - 충청남도 국제통상과 전문위원 홍만표 박사
 - 조봉운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3. 주요 활동

- 일본 자금유치 및 기술도입을 위한 마루베니상사 등과 협의
- LRT의 권위자인 오사카산업대학 교수진과 의견교환 및 토론회
- 일본 최대 노면전차 도시인 히로시마 시청관계자와 협의 및 현장 견학
- 오사카산업대학을 방문하여 한국 관련 전문교수(문경수)와 주변지역 연계개발을 위한 정보수집 및 의견교환

〈이동경로〉



4. 일본사례 조사일정

날 짜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내 용
10. 25 (수)	대한민국 (인천)	일본 (히로시마)	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出國<인천>→入國<일본(히로시마)>
		히로시마	히로시마전철 주식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히로시마전철주식회사 관계자와 토의 히로시마노면전차 견학
	히로시마	오사카	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히로시마 → 오사카
10. 26 (목)		오사카	오사카산업대학 오사카상업대학 사카이LRT연구 교류센터 킨키차량주식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츠카모토 교수 - 일본철도(LRT)산업 모리아키히로시 - 관광열차관련자료 타니오카 이사장 - 금강권 개발 자문 쿄우타니 담당자 - 노면전차 도입 추진 사례(시민+정부+기업의 논의과정 설명) 마스다 주간기사 - 차량개발 관련 논의
10. 27 (금)	오사카	동경	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사카 → 동경
		동경	마루베니케믹스 주식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세리 교통프로젝트부 부부장 - 사업의 참여가능성 논의(타당성, 지원방안 등)
	동경	오사카	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경 → 오사카
10. 28 (토)		오사카	비교지역연구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키자와 소장 - 한국과 일본의 문화 교류를 통한 지역개발 방향
		오사카	재일본충청도민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광선 회장 - 금강권개발에 대한 소개, 재일본교포의 관심, 인적네트워크 지원
10. 29 (일)		오사카	비교지역연구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미나 참석 - 동북아역사교류와 민간자본활용 연구
	오사카	인천	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사카 → 인천
	인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산

5. 주요 내용

① 히로시마전철주식회사 방문

1) 히로시마전철주식회사의 개요

- 히로시마전철주식회사는 1912년에 창업하여 철도, 궤도, 운수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관련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 회사의 주 수입원은 운수사업이 더 비중이 큰 회사로서 약 50%가 운수사업부문의 수익이고, 35%정도가 철도사업이며 부동산사업도 15%정도를 차지한다.
- 철도 및 궤도는 16.1 km, 궤도 19 km, 자동차 2,270.1 km의 영업권을 갖고 있다. 철도는 159대, 궤도는 112대, 자동차는 승합 481대, 임대 8대로 489대를 보유하고 있다.
- 자본금은 23억4천만엔 정도이고, 2005년 영업수익은 185억4천만엔 정도이다.

2) 히로시마전철노선

- 히로시마전철은 총 8개의 노선으로 운행되고 있다. 이 노선은 항구와 JR선을 연결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심시가지를 통과하는 방사형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 이중 노면전차는 4차로 이상의 간선도로에서 운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중앙버스전용차선과 같은 형태로 도로 중앙의 전용노선을 따라 운행하고 있다.
- 차량형태는 1량, 2량, 4량 등 다양한 형태가 운행되고 있으며, 최근에 개발된 차량일수록 실내가 쾌적하고, 소음 및 진동 등이 적다. 차량은 운전자 1인이 운행하는 것과 뒤에 승무원 1인이 함께 운행하는 형태로 구분된다.
- 시내 전구간은 150엔에 운행하고 있으며, 500엔의 1일권 및 정기권 등이 판매되고 있다. 대부분 환승이 가능하게 되어 있으나, 일부 노선에서는 승차권을 재구매해야 하는 것도 있다. 승차권 검표는 주로 하차시 운전기사가 옆에서 감사의 인사와 함께 확인한다.
- 히로시마의 도로는 몇 개 노선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4차로의 도로위에 중앙 2차로를

노면전차가 운행하고, 양측으로 1차로씩 차량이 이용한다.

[그림] 히로시마 전철 노선도



3) 히로시마사례의 시사점

- 히로시마전철주식회사는 전철운영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자동차 운수업과 부동산업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관련 사업을 통해 수익과 손실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도로나 철도는 지역의 접근성을 높이고 이러한 접근성의 유리함은 지가를 상승시키면 다양한 상업 활동을 촉진시킨다.
- 노면전차의 도입과 함께 정거장 주변의 개발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 추진이 필요하다.
- 교통질서 또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일본에서 본 바로는 교통질서가 잘 지켜지고 있었다. 4차선 중 2차선을 전차에 내어주고도 1차선으로 운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물론 출퇴근시간대에는 혼잡한 것은 사실이다.
- 우리나라의 도로여건상 교통질서 위반이 가능한 형태가 많다. 그것은 만약의 긴급 상황을 대비한 것일지는 모르지만 바깥차선폭이 넓어 불법주차가 만연하고, 도로가 넓어

과속을 하는 등 대중교통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교통질서 준수는 대중교통수단의 원활한 이동을 도와주기 때문에 그만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 노면전차를 탑승해 본 결과, 오래된 전차에서는 회전시 소음이 상당했다. 또한 그 디자인도 단순하여 즐거움이 없는 반면, 최근에 개발된 차량은 소음, 진동이 적고, 디자인 뿐만 아니라 첨단교통신호시설도 갖추고 있는 등 이용의 편리성이 더 증대되고 있다.
 - 관광용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디자인과 이용의 편리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회전, 출발, 정지 등에서 승객이 받게 되는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 관광경전철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정거장으로 설계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이다. 관광적 요소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정거장으로 건설하고, 다양한 관광 상품의 판매, 홍보, 서비스를 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 해당 정거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알림, 주변 관광지로의 접근방법, 교통수단, 소요시간, 관광의 주요 포인트 등 지역에 내려서 찾아가 보고 싶도록 만들 수 있는 구상이 필요하다.

② 오사카 산업대학 방문 협의

1) LRT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츠카모토 교수)

- 일본의 노면전차는 자동차보급의 증대로 인해 사라져 가다가 최근 신형의 노면전차 시스템을 적용하여 다시 공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노면전차의 부활은 몇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우선 주체간의 노력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자체, 주민, 사업체간에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공공성과 지역 활성화가 그 목표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 둘째는 대중교통중심의 교통체계이다. 일본은 대중교통이 우선되고 있다는 느낌이 무척 강하게 드는 나라이다. 특히 철도는 무척 복잡해 보이는 것이 같이 얹혀 있지만, 그만큼 환승체계가 갖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물론 환승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편하고 소요 시간도 길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대중교통수단의 정시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 셋째는 정부의 지원이다. 최근 노면전차가 다시 부활하고 있어 정부에서도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되고, 그 지원도 증대될 전망이다. 특히, 자동차보급이 많은 도시에서도 노면전차의 이용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정부로서는 충분히 지원을 늘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2) 관광형 철도에 대한 소개(모리아키 히로시, 지역계획건축연구소 기술사)

- 일본에서도 노면전차를 관광 상품으로 개발한 것이 없는 것 같다. 그러나 과거 활용하던 증기기관차 중 산악열차, 트럭열차 등을 개조한 관광열차가 인기를 모으고 있다.
- 이러한 관광열차의 인기는 관광열차 자체의 아련한 추억과 더불어 자연경관을 상품화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즉, 관광열차를 타야만이 볼 수 있는 경관이 많다는 것이며, 이러한 경관은 정말 아름답다는 점이다.
- 금강관광경전철에서도 열차의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주변 관광자원의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료 정리]

□ 관광열차의 개요

관광 노선이라고 하는 정의는 없고 유사한 개념이 있는데, 제시된 문헌을 참고하여, 아래표의 4개노선을 관광노선이라고 하고, 그 개요를 정리하였다.

[관광노선(4개노선)의 개요]

노선명	영업연장 (km)	수송인원 (천인)	영업수익 (백만엔)	영업비용 (백만엔)	경상수익 (백만엔)
黒部峽谷鐵道 (흑부협곡철도)	20.1	1,376	1,892	2,066	▲40
江ノ島電鐵 (에노시마전철)	10.0	13,754	2,395	2,054	538
箱根登山鐵道 (하코네등산철도)	16.2	9,449	2,767	2,386	925
嵯峨野觀光鐵道 (사가노관광철도)	7.3	824	436	392	64

출처 : 숫자로 보는 철도 2004, (재)운송정책연구기구

□ 운영현황

(1) 嵯峨野觀光鐵道(사가노관광철도)

가장 새로운 열차는 사가노관광철도이며, 그 경위는 다음과 같다.

JR서일본·산음선의 궤도개량(직선화)로 폐선이 된 구궤도구간을 활용해 협곡의 경관을 즐기는 트릭열차 “로맨틱 트레인 사가노”로서 1991년 운행을 시작했다. 운행주체는 JR서일본의 자회사인 (주)사가노관광철도이다. 제2종철도사업자(인프라는 JR서일본이 소유해 운행만 담당)로 자본금분담이 적었고, 비교적 고운임(610엔 균일)을 설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송인원이 적어도 수익을 낼 수 있었다.

(2) 기타

기타 3개 열차는 모두 수십년전에 정비된 것으로 오늘과는 크게 다른 사회경제 상황에서 정비되어 참고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수익증가를 위한 노력

(1) 嵯峨野觀光鐵道(사가노관광철도)

철도와 병행 하고 있는 호즈천에서 강놀이를 운행하고 있는 호즈천 뱃놀이 기업 조합과 제휴해 주로는 트럭열차, 귀로는 호즈천 운행을 세트로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2) 黒部峽谷鐵道(흑부협곡철도)

철도부문은 적자이지만, 기념품(키홀더, 전화카드, 비디오, 포스터) 등의 상품판매로 전체적으로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3) 일본의 노면전차와 관광형 철도의 시사점

- 일본의 노면전차의 부활은 관계기관, 주민, 사업자 및 전문가가 함께 고민한 결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정부의 주도도 아닌, 이익을 위한 사업자의 독립적인 추진도 아닌 함께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의 공동체의식을 높인다는 점이다. 전문가에 의해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사업체는 그 사업 추진을, 주민은 개선사항과 애정을 갖고 이용하며, 지자체에서는 이들 모두를 지원하여 지역 활성화로 이끌어 가고자 한다. 이러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 부작용이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또한, 관광열차로서 갖추어야 할 것이 바로 차별화이다. 관광열차는 관광이 주가 된다. 그렇다면, 다른 곳과 같은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그 의미는 없다. 차별화된 공간을 만들고, 경관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물론 우리의 문화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지만,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다양한 문화를 우리의 시각으로 재조명하여 보고, 이를 공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마지막으로 정부의 지원이다. 물론 국가의 지원도 중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직접 함

게하는 지자체의 지원은 무척 중요하다. 일단 지역주민과 문제의식을 같이 하고, 그 대안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금강관광경전철은 국가로서는 교통수단으로, 지역은 관광 상품으로서, 사업 참여자는 이익창출수단으로서 그 가치를 갖고 있어야 한다. 이중 한 가지라도 소홀하게 되면, 전체 사업은 추진이 어렵다. 따라서 이를 조율하고 지원할 수 있는 의지와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6. 주요 협의기관 및 내용

① 히로시마전철주식회사(후지모토 참사 등 4명)

회사개요 (Company Inform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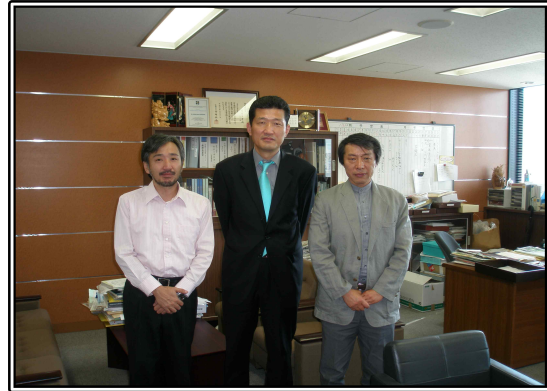
- 대표자 : 오오타 테츠야(大田 哲哉) ○ 개업 : 1912년11월23일
- 영업 km : 철 · 궤도35.1km (철도16.1km, 궤도19.0km) 자동차2,270.1km
- 차량수 : 철 · 궤도271대 (철도159대, 궤도112대) 자동차489대 (승합481대, 임대8대)
- 영업수익 : 185억4324만円 (2005년) ○ 자본금 : 23억3,562만5천円

- 운전, 차량, 토목, 전기 분야의 각 과장들과 의견교환
- 일본에서 본 세계 각국의 LRT도입 선진사례에 대한 자료수집 및 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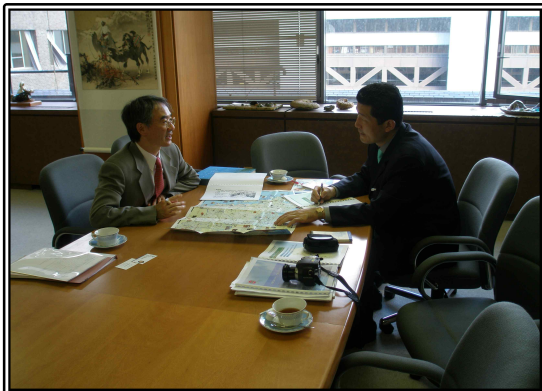
② 오사카産業대학(츠카모토 교수 등 3명)

- 일본 철도사업의 전반적인 상황 및 LRT 도입예 답습
- 아카데미한 측면에서 접근(모리아키 히로시 등 자료제공 ⇨ 이론적 베스 구축)
 - ※ 모리아키 히로시(森脇 宏) : ARPAK(株) 지역계획건축연구소 오사카사무소 기술사(건설부문)



③ 오사카商業대학(谷岡學園타니오카이사장 겸 학장)

- 어뮤즈먼트연구소와 연계 (성인을 위한 위락시설 건설 가능성 모색)
- 엔터테인먼트, 어뮤즈먼트(카지노포함) 등의 종합 전천후형 레저센터 구상
- 오사카시립대학교수 사사키 신(佐々木 伸) 및 USJ 前회장 하시즈메 신야(橋爪 紳也)의 가교 역할



④ 사카이LRT연구교류 센터(사카이市 鐵軌道 추진 교우타니 담당 등 2명)

- 사카이역에서 임해신도시까지의 기존선로 1.7km에 LRT도입 추진
- 「公設民營型」으로 南海電鐵그룹 경영참가 희망 ⇨ 사례연구 필요



⑤ 긴키차량주식회사(마스다主幹技師)

- 긴키차량 · 미쓰비시중공 · 동양전기제조 공동으로 100% 초저상 제조
- 추후 차량 도입 시 한국과의 기술, 개발, 제조 공조 가능



⑥ 마루베니 케믹스 주식회사(테라사와 과장 등 2명)

- 마루베니 주식회사와의 가교 역할(단독자본참가 모색)
- 도로 및 하천 정비 시 환경적 차원에서의 어드바이스



⑦ 스카이마크 주식회사(아리모리 이사 경영기획실장 겸 경리본부장)

- 2009년 11월 이후 하네다공항 이착륙 횟수 150편 증가(국제선 60편)
- 심야 이륙가능하나, 청주공항의 상황을 항공법에 의거 검토



⑧ 마루베니 주식회사(이세리 교통프로젝트부 부부장등 3명)

- 50%의 자본참가 시사(지속적인 접촉과 확실한 추진계획 수립)
- 한국의 주식회사 로템과의 연계가능성도 모색
- 금강관광경전철 건설에 일본의 자본과 기술, 경영 방식 적극적 도입



⑨ 오사카상업대학 비교지역연구소(타키자와소장 등 4명)

- 일본 내 한국학 최고학자인 타키자와 히데키교수에게 자문
- 비교지역학적인 측면에서 역사성을 고려한 개념 등 자문

⑩ 주식회사電通(덴츠)관서지사(제4영업국,후지모토Chief Account Executive)

- 엔터테인먼트, 어뮤즈먼트 측면의 홍보(광고) 및 영업 노하우 습득

⑪ 재일본 충청도민회 노광선 회장 외 15명

- 백제문화와 관서지방 간 문화교류의 교두보 역할로 인적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9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관련 사례 연구

이 인 배 |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관련 사례 연구

이 인 배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1. 조사개요

① 조사 목적

- 해외에서 개발된 관광레저도시 중 태안관광레저도시에서 관광도시의 개발현황과 실태를 분석하여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
- 관광레저도시의 지역특성과 관광자원, 관광객 특성, 관광시설과 관광활동 등 관광도시의 개발특성을 벤치마킹하여 시사점을 도출
- 또한, 관광레저도시의 지역여건 변화, 이벤트 축제, 도시의 관광기능과 관광시설별 활성화 사례 등을 비교 분석하여 태안 관광레저도시와 주변 연계발전을 위한 개발방안을 모색

② 방문국가 및 조사기간

- 출장지 : 미국 (라스베가스, LA/애너하임 디즈니랜드, 몬트레이 등)
- 기 간 : 2006년 12월 16일 ~ 12월 28일

③出張者 및 調査内容

부서 및 직위	성 명	조 사 내 용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이 인 배	관광자원 및 개발시설, 관광활동과 운영실태 등

2. 라스베가스(Las Vegas) : 세계 최고의 유흥위락의 관광도시

① 라스베가스 지역개관과 개발과정

□ 지역개요

- 위치 : 미국 네바다주
- 인구 : 약 120만명
- 시차 : 16시간
- 특징 : 세계최대의 호텔 및 카지노 밀집지역
- 연간 방문객 수 : 3천5백만명 이상

□ 지역현황 및 개발과정

- 연간 3천5백만명 이상의 방문객을 유치하며 전세계 카지노산업의 메카로 입지를 굳힘 (2003년 방문객 35,540천명, 관광객소비총액 약 328억불)
- 미국이 경제공황 탈출을 위해 30년대 말에 후버담을 건설하면서 노동자를 위한 위락타운으로 도박장을 조성하기 시작하여 황량한 사막에 라스베가스가 탄생되었으며 50년대에 마피아의 개입이 시작되며 도박과 환락의 도시로 변장
- 자연발생적이 아닌 철저히 인위적인 발전 구상에 의해 1930년대부터 체계적으로 확대되어 온 도시
- 80년대 중반까지 라스베가스는 도박과 환락의 이미지로 알려졌었으나, 80년대 중반 이후 레저이벤트 타운, 컴덱스를 비롯한 세계적 컨벤션 유치를 통하여 비즈니스 타운으로서 이미지 변신에 성공, 오늘날 전 세계 엔터테인먼트 수도로 확고한 위상 구축



② 세계 최대의 카지노와 최고급 호텔 및 다양한 숙박시설의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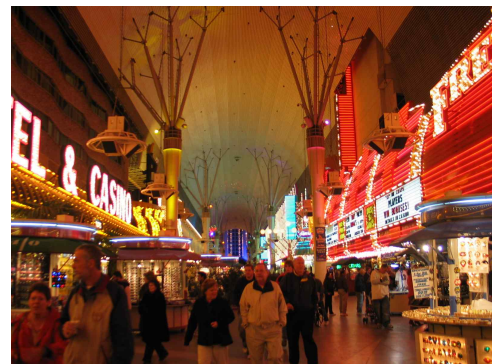
□ 관광시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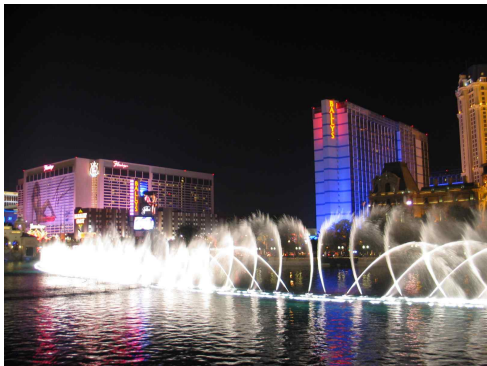
- 라스베가스에 있는 호텔과 모텔의 객실수는 총 13만여실이며, 네바다주 내에는 235개의 호텔과 카지노장이 성행 중임
- 라스베가스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14개 호텔 중 13개가 있으며 테마별로 지어진 호화 대형 호텔들은 저마다 독특한 테마(아랍, 일본, 프랑스, 이집트, 자유의 여신상 등)를 가지고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라스베가스의 명물임
- 방문객의 약 30%정도가 골프를 즐기고 갈 정도로 골프시설이 발달(골프장 43개)
- 라스베가스 중심가의 11개 호텔에만 14,000 개의 방이 있으며, 650 개의 테이블 게임, 17,000개의 슬롯머신, 41개의 레스토랑, 1만 4000평이 넘는 카지노장, 2만명의 종업원이 근무(1999년 네바다주에는 총 205,726개의 슬롯머신 설치)



□ 라스베가스 관광객 지출과 체류형태의 특성

- 2003년 라스베가스 관광통계에 따르면 관광객 수는 3,554만명, 호텔 평균 투숙률은 89.6%, 외국인 비율은 전체의 8%, 최초 방문객의 비율은 전체의 20% 비중 차지
-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인구가 거의 2배가 증가되는 기록적인 증가를 보임. 라스베가스에서 관광에 대한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 라스베가스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평균 연령은 49.4 세(1998년), 48.2 세(2001년), 47.6 세(2002년), 50.1세(2003년), 49.0 (2004년), 47.7 (2005년) 등이었음.
 - 라스베가스 카지노장에서 평균적인 베팅 금액은 \$ 8(1998년)임
 - 라스베가스를 방문하는 사람은
 - 1998년 평균 4.3일을 보내고 가고, 음식과 음료수를 사먹는데 \$141을 사용하고, 쇼핑을 하는데 \$80을 쓰고, 쇼를 보는데 \$28을 쓰고, 도박(게임)을 하는데 \$469을 사용함(1998년)
 - 2001년에는 3.6일을 보내고, 음식 음료수값에 \$213.17을 쓰고, 교통비로 \$61.62을 쓰고, 쇼핑에 \$106.75을 쓰고, 쇼 구경하는데는 \$45.54을 사용했으며, 관광 경비로 \$17.40을, 그리고 호텔 룸 이용료로 하루에 \$85을 사용했으며, 카지노장에서 도박하는데 \$607을 사용함
 - 2004년에는 음식 음료수값에 \$238을 사용했고, 쇼핑하는데 \$124을 사용했고, 도박을 하는데 \$545을 사용함
 - 2005년에는 음식 음료수값에 \$248을 사용했고, 쇼핑하는데 \$137을 사용했고, 도박을 하는데 \$627을 사용함
- 세계에서 가장 큰(룸이 많은)호텔이 라스베가스에 있는 MGM Grand 호텔로서 룸이 5005 개임. 세계에서 큰 호텔 14개 중에서 13개가 라스베가스에 있다고 함. 라스베가스에 있는 호텔/모텔 등의 방수를 모두 합산하면, 109,365개(1998년), 126,610개(2001년), 126,787개(2002년)임
- 라스베가스에서 게임(도박)으로 벌어들이는 돈은 60억 달러(2002년), 61억 달러 (2003년), 68억 달러(2004년)이었음. 라스베가스를 포함한 클락 카운티 (Clark County)에서 벌어들인 돈은 87억 달러 (2004년) 이었음.
- 네바다주 전체에서 도박으로 벌어들인 돈은 1998년 네바다주의 235개의 호텔/카지노





장에서 벌어들인 돈은 \$13.8 Billion (138 억 달러), 이중에서 카지노장에서 게임(도박)으로 벌어들인 돈이 55.8%, 호텔 방 빌려주고 벌어들인 돈은 16.7%, 음식 팔아 벌어들인 돈은 12.6%, 기타가 9.7% 이었음.

- 라스베가스를 방문하는 사람들 중에서 무역관계 업무로 오는 사람은 평균 5.3일을 머무르고, \$1,517을 사용하고, 컨벤션 행사 관계로 오는 사람은 평균 5.3일을 머물고 \$963을 사용하고, 관광 오는 사람은 평균 4.3일을 머물고 \$581을 사용하고 감.

- 라스베가스 스트립에 있는 호텔들에서 1995년 통계에 따르면, Quarter Slot Machine(25센트 동전 슬롯 머신)에서 벌어들인 돈이 \$792,946,000 이고, Dollar Slot (1달러 동전 슬롯 머신)에서 벌어들인 돈은 \$612,168 이었다고 함.

- 라스베가스의 호텔방 평균 방값은 \$62(1997년), \$85(2001년) \$75(2002년), \$83(2003년)이었고, 미국 전체의 호텔 평균 방값은 \$75.16(1997년)이었음.

- 라스베가스로 오는 사람들은 47~48%가 비행기를, 40~41%가 자동차를, 7~8%가 버스를, 4~5%가 RV(Recreational Vehicle)를 타고 옴.

- 라스베가스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에 게임(카지노)를 하는 확률은 86%, 87%(2004년), 하루에 도박(카지노)에 소비하는 시간은 3.8시간, 3.3시간(2004년), 그리고 Gambling budget(도박예상금액)는 \$607(2001년), \$503(2002년), \$480(2003년) \$545(2004년), \$627(2005년)이었음.

어떤 게임을 좋아 하는지를 살펴보면, 슬롯머신(Slot machines) 64%, 블랙잭(Blackjack) 16%, 비디오 포커 (video poker) 9% 순임

- 2001년 통계를 보면, 방문자 숫자 3,500만명 그들이 지출한 비용이 315 억 달러, 컨벤션 행사 관계로 방문한 사람 410만명, 컨벤션으로 수입은 48억 달러, 라스베가스의 카지노장에서 수입은 76억 달러 이었음

- 다운타운에 있는 11개 호텔에는, 14,000 개의 방이 있으며, 650 개의 테이블 게임과 17,000개의 슬롯



머신이 있고, 모두 41개의 레스토랑이 있으며, 1만 4000 평이 넘는 카지노장이 있고, 8,700 대를 주차 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으며, 모두 2만명의 종업원이 일하고 있음. 1999년 네바다주에는 총 205,726개의 슬롯머신이 있었음.

- 라스베가스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3,502만명(2001년), 3,507만명(2002년), 3,554만명(2003년), 3,700만명(2004년), 3,850만명(2005년)이었음. 컨벤션 행사 관계로 라스베가스를 방문한 사람은 511만명(2002년), 566만명(2003년), 650만명(2005년)이었음.

③ 최고 수준의 컨벤션센터와 다양한 행사의 연중 개최

□ 컨벤션센터 현황

- 라스베가스에 있는 대형 컨벤션 센터로써는 Las Vegas Convention Center(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 Sands Expo Center(샌즈 엑스포 컨벤션 센터), Mandalay Bay 호텔 컨벤션 센터, Cashman Center(캐쉬맨 센터), Cox Pavilion(콕스 파빌리온), Henderson Convention Center(헨드슨 컨벤션 센터), 또 호텔별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Convention Center 등이 있음.
- 라스베가스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형 박람회로부터 크고 작은 세미나, 학술회의 등 다양한 형태의 컨벤션이 행사 일정에 따라 연간 4000개 정도 개최 되고 있음. 컨벤션 행사 관계로 라스베가스를 찾는 비즈니스맨들이 연간 410만 명(2001년 통계) 이 넘는다고 함.

□ 라스베가스의 연간 컨벤션 일정 현황

[표] 라스베가스 2007년도 컨벤션 일정표

행사 이름 (Convention 이름)	장소	기간	참가인원
2007년 1월 행사 일정			
PROMOTIONAL PRODUCTS ASSOCIATION INTERNATIONAL (www.ppai.org)	만달레이베이 호텔	3~6	24,000
전자 제품 박람회 (CES) CONSUMER ELECTRONICS ASSOCIATION INTERNATIONAL CES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 샌즈 엑스포	8~11	150,000
성인용 인터넷 관련 박람회 Adult Entertainment (INTERNEXT) (www.adult-expo.com)	샌즈 엑스포	10~13	35,000
INTERNEXT (www.internext-expo.com)	만달레이베이 호텔	15~17	5,000
콘크리트 건축물 전시회 WORLD OF CONCRETE EXPOSITION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	23~26	85,000
WEST COAST ART AND FRAME SHOW (www.wcafshow.com)	라스베가스 힐튼 호텔	28~31	5,000
NATIONAL ASSOCIATION OF TELEVISION PROGRAM EXECUTIVES (www.natpe.org)	만달레이베이 호텔	16~18	8,000
눈(겨울) 스포츠용품 전시회 (SIA) Snowsports Industries America (www.siavegas.com)	만달레이베이 호텔	22~25	17,000
WORLD MARKET CENTER (www.lasvegasmarket.com)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	29~2/2	62,000
2007년 2월 행사 일정			
신발 박람회(WSA) World Shoe Association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 샌즈 엑스포	1~4	37,000
건축 자재 전시회 SURFACES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 샌즈 엑스포	7~9	40,000
WESTERN VETERINARY CONFERENCE	만달레이베이 호텔	18~22	15,000
일반 소비제품 무역 박람회 (ASD / AMD)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	25~3/1	62,000
여행용품 박람회 TRAVEL GOODS ASSOCIATION (www.thetravelgoodsshow.org)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	27~3/1	6,000
2007년 3월 행사 일정			
INTERNATIONAL ROOFING EXPO (www.theroofingexpo.com)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	6~8	9,000
NASCAR WINSTON CUP SERIES	Motor Speedway 자동차 경주장		
식·음료수 박람회 Nightclub & Bar Convention & Trade Show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	6~7	38,000

세차 장비 전시회 INTERNATIONAL CARWASH ASSOCIATION CAR CARE WORLD EXPO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		
SHOWEST (www.showest.com)	발리스 호텔	12~15	10,000
공구 전시회 Ace Hardware Corporation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	15~18	18,000
Games Expo 2007	사우스 코스트 호텔	18~23	8,00
NATIONAL RURAL ELECTRIC COOPERATIVE ASSOCIATION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	18~22	13,000
SUNGARD SCT	만달레이베이 호텔	18~22	8,000
ASI Show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	20~21	10,000
피자 엑스포 International PIZZA EXPO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	20~22	15,000
ITEX SHOW 2007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	21~22	3,000
WEDDING & PORTRAIT PHOTOGRAPHERS INTERNATIONAL	페리스 호텔	22~29	8,000
EXHIBITOR2007	만달레이베이 호텔	25~29	6,000
CAR CARE WORLD EXPO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	26~28	10,000
AMUSEMENT SHOWCASE INTERNATIONAL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	28~30	5,000
GLASS CRAFT AND BEAD EXPO	사우스 코스트 호텔	28~4/1	9,000
INTERNATIONAL SECURITY CONFERENCE	샌즈 엑스포	28~30	16,000
국제 무선 통신 박람회 (IWCE) INT'L Wireless Communication Expo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	28~30	15,000
2007년 4월 행사 일정			
옥외 광고판 전시회 INTERNATIONAL SIGN ASSOCIATION	만달레이베이 호텔	12~14	20,000
NATIONAL AUTOMATIC MERCHANDISING ASSOCIATION	만달레이베이 호텔	12~13	6,000
INTERNATIONAL ORACLE USERS GROUP	만달레이베이 호텔	15~19	6,000
국제 방송 장비 전시회 (NAB) National Association of Broadcasters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	16~19	110,000
ARBONNE INTERNATIONAL	엠지엠 호텔	23~26	17,000
MEDTRADE SPRING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	25~26	5,000
2007년 5월 행사 일정			
AMERICAN CRAFT RETAILERS EXPO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	2~4	5,000
KITCHEN / BATH INDUSTRY SHOW (www.kbis.com)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	8~10	60,000
CARS STARS & GUITARS	후터스 호텔	11~12	10,000
MONEY SHOW,	만달레이 베이 호텔	14~17	8,500

AMERICAS GLASS ASSOCIATION GLASS EXPO	캐쉬맨 센터	18~19	4,000
넷 월드 + 인터롭 (네트워크 / 인터넷) NETWORLD + INTEROP	만달레이베이 호텔	20~25	20,000
상업용 부동산 (쇼핑센터) 관련 컨벤션 International Council of Shopping Centers (www.icsc.org)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	21~23	45,000
2007년 6월 행사 일정			
보석 박람회 JCK SHOW (www.jckgroup.com)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	1~5	40,000
LAS VEGAS BEAD SHOW	팔라스 스테이션 호텔	1~3	4,000
이,미용 재료, 손톱, 목욕 재료 용품전 International Esthetics Cosmetics & Spa Conference IECSC &LVHNC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	2~4	40,000
INTERNATIONAL TRUCKING SHOW TRUCK SHOW (www.truckshow.com)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	7~9	30,000
CLEAN '07 - WORLD EDUCATIONAL CONGRESS FOR LAUNDERING &DRYCLEANING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	11~14	20,000
SGMA - SPORTING GOODS MANUFACTURERS ASSOCIATION	샌즈 엑스포	21~23	10,000
BILLIARD CONGRESS OF AMERICA/INTERNATIONAL BILLIARD &HOME RECREATION EXPO	샌즈 엑스포	21~23	6,000
SOCIETY FOR HUMAN RESOURCE MANAGEMENT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	24~27	20,000
LAS VEGAS GARDEN RAILWAY SOCIETY	리비에라 호텔	27~30	5,000
NATIONAL APARTMENT ASSOC. - NAA EDUCATION CONFERENCE &EXPOSITION	만달레이베이 호텔	28~30	5,500
볼링 장비 쇼 INTERNATIONAL BOWL EXPO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		
2007년 7월 행사 일정			
AMERICAN SPORTFISHING ASSOCIATION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	11~13	6,000
ASSOCIATION OF WOODWORKING &FURNISHING SUPPLIERS (R) - AWFS (R) FAIR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	18~21	40,000
MARINE AFTERMARKET ACCESSORIES TRADESHOW (www.nmma.org)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	18~20	2,500
DEFCON	리비에라 호텔	30~8/8	5,000
신발 박람회(WSA) World Shoe Association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	30~8/2	37,000
2007년 8월 행사 일정			
INTERNATIONAL STAMP &COIN COLLECTORS SOCIETY (www.bick.net)	사하라 호텔		3,000
NATIONAL ASSOCIATION OF POSTAL SUPERVISORS	리비에라 호텔		5,000

UNITED ASSOCIATION OF JOURNEYMEN &APPRENTICES OF THE PLUMBERS &PIPEFITTING INDUSTRY OF US &CAN	발리스 호텔		7,500
AMERICAN POOLPLAYERS ASSOCIATION, INC.	리비에라 호텔		13,000
일반 소비제품 무역 박람회 (ASD / AMD)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		60,000
GENTLEMEN'S CLUB OWNERS	만달레이베이 호텔		3,000
RECHARGER MAGAZINE	만달레이베이 호텔		5,000
KENFAIR ASIAN EXPO BAYSIDE B	만달레이베이 호텔		8,000
OFF-PRICE SPECIALIST CENTER (www.offpriceshow.com)	샌즈 엑스포		10,500
ASAP GLOBAL SOURCING SHOW	베네시안 호텔		7,500
2007년 9월 행사 일정			
ABC KIDS EXPO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		9,000
ICCM &TECHLEARN 2006	만달레이베이 호텔		4,000
TRUE VALUE FALL MARKET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		20,000
PGA FALL EXPO	만달레이베이 호텔		8,000
국제 안경 박람회 INTERNATIONAL VISION EXPO	샌즈 엑스포		17,500
GLASSBUILD AMERICA: THE GLASS, WINDOW &DOOR EXPOS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		10,000
SUPERZOO AND GARDEN MARKET EXPO	만달레이베이 호텔		25,000
SPECIALTY GRAPHIC IMAGING ASSOCIATION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		12,000
AMUSEMENT AND MUSIC OPERATORS ASSOCIATION/AMOA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		6,500
EMS EXPO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		7,000
자전거 박람회 (INTERBIKE EXPO)	샌즈 엑스포		21,000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LEISURE AND ENTERTAINMENT INDUSTRY / FUN EXPO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		6,500
LAS VEGAS SOUVENIR &RESORT SHOW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		3,000
2007년 10월 행사 일정			
NATIONAL COMMUNITY PHARMACISTS ASSOCIATION	샌즈 엑스포		4,000
INTERNATIONAL FOUNDATION OF EMPLOYEE BENEFIT PLANS	만달레이베이 호텔		10,000
NATIONAL ASSOCIATION OF CONVENIENCE STORES, INC.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		25,000
MEMORYTRENDS TRADE SHOW	샌즈 엑스포		6,000
SWEET ADELINES INTERNATIONAL	리비에라 호텔		9,000
ASSOCIATION FOR FINANCIAL PROFESSIONALS	베네시안 호텔		5,800
AMERICAN DENTAL ASSOCIATION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		45,000
AMERICAN OSTEOPATHIC ASSOCIATION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		10,000
STONEXPO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		7,500
AMERICAN COLLEGE OF GASTROENTEROLOGY	베네시안 호텔		6,000
ENTERTAINMENT TECHNOLOGY WEEK SHOW,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		15,000

MEDICAL GROUP MANAGEMENT ASSOCIATION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		6,000
자동차 관련 품목 전시회 (AAPEX) Automotive Aftermarket Products Expo	샌즈 엑스포		130,000
특수장비 전시회 (SEMA) SPECIALTY EQUIPMENT MARKET ASSOCIATION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		130,000
2007년 11월 행사 일정			
INTERNATIONAL SPA ASSOCIATION	샌즈 엑스포		2,500
AQUA INTERNATIONAL	만달레이베이 호텔		8,000
SPORTS LICENSING AND ENTERTAINMENT MARKETPLACE (SLEM, INC.)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		50,000
JOINT COMMISSION ON ALLIED HEALTH PERSONNEL IN OPHTHALMOLOGY	리비에라 호텔		3,000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발리스 호텔		3,000
STONEXPO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		8,000
AMERICAN ACADEMY OF OPHTHALMOLOGY	샌즈 엑스포		25,000
SPECIALTY TOOLS AND FASTENERS DISTRIBUTORS ASSOCIATION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		4,500
ATHLETIC BUSINESS CONFERENCE & EXPO	만달레이베이 호텔		3,000
게임 박람회 G2E: GLOBAL GAMING EXPO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		27,000
INTERNATIONAL POOL & SPA EXPO / BACKYARD LIVING EXPO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		15,000
U. S. DEPARTMENT OF EDUCATION	파리스 호텔		2,500
NATIONAL FEDERATION FOR CATHOLIC YOUTH MINISTRY, INC.	리비에라 호텔		2,200
2007년 12월 행사 일정			
NATIONAL GROUND WATER ASSOCIATION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		5,000
INTERNATIONAL STAMP & COIN COLLECTORS SOCIETY	서커스서커스 호텔		1,000
AMERICAN ASSOCIATION FOR RESPIRATORY CARE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 만달레이베이 호텔		6,000
기타 참고 행사 내용			
사진 관련 전시회 (PMAI) Photo Marketing Association International			
의류 박람회(Magic) MAGIC MARKETPLACE			
실내 장식품 전시회 (HD Expo) Hospitality Design Exposition			
자동차 부품 관련 전시회 Automotive Parts Rebuilders Association (INTERNATIONAL BIG R SHOW)			
컴퓨터 박람회 COMDEX			

[출처] www.LasVegasKim.com

4 3,800만명의 관광객과 90% 이상의 높은 숙박율의 체류형 관광도시

□ 호텔투숙율과 방문관광객수

- 라스베가스 호텔의 투숙률은 89%(2001년), 88.8%(2002년), 89.6%(2003년) 이었음. 라스베가스에 있는 호텔 방 숫자는 126,610(2001년), 126,787(2002년), 130,482(2003년), 133,186(2005년)개임.
- 21세 이하의 사람들이 관광하는 비율은 전체 관광객의 12%(2001년), 10%(2002년), 11%(2003년)임.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은 전체 관광객의 21%(2001년) , 20%(2002년), 18%(2003년) 이었음.

[표] 라스베가스 방문관광객 수 현황

년도	라스베가스 인구	관광객 숫자	컨벤션 행사 방문자 숫자	공항 이용객	갬블 수입
1970	273,288	6,787,650	269,129	4,086,973	\$369,286,977
1971		7,361,783	312,347	4,102,285	\$399,410,972
1972		7,954,748	290,794	4,608,764	\$476,126,720
1973		8,474,727	357,248	5,397,017	\$588,221,779
1974		8,664,751	311,908	5,944,433	\$684,714,502
1975		9,151,427	349,787	6,500,806	\$770,336,695
1976		9,769,354	367,322	7,685,817	\$845,975,652
1977		10,137,021	417,090	7,964,687	\$1,015,463,342
1978		11,178,111	607,318	9,110,842	\$1,236,235,456
1979		11,696,073	637,862	10,574,127	\$1,423,620,102
1980	461,816	11,941,524	656,024	10,302,106	\$1,617,194,799
1981		11,820,788	719,988	9,469,727	\$1,676,148,606
1982		11,633,728	809,779	9,438,648	\$1,751,421,394
1983		12,348,270	943,611	10,312,842	\$1,887,451,717
1984		12,843,433	1,050,916	10,141,809	\$2,008,155,460
1985		14,194,189	1,072,629	10,924,047	\$2,256,762,736
1986		15,196,284	1,519,421	12,428,748	\$2,431,237,168
1987		16,216,102	1,677,716	15,582,302	\$2,789,336,000
1988		17,199,808	1,702,158	16,231,199	\$3,136,901,000
1989		18,129,684	1,508,842	17,106,948	\$3,430,851,000
1990	770,280	20,954,420	1,742,194	19,089,684	\$4,104,001,000
1991		21,315,116	1,794,444	20,171,557	\$4,152,407,000
1992		21,886,865	1,969,435	20,912,585	\$4,381,710,000
1993		23,522,593	2,439,734	22,492,156	\$4,727,424,000
1994		28,214,362	2,684,171	26,850,486	\$5,430,651,000
1995	1,036,290	29,002,122	2,924,879	28,027,239	\$5,717,567,000
1996	1,115,940	29,636,361	3,305,507	30,459,965	\$5,783,735,000
1997	1,192,200	30,464,635	3,519,424	30,315,094	\$6,152,415,000
1998	1,255,200	30,605,128	3,301,705	30,227,287	\$6,346,958,000
1999	1,343,540	33,809,134	3,772,726	33,715,129	\$7,210,700,000
2000	1,425,723	35,849,691	3,853,363	36,865,866	\$7,671,252,000
2001	1,498,279	35,017,317	5,014,240	35,179,960	\$7,636,547,000
2002	1,578,332	35,071,504	5,105,450	35,009,011	\$7,630,562,000
2003	1,641,529	35,540,126	5,657,796	36,265,932	\$7,830,856,000
2004	1,747,025	37,388,781	5,724,864	41,441,531	\$8,711,426,000
2005	1,815,700	38,566,717	6,166,194	44,267,362	\$9,709,408,000

주) 위의 통계 숫자는 라스베가스를 포함하는 크락 카운티의 통계자료임

[출처] www.LasVegasKim.com

- 캘리포니아에서 오는 사람들은 전체 관광객의 26%(2001년), 29%(2002년), 32%(2003년), 27%(2004년), 29%(2005년)이었음.
-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은 전체 관광객의 12%(2001년), 8%(2002년), 9%(2003년)이었음.
- 라스베가스에서 머무르는 평균 시간은 3.4일(2002년), 3.4일(2003년)임.
- 라스베가스의 호텔방을 예약하는 방법으로 2005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호텔에 전화해서 직접 예약하는 사람 45%, 인터넷으로 예약하는 사람 32%, Travel Agent를 이용하는 사람 16%, 예약을 하지 않고 호텔로 가서 바로 체크인 하는 사람 4%, 기타 3%로 나타남

[표] 2005년 관광객 현황

구분	방문객수	컨벤션 참가자수	공항 이용객수	호텔 투숙률	평균 호텔 방값
1월	3,048,045	931,769	3,271,627	86.6 %	\$ 106.15
2월	2,950,007	528,320	3,166,083	91.5 %	\$ 101.96
3월	3,396,600	705,795	3,919,248	95.8 %	\$ 113.01
4월	3,290,313	517,955	3,707,051	95.6 %	\$ 107.26
5월	3,370,380	660,604	3,903,950	93.6 %	\$ 104.86
6월	3,222,784	420,625	3,810,918	94.1 %	\$ 92.58
7월	3,388,437	353,264	3,991,950	94.5 %	\$ 94.76
8월	3,252,148	395,747	3,882,775	91.7 %	\$ 93.22
9월	3,173,326	573,571	3,634,361	91.0 %	\$ 107.65
10월	3,303,177	316,867	3,839,120	91.9 %	\$ 105.17
11월	3,097,701	568,582	3,617,565	89.2 %	\$ 111.29
12월	3,073,799	193,095	3,522,714	86.1 %	\$ 99.60
합계	38,566,717	6,166,194	44,267,362	91.8 %	\$ 103.12

주) 2005년 말 현재 라스베가스에 있는 호텔, 모텔의 방의 숫자는 133,186개 임

[출처] www.LasVegasKim.com

[표] 라스베가스 및 주변 지역 2005년의 Gaming Revenue 현황.

Clark County	\$9,709,408,000
Las Vegas	\$7,571,355,000
Strip	\$6,031,251,000
Downtown	\$654,115,000
Boulder Strip	\$885,989,000

[출처] www.LasVegasKim.com

[표] 세계 Top20 대형 호텔 현황

순위	호텔이름	위치	호텔 방수	오픈 년도
1	MGM Grand 호텔	라스베가스	5,034	1993
2	럭스 (Luxor) 호텔	라스베가스	4,408	1993
3	만달레이 베이 (Mandalay Bay)호텔	라스베가스	4,332	1999
4	First World 호텔	말레이시아	4,300	2002
5	Ambassador City Jomtien	태국	4,210	1987
6	베네시안 (Venetian)호텔	라스베가스	4,027	1999
7	엑스칼리브 (Excalibur)호텔	라스베가스	3,991	1990
8	벨라지오 (Bellagio)호텔	라스베가스	3,933	1998
9	서커스 서커스 (Circus Circus)호텔	라스베가스	3,770	1968
10	플라밍고 (Flamingo)호텔	라스베가스	3,565	1973
11	Hilton Hawaiian Village 호텔	하와이	3,386	1955
12	씨저스 팰리스 (Caesars Palace)호텔	라스베가스	3,340	1966
13	라스베가스 힐튼 (Las Vegas Hilton) 호텔	라스베가스	3,174	1969
14	미라지 (Mirage) 호텔	라스베가스	3,044	1989
15	몬테 칼로 (Monte Carlo)호텔	라스베가스	3,002	1996
16	파리스 (Paris) 호텔	라스베가스	2,916	1999
17	트래즈 아일랜드 (Treasure Island)호텔	라스베가스	2,885	1996
18	Gaylord Opryland Resort	미국 테네시주	2,881	1977
19	Disney's Pop Century Resort	미국 플로리다주	2,880	2003
20	발리스 (Bally's)호텔	라스베가스	2,814	1973
21	윈 라스베가스 (Wynn Las Vegas)호텔	라스베가스	2,716	2005

주) 1. 위의 자료는 2006년 5월 현재의 자료임

2. 이 통계에서 보면 세계 20개 대형 호텔 중에서 15개가 라스베가스에 있음.

⑤ 풍부한 월별 행사와 다양한 종류의 이벤트의 개최

- 라스베가스는 박람회와 전시회, 자동차경주대회, 퍼레이드 엑스포, 운동경기대회, 기념일, 음악회, 교역전 등의 연중 월별로 풍부한 행사와 다양한 종류의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개최함

[표] 라스베가스 월별 중요 행사

월별	행 사 명	행 사 내 용
1 월	매년 1월 1일 새벽 0시 불꽃놀이 (Fire Works)	호텔마다 방값이 평소의 두배 이상 올라가고, 각 호텔마다 전날 저녁부터 새벽까지 일정 금액을 내면 술은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술 파티 등 특별 행사가 많다.
	성인용 인터넷 관련 전시회 (Adult Entertainment)	매년 1월 초순에 샌즈 엑스포 컨벤션 센터와 베네시안 호텔 에서 열린다.
	CES (Consumer Electronics Show / 전자 제품 박람회)	매년 1월 초순에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므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다.
	1월 3번째 월요일 : Birthday of Martin Luther King (흑인인권 운동가 킹목사 기념일)	라스베가스 시내(다운타운)에서 퍼레이드 행사 및 각종 이벤트 행사가 많이 있다. 매년 1월 8일 엘비스 프레슬리(Elvis Presley) 생일날이 되면, 관련 업체 등에서 음악 파티도 하고, 축하 행사를 벌인다.
	Super Bowl (미식 축구 결승전)	매년 1월 하순에 열리는데 어느 편이 이기는지 돈을 거는 Gambling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온다. 또 호텔 마다 \$50 전후 (\$100이 넘는 곳도 있음)의 입장료를 내면, 파티에 참석하여 대형 TV를 통해 결승전 경기를 같이 보면서 떠들고, 고향치고 술은 얼마든지 마실 수 있는 파티에 참가할 수 있다.
2 월	신발 박람회 (WSA)	2월 초순 ~ 중순경에 열리는 컨벤션 행사인데 한국사람(특히, 부산)들이 많이 몰려온다.
	사진 관련 전시회(PMAI)	Photo Marketing Association International가 2월 중순경에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다.
	World Archery Festival. (국제 양궁 대회 / 양궁 관련 품목 전시회)	리베라 호텔에서 열린다. 입장료는 \$5 이다
	2월 12일 : Lincoln's Birthday	링컨 대통령 생일 기념일이다
	발렌타인 데이 (매년 2월 14일)	결혼식장과 식당(레스토랑)이 대목인 이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결혼식하려 몰려온다. 이때는 각 호텔 마다 2명이 식사하는 할인 티켓을 많이 발행한다.
	구정 (Chinese New Yea)	중국 사람이 많이 몰려온다. 특히 큰 호텔에서 엄청난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대통령 기념일 (Presidents Day / 2005년 2월 21일)	주말과 공휴일을 이용해서 북쪽의 추운지방의 사람들이 추위를 피해 많이 놀러 온다.
	의류 박람회 (MAGIC)	2월 하순경에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 샌즈 엑스포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데, 한국과 LA에서 옷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온다.
3 월	소비재 무역 박람회 (ASDS/AMD)	2월 말 경이나 3월 초순에 열리는 컨벤션 행사이다.
	자동차 경주 대회	NASCAR Winston Cup 대회가 3월 초순에 Las Vegas Motor Speedway 경기장에서 열린다. 이 경기를 보기 위해 15만명 정

		도가 라스베가스로 온다.
	식·음료수 박람회 (Nightclub & Bar Convention & Trade Show)	3월 초순에 미국 나이트 클럽 협회에서 주관하는 술과 음료수 등의 제품에 대한 컨벤션 행사가 열린다.
	성 패트릭 데이 퍼레이드 (St. Patrick's Day)	매년 3월 17일 행운을 바라며 녹색 옷을 입는다 다운타운 거리에서 퍼레이드 행사가 실시된다.
	피자 엑스포 (International PIZZA EXPO)	3월 하순경에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다.
	국제 무선 통신 박람회 (IWCE)	International Wireless Communication Expo US Hot Rod Monster Jam World Finals 대회가 Sam Boyd Stadium에서 열린다.
	ShoWest (Movie Theater Convention)	3월 첫째주나 둘째주에 영화 컨벤션이 열리면 수많은 할리우드의 스타들이 온다.
	대학농구의 결승전	3월 말경 이 있는데 이때도 많은 사람들이 어느 팀이 이길 것인가에 대한 Gambling하러 온다.
4 월	Daylight Saving time begins / 섬머타임 개시일	4월 첫 번째 일요일 : 초순에 Anthem Golf Course에서 아이들의 골프 시합인 Speedway Children's Charities Golf Tournament 가 열린다.
	NHRA SummitRacing.com Nationals 자동차 경주 대회	4월 초순에 Las Vegas Motor Speedway 경기장에서 열린다. 관객은 7만명이다.
	국제 방송 장비 전시회 (NAB)	4월 하순경에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힐튼 호텔)와 샌즈 엑스포(베네시아 호텔)에서 열린다.
	봄 방학(Spring Break)	추운지방에 있는 대학생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따뜻한 라스베가스로 여행 온다.
	Las Vegas Senior Classic PGA Golf Tour 대회 LPGA Takefuji Classic 대회	4월 중순경에 라스베가스 힐튼 호텔 뒤편에 위치한 Las Vegas Country Club 에서 개최된다. 이 골프 경기장은 평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골프장이 아니라, 회원들만 들어갈 수 있는 Private 골프장인데, 대회 행사기간에는 하루 입장료 \$15씩을 내면, 대회를 참관 할 수 있다.
5 월	" World Series of Poker "	4월에서 5월에 걸쳐 세계에서 가장 큰 포카 토너먼트 경기인 " World Series of Poker" 게임이 다운타운의 Binion's Horseshoe 호텔에서 열린다.
	International Esthetics Cosmetics & Spa Conference	5월 초순경에 라스베가스 힐튼 호텔과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에서는 이,미용 재료, 손톱, 목욕 재료 용품전인 International Esthetics Cosmetics & Spa Conference 행사가 열린다.
	Mothers' Day / 어머니의 날	5월 2번째 일요일
	넷 월드+인터롭 (네트워킹 / 인터넷) NETWORLD + INTEROP 행사	넷 월드 + 인터롭 (네트워킹 / 인터넷) NETWORLD + INTEROP 행사가 있다.
	INTERNATIONAL COUNCIL OF SHOPPING CENTERS 행사	미국 부동산 업자들의 잔치인 INTERNATIONAL COUNCIL OF SHOPPING CENTERS 행사가 5월 중순경에 열린다.
	Memorial Day	5월 마지막 월요일 : Memorial Day / 현충일 주말부터 3일 연속 파티를 연다. 우리나라에서 현충일날 술 마시면 안 되는데, 여기서는 3일 연속 술에 마신다.
	INTERNATIONAL STAMP & COIN COLLECTORS SOCIETY 박람회	INTERNATIONAL STAMP & COIN COLLECTORS SOCIETY 박람회가 열린다
	Las Vegas Helldorado Days & Rodeo	옛 서부의 영광을 축하하는 Las Vegas Helldorado Days & Rodeo
	Las Vegas Jazz Festival	월 말경에는 다운타운의 Fremont Street 에서는 Las Vegas Jazz Festival 이 열린다. 그냥 구경하는 데는 돈을 안 받는데, 좋은 자리(VIP석)에 앉으려면 \$25(하루), \$35(이틀)의 돈을 내야 한다.

6 월	LAS VEGAS MERCHANDISE EXPO / CLOSE OUT SHOW	일반 소비제품 전시회인 LAS VEGAS MERCHANDISE EXPO / CLOSE OUT SHOW Western Gift Expo가 열린다.
	Father's Day (아버지 날)	6월 3번째 일요일인데 이때 가족 단위로 여행 오는 사람이 많다.
	LAS VEGAS INTERNATIONAL HOTEL & RESTAURANT SHOW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에서 호텔과 레스토랑 관련 업체가 참가하는 LAS VEGAS INTERNATIONAL HOTEL & RESTAURANT SHOW 가 있다.
	Cine Vegas International Film Festival	Cine Vegas 라고 라스베가스에서는 가장 큰 영화 페스티벌 (Cine Vegas International Film Festival)이 열린다. 이때는 호텔마다 고급 손님이 많을 때이다. 행사가 개최되는 곳은 Palms 호텔이며, 안내 웹 사이트는 www.cinevegas.com 이다.
	INTERNATIONAL BOWL EXPO	라스베가스 힐튼 호텔,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에서 볼링 장비 쇼가 열린다.
	INTERNATIONAL TRUCKING SHOW	라스베가스 힐튼 호텔,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에서 INTERNATIONAL TRUCKING SHOW 행사가 있다.
7 월	7월 4일 미국 독립 기념일	7월 4일을 전후로 연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라스베가스로 놀러 온다. 매년 이때가 되면 라스베가스로 관광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30만명 정도가 된다
8 월	소비제 무역 박람회 (ASD/AMD)	소비제품 전문 무역 박람회로 총 50여개국에서 가격과 품질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제조업체, 무역 업체(브로커), 및 도/소매 판매 업체 가 참여하여 제품에 대한 상담 후 바로 판매 계약을 바로 체결하는 등 무역(수입/수출) 위주의 박람회이다.
	Las Vegas Gift Expo	선물용품 전시회(LAS VEGAS GIFT EXPO)로 개최 장소는 LAS VEGAS CONVENTION CENTER이다. 행사일정 연 2회이며, 참가인원은 1만 5,000 명 정도이다
	의류 박람회인 Magic 컨벤션	매년 2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MAGIC / 남성복), 샌즈 엑스포 (WWD MAGIC / 여성복)(The edge / 유행을 타는 패션복), 라스베가스 힐튼 호텔 (MAGIC kids / 아동복)에서 열리는 이 박람회에는 세계 각국에서 참가 한다
	신발 박람회 (WSA)	미국에서도 가장 큰 신발 박람회로써 약 3만 5,000명 이상이 참가한다. 박람회는 매년 2차례 2월과 8월에 샌즈 엑스포 와 베네시안 호텔 그리고 만달라 베이 호텔에서 열린다.
9 월	9월 첫 번째 월요일 : Labor Day / 노동절	노동절이 휴가가 시작하는 금요일부터 많은 사람들이 온다. 각 호텔 별로 Party 및 쇼 (입장료 보통 \$40 ~ \$75 정도)등을 준비하여 손님들을 맞이한다.
	자전거 박람회 (INTERBIKE EXPO)	다운타운에서 라스베가스 자전거 축제 (Las Vegas Bike Fest)가 열린다. Events include motorcycle contests, rock concerts and a custom bike show. 안내 웹 사이트는 http://www.lasvegasbikefest.com 이다.
	게임 박람회인 G2E (Global Gaming Expo)	라스베가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야구(Triple-A Baseball world series) 대회	
	국제 안경 박람회 (INTERNATIONAL VISION EXPO)	국제 안경 박람회에는 450여 회사에서 출품하는 안경과 관련된 제품을 전시하며, 참관인은 약 15,000 명 정도이다.
	Jewish(유대인)의 New Year 날	9월 중순에서 10월 초순경인데, 이때가 되면 머리에 조그마한 모자를 쓴 유대인들이 많이 보인다.
	트럭 경주 대회인 NASCAR Craftman Truck Series 대회	Las Vegas Motor Speedway 경기장에서 열린다. (안내 웹 사이트 : www.lvms.com). 이 경기를 보기 위해 6만명 정도가 라스베가스로 몰려온다
10 월	The Las Vegas PGA Classic	10월 6~12일 골프 (Las Vegas International PGA Golf Tournament) 대회가 열린다. 시내 3곳의 골프장 (Tourna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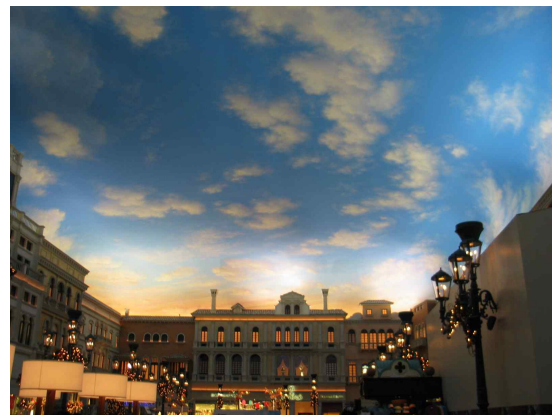
	골프 대회	Players Club at Summerlin / the Southern Highlands Golf Club / Tournament Players Club at The Canyons)에서 열린다.
	Columbus Day	10월 2번째 월요일 : 미 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 기념일 공휴일인 콜럼버스 데이 때에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온다
	RE/MAX WLDC (World Long Drive Championship) 골프 대회	10월 하순경에 Mesquite (메스킷)에 있는 Palms Golf Club에서 열린다. 세계각지에서 몰려든 200명의 장타꾼들이 벌리는 골프 대회이다. 상세한 안내는 웹 사이트 www.longdrivers.com 을 참조하면 된다.
	Annual ACDelco Las Vegas NHRA Nationals 대회	Las Vegas Motor Speedway 경기장에서 개최한다. 이 대회를 보기 위해 7만명 정도가 라스베이거스로 구경온다. 안내 웹 사이트는 www.lvms.com 이다.
	Daylight Saving Time ends	10월 마지막 일요일 : 섬머 타임 종료일 이다
	Las Vegas Comedy Festival	코미디 경연대회가 열린다.
	할로윈(Halloween) 데이	매년 10월 31일에는 라스베이거스의 그 많은 나이트클럽이 비좁다. 주말에 할로윈 데이가 걸리면 방 구하기도 어렵다.
11 월	자동차 관련 품목 전시회 (AAPEX)	샌즈 엑스포에서는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에서는 SEMA 전시 행사 가 열린다.
	Veteran's Day	매년 11월 11일이다.
	Pagenet LPGA Tour 골프(Golf) 대회	Desert Inn Golf Club에서 열린다.
	NASCAR Craftsman Truck Series Race 대회	자동차 경주장에서는 트럭으로 경기가 열린다.
	Aviation Nation 이라는 Air Show	11월 중순 라스베이거스 인근의 공군기지인 Nellis Air Force Base에서 한다. 참가하는 방법은 The Las Vegas Motor Speedway 에 차를 파킹(무료)하고, 벨리스 공군기지까지는 셔틀버스(무료)가 운행된다. 물론 관람료도 무료이다.
	The Gift of Lights 행사	11월 중순부터 ~ 다음해 1월 초까지 열린다.
	추수 감사절 (생쓰 기빙 데이 /Thanksgiving Day)	11월 4 번째 목요일인 이때부터 주말 연휴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가족단위로 레스토랑에 뭐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다.
12 월	로데오 (NFR / National Finals Rodeo) 경기	12월 초순에서 중순까지 말 타고 염소를 빨리 잡는 것 / 말 타고 오래 견디는 것 등을 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라스베이거스 시내를 돌아다니는 사람이 많다. 또 이 행사 기간 동안에 COWBOY CHRISTMAS GIFT SHOW 도 열린다.
	NEVADA OPEN 골프 대회	12월부터 다음해 1월 까지 있다. 장소는 시내에서 좀 떨어진 메스킷의 CasaBlanca Golf Club (카사블랑카 골프장) , Oasis Golf Club(오아시스 골프장) , 그리고 Palms golf course (팜스 골프장) 이다. 대회일정은 Senior Open (12월 중순), Men's Open (12월 하순) 그리고 Women's Open (1월 초순) 이다.
	라스베이거스 국제 마라톤 대회 (Las Vegas International Marathon)	매년 12월에 열린다. 9,000 명 이상의 마라톤 경기 참가자들이 풀코스(42 Km) 와 하프 코스 (21 Km) 또 5인이 한 조가 되어 뛰는 릴레이 경기까지 각 레이스별로 경기를 펼친다. 안내 웹 사이트는 http://www.lvmarathon.com . 이다.
	Wendy's Three Tour Challenge 골프 대회	PGA Tour &Senior PGA Tour &LPGA Tour 의 3개의 골프 경기가 Dragon Ridge CC 에서 열린다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이 되면 가족단위로 놀러와 연말까지 보내고 가는 사람들이 많다.

	12월 31일 자정 불꽃놀이	시내 호텔이 많은 라스베가스 부로바드 길을 저녁부터 차가 못 다니게 막아 놓고는 신나는 축제같은 행사를 하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서 한해를 보내고 또 다른 새해를 맞이하는 행사를 한다. 많은 호텔에서 일정 금액의 돈만 내면 술은 무한정 마실 수 있는 파티를 한다.
--	-----------------	--

⑥ 관광객을 유인하는 편리하고 매력적인 관광기반시설을 구축

□ 세계적 명성의 다운타운가 숙박시설, 카지노 등 입지

- 라스베가스에는 수많은 호텔 및 모텔이 라스베가스 전역에 걸쳐 분포되어 있음. 취향과 예산에 맞춰 알맞은 숙박시설을 선택. 세계에서 제일 많은 120,000개의 객실이 라스베가스를 찾은 관광객을 수용하고 있음
- 전 세계에서 가장 큰 10대 호텔 중 8개의 호텔은 스트립(The Strip) 지역에 분포. 시저스 팰리스(Caesars Palace), 미라지(The Mirage), 서커스 서커스 호텔(Circus Circus Hotel) 및 플라밍고 라스베가스(Flamingo Las Vegas) 등과 같은 고전적인 호텔들이 이곳에 위치하고 있음
- 최근에는 쇼핑 및 고급 식당을 겸비한 파리스 라스베가스(Paris Las Vegas), 벨라지오(Bellagio) 및 베네시안 리조트 호텔(Venetian Resort-Hotel-Casino) 등이 각광을 받고 있음. 시내 지역에는 비교적 저렴한 호텔 및 모텔들이 있음. 골든 너겟(Golden Nugget), 메인 스트리트 스테이션 호텔(Main Street Station Brewery & Hotel) 및 Binion's Horseshoe 호텔 등이 여행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음.
- 또한, 자동차의 천국이라 불리는 미국, 최고의 관광지인 라스베가스에는 그 이름에 걸맞는 수많은 캠핑장소가 있음. 레저용 차량, 트레일러와 같은 캠핑차량으로 여행하며 숙박하기를 원하는 여행객들을 위한 다양한 장소가 마련되어 있음. 전기, 수도 및 기타 편의시설을 갖춘 캠핑 장소에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라스베가스를 만끽할 수 있는 실용적인 숙박시설임.
- 이 밖에도 타임쉐어 숙박시설은 일종의 콘도미니엄처럼 휴일이나 휴가 때 숙박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 지분을 소유하는 형태로서, 직접 혹은 각종 포인트 클럽을 이용하면 다양한 타임쉐어 숙박시설을 선택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타임쉐어 숙박시설들은 일반 호텔이나 모텔보단 훨씬 좋은 시설을 완비하고 있음.

- 또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레저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원룸형태에서부터 3개의 침실, 화장실, 라운지 및 주방을 갖춘 숙박시설에 이르기까지 소비자의 기호화 예상에 맞춰 다양하게 고를 수가 있음. 라스베가스 전역에는 타임쉐어를 원하는 여행자를 위한 수많은 숙박시설이 있음.
- 라스베가스에서의 게임은 전통적인 카드놀이, 주사위 게임, 스포츠 게임, 슬롯머신과 유럽과 아시아에서 들여온 이국적인 게임들을 포함한 다양한 게임들은 모두 네바다 주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임.
- 이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게임은 슬롯머신으로 맥카란 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마주치게 됨. 또한 네트워크로 연결된 슬롯머신에선 수백 만 달러의 잭팟을 터트릴 수도 있음. 네바다 주 곳곳의 카지노에 네트워크로 연결된 700개 이상의 슬롯머신에 동전이 투입될 때 마다 잭팟의 배당금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됨. “메가벅스(Megabucks)”라고 명명된 이 슬롯머신 네트워크는 최근 3천9백7십만 달러가 터지기도 하였음.
- 라스베가스에서는 슬롯머신 이외에도 빙고게임, 블랙잭, 케노게임, 포커게임, 룰렛 등 다양한 게임이 여러분을 맞이하고 있음.

□ 세계 최상의 볼거리가 있는 구겐하임 허미티지의 문화시설

- 1998년 스티브 윈(Steve Wynn)은 벨라지오(Bellagio) 호텔에 아트 갤러리를 개장하여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함. 비평가들의 비평에도 불구하고 Bellagio Gallery of Fine Art 가 라스베이거스에 문을 열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환영함. 이제 라스베이거스는 문화의 중심지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음.
- 2001년 10월에는 구겐하임 허미티지(Guggenheim Hermitage)가 베네치안 리조트 호텔(Venetian Resort Hotel Casino)에서 개장함. 이는 러시아 St. Petersburg의 State Hermitage 박물관과 뉴욕의 Solomon R. Guggenheim 재단의 공동 협력으로 탄생한 것임.
- 스티브 윈은 이전의 데저트 인 호텔(Desert Inn Hotel) 자리에 건설중인 Le Reve의 The Wynn



Collection에서 피카소, 반 고흐와 마티스의 걸작품들을 포함하여 자신의 소장품을 전시하고 있음.

- 여행객들은 라스베이거스만의 독특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으며 게임 산업과 역사적 장소로서의 라스베이거스에 대해서도 알 수 있음.
- 전설적인 엔터테이너인 Liberate와 그의 삶의 궤적을 살펴보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Liberace Museum은 꼭 들러보아야 할 박물관임. 그의 화려한 보석과 의상,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아노와 희귀 자동차 등과 같은 값진 보물들이 전시되어 있음.
- 라스베이거스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Neon Museum에는 다양한 네온사인들이 전시되어 있음. 실내 전시장도 곧 개장할 예정이며, 프리몬트 스트리트(Fremont Street)에 전시된 멋지고 화려한 네온사인도 감상할 수 있음.
- 라스베이거스의 특징인 게임 산업의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는 Casino Legends Hall of Fame은 트로피카나 호텔(Tropicana Hotel & Casino)에 위치하고 있으며 각종 게임, 카지노 및 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된 모든 것이 망라되어 전시되어 있음.

□ 최신의 스파와 헬스의 휴양시설로 관광객 휴식활동 제공

- 라스베가스과 그 주변지역에는 30개 이상의 스파 시설이 있음. 수많은 호텔 카지노만큼이나 다양한 스파 시설에서는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쉴 수 있음. 라스베가스의 스파 시설에서는 스웨덴식 마사지를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로 피곤에 찌든 몸과 육체를 편안하게 해 줌. 각종 약초 목욕, 향기 요법 및 증기탕, 사우나에서 피곤을 풀뿐만 아니라 최신식 미용시설에서는 멋진 스타일을 가꿀 수도 있음.
- 일부 리조트에서는 전문가들이 영양과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조언도 해주고 있으며, 최신식의 헬스기구를 완비해 놓고 있음. 미국 10대 리조트 스파 중 하나인 베네시안의 캐니언 랜치 스파클럽(The Canyon Ranch SpaClub)은 65,000평방피트의 공간에 자리잡은 최신의 시설로서, 스킨케어 및 바디 트리트먼트가 가능하며 다양한 건강관련 시설에서 건강에 좋은 요법들을 경험할 수 있음.
- 알라딘 리조트의 엘레미스 스파(Ellemis Spa)는 32,000 평방피트에 달하며, 35개의 치료실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요법으로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 수 있는 최고의 공간임. 이국적인 WI스민 목욕 마사지만만 아니라 모로코식 목욕도 즐기실 수 있음. 전문 트레이너의 조언과 함께 헬스클럽에서 좋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음.
- 최근 재단장을 마친 리오 스파(Rio Spa)는 화려하고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다섯 가지 유형의 다양한 마사지, 월풀, 스팀 룸, 사우나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마이클 살롱(Michael's Salon)에서는 피부미용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라플린(Laughlin) 지역의 클럽 필립(Club Philipe), 리버 팜스 스파(The River Palms Spa), 그리고 메스킷(Mesquite) 지역의 카사블랑카 스파(CasaBlanca Spa)와 오아시스 리조트 카지노 스파(The Oasis Resort Casino Spa)에서도 긴장과 스트레스를 맘껏 풀 수

있음.

□ 세계적이고 전설적인 골프장과 다양하고 인기있는 레저스포츠 활동 가능

- 골프는 라스베가스의 또 다른 자랑거리임. 세계적 수준의 전설적인 골프 코스에서 멋진 라스베가스의 풍경을 감상하면서 즐기는 코스에 이르기까지, 매년 수많은 여행객들이 라스베가스에서 골프를 즐기고 있음.
- 서던 네바다의 기후 덕택에 연중 골프를 즐길 수 있으며 라스베가스와 그 주위에만 60곳의 골프장이 있음. 잭 니클라우스(Jack Nicklaus)와 아놀드 파머(Arnold Palmer), Tom Weiskopf, Pete Dye, Perry Dye 그리고 Robert Trent Jones Jr.와 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골퍼들과 골프코스 디자이너들에 의해 개발된 멋진 골프 코스들이 라스베가스를 찾는 방문객들을 유혹하고 있음.
- 타이거 우즈나 전 미국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 그리고 미국 농구 스타인 마이클 조던 같은 유명한 프로 및 아마추어 골퍼들이 라스베가스의 골프장을 찾고 있음.
- 또한 라스베가스는 매년 PGA 투어 Invensys Classic at Las Vegas와 Wendy's Three-Tour Challenge 와 같은 국제적인 골프 경기를 포함하여 수많은 국내, 국제적 경기들을 개최하고 있음.
- 골프를 배우고자 하는 방문객들을 위하여 5개의 골프 스쿨이 있으며, 이중 Butch Harmon School of Golf 는 골프 매거진이 뽑은 최고 100대 강사로 선정되었음. 그 밖에도 골프 매거진이 선정한 미국 최고의 25 곳의 골프 스쿨의 한 곳인 Resort Golf Schools 및 Ken Venturi Golf Academies, John Jacobs Golf Schools 및 Giant Golf Academy 가 있음.
 - 배들랜즈 골프 클럽(Badlands Golf Club) ; 조니 밀러(Johnny Miller)와 치치 로드리게스(Chi Chi Rodriguez)에 의해 설계된 이 골프 클럽은 라스베가스 최초의 27홀 퍼블릭 코스이며 골프 다이제스트 매거진에 의해 라스베가스 10대 골프 코스에 선정되었음.
 - 발리 하이 골프 클럽 (Bali Hai Golf Club) ; 라스베가스 스트립의 남쪽에 위치한 이곳은 거대한 야자수와 화강암으로 장식된 페어웨이가 남태평양의 섬과 같은 분위기를 가진 클럽임.
 - 베어스 베스트 (Bear's Best) ; 골프계의 전설인 잭 니클라우스에 의해 설계된 이곳은



몬타나에서 멕시코에 이르는 코스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멋진 잭 니클라우스의 18개의 홀을 경험할 수 있음.

- 레가시 골프 클럽 (Legacy Golf Club) ; 아서 힐(Arthur Hill)이 설계한 이 골프 클럽의 10번 홀에는 카드에 있는 스페이드, 클럽, 다이아몬드, 하트 등의 모양을 한 티 박스가 있는 것이 특징임.
- 페인티드 데저트 (Painted Desert) ; 사막 식물들을 특징으로 한 라스베가스 최초의 사막 스타일 골프 클럽임.
- 리플렉션 베이 골프 클럽 (Reflection Bay Golf Club) ; 라스베가스 스트립으로부터 17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 골프 클럽은 잭 니클라우스가 설계한 18홀 코스이며 매년 Wendy's Three-Tour Challenge 경기를 개최함.

[표] 라스베가스 주요 골프장 현황

번호	골프장 이름	이용료(Green Fee)	참 고 사 항
01	Angel Park Golf Club - Mountain 코스	\$65 ~ \$165	
01	Angel Park Golf Club - Palm 코스	\$65 ~ \$165	
	Angel Park Golf Club - Cloud Nine	\$9 ~ \$17 ~ \$27	연습용 코스임
02	Badlands Golf Club	\$75 ~ \$135 ~ \$200	
03	Bali Hai Golf Club	\$175 ~ \$195 ~ \$295	
04	Bear's Best Golf Club		
05	Black Mountain Golf &Country Club	\$30 ~ \$45 ~ \$80 ~ \$100	핸드선
06	Callaway Golf Center	\$9 ~ \$20	(Par 3)
07	CRAIG RANCH GOLF COURSE	\$17 ~ \$26	초보자에게 적합함
08	Desert Inn Golf Club	\$150 ~ \$200	Wynn Las Vegas 골프장
09	Desert Pines Golf Club	\$75 ~ \$175 ~ \$ 200	
10	Desert Willow Golf Club	\$41 ~ \$49	핸드선
11	Desert Rose Golf Club	\$50 ~ \$70	
12	EAGLE CREST GOLF CLUB	\$30 ~ \$60	Semi-Private
13	Falls at Lakes Las Vegas		
14	HIGHLAND FALLS GOLF CLUB	\$60 ~ \$105	Semi-Private
15	Las Vegas Golf Club	\$25 ~ \$35 ~ \$50 ~ \$100	
16	Las Vegas National Golf Club	\$85 ~ \$135 ~ \$185	
17	Las Vegas Paiute	\$70 ~ \$175	
18	Legacy Golf Club	\$25 ~ \$65 ~ \$170	핸드선

19	LOS PRADOS GOLF COURSE	\$35 ~ \$45	
20	NORTH LAS VEGAS GOLF COURSE		
21	Painted Desert Golf Club	\$60 ~ \$80 ~ \$150	
22	PALM VALLEY GOLF CLUB	\$40 ~ \$55	
23	Reflection Bay Golf Club	\$190 ~ \$210	핸드선
24	Revere at Anthem Golf Club	\$150 ~ \$180	핸드선
25	Rhodes Ranch Golf Club	\$55 ~ \$75	
26	Rio Secco Golf Club		
27	Royal Links Golf Club	\$135 ~ \$175	
28	Shadow Creek Golf Club	\$500 ~ \$1000 이상	MGM-Mirage VIP 손님 전용
29	Siena Golf Club		
30	SilverStone Golf Club		
31	SUNRISE VISTA GOLF CLUB		
32	TPC at The Canyons	\$180 ~ \$240	
33	Tuscany Golf Club		
34	Wildhorse Golf Club	\$85 ~ \$115	
35	Wynn Country Club	\$500	원(Wynn)호텔의 골프장
36	ANTHEM COUNTRY CLUB		
37	CANYON GATE COUNTRY CLUB		멤버 쉽
38	DRAGONRIDGE GOLF CLUB	\$95 ~ \$115 ~ \$200	핸드선
39	LAS VEGAS COUNTRY CLUB		
40	RED ROCK COUNTRY CLUB		Private골프장임
41	SOUTHSHORE GOLF CLUB AT LAKE LAS VEGAS RESORT		
42	SOUTHERN HIGHLANDS GOLF CLUB		
43	SPANISH TRAIL COUNTRY CLUB		
44	Stallion Mountain Country Club	\$95 ~ \$225	
45	TPC AT SUMMERLIN (Private)		Private골프장임
46	BOULDER CITY GOLF COURSE	\$50	
메스킷 (Mesquite) 에 있는 골프 코스			
47	CasaBlanca Golf Club	\$35 ~ \$110	
48	Desert Lakes Golf Club		
49	The Oasis Golf Club	\$125 ~ \$135	
50	The Palms Golf Club		
51	The Vistas Golf Club		

52	Wolf Creek at Paradise Canyon		
라프린(laughlin) 에 있는 골프 코스			
53	Emerald River Golf Course		
54	Mojave Resort Golf Club		
프라이م(Primm) 에 있는 골프 코스			
55	Primm Valley Golf Club - Desert Course		
56	Primm Valley Golf Club - Lakes Course		
기타 (퍼람 / 데쓰벨리) 골프장			
57	FURNACE CREEK GOLF CLUB		데쓰 벨리에 있는 골프장
58	Willow Creek Golf Course in Pahrump		퍼람에 있는 골프 장
골프 학교			
59	Rio Secco Golf Club에 있는 Butch Harmon School of Golf		
60	Callaway Golf Center		
61	Desert Pines Golf Center		
62	Callaway Golf Center에 있는 Giant Golf Academy		
63	SilverStone Golf Club에 있는 Golf Digest Schools		
64	시내에 있는 골프 전문 학교인 John Jacobs Golf Schools		
65	Badlands Golf Club 에 있는 Ken Venturi Golf Academies		
66	Las Vegas National Golf Club에 있 는 Ken Venturi Golf Academies		
67	Legacy Golf Club 에 있는 Resort Golf Schools		
68	엔젤 파크 골프장에 있는 골프 학교		

[그림] 골프장 위치 지도



- 주변에 연계된 비행기 투어로 그랜드 캐니언(Grand Canyon)과 후버 댐(Hoover Dam)으로 버스, 비행기, 헬리콥터, 지프, 또는 래프팅을 이용하여 출발하는 100여 개 이상의 투어가 있음.
- 헬리콥터, 비행기, 버스를 이용하여, 후버 댐(Hoover Dam), 그랜드 캐니언(Grand Canyon)과 그 밖의 지역으로 출발하는 투어들이 있음. 매일 출발하는 그랜드 캐니언(Grand Canyon)을 돌아보는 항공 여행이 있음. 항공과 지상 투어는 점심, 가이드 그리고 호텔까지의 교통편을 포함하고 있음.

□ 스릴 넘치는 최신의 테마파크(주제공원)와 놀이시설을 연중 오픈

- 어드벤처돔 테마 파크 서커스 서커스 호텔, 카지노 & 테마 파크캐니언 블래스터(Canyon Blaster), 더블루프 롤러코스터, 카오스(Chaos), 인버터(inverter) 와 림 러너(Rim runner) 그리고 실내 프룸 라이드(Indoor Flume ride) 같은 놀이 기구들을 포함하여 돔으로 된 테마 파크 안에 스릴 넘치는 다양한 기구들이 있음.

-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빠른 롤러코스터 중에 하나인 데스페라도(Desperado)와 자유 낙하를 경험할 수 있는 터보 드롭(Turbo Drop) 같은 놀이기구 등이 있음.
- 시네마 라이드 시저스 팰리스는 시저스 팰리스의 포럼 숍(Forum Shops)에 위치하며(스트립으로 향하는 출입구가 아래층에 있음), 아틀란티스 서브마린 레이스(Atlantis Submarine Race), 갈락틱 플라이트(Galactic Flight), 혼티드 그레이브야드 런(Haunted Graveyard Run), 코스터 크레이지(Coaster Crazy), 런어웨이 코스터스(Runaway Coasters) 그리고 워렌 밀러가 제작한 새로운 “스키 라이드 - Ski Ride” 등 6개의 다른 3D 모션 시뮬레이터 어드벤처가 있음.
- 라스베이거스 미니 그랑프리는 4개의 흥미로운 고카트 트랙(Go-Kart Track)들과 놀이 기구들, 7,000 평방 피트 규모에 달하는 레스토랑·파티룸, 아케이드 등의 시설이 있으며, 연중 오픈하고 있음.
- 맨하탄 익스프레스 뉴욕 뉴욕 호텔 & 카지노는 궤도를 따라 달리면서 꼬이고, 공중제비를 돌고, 땅으로 돌진하는 듯한 스릴을 느낄 수 있는 롤러코스터가 있음.
- 스피드 월드 사하라 호텔 & 카지노는 라스베이거스에서 가장 빠른 롤러코스터 스피드-더 라이드(SPEED The Ride)와 최신식의 게임센터가 있음. 가상현실의 레이싱 시뮬레이터인 라스베이거스의 사이버 스피드웨이와 세계에서 가장 큰 경주용차(stock car)인 카질라(Carzilla)가 있음. 이곳에는 또한 순 미국식의 식사를 제공하는 400석의 레스토랑을 포함하여, 식사와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는 컴플렉스인 나스카 카페(NASCAR Cafe)와 나스카 카페 레이스 웨어 숍(NASCAR Cafe Race Wear Shop) 이 있음.
- 스타트랙은 더 익스피어리언스 라스베이거스 힐튼에 재현된 U.S.S 엔터프라이즈호에서 배우들과 함께 우주 공간에서 모션 시뮬레이터로 외계인들과 전쟁을 하는데, 최대 수용 인원은 1,500명임.
- 스트라토스피어 타워 호텔 & 카지노 스릴 라이드는 모든 놀이 기구는 900 피트 높이의 스트라토스피어 타워 꼭대기에 위치해 있음. 3개의 익스트림 스릴 라이드는 하이 롤러 코스터(The High Roller Coaster), 빅샷(The Big Shot) 그리고 엑스 스크림(X Scream)이 있음.
- 엑스 스크림은 8개의 좌석을 갖춘 라이드로서, 69 피트 램프를 따라 시간당 30마일의 속도로 급작스럽게 내 달리다가 타워에서 26 피트 상공, 지상으로부터는 866 피트 상공에서 갑자기 멈출 때까지 내달리는 오픈 롤러 코스트임. 꼭대기에서 내려다보이는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경치와 자유 낙하의 흥분은 라이드에 들뜬 기분을 더해줌. 현재 엑스 스크림은 3번의 낙하를 하나, 그 빈도는 더 많아질 수 도, 더 줄어들 수도 있음. 이에 더하여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컴퓨터는 100가지의 다른 종류의 낙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각각의 낙하마다 라이더들이 느끼는 흥분의 강도를 다르게 할 수도 있음.
- Venetian Resort - Hotel - Casino는 5개의 각각 다른 3D 모션 어드벤처 라이드, 즉 버추얼 곤돌라 라이드(Virtual Gondola Ride), 신비로운 베네치안 카니발(Venetian Carnival), 투탄카멘 왕의 무덤으로의 시간여행(Time Travel to King Tut's Tomb)과 수

중 모험 그리고 우주로의 여행 등이 2개의 스크린에 상영됨.

⑦ 정주시설로 고급 주택 가족 중심의 주거단지 개발 추진

□ 주거단지 개발 개요

- 라스베가스시 외곽에 골프장을 중심으로 고급주택이 모여 있는 계획화된 주거단지인 섬머린(Summerlin) 뉴타운 지구가 조성되어 있음
- Howard Hughes Corporation이 2020년 완공을 목표로 1990년부터 개발을 시작한 지역으로 각종 시설을 master plan에 따라 조성하고 있음
- 1980년대 말 이전까지 주거조건이나 삶의 질 차원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도시에서 Summerlin은 주거단지(communitiy)의 개념을 재설정하여 건설하고, 가족 중심적이며, 즐거움을 지향한 종합계획 주거단지로 개발
- 이 지구에는 각각의 특성이 있는 20개의 공원, 8개의 골프클럽, Community College of Southern Nevada's High Tech Center, Le Cordon Bleu College of Culinary Arts Las Vegas 등의 고급교육 시설, Nevada Cancer Institute, Summerlin Hospital Medical Center 등 의료시설이 소재하고 있음

□ 개발 및 발전 특성

- 라스베가스는 처음부터 관광도시를 목표로 개발되지는 않았지만 관광레저기능만으로도 대도시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는 좋은 사례임
- 라스베가스의 도시발전은 네 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
 - 1단계 : 첫 번째 단계는 도시탄생 이후 1940년대 초반까지로 도박의 합법화 및 후버댐의 건설로 특징되는 시기로써, 인구가 급증하고 투자자금이 집중하면서 도심인 프레몬트가(Fremont street)를 중심으로 카지노 산업이 번성하였고, 도시 경계 밖의 고속도로변, 즉 스트립(the Strip) 지구에 리조트 호텔이 건설되기 시작
 - 2단계 :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로 벤처자본의 투자 증가 및 마피아 자금의 유입이 특징적인 시기로 이전 단계의 도시발전이 연방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출의 결과라면, 이 단계에서의 발전은 도전적 벤처 기업가와 마피아 자금의 유입에 의한 것이었으며, 스트립 지구를 중심으로 플라밍고 호텔 등 대단위 카지노 호텔이 공연장과 회의시설을 갖춘 종합리조트시설로 본격 건설되었고 할리우드 스타 및 유명 연예인들의 대규모 공연과 프로복싱 등 스

포츠 경기 등을 개최함으로써 도박뿐만 아니라 쇼와 스포츠, 회의의 도시로 인식되기 시작

- 3단계 : 196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의 대기업 자본의 유입으로 특징되는 시기로써, 1969년 기업게임법(the Corporate Gaming Act)이 통과되면서 대규모 자본을 가진 기업들이 진출하기 시작함에 따라 과거 30년 이상 라스베가스를 지배해왔던 마피아들이 사라지게 되었고 리조트호텔의 규모도 점점 대형화
- 4단계 : 1980년대 말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시기로서, 객실규모가 3,000실이 넘는 메가 리조트의 출현 및 새로운 라스베가스의 출발이 특징이며, 성인 중심의 카지노 도시에서 모든 연령층을 감안한 가족 중심의 엔터테인먼트 도시로, 그리고 연간 4,000회 가량의 전시 및 회의가 개최되고, 전체 방문객 4,000만여 명 가운데 70%가 '사업 목적'으로 방문하는 비즈니스 도시로 발전(갬블을 주목적으로 라스베가스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4%에 불과)

□ 개발의 성과

- 라스베가스는 다른 유수의 관광도시와는 달리 역사적 유적이나 수려한 자연풍광을 갖추지 못한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호텔과 카지노, 컨벤션센터 등을 구비한 세계관광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카지노만이 아니라 호화 스테이지쇼, 고급브랜드에서 아울렛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쇼핑물, 최고급 레스토랑, 어트랙션 시설 및 각종 스포츠 시설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도시 전체가 종합적인 엔터테인먼트 테마파크로서 관광객 한명 한명에게 즐거움을 제공
- 1970년에 이미 679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했고, 10년마다 거의 2배씩 증가하여 2004년에는 3,739만 명이 라스베가스를 방문하였으며 이들이 소비한 지출규모는 더욱 큰 폭으로 증가. 1970년 12억불에 불과하던 관광객 지출규모는 2004년 337억불로 증가

[표] 라스베가스의 인구, 관광객 및 지출규모

연도	인구(명)	관광객(명)	지출규모(백만\$)	인구 1인당 관광객 수(명)	1인당 지출규모(\$)
1970	125,787	6,787,650	1,183	54	174
1980	164,674	11,941,524	4,776	73	400
1990	295,805	20,954,420	14,321	71	683
1995	368,360	29,022,122	20,687	79	713
2000	478,434	35,849,691	31,462	75	878
2004	534,847	37,388,781	33,724	70	902

[출처] U.S. Census Bureau(인구), Las Vegas Convention & Visitors Authority(관광객 및 지출규모)

- 라스베가스는 재방문객이 많은 관광도시
 - 라스베가스 관광국의 조사에 따르면, 숙박관광객이 99%를 점유할 뿐만 아니라 라스베가스를 처음 방문하는 관광객은 19%에 불과하고, 최근 5년 동안의 평균 방문회수는 6.5회(Las Vegas Convention & Visitors Authority, 2005)로 기록
- 저렴한 주택가격, 낮은 세율, 상대적으로 낮은 범죄율,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시설, 그리고 따뜻한 기후조건 등을 고루 갖춘 라스베가스는 새로운 생활을 꿈꾸는 미국인들에게 현재 제2의 캘리포니아로 불리고 있음

3. 로스엔젤레스(L.A)의 디즈니랜드와 할리우드 : 세계 최대의 영화와 관광산업의 문화관광도시

1] 로스엔젤레스의 지역개관 : 영화와 관광산업이 LA 경제 견인차 역할

□ 서해안의 아름다운 해변을 갖고 있는 도시

- 로스엔젤레스는 총면적 4천 83평방 마일이며 주변은 95개의 도시로 이루어져 있고 인구가 1,300만 명에 이르는 미국에서 가장 큰 도시임. 연중 대체로 온난한 아열대성의 기후와 청명한 날씨, 아름다운 자연 경관, 끝없이 펼쳐진 해변을 갖고 있는 아름다운 도시임.
- 남부 캘리포니아주 해변을 따라 쪽 뻗어 있으며, 시내 중심가로부터 80km까지도 시에 포함되는 광대한 지역임. 따로 떨어진 작은 도시들은 제각기 개성이 살아 있으며, 도시 사이에는 공통점 없이 서로 연결되어 LA를 이루는 형태임. 관광 포인트 역시 넓게 흩어져 있음. 기후는 1년 내내 온난하고 쾌적하다. 6월부터 10월은 거의 우리나라의 여름과 같은 기온이지만 온도가 낮고 지내기가 편함.



[표] 로스엔젤레스 기온현황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최고기온	18	19	20	22	23	25	28	29	28	25	23	19
최저기온	7	8	9	11	13	15	16	17	16	13	11	9
일조일수	7	8	9	8	9	9	11	11	9	7	8	8
강조일수	4	3	4	9	1	0	0	0	0	1	3	4

- Los Angeles란 어원은 스페니쉬로 'The Angels'을 의미함. 1769년 스페인의 탐험가 가스파르데 포르톨라에 의해 '천사의 여왕의 마을'(The Town of Our Lady the Queen of Angels of the Little Portion)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로스엔젤레스는 원래 아메리칸 인디언이 이곳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1839년 멕시코 주지사 Alvarado에 의해 모든 주

민을 멕시코인으로 편입하였고 이에 불응하는 모든 사람을 추방되었음. 1846년에 시작된 멕시코전쟁에 의하여 1847년 로스엔젤레스는 미국에 편입되었음 .

- 1848년 1월 24일 엘도라도(El Dorado)에서 발견된 금을 시발점으로 시작된 골드러시(Gold Rush)와 1869년 새크라멘토(캘리포니아 주의 주도)와 동부를 잇는 대륙 횡단 철도가 완공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동부로부터 서부로 이주하였음. 1892년에 로스엔젤레스 북부지역에서 석유발견과 함께 생산을 시작하였음. 광활한 평야와 온화한 기후, 비옥한 토지 등의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로스엔젤레스는 인구증가에 힘입어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었음.



□ 무역과 서비스, 영화와 관광산업이 최대 산업으로 부상

- 1914년에 개봉된 'The Birth of a Nation'의 성공은 로스엔젤레스를 세계적인 영화의 중심지로 만드는 계기가 되었음. 건조한 기후로 필름 보관이 용이했으며, 우수한 인적자원, 영화제작을 위한 자연적인 조건은 영화사를 할리우드로 모여들게 하였음. 롱비치 항구는 1914년 파나마 운하의 개통으로 태평양을 잇는 운송의 요지로 자리잡게 되었음. 1917년에 파사디나에서 로스볼(현재 매년 1월1일에 전국으로 퍼레이드 및 풋볼게임이 방송되는 대규모 행사임)이 시작되었으며, 1932년에 제10회 올림픽게임에 이곳에서 열렸음.
- 로스엔젤레스의 기반이 되었던 농업, 제조업, 재래식 군수산업의 비중이 퇴조하면서 첨단 군수산업, 광고, 금융, 컴퓨터 산업, 무역 및 서비스업 등이 최대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음. 또한 세계 최대의 영화산업과 관광 사업이 LA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음.
- 눈부시게 빛나는 태양의 축복이 넘치는 도시가 로스엔젤레스임. 120여 년 전에는 황무지에 불과했던 곳이 광산, 영화, 자유 등의 꿈과 희망을 찾아 몰려든 사람들로 지금은 미국 제 2의 도시로 성장했음. 할리우드와 디즈니랜드로 대표되는 대규모 관광 중심지뿐만 아니라 코리아타운이 있음

② 기존 행정중심지에 문화와 레저가 있는 새로운 다운타운 탄생

□ 새로운 레저타운, 새로운 다운타운

- 시청이나 재판소등을 중심으로 도시 기능이 집약된 비즈니스 거리가 다운타운임. 이곳이

최근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확장하여 새로운 레저 타운으로 새 단장을 하고 있음. 이미, 연극이나 음악을 즐길 수 있는 뮤직 센터,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스테이플즈 센터, 수많은 콘서트가 개최되는 월트 디즈니 콘서트 홀 등 새로운 시설이 잇달아 등장하는 곳으로 다른 새로운 다운타운으로 탄생하고 있음.

- 스테이플즈 센터 (Staples Center)
- 리틀도쿄 (Little Tokyo)
- 월트 디즈니 콘서트 홀(Walt Disney Concert Hall) 등

Los Angeles DownTown



고층 빌딩이 숲을 이룬 LA의 도심. 서북쪽에서 남동쪽으로 8개의 도로가 나 있고 북쪽으로부터 7번째인 7번가에는 수많은 은행과 기업·호텔·백화점 등이 즐비하게 서 있다. 중심은 다운타운을 남북으로 꿰뚫는 브로드웨이(Broadway). 관광 포인트는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차이나타운·시빅 센터·리틀 도쿄로 이어진다. 브로드웨이 주변은 화려한 극장들이 즐비하던 옛 모습을 잃은 상태로, 피거로(Figueroa St.)와 그랜드 애비뉴(Grand Ave.)를 포함하는 서쪽의 금융가와 남쪽인 1번가(1st. St.)의 쇼핑 지역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다운타운 관광은 걸어서 다니는 것은 무리이므로, 대시 버스나 투어 버스를 이용하는 편이 안전하고 편리하다.

차이나 타운 Chinatown



버너드(Bernard), 앨러메다(Alameda), 올드(Ord), 예일(Yale) 등의 네거리로 에워싸인 지역이다. 골드러시(Gold Rush)와 대륙횡단철도 건설의 노무자로서 대거 캘리포니아에 상륙한 중국인이 토대를 만든 곳으로, 본고장의 광둥요리를 즐길 수 있는 크고 작은 100여 개의 레스토랑과 민예품점이 즐비해 있다. 규모로는 1위인 샌프란시스코, 2위인 뉴욕에 이어서 3위. 한때는 범죄의 소굴이었던 이곳은 로만 폴란스키 감독의 <차이나타운>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2월 상순의 구정에는 성대한 축제 퍼레이드가 열려, 폭죽소리가 경쾌하게 귀를 두드린다. 관광의 중심은 뱀부 플라자와 파이스트 플라자이다. 수많은 선물가게와 식당도 있어 쇼핑과 간단한 요기를 할 수 있다.

올베라 스트리트 Olvera Street

LA에서 최초로 생겼다는 200m 남짓한 좁은 길. 벽돌을 깔 길 양쪽에는 멕시코 토산품점과 멕시코 요리점이 줄지어 서 있다. 관광객으로 늘 붐비는 탓에 항상 북적거리는 분위기. 쇼핑을 하든 요리를 먹든 이국의 멋과 낭만을 만끽할 수 있는 다운타운의 명소다. 올베라 스트리트 남쪽은 LA 발상지라는 엘 푸에블로 역사공원이다.



* 엘 푸에블로 역사공원(El Pueblo de LA Historic Park)



LA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인 올드 플라자 교회(Old Plaza Church)가 있는 주립역사공원. 공원 주변은 18세기 후반 이래 멕시코인들의 미국 정착지 역할을 해왔던 곳으로, 대도시 Greater LA의 최초발상지이기도 하다. 올드 플라자 교회 외에 미국·멕시코 전쟁 때 미국군이 진지로 사용했던 아빌라 애도브(Avila Adobe)와 피코 하우스, LA 최초의 극장인 메르세드 극장 등과 18세기 후반의 건물들이 있다.

시빅 센터 Civic Center

시청(City Hall)과 함께 연방(federal)·주(state)·군(county)·시(city)의 각 행정관청이 밀집한 지역. 단조로운 사무실건물들이 활기없어 보이지만, LA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행정심장부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하얀 건물은 LA 시청으로, 1928년에 세워진 32층 건물이다. 27층의 전망대는 할리우드를 비롯해 LA 시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즐거운 장소. 시청 정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22층에서 다시 전망대 전용 엘리베이터로 갈아타면 된다. 지하에는 몰(Mall)이 있어 쇼핑과 식사를 할 수 있다.

뮤직 센터 Music Center

1964년 완성된 연극과 음악의 전당으로 수준 높은 콘서트, 오페라와 발레 등이 항상 올려지고 있다. 위치는 시빅 센터의 서쪽. 남쪽에 있는 도로시 찬들러 퍼빌리온(Dorothy Chandler Pavillion)은 3200석 규모. 주로 콘서트 회장으로 사용되나 9월부터 6월까지 LA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공연이 계속된다. 또 매년 4월에 개최되는 아카데미상 수여식 장소로도 유명하다. 북쪽에 있는 아만슨 극장(Ahmanson Theatre)은 2100석 규모로 뮤지컬과 연극공연장으로 사용된다. 티켓은 각 극장이나 시내 예매점에서 살 수 있다. 콘서트 스케줄은 《LA Times》의 일요판이나 호텔 인포메이션 등에서 구할 수 있는 《LA Weekly》에 게재되어 있다.

유니언역 Union Station



다른 지역으로 연결되는 모든 열차가 출발하고 도착하는 곳. 미국 초기의 교회양식으로 1939년에 완성되었다. 열차가 일선에서 물러난 듯 보이는 자동차중심도시 LA에서 여전히 서부 주요도시와 동부를 잇는 서부의 현관 역할을 하고 있다. 대륙횡단열차를 위시해 샌프란시스코, 샌디에이고, 밴쿠버행의 앰트랙이 이곳에서 발착된다.

리틀 도쿄, 웰러 코트 Little Tokyo, Wellwe Court

해외의 일본인 거주지로서는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곳으로, 1884년 독일인 마을로 불리던 땅에 일본인 요리사가 살기 시작했던 것이 마을의 시초다. 제2차대전 중에는 폐쇄되었다가 전쟁 직후에는 흑인 슬럼화했던 곳을 일본인들이 다시 돌아와 재개발을 한 곳. 도시가 점점 개발되면서 1992년 일본계 미국인 기념관(Japanese American National Museum)도 개관하게 되었다. 쇼핑 몰과 호텔, 은행과 현대적인 빌딩이 들어서 있는 이곳의 관광 포인트는 뉴 오타니(New Otani) 호텔과 쇼핑센터인 웰러 코트가 있다.



현대미술관 (The Museum of Contemporary Art)

1986년 말 다운타운의 재개발 프로젝트에 따라 1%의 세금으로 개관했다. 현대미술관은 후기 인상파 무렵부터 전시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1940년대 이후의 현대미술만을 모아 놓은 것이 전위의 고장 LA답다. 가장 인상적인 멀티미디어 기념관을 비롯해 미국작가의 최신 조각과 회화를 감상할 수 있다. 뉴욕의 근대미술관(MOMA)에 비유해 이곳은 MOCA라고 애칭된다. 10블록 이상이나 떨어진 곳에 또 하나의 자매건물이 있다.

템퍼러리 콘템퍼러리 미술관 (Temporary Contemporary)

MOCA의 자매관으로 리틀도쿄 부근에 있다. 이전의 시경찰 창고를 개조해 만든 미술관으로, 전 시품은 MOCA와 같은 테마지만 공간이 넓고 천장이 높아 분위기가 조금 색다르다.

어린이 박물관(LA Childrens Museum)



박물관이라기보다는 이름 그대로 놀이터 같은 곳. 미니어처 집과 병원, 소방차 등이 미로처럼 준비해 어린이들이 실제로 사용하면서 도시 기능과 사회규범을 배울 수 있다. 어린이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것은 레코딩 스튜디오와 TV 스튜디오. 직접 캐스터가 되어 일기예보 등을 읽을 수 있다. 판토마임 코너와 얼굴에 직접 물감을 칠하며 노는 재미있는 코너도 있다.

□ 세계 최대 영화엔터테인먼트의 중심지 할리우드

- 세계 최대의 영화 관련의 시설이나 엔터테인먼트로 언제나 활기가 넘치는 곳이 할리우드임. 할리우드의 새 얼굴 할리우드 & 하이랜드, 2500 여명의 세계적인 영화배우와 뮤지션의 이름이 새겨진 할리우드 워크 오브 페임 (Hollywood Walk of Fame), 할리우드 엔터테인먼트 박물관 할리우드 밀랍 인형관 등 영화 팬들이 열광하는 다양한 즐거움이 가득함. 1998 년에는 이집트 극장과 할리우드 역사박물관이 새롭게 단장되었음. 또 유니버설 스튜디오 할리우드에서는 실제로 영화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음.

- 할리우드 & 하이랜드(Hollywood & Highland)
- 할리우드 워크 오브 페임(Hollywood Walk of Fame)
- 할리우드 엔터테인먼트 박물관 (Hollywood Entertainment Museum)

Hollywood

매력적인 LA를 한 마디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할리우드이다. 아메리칸 드림의 최고 집약지이자 지금도 끊임없이 영화가 촬영되는 이곳은 여행객들에게 가장 환영받는 곳이다.

맨스 차이니즈 극장 Mann's Chinese Theater



자동차 사회인 미국에서 눈길을 끌려면 건축이 눈에 띄어야만 한다는 이론을 최초로 내놓은 역사적인 건축물. 최신 영화를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영화개봉관이지만, 앞마당에 스타들의 손과 발 모양을 본뜬 부조를 보러 대부분의 관광객이 들르게 된다. 스타의 거리만큼 알려진 콘크리트 바닥에는 약 170여 명의 영화계 명사들의 상징물들이 자유분방하게 표현되어 있다.

스타의 거리 Walk of Fame

맨스 차이니즈 극장 앞을 중심으로 한 할리우드 블루버드의 보도. 영화·텔레비전 스타·유명 뮤지션의 이름이 새겨진 별 모양의 브론즈 2500여 개가 거의 5km에 걸쳐 보도에 깔려 있다. 브론즈판에 새겨진 각종 마크는 활동분야를 나타낸다. 촬영기는 영화, TV 세트는 TV, 레코드는 음악, 마이크는 라디오를 상징한다. 이곳에서 추억의 스타 이름을 찾아보면서 그들의 영화의 한 장면과 떠오르는 추억에 잠겨 볼 수 있다.



할리우드 왁스 박물관 Hollywood Wax Museum



미국인들이 무척 좋아하는 밀랍으로 만든 인형이 모여 있는 곳. 물론 인형은 영화·TV·팝 스타들의 모형.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클라크 케이블이라는 추억의 스타에서부터 팝 가수인 마이클 잭슨 등의 현역 스타까지 차례로 등장한다. 또 최신 공상과학·공포영화·아카데미상 수상자와 수상작을 다이제스트 판으로 소개하는 등 볼거리도 다양하다.

할리우드 스튜디오 박물관 Hollywood Studio Museum

1913년 데밀(DeMil), 골드윈(Goldwin), 제시 래스키(Jessy Lasky)가 영화사를 차려 데밀의 메가폰으로 만든 서부극 <스퀘 맨>(The Squaw Man)이 히트하자, 이 작품을 기념해 당시의 스튜디오를 현재의 장소로 옮겨온 것. 데밀이 촬영 때 사용했던 메가폰·영사기·오래된 포스터 등이 전시되어 있어, 초기 할리우드의 영화제작 광경을 관람할 수 있다. 작은 영사실에서는 초기 무성영화를 상영해 관광객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조지 페이지 박물관(George C. Page Museum of La Brea Discoveries) & 타르 피츠 박물관(La Brea Tar Pits)



약 3만 년 전의 포유류 화석을 볼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진기한 장소이다. 두 박물관이 있는 헨콕 공원(Hancock Park) 안에는 크고 작은 것을 합해 수십 개에 이르는 타르(tar) 습지가 있고 현재도 타르가 솟아오르고 있다. 타르는 아스팔트 등의 원료인데, 이곳에 가면 입구에서부터 타르 냄새가 정신을 혼미케 한다. 수년간의 조사로 이 지역에서 발견된 화석은 동물과 식물을 합쳐 100만 개 이상이다. 이 화석들은 전시와 연구를 위해 1913~1915년 사이에 조지 페이지 박물관으로 옮겨졌다. 이 화석

들은 약 3만 5000년~3만 년 사이에 이 부근을 배회하던 동물들이 점착력이 강한 타르 연못에 빠져 벗어나지 못한 채 그대로 남게 된 것. 지금은 멸종된 동물들의 화석들이지만 자세한 안내문과 해설이 덧붙여져 있어 이해하기 쉽다. 뼈들이 모두 갈색인 것은 오랫동안 타르에 잠겨 있었기 때문이라고. 박물관 주위는 공원처럼 되어 있어 벤치에 앉아서 조금 쉴 수가 있다.

LA 카운티 미술관(LA County Museum of Art)



1.8ha의 넓은 부지 위에 5개동의 건물로 이루어진 서해안 최대의 미술관. LA의 신진 아티스트들은 물론이고 피카소·고갱 등의 대예술가들이 남긴 작품들도 전시되어 있다. 서쪽의 에먼슨(Ahmanson) 빌딩은 상설전시관이고 북쪽의 해머(Hammer) 빌딩은 현대미술의 상설과 기획전시를 주로 한다. 그 옆은 신사를 본떠 만들어진 일본관이고, 동쪽의 빙 센터(Bing Center)에는 극장과 카페, 도서관 등이 있다. 빙 센터 맞은편의 앤더슨(Anderson) 빌딩은 근대미술의 상설과 기획전시에 이용되고 있다. 5개관의 내부구조와 전시물들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이곳에 도착하면 가장 최신의 정보를 구하는 것이 좋다. 5개 빌딩

전부를 보려면 뛰어서도 반나절은 충분히 걸리므로 가능한 한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둘러 보자. 흥미있는 분야와 특별전을 위주로 감상할 수 있다.

캐피틀 레코드 타워 Capital Records Tower



할리우드라면 영화산업만 떠오르겠지만 또 다른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 음반 산업이다. 레코드 타워는 현대 음반 산업의 기념비적 건물. 1954년에 세워졌는데 레코드판을 겹쳐 놓은 듯한 외관이 유명하다. 원통형의 레코드판들이 각층마다 붙어 있으며 꼭대기에는 바늘이 울려져 있는 모양새라 한눈에 들어온다. 현대건축물 중에서도 특이한 형태로, LA의 전위지향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건축물 중의 하나다.

할리우드 볼 Hollywood Bowl



그리피스 천문대로 가는 도중에 있는 야외 콘서트 홀로 1만 7000석 규모. 1928년 완공되었는데, 울퉁불퉁한 지형을 활용해 음향효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설계자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Frank Lloyd Wright). LA 필하모닉 교향악단도 매년 6~9월의 여름에는 이곳을 중심으로 활동을 한다. 밤이 짧은 LA에서 필하모닉이 펼치는 별밤의 콘서트는 시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존재다.

그리피스 공원 Griffith Park



도시공원으로는 미국 내에서 가장 크며 공원 안에는 골프장·천문대·동물원·극장 등의 수많은 시설이 갖춰져 있다. 일요일에는 자전거와 조깅 등으로 땀을 흘리는 젊은이들도 눈에 많이 뜨인다.

*그리피스 천문대(Griffith Observatory)

과학박물관과 플래네티리움에 있어 시간대에 따라 레이저 광선과 음악이 함께 어우러진 레이저 쇼를 즐길 수 있다. 그밖에도 LA 시 철도의 고지대라 많은 관광객이 빼놓지 않고 들른다. 특히 아름다운 야경은 빼놓을 수 없는 관광 포인트. 맑은 날에는 30cm 망원경으로 밤하늘의 신비를 벗길 수도 있다.

*로스앤젤레스 동물원(Los Angeles Zoo)

공원의 북쪽 끝에 있다. 113에이커의 면적에 2000여 마리의 동물을 수용하고 있는 대단위 시설로, 전미국 내에서도 최고의 위치를 지키고 있다. 동물은 5대륙 별로 나누어져 관리되는데 대부분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서 사육되므로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었던 여러 동물의 신기한 생태를 관찰할 수 있다.

*그리스 극장(Greek Theater)

공원의 남쪽에 있는 기상대 아래에 있다. 4500석의 규모로 1년 내내 야외 콘서트를 연다. 공연정보는 《선데이 타임스》(The Sunday Times)의 <캘린더>(Calendar) 부문의 광고에 소개되고 있다.

웨스트 헐리우드



수년간 밤늦은 시간까지 흥청대는 나이트 클럽 등이 있는 유흥가로 명성이 높았던 곳, 웨스트 헐리우드. 지금은 더욱 고급화된 사교유흥 문화가 있으며, LA 게이 공동체의 본고장이기도 하다. 한때는 사람이 살지 않던 땅으로 취급되었던 웨스트 헐리우드는 1985년 LA에 병합되었으며, 게이 공무원에 의해 운영되는 전국최초의 도시이기도 하다.

스타들의 집 Homes of Stars



선셋 블루버드 남동쪽을 향해 뻗어있는 수많은 스트리트 주변. 문패에서부터 서민적인 것이라고는 조금이라도 찾아볼 수 없는 초호화주택지다. 대스타일수록 사는 집도 더불어 크기 때문에 밖에서는 담과 현관까지의 정원만 겨우 보이는 정도. 한쪽 모퉁이에서 다른 쪽 끝까지가 저택 하나인 데다 씬 없이 차례로 나타나므로 도보관광은 불가능하다. 더구나 환경보존을 위해 대형 버스도 출입금지이므로 렌터카나 투어를 이용하고 있다.

로데오 드라이브 Rodeo Drive



로데오 드라이브와 산타모니카 블루버드·월서 블루버드가 교차하는 3각지대의 주변의 고급 쇼핑가. Golden Triangle이라는 별명까지 있는, 전세계에 알려진 부의 상징이다. 구치, 샤넬, 크리스찬 디올 등 세계에서 내로라하는 일류 브랜드 점은 모두 이곳에 있다. 월서 블루버드를 따라 백화점도 늘어서 있어 고급상품을 사려는 사람들 역시 끊이지 않는다. 새하얀 캐딜락이나 롤스로이스 등을 부티크 앞에 세워 놓고 이것저것 사들이는 대부호의 모습도 간혹 눈에 띈다. 꼭 쇼핑이 목적이 아니더라도 구경 자체가 즐거운 몇 안 되는 거리다.

라 시에네가 블루버드 La Cienega Boulevard

LA다운 개성이 넘치는 거리 중의 하나로, 남북으로 뻗어 있다. 북쪽의 선셋 블루버드와 비교해서 갤러리가로도 불리는데, 조그마한 개인 화랑들이 특히 많이 있다. LA에서 활약하는 아티스트들의 판 아트 작품들이 전시되므로 미국 서해안의 현대미술을 감상할 수 있는 중요한 장소라고 할 수 있다. 꼭 대형미술관을 찾을 필요 없이 쇼핑과 식사를 즐기며 여유있게 이 거리의 조그만 화랑에 들러 수준 높은 현대미술품을 감상하는 것도 요령 중의 하나. 월서 블루버드와 교차하는 남쪽은 유명 레스토랑이 늘어서 있어, 로데오 드라이브에서 쇼핑을 끝낸 사람들이 식사를 위해 모여든다.

센트리시티 Century City



비벌리힐스의 남서쪽 끝에 있는 인공적인 계획도시이다. 비벌리힐스와 웨스트우드의 중간에 있기 때문에 1960년대부터 개발되기 시작한 곳이다. 행정상의 도시라기보다는 일종의 거대한 커뮤니티(Community)로, 20세기 폭스 영화사의 스튜디오를 비롯해 각종 오피스 빌딩, 쇼핑센터 등의 현대적 고층 빌딩들이 들어서 있는 미래형 도시로 주목받고 있다. 영화 <블레이드 러너> (Blade Runner), <다이하드> (Die Hard) 등이 이곳을 무대로 만들어졌으므로,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리며 거리를 걸어 볼 수 있는 곳이다.

③ 또 하나의 관광도시 산 페르난도 밸리와 산 가브리엘 밸리

□ 산 페르난도 밸리

- “더 밸리 (The Vally)” 라고 불리는 이곳은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 NBC 스튜디오를 필두로, 미디어 관계 회사가 집중되어 있음. 스타나 업계 관련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어 세련된 부띠크나 감각 있는 숍들이 많음. 짜릿한 스릴을 느낄 수 있는 식스 플래그 매직 마운틴, 물을 테마로 한 식스 플래그 허리케인 하버 등의 테마공원이 있음.
 - 워너 브라더스 스튜디오(Warner Bros. Studios)
 - 식스 플래그스 매직 마운틴(Six Flags Magic Mountain)
 - 식스 플래그스 허리케인 하버 (Six Flags Hurricane Harbor)

□ 산 가브리엘 밸리

- 시청의 오래된 벽돌로 고풍스러운 시가지에 레스토랑, 부티크, 카페, 바, 나이트클럽 등이 들어서 있는 올드 파사데나임. 여기는 LA 의 젊은이들이 즐겨찾는 명소들이 모여 있음. 또 산 가브리엘 밸리 지역은 학문적인 지역이기도 함. 명문 캘리포니아 공과 대학을 비롯해, 노튼 사이먼 미술관, 헌팅톤 라이브러리 & 정원, 퍼시픽 아시아 뮤지엄 등 볼만한 가치가 있는 훌륭한 박물관을 갖추고 있음.
 - 올드 파사데나 (Old Town Pasadena)
 - 노튼 사이먼 미술박물관 (Norton Simon Museum of Art)
 - 퍼시픽 아시아 뮤지엄(Pacific Asia Museum)

④ 세계 최대 요트항구의 비치시티 산타모니카와 최고급 주택이 있는 도시

□ 산타모니카 해변의 비치시티

- 산타모니카와 베니스는 가장 인기있는 해변임. 세계 최대의 요트전용 항구인 마리나 델 레이, 항구도시인 산 페드로와 롱비치가 있고, 로스앤젤레스의 비치 시티에는 120km 의 해안이 펼쳐짐. 인라인 스케이트나 서핑을 즐길 수 있고, LA 해양 박물관 , 포트 오콜 빌리지, 퀸 메리 여객선 등 다양한 볼거리가 가득한 곳임. 특히 1998 년에 오픈한 남 캘리포니아 최대 규모의 수족관인 롱비치 퍼시픽 수족관은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함.
 - 마리나 델 레이 (Marina Del Rey)
 - 로스앤젤레스 해양 박물관(Los Angeles Maritime Museum)
 - 퀸 메리호 (Queen Mary)

- 롱비치 퍼시픽 수족관 (Long Beach Aquarium of the Pacific)
- 포트 오콜 빌리지(Ports O'Call Village)

Santa Monica Beach

LA의 3대 비치인 산타모니카, 베니스, 마리나 델 레이는 웨스트우드 이상으로 자유롭고 개방적인 곳이다. 각종 비치 스포츠의 발상지이기도 하다.

산타모니카 비치 Santa Monica Beach



캘리포니아를 만끽하려면 역시 해변으로 향하는 것이 가장 좋다. LA 최고의 휴양지로 각광받는 작은 독립공동체인 산타모니카(Santa Monica). 연중 어느 때도 덥거나 춥지 않은 천혜의 기후조건에다 푸른 바다와 붉은 태양, 흰 모래, 파도, 야자수 등은 대도시 LA의 가운데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별천지이다. 편리한 교통편과 숙박시설 등은 LA 관광거점으로도 더없이 좋으며 또 다운타운에서 가장 가까운 비치로도 알려져 있다. 역사가 깊은 휴양지지만 1989년의 3번가 프로미네이드의 탄생과 산타모니카 플레이스의 재정비로 최근에는 시민은 물론 여행객들에게도 각광받는 산책과 영화관람 코스로 손꼽히고 있다.



* 산타모니카 피어

대략 100여 년 전에 만들어진 목재 잔교. 산타모니카의 심볼적인 존재로 <스팅>을 시작으로 지금까지도 많은 영화나 텔레비전 드라마의 무대로서 사용되어 왔다. 소규모이지만 유원지도 있어 관람차나 회전목마가 향수어린 분위기이다. 아케이트나 선물 가게, 게임 센터, 카페, 레스토랑 등이 즐비해 하루종일 관광객이 끊이지 않으며, 휴일에는 미니 콘서트 등도 열린다. 잔교 끝에서는 낚시를 즐기는 사람도 보이는 따뜻하고 서정적인 분위기의 부두이다. 여기서 바라보는 석양의 경치는 아름다운 곳이다.



* 서드 스트리트 포로미네이드

산타모니카에서 가장 인기 있는 거리. 산타모니카 플레이스에서 월셔 블루버드(Wilshire Blvd.)까지는 3블록이 차량통행금지구역으로 항상 보행자천국이다. 특히 뜨내기 악사들과 순회 공연하는 전위 예술가들에게 인기 있는 도시의 활력소이기도 하다. 도로 곳곳이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으며, 주말에는 이곳에서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과 다 국적인들이 함께 즐거운 만남을 즐기는 곳이다.



* 앤젤스 애틱 박물관

천사가 사는 방이라는 로맨틱한 이름의 작은 박물관. 빅토리아 양식의 클래식한 저택을 고쳐, 골동품 인형과 작은 인형의 집, 장난감 등을 전시해 놓았다.

베니스 비치 Venice Beach



산타모니카 비치 바로 아래쪽에 위치한 베니스비치는 전위예술가가 모여 드는 독특한 작은 공동체이다. 해안에는 컬러풀한 가게들이 즐비하고, 비키니 차림으로 롤러 스케이트와 스케이트 보드를 타는 젊은이들을 항상 볼 수 있는 곳이다. 보수적인 산타모니카에 비해 기발한 패션을 한 젊은이들을 볼 수 있는 등 사뭇 전위지향적인 비치 풍경을 즐길 수 있다. 해변에는 배구 코트와 테니스 코트, 정글 짐 등이 놓여 있으며, 보디 빌더들이 땀을 흘리는 야외트레이닝장도 갖추고 있다.

* 오션 프론트 워크

베니스 비치의 해변에 계속 이어진 보행자 전용보도. 보행자와 함께 롤러 스케이트나 롤러 블레이드, 보드를 타는 젊은이들이 많은 것이 특징. 티셔츠부터 액세서리까지 여러 가지를 파는 노점도 가득하다.

마리나 델 레이 Marina Del Rey



베니스 비치의 남쪽.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 요트 하버가 있는 새로운 리조트로, 정박하는 요트와 유람선은 거의 1만 대로 세계 최고를 자랑한다. 리조트 호텔과 고급 콘도미니엄, 고급 레스토랑이 줄을 지어 있어 근처의 베니스 비치와는 완전히 다른 우아한 분위기이다. 푸른 수면을 미끄러지는 흰 돛의 요트를 바라보는 상쾌함은 다른 비치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즐거움으로 관광객들도 요트를 빌려 바다 위를 달릴 수 있다.

사우스 베이 South Bay

산타모니카 베이의 남쪽에 위치한 맨해튼(Manhattan), 허모사(Hermosa), 리돈도(Redondo) 등의 비치를 통틀어 일컫는다. 조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 국제공항으로부터 가장 가까워 어쨌든 LA 비치에 속한다. 각 비치에는 제각각의 잔교가 있어 서핑, 발리 볼, 롤러 스케이트, 자전거와 각종 스포츠를 즐기는 인파들이 모여 든다. 해안선에서의 자전거 타기는 여기를 기점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을 듯. 허모사 비치 주변에는 많은 자전거 렌탈 숍이 있다. 토산품점과 관광객이 꼭 찬 카페가 싫다면 맨해튼 비치를 찾을 것. LA 국제공항에서 8km 정도 남하하면 있는 곳으로, 호젓한 분위기를 만끽하면서 흰 모래 위를 여유 있게 걸을 수 있다. 맨해튼 비치는 여름이 되면 많은 학생들이 서핑을 즐기러 오는 유명한 장소이다.

멜리부 비치(Malibu Beach)

산타모니카로부터 비치 라인을 타고 30분간 북으로 차를 타고 가면 멜리부 비치이다. 해변은 서핑의 발생지로, 지금도 서핑의 메카이다. 주말이 되면 보드를 차에 실은 젊은이부터 왕년의 챔피언까지 서퍼들이 속속 몰려든다. 해변의 절벽은 1930년대부터 스타가 살기 시작한 유서깊은 별장품의 호화주택지. 또 해변 주변에는 지중해 별장품의 레스토랑도 많이 있으므로, 산타모니카의 번잡함이 싫다면 이곳에서 우아한 주말 밤을 보내는 것도 좋을 듯. 이곳을 찾았다면 실내외의 정원이 아름다운 장 폴 게티 미술관도 있다.

취셔맨스 빌리지 (Fisherman's Village)

요트 정박장이 있는 이곳은 뉴잉글랜드 어촌모습을 하고 있으며 해안에 위치한 작은 상점에서 티셔츠 등의 물건을 살 수 있으며, Sea Food음식점이 여러 곳에 위치하고 있다.

맨하탄 스테이트 비치 (Manhattan State Beach)

길이가 2마일에 이르는 광대한 모래사장이 있는 곳으로 수영, 서핑, 낚시로 유명한 곳이다. 비치에는 많은 배구장이 있으며 비치가의 도로에서 롤러 스케이트, 사이클링, 산책 조깅을 즐길 수 있다.

레돈도 비치 (Redondo Beach)

레돈도 비치는 대단위 상가와 주차장 건물에 연결되어 있다. 피어에서 낚시를 즐길 수 있으며, 바다 음식을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이 피어쪽으로 많이 위치하고 있다. 이곳에서 한국 스타일의 회집도 2여 개 발견 할 수 있다. 여름 주말에는 바다여행 유람선이 운행을 한다. 겨울에는 고래관측 유람선이 출발한다. Harbor Drive를 따라 가다보면 King Harbor가 있는데 이곳에 레스토랑, 호텔이 위치하고 있으며 보트타기, 낚시, 사이클링, 라켓 볼 등을 즐길 수 있다.

□ 최고급 주택가의 웨스트사이드

- 유명 인사의 대저택이 나란히 들어서 있는 비버리힐즈임. 고즈넉하고 세련된 분위기는 거리의 풍경이 느껴지는 곳임. 또한, 최신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계획도시 센츄리 시티와 카페와 라이브 하우스 등이 많이 모여 있는 학생의 거리, 웨스트우드 등 각각

거리의 표정은 다르지만, 모두 웨스트사이드에 있음.

- 비버리 힐즈 (Beverly Hills)
- 센츄리 시티 (Century City) : 주택, 오피스, 가게, 레크레이션 등, 도시 기능이 모두 갖춰진 인공 도시
- 웨스트사이드 파빌리온(Westside Pavilion)

⑤ 세계 최고의 테마파크 디즈니랜드가 관광객들에게 놀거리 제공

□ 동화의 나라 디즈니랜드(Disney Land Park)

- 로스앤젤레스의 남동쪽으로 43km 떨어진 애너하임시에 위치한 세계 최고의 테마파크임. 1955년 7월에 월트디즈니가 디즈니 영화의 역사, 미국 개척의 역사, 근대 과학 등을 기반으로 어린이에서 어른까지 모두가 즐길 수 있고 '사랑'과 '꿈'과 '모험'을 주는 대단위 놀이공원으로 만들었음. 어트랙션도 매년 1개씩 증설하는 것도 특징임. 30ha의 면적의 공원내에는 광장(Plaza)을 중심으로 7개의 지역으로 나뉘어 있고, 전부를 대충 둘러보는 것만도 최소한 6시간이 필요함.
 - 미래의 나라 : 스타 투어스·스페이스마운틴·잠수함여행·매직 아이 극장·서클비전
 - 클리터 컨트리 : 스플래시 마운틴
 - 뉴올리언스 스퀘어 : 도깨비집·카리브해의 해적
 - 개척의 나라 : 빅 선더 산행열차·콜럼비아호
 - 환상의 나라 : 작은 세상·마터호른 뽀슬리드·이야기책의 캐널 보트·토드씨의 엉터리운전
 - 모험의 나라 : 정글 크루즈·매혹의 티키
- 1955년7월17일 개장하여 지금까지 "세상에서 제일 즐거운 곳" 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운영해오는 Disneyland는 한인타운에서 동남쪽으로 약25마일 떨어진 Anaheim, California에 위치해 있음. Disneyland는 현재 Disney's California Adventure, Disneyland, Downtown Disney와 Disney's Grand California hotel, The Disneyland Hotel, Disney's Paradise Pier Hotel등이 있음.
- Disneyland는 85에이커의 면적에 60가지가 넘는 놀이기구들이 있고 8가지의 Theme으로 구성되어 있음. 아침 일찍 입장해서 Fast pass를 받으면 놀이기구들을 이용할 때 줄을 서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이므로 잘 이용하면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음.
- Downtown Disney는 무료입장이고, Disneyland 공원과 호텔사이에 있으며, World of Disney, ESPN zone, Lego store등의 상점들과, House of Blues, Rain forest cafe등 다양

한 음식점, 그리고 AMC영화관 등이 있음.

□ 독창적 주제가 있는 디즈니 캘리포니아 어드벤처(California Adventure)

- 디즈니랜드 맞은편에 같이 위치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어드벤처는 2001년 2월에 개장된 독창적인 주제와 모습으로 설계된 디즈니의 또 다른 위락시설임. 총 규모는 디즈니랜드 보다 작은 55에이커로서 이름 그대로 캘리포니아의 모든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조정되어 있음.
- Disney's California Adventure는 55 에이커의 넓은 면적에 California의 가장 아름답고 유명한 곳들만 모아놓은 곳이며, 14억 달러의 예산으로 2년 반 만에 신축한 놀이공원임.
- 이 어드벤처는 할리우드 골든 스테이트(Golden State), 파라다이스 피어(Paradise Pier) , 픽처스 백랏(Hollywood Pictures Backlot) 등 3개의 메인 랜드로 구성되어 있음. 디즈니랜드보다 규모는 작지만, 이 곳 역시 수많은 볼거리, 즐길 거리들이 있어 모두 돌아볼 수 있음.
- Disney's Grand California Hotel은 750개의 객실이 있으며, 수영장과 banquet방 등이 있다. The Disneyland Hotel은 990개의 객실과, 120,000 square feet의 연회장이 준비되어 있다. The Disney's Paradise Pier Hotel은 502개의 객실과 고급식당들이 있음.

메인 스트리트 Main Street USA

입구에서 중앙의 잠자는 숲속의 미녀 궁전까지 가는 동안 지나게 되는 거리. 여름밤에는 화려한 가장행렬이 펼쳐져, 행사 1시간 전부터 메인 스트리트 양쪽으로 사람들이 뱅뱅이 모여든다. 쇼핑숍, 레스토랑 등과 은행·물품보관소(Locker Room)·안내 센터 등의 각종



- 불자동차(Fire Engine) - 사이렌 대신 기적소리를 울리는 옛날 불자동차를 타고 타운 스퀘어와 센트럴 플라자 사이를 왕복한다.
- 마차(Horse-Drawn Street Cars) - 마차를 타고 불자동차가 도는 코스를 돌아본다.
- 구식 자동차(Horseless Carriages) - 미국에 맨처음 등장했던 자동차타기.
- 2층 버스(Omnibus) - 오픈된 2층 버스를 타고 타운 스퀘어와 센트럴 플라자 사이를 관광할 수 있다. 노선은 편도.
- 디즈니랜드 철도(Disneyland Railroad) - 철도원이 모는 증기기관차를 타고 디즈니랜드 공원 전체를 돌아보거나 각 영역마다 있는 역에서 내릴 수 있다.
- 월트 디즈니 스토리관, 링컨과 위대한 시대(The Walt Disney Story, featuring Great Moments with Mr. Lincoln) - 미국의 16대 대통령을 기념하는 극장과 디즈니상, 기념품, 월트 디즈니의 개인 방을 구경한다.
- 메인 스트리트 시네마(Main Street Cinema) - 6개의 스크린에서 옛날의 만화를 상영한다. 주인공은 디즈니랜드의 심볼인 미키와 미니 마우스.

모험의 나라 Adventureland

- 페니 아케이드(Penny Arcade) - 동전으로 즐길 수 있는 게임 시설과 영사시설 등
- 매혹의 티키 룸(Enchanted Tiki Room) - 열대지방 생물들의 영상과 음악 감상
- 정글 크루즈(Jungle Cruise) - 대형 보트를 타고 열대 정글과 강을 따라간다.



- 스위스의 나무집(Swiss Family Treehouse) - 큰 나무 꼭대기에 지어진 집에 올라가 디즈니랜드의 전망을 즐긴다.

뉴올리언스 스퀘어 New Orleans Square

- 카리브해의 해적(Pirates of Carribean) - 해적(?)들과 함께 카리브해 해안선을 침략하는 모험.
- 도깨비집(Haunted Mansion) - 언덕 위의 오래된 집에 사는 999명의 익살꾸러기 도깨비들과 함께 떠나는 여행.
- 디즈니 박물관(The Disney Gallery) - 그림과 만화로 디즈니랜드의 과거와 미래를 볼 수 있다.
- 디즈니랜드 철도(Disneyland Railroad) - 메인 스트리트로 가거나 공원 전체를 돌아볼 수 있다.

클리터 컨트리 Clitter Country

- 데이비 크로켓의 카누(Davy Crockett's Explorer Canoes) - 무자비한(?) 가이드와 함께 강을 타고 내려가는 모험.
- 컨트리 베어 놀이장(Country Bear Playhouse) - 익살맞고 귀여운 곰들의 재롱과 연주모습을 볼 수 있다.
- 테디 베어의 게임 아케이드(Teddi Barra's Swingin's Arcade) - 개척정신으로 즐길 수 있는 게임 시설이 있다.
- 스플래시 마운틴(Splash Mountain) - 통나무배를 타고, 5층높이의 산 정상에서 전속력으로 내려온다. 현재 인기가 가장 높은 어트랙션.

개척의 나라 FrontierLand

- 개척의 나라 사격 아케이드(Frontierland Shootin's Arcade) - 과녁을 향해 총을 쏘는 대규모 사격장.
- 빅 선더 목장(Big Thunder Ranch) - 옛 서부시대의 오두막과 마굿간, 가축 등을 돌아본다.
- 빅 선더 산행 열차(Big Thunder Mountain Railroad) - 골드러시 시대의 애리조나 풍광 속을 작은 기차로 전력 질주하는 긴장감 넘치는 어트랙션이다.
- 마크 트웨인 크루즈(Mark Twain Riverboat) - 바퀴 달린 큰 증기선을 타고 강을 일주하는 차분한 여행.
- 콜럼비아호(Sailingship Columbia) - 미국 최초의 뗏단배인 콜럼비아호를 타고 지구를 향해하는 모험. 성수기에만 운행하므로 미리 확인을 해본다.
- 골든 호스슈(Golden Horseshoe, hosted by Wonder Bread) - 바텐더 샘과 릴리가 펼치는 춤과 노래의 즐거운 쇼. 공연은 주말과 성수기에만 있으므로, 스케줄을 보고 미리 확인을 해 둔다. 개원 15분 후부터 이곳에서 예약을 받는다.
- 톰 소여 섬으로 가는 뗏목(Rafts Tom Sawyer Island) - 강을 건너는 짧은 여행을 할 수 있다. 바위와 동굴, 절벽을 아슬아슬하게 비껴 지나간다.



환상의 나라 Fantasyland

- 마이크 핁크의 킬 보트(Mike Fink's Keel Boats) - 남부 미개척 삼림지 속의 물길을 따라가는 모험.
- 백설공주의 무서운 모험(Snow White's Scary Adventures) - 7명의 난쟁이가 사는 오두막에서 마법의 성까지 수레를 타고 떠나는 모험여행.
- 피노키오의 용감한 여행(Pinocchio's Daring Journey) - 피노키오와 함께 그의 집까지 가는 놀이기구.
- 아서 왕의 회전목마(King Arthur Carrousel) - 72개의 흰말을 몰 수 있는 놀이기구.
- 하늘을 나는 코끼리 덤보(Dumbo the Flying Elephant) - 아기코끼리 모양의 탈것.
- 미래의 나라로 가는 스카이웨이(Skyway to Tomorrowland) - 바로 옆의 영역인 미래의 나라로 가는 편도 케이블 카.
- 케이시의 서커스 열차(Casey Jr.'s Circus Train) - 작은 기차를 타고 동화의 나라를 돌아보는 여행.
- 비디오 폴리스(Video Police) - 화려한 쇼를 즐길 수 있는 야외공연장. 여름밤과

주말에만 공연되므로 스케줄을 확인할 것.

- 동화나라 운하 보트 (Storybook Land Canal Boats) - 동화에 나오는 모형의 세계로 보트를 타고 여행한다.
- 작은 세상(Its a Small World, presented by Mattel Toys) - 보트를 타고 세계 각국의 귀여운 어린이와 동물의 인형을 돌아보는 인기 있는 어트랙션.
- 마터호른 봅슬리드(Matterhorn Bobsleds) - 눈사람과 함께 얼음동굴을 빠져나가는 놀이기구.
- 성난 티 파티(Mad Tea Party) - 찻잔 속에 들어가 빙글빙글 도는 신나는 탈것.
-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Alice in Wonderland) - 앨리스, 흰 토끼와 함께 타는 접시 놀이기구.
- 토드씨의 엉터리 운전(Mr. Toad's Wild Ride) - 세상 어디에도 없는 길(?)을 달리는 여행.
- 피터팬의 하늘날기(Peter Pans Flight) - 런던의 야경을 보며 하늘을 날아서 피터팬의 네버랜드로 가는 비행여행 코스.
- 디즈니랜드 철도(Disneyland Railroad) - 미래의 나라와 메인 스트리트, 뉴올리온스 스케어로 가거나 공원을 일주하는 철도를 탈 수 있는 곳.



미키의 만화나라 Mickey's Toontown

- 미키의 집과 미키(Mickey's House and Meet Mickey) - 미키의 집과 정원을 방문하고 미키와 함께 걷고 기념촬영을 한 다음, 미키 마우스가 등장하는 초기영화를 본다.
- 미니의 집(Minnie's House) - 귀여운 부엌과 화장실이 있는 미니의 집 구경. 정원에 있는 샘에서 소원을 비는 것도 잊지 말도록.
- 구피의 바운스 하우스(Goofy's Bounce House) - 구피의 집에서 뛰고 점프하며 정신없이 놀 수 있는 곳.
- 도널드 보트 데이지호(Miss Daisy, Donalds Boat) - 만화나라 한가운데 있는 보트 타기.
- 놀이동산(Chipn Dale's Tree Slide and Acorn Crawl) - 미니 사이즈의 디즈니랜드 친구들 집.
- 가젯의 고-코스터(Gagets Go-Coaster) - 호수 안의 동굴과 터널에서 즐기는 롤러코스트.
- 줄리 트롤리(Jolly Trolley) - 만화나라 안을 달리는 꼬마버스.
- 로저 래빗의 카 톤 스핀(Roger Rabbit? Car Toon Spin) - 좁고 꼬불꼬불한 오솔길을 통탕거리며 달린다.



미래의 나라 Tomorrowland

- 로켓 제트(Rockets Jet) - 하늘로 날아오르는 우주선을 직접 조정해 본다.
- 스타케이드(Starcade) -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비디오 게임 시설.
- 피플 무버(People Mover) - 미래의 나라 전경과 어트랙션들을 조망할 수 있는 탈것.
- 스페이스 마운틴(Space Mountain) - 스릴을 만끽할 수 있는 초스피드의 제트코스터. 우주의 끝까지 날아간다.
- 매직 아이 극장(Magic Eye Theater) - 인기절정의 3D 입체영화. 영화를 보는 도중에 뱀이 튀어나오거나 쥐가 기어 나오는 등 깜짝 놀라게 된다.
- 환상의 나라로 가는 스카이웨이(Skywat to Fantasyland) - 옆에 있는 환상의 나라로 가는 편도 케이블카.
- 자동차나라(Tomorrowland Autopia) - 직접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경주장.
- 잠수함여행(Submarine Voyage) - 잠수함을 타고 북극점까지 갔다 오는 해저여행.
- 디즈니랜드 모노레일(Disneyland Monorail) - 공원 밖에 있는 디즈니랜드 호텔까지



가는 모노레일.

- 서클비전(Circle-Vision) - 360도 스크린으로 감상할 수 있는 스펙터클한 영상. 영화 <중국의 불가사의> (Wonders of China)는 1:30pm까지 상영되고 그 이후는 <미국여행> (America Journey's)이 상영된다.
- 스타 투어(Star Tour) - 비행선을 타고 우주여행을 떠나는 신나는 어트랙션.

□ 세계 최대의 영화촬영소 유니버설 스튜디오(Universal Studios Hollywood)

- 세계 최대의 영화촬영소 유니버설 스튜디오(Universal Studios Hollywood)는 할리우드 북쪽에 위치한 170만 평방킬로미터의 면적을 자랑하는 세계최대의 영화 및 TV 촬영 스튜디오로서, 테마파크까지 있어서 죠스, 유라기 공원, 킹콩 등의 영화에서 나왔던 광경들을 실제로 볼 수 있고 다양한 놀이기구를 즐길 수도 있음. 최근에는 슈렉 4-D 극장을 개관해서 관광객을 즐겁게 해주고 있음.
 - 유니버설 스튜디오 주위는 유니버설 시티워크 등 각종 위락시설과 대형 영화관 등 볼거리가 풍성해서 밤낮으로 관광객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곳으로 LA 관광명소 중에서 반드시 들르는 명소임.
 - 참고로 유니버설 스튜디오는 엔터테인먼트 센터, 스튜디오센터, 뉴스튜디오 투어의 3개 테마로 이루어져 있음.
- WATER WORLD, THE WILD WILD WORLD, TERMINATOR 2:3D, BACK TO THE FUTURE, ET, JURASSIC PARK THE RIDE, MUMMY, SHREK 4-D 등

유니버설 스튜디오

할리우드에 있는 유니버설 스튜디오는 쇼핑과 쇼, 여러가지 놀이기구 등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곳이다. tram을 타고 옛 영화들을 촬영했던 곳을 구경하고, 여러가지 Stunt쇼는 재미있는 구경거리로서 공연장에 가서 관람하도록 되어 있다.

420에이커의 넓은 면적에서 Back to the future, the Sting, Psycho, Three Amigos, 등 고전들과 최근에는 the Cat in the Hat, the Scorpion King, Jurassic Park, the Hulk, 등 많은 영화를 촬영했다.

Tram tour는 약 40분간 영화 촬영스튜디오들을 구경할 수가 있고, 스튜디오 센터에서는 ET adventure, Back to the Future, Backdraft, Jurassic Park등의 특수효과 등을 구경할 수 있다. Entertainment Center에서는 8개의 놀이기구와 쇼 등을 즐길 수가 있으며, 스튜디오 옆에는 Universal City Walk가 있어 여러가지 shopping 및 다채로운 음식들을 맛볼 수 있는 음식점, 영화관 등이 있다.



LA에는 영화 스튜디오 투어가 꽤 있지만 그중 가장 규모가 크고 인기있는 곳이 이 유니버설 스튜디오. 세계최대의 영화 스튜디오답게 약 170만km²라는 광대한 부지에 설립된 스튜디오는, 트램 투어와 스튜디오 센터, 엔터테인먼트 센터 등 3가지로 나누어져 있으며, 스튜디오 옆에는 1950년대 풍의 쇼핑센터와 유니버설 시티 워크도 있다. 매년 7000만 명 이상이 입장하는 인기 스튜디오이다.

트램투어 Studio Tram Ride



입구에서 똑바로 들어가면 엔터테인먼트 센터다. 여기서부터 긴 에스컬레이터를 탄 뒤, 다시 4량으로 편성된 트램에 탄다. 이때부터 영화의 세트나 무대 뒤를 약 40분간 돌아보게 되는데, 마술과 같은 영화의 세계로 흠뻑 빠져들 수 있다. 뉴욕의 브로드웨이나 멕시코풍의 무대, 킥콩과 죠스, 대홍수와 대지진 등의 생생한 영화 세트를 지나다 보면 온통 흥분과 스릴의 연속이다. 트램 투어 도중에는 버스에서 내려 특수촬영의 현장을 견학하게 된다.

스튜디오 센터 Studio Center

트램 투어에서 설명을 한 영화의 특수효과를 더욱 자세히 관찰할 수가 있다. 등장인물을 뽑아 직접 영화의 한 장면을 재현하게 한다든가 실제 촬영모습을 견학한다.

- E·T 어드벤처(E·T Adventure)
E·T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우주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는 어트랙션. 입구에서 자신의 이름을 넣으면 E·T가 방문객 하나하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의 말을 전한다.
- 백드래프트(Backdraft)
대화재의 공포를 체험하는 어트랙션. 불구경을 하다가 갑자기 다리가 빠지는 등 열이 빠질 정도로 스릴이 있다.
- 시네매직(The World of Cinemagic)
백 투 더 퓨처의 특수촬영을 경험할 수 있다. 시계탑에 전기가 떨어지는 장면이나 스케이트보드에 타고 악당과 대결하는 장면 등을 생생하게 이해하며 볼 수 있다. 또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촬영 트릭이나 미스터리 특수효과, 카메라 앵글 등도 살펴 볼 수 있다.

엔터테인먼트 센터 Entertainment Center



8개 어트랙션과 레스토랑, 쇼핑 숍 등이 있다. 매년 새로운 어트랙션을 추가한다. 그리고 다양한 쇼도 개최한다.

- 백 투 더 퓨처(Back to the Future)
최신 어트랙션으로 가장 인기 있다. 8인승의 데로리안을 타고 약 5분간 모험여행에 참여하는 형태. 스피드와 스릴 만점이며, 동형의 스크린은 음향효과 또한 박진감 넘친다.
- 마이애미 바이스(Miami Vice)
TV 드라마 <마이애미 바이스>를 즐기는 스텐트 쇼. 아슬

아슬한 수상 스키 장면이나 헬리콥터 폭발 등 박진감 넘치는 장면이 손에 땀을 쥐게 한다. 공연시간은 약 30분.

- 웨스트 스텐트 쇼(The Wild, Wild, Wild West Stunt Show)
서부극 스텐트 쇼로 약 15분간 공연된다. 악당으로 분한 스텐트맨들의 위트 넘치는 코미디와 마이애미 바이스 못지않은 실감 넘치는 액션이 있다.
- 애니멀 액터 스테이지(Animal Actor Stage)
영화나 드라마에서 활약하는 귀여운 동물 스타들의 익살 넘치는 묘기를 볼 수 있는 쇼. 약 15분간 공연된다.

4. 샌프란시스코의 몬트레이시(Monterey)

: 경치가 매우 아름다운 세계적 명소 리조트 해양휴양도시

① 몬트레이(Monterey) 지역개관

□ 샌프란시스코 아래에 자리한 해안변 아름다운 도시

- 몬트레이는 샌프란시스코의 해안선을 따라 약 210Km 남쪽 아래로 내려온 곳에 자리잡고 있는 경치가 매우 아름다운 도시로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먼저 개척된 곳임.
- 1602년에 스페인의 탐험가가 발견했는데 당시의 멕시코 총독 몬트레이 백작의 이름을 붙였던 것이 그대로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1864년 캘리포니아 선언 전까지 몬트레이는 멕시코령하의 마을이었음. 몬트레이의 평균적인 기후는 10°C-15°C 로 매우 관광활동에 양호함

[표] 몬트레이의 기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기온(°C)	10.9	11.7	11.8	12.5	13.2	14.7	15.5	16.2	16.9	15.9	13.3	10.9
평균강수(mm)	101.4	76.0	82.2	39.0	10.8	5.7	1.8	2.7	7.7	19.5	58.1	70.9

- 로스엔젤레스에서 북으로 약 330마일,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남쪽으로 약 120마일 거리에 있는 몬트레이 반도는 미국지도의 왼편 매끈하게 해안선이 쭉욱 내려오다 '혹불'같이 툭 튀어 나와 있는 돌출 부위임. 남북으로 뻗어있는 미국 태평양 연안은 어디를 가도 아름답고 제각기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음. 또한 미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역사의 도시이며 정어리 통조림공장이 번창했던 어항으로의 명성도 대단했었고 군사적인 면에서도 대단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② 세계적 유명 골프코스과 비치페스티벌의 해양휴양도시

□ 페블비치 골프장과 17마일 드라이브 코스

- 아름다운 몬트레이 반도에 위치한 몬트레이는 휴양지로서도 이름이 높지만 매년 찾아드는 관광객이 4백만을 넘는 서해안에서 손꼽히는 관광지로서 더욱 유명함.
- 몬트레이 반도에 있는 페블비치에는 세계적인 골프코스가 여럿 있어 매년 토너먼트가

열림. 7월에는 카멜에서 비치 페스티벌이 열리고 9월에는 몬트레이 재즈 페스티벌이 열리는 등 화려한 각종 행사가 끊이지 않음.

- 페이블 비치(Pebble Beach)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골프'라는 단어를 떠올리는 그런 곳임. 7곳의 환상적인 대중 골프장과 개인 소유 골프장이 자리잡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골프장은 펄비치와 같은 이름의 페이블 비치 골프 링크(Pebble Beach Golf Links)임. 그리고 론 사이프러스(Lond Cypress) 골프 코스도 캘리포니아 사람들에게 가장 유명한 이정표 역할을 하는 지역으로 매년 PGA골프대회가 열리고 있음.



- 세계적인 유명 골프장인 펄비치 골프장을 비롯하여 총 7개의 아름다운 골프장을 보유하여 더욱 지명도가 높은 곳임.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몬트레이 반도의 북쪽에는 몬트레이시티, 남쪽에는 동화속의 마을 카멜시티가 있음. 그 두 도시를 해안선을 따라 드라이브하는 도로의 길이가 총 17마일정도 된다고 하여 17마일 드라이브 코스라 부름.



- 17마일 드라이브 코스는 몬트레이 수족관을 지나 아름다운 해안선을 왼쪽으로 계속 돌아가면 왼쪽의 인공 건축물의 아름다움과 오른쪽의 자연 그대로의 해안선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며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고 있음.



- 몬트레이 반도 남쪽에 자리잡은 펄비치 랫지 호텔과 함께 하룻밤 \$ 200-250하는 최고의 호텔임. 도로가 해안선에서 조금 마을 쪽으로서는 '가산 식당'이라는 한국식당도 있는데, 저녁식사만 할 수 있는 몬트레이 반도 안의 유일한 한식당임. 한국인들이 이곳에서 골프를 즐기고 반드시 찾아가는 고급식당으로, 식당을 금방 지나치면 오른쪽으로 17마일 드라이브 코스 북쪽 게이트가 있음.

- 입구에서 입장료를 내고 무료 지도를 하나 얻어서 본격적인 17마일 코스를 즐길 수 있음. 입장료는 1인당 \$3불50센트이나 관광회사에서 옵션으로 1인당 \$15를 받고 관광을 하고 있음. 101 도로에서 약 30-40분 들어와서 가이드의 상세한 설명과 약 2시간 30분 동안의 투어를 하는 관광코스로 인기가 있음.

- 17마일내의 유명 연예인들의 독특하고 아름다운 별장과 계속 이어지는 해안선의 골프장, 그 새파란 잔디위에서 골퍼들과 함께 유유자적 노니는 수십마리의 사슴행렬들, 전혀 사람들을 겁내지 않고 있음. 수십년 해풍을 견뎌온 풍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고목들, 바위

들 위에서 소리 지르는 수백마리의 물개군상들, 태평양의 부서지는 파도, 수백마리들 페리칸의 군무들이 아름다워 어떤 별장주인은 자기집 게이트에 ‘천국의 문’이라는 문패를 달아 놓고 있는 명소중에 관광명소임

- 주요 명소들은 사진에서 보듯이 삼나무 한 그루 (Point Cypress), 포인트 조(Point Joe), 그리고 새섬 (Bird Rock) 등이 있으며 특히 17평방 킬로미터에 달하는 울창한 델 몬테 숲과 1920년대에 건축한 별장이 유명함. 델 몬테 숲의 안개 덮인 별장과 숲의 조화가 17마일 드라이브 코스를 선택한 관광객들에게 신비로운 자태를 뽐내고 있음.



- Butterfly Tree는 미스터리 지역으로 몬트레이 서쪽 끝에 위치한 퍼스픽클로브에는 매년 10월말경 북쪽의 내륙지역으로부터 많은 나비떼가 날아와 나무가지에 붙어 겨울잠을 자고는 다음해 3월경 다시 북쪽으로 떠남. 모나크라는 이름의 이 나비들이 왜 굳이 이곳에 있는 나무에 와서 겨울을 나는지, 그리고 한번 방문했던 나비는 수명이 다해 돌아올 수 없으므로 매년 새 나비들이 이곳을 찾게 되는데 이들이 어떻게 이곳을 알고 오는지에 대한 대답은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아있음.



③ 세계적 명성의 수족관과 미술관·박물관, 쇼핑거리 등 입지

□ 정어리잡이 어항에서 수족관의 해양관광도시로 발전

- Fishermen's Wharf는 한때 정어리잡이 어선으로 붐볐던 이 선착장에는 지금은 요트와 기념품가게와 식당들이 가득 들어차 있으며, 주차장 근처 피어 쪽에는 물개들이 서식하고 있음
- Monterey Bay Aquarium(수족관)은 규모가 크고 전시 방법이 특이하여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수족관임. 이곳에는 3백75종의 어류를 포함, 해달, 물새, 해초 등 무려 5천5백종의 해양생물이 살고 있음. 전시장이 23개, 탱크가 대소 83개나 있는데 그 중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높이 28피트, 35만 갤런 용량의 거대한 탱크임. 이 안에는 각종 해초류가 바닷속과 똑같은 상태로 울창하게 심어져 있고 항상 물을 움직이게 하여 물고기들이 유유히 해초사



이를 해엄쳐 다니는 상태를 자세히 관찰할 수 있음. 어른과 어린이들 모두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이상적인 관광 명소임.

- 피셔맨스 워프(Fisherman's Wharf)는 자연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는 몬트레이 베이, 국립 해양 보호구역에 자리잡고 있음. 피셔맨스 워프는 주변지역의 원활한 해상교역을 위해 1846년에 만들어진 곳임. 그 당시만 해도 몬트레이는 대서양 주요 항만 중에 하나였고, 신선한 정어리, 연어, 다랑어, 오징어, 조개, 새우 등이 넘쳐나는 곳이었음.



- 현재 이곳은 신선하고 멋진 해산물 요리를 맛보고 역사의 자취를 감상하려는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이 직접 만든 선박과 해양 관련 수공예품과 기념품들을 판매하는 상점들이 성황을 이루고 있음.
- 내쇼널 스타인벡 센터(National Steinbeck Center)는 올드타운 살리나스의 메인 스트리트에 위치하고 있는 내셔널 스타인벡 센터는 살리나스출신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존 스타인벡의 인생과 업적 등을 기리기 위해 설립되었음. 센터는 오래된 타운의 메인 스트리트의 입구에 자리잡고 있으며, 스타인벡의 문학과 인생에 대한 자료는 물론 이 도시에 관한 역사와 예술에 관한 교육 자료들로 가득함.
- 잭스 피크 지역공원(Jack's Peak Regional Park)는 몬트레이의 중간에 자리잡고 있는 공원으로 공원 내에는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음. 그리고 10마일 길이의 하이킹 코스를 이용하고, 몬트레이와 주변지역의 환상적인 전망을 감상할 수 있음.

□ 몬트레이 역사와 미술을 볼 수 있는 전시관과 박물관

- 카사 소베라네스(Casa Soberanes)는 벽의 두께가 1m나 되는 아도비(햇빛에 말린 벽돌)벽돌로 만든 2층 건물임. 건물은 사이프러스 울타리 때문에 컨벤션 센터와 분주하고 번잡한 퍼시픽 스트리트에서 완전히 떨어져 있는 것 같음. 1840년부터 1970년까지의 몬트레이 역사와 미술에 관한 전시를 볼 수 있음.
- 몬트레이 리크레이셔널 트레일(Monterey Recreational Trail)는 몬트레이 베이프런트를 따라 나있는 트레일로 퍼시픽 그루브(Pacific Grove)의 애실로마 비치(Asilomar Beach)에서 씨사이드(Seaside)의 로버츠 레이크(Roberts Lake)의 북단까지 이르는 총 4.3마일 길이임. 자전거, 도보 혹은 롤러 스케이트 등을 타기에 적합함.
- 몬트레이 스테이트 히스토리크 파크(Monterey State Historic Park)는 캘리포니아주의 파크 시스템에 속해 있는 공원으로 역사적인 올드 몬트레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음. 건물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건물 내부에서는 몬트레이의 과거를 짐작할 수 있는 수공예품과 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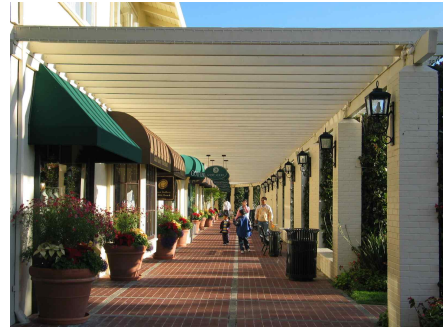
품들을 감상할 수 있음.

- 몬트레이 반도 미술관(Monterey Peninsula Museum of Art)는 컨템포러리 아트, 캘리포니아 아트 및 전 세계의 예술작품들을 순환 전시하고 있는 미술관. 초기 캘리포니아와 서부의 민족예술, 미술, 동양미술과 사진 등이 전시되고, 미국의 유명한 미술가들의 작품전도 열림.
- 프레시도 오브 몬트레이(Presidio Of Monterey)는 언덕위에 있는 옛 요새로 국방부 어학 학교 Difence Language Institute Foreign Language Center가 자리잡고 있다. 이곳은 올바른 외국어의 교육과 습득을 위해 설립되었음. 3,287명의 군인들과 1,287명의 민간인들이 거주하고 있음. 1920년에는 스페인 전쟁에서 돌아온 전사들의 병영장으로서 사용되었다. 아메리카군 사령관 스로트의 기념비, 세라 신부의 동상 등의 사적, 요새와 프레시디오 빛의 역사에 관한 전시 박물관이 있음.
- 세계 최고급 콘서트 기획사, 샌디 쇼어 프로덕션(Sandy Shore Productions)는 샌디 쇼어 프로덕션은 세계적 수준의 최고급 콘서트 및 이벤트 기획사임. 매년 여름에 몬트레이 플라자 호텔(Monterey Plaza Hotel)에서 열리는 바이더베이(By The Bay) 재즈 콘서트를 포함한 많은 행사들이 샌디 쇼어 프로덕션의 기획으로 탄생하고 있음.
- 앨런 나이트 해사 박물관(Allen Knight Maritime Museum)는 범선과 포경 등 이 지역의 해양사에 관한 모형선, 문헌, 회화 등이 전시되고 있음.
-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 하우스(Robert Louis Stevenson House)는 '보물섬'으로 유명한 소설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 살던 집으로 현재 저택 내부에는 스티븐슨을 기억할 만한 가구들과 물품들로 가득함. 저택과 정원은 매일 오픈되어 있음.
- 몬트레이 와인 페스티벌(Monterey Wine Festival)는 캘리포니아의 오리지널 와인 페스티벌로 캘리포니아의 종다는 와인들은 다 한자리에 모임. 행사는 요리시범, 와인 맛보기, 와인메이커 이벤트, 교육 세미나, 특별 이벤트 등의 부문으로 나뉘어 펼쳐지고 있음.

□ 쇼핑의 천국, 골동품가게와 쇼핑센터

- 몬트레이는 가치 쇼핑의 천국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세계 최고수준의 쇼핑거리들이 즐비함. 의류, 가구, 예술품을 비롯해 기념품, 자동차용품 등의 완벽한 구색을 갖춘 전문상점들과 만날 수 있음.
- 주요 골동품 상점
 - AA 앤틱 코인 & 주얼리 서비스(AA Antique Coin &Jewelry Service)
 - 어도비 앤틱스 & 인테리어스(Adobe Antiques &Interiors)
 - 엘리시아스 앤틱스(Alicia's Antiques)
 - 하우스 오브 어거스틴(House of Augustine)

- 보스턴 스토어(Boston Store)
- 방갈로 아트(Bungalow Arts)
- 캐너리 로우 앤틱 몰(Cannery Row Antique Mall)
- 제리 맥도날드 앤틱스(Jerry McDonald Antiques)
- 올드 몬터레이 코인스(Old Monterey Coins)
- 피시즈 오브 올드(Pieces of Old)
- 트리쥬어 베이(Treasure Bay)



- 주요 쇼핑센터

- 퍼시픽 에치드 글래스 & 크리스탈(Pacific Etched Glass &Crystal) : 크리스탈 로고 상품을 전문으로 하는 상점으로 1977년에 오픈했음. 이곳에서 만든 에칭(동판)글래스, 세라믹 커피 머그잔, 유리잔 등이 이 지역의 리조트, 호텔, 골프장, 박물관매점 등에서 많이 사용, 판매되고 있음.

- 더블트리 앨버라도 스트리트 몰(DoubleTree /Alvarado Street Mall) : 일반적으로 그냥 앨버라도(Alvarado Mall)이라고 불리우는 이곳은 몬터레이 다운타운의 더블트리 호텔(DoubleTree Hotel)과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음. 의류, 보석, 아트갤러리, 와인 및 선물가게, 레스토랑, 맥주집 등 다양한 전문상점들이 입점해 있음.



- 피셔맨스 워프(Fishermans Wharf)
- 워프스 제너럴 스토어(The Wharf's General Store)
- 캐너리 로우 앤틱 몰(Cannery Row Antique Mall)
- 델 몬트 쇼핑센터(Del Monte Shopping Center) : 약 100개 이상의 전문상점들이 입주한 쇼핑몰. 광대한 주차시설을 갖춘 대형점포임.

5. 해외사례조사의 시사점

① 도시별 기능분담과 다양한 문화산업육성으로 도시발전 추진

□ 도시내 기능은 분담되지만 하나같이 문화기반시설을 구축

- 로스엔젤레스는 다운타운, 비치시티, 웨스트사이드, 산가브리엘밸리, 할리우드, 산페르난도밸리 등 하나의 도시 내 기능은 분담되지만 각 지구별로 문화, 영화, 관광기반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을 수용하고 있음

□ 새로운 산업을 도시의 성장산업으로 육성

- 로스엔젤레스의 기반이 되었던 농업, 제조업, 재래식 군수산업 중심에서 첨단 군수산업, 광고, 금융, 컴퓨터 산업, 무역 및 서비스업 등이 최대 산업으로 부상하고, 이 중 영화산업과 관광산업으로서 미국 제2의 도시로 성장

□ 기존 도심에도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시설, 문화시설 공간을 확충

- 로스엔젤레스에 행정 도시 기능이 집약된 비즈니스 거리인 다운타운에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확장, 연극이나 음악을 즐길 수 있는 뮤직 센터, 스테이플즈 센터, 수많은 콘서트가 개최되는 월트 디즈니 콘서트 홀 등 새로운 다운타운으로 개발

□ 도시관광에 스파와 헬스 등의 리조트 휴양·휴식활동 제공

- 라스베가스화 그 주변지역에는 30개 이상의 스파 시설이 있음. 수많은 호텔 카지노만큼이나 다양한 스파 시설에서는 각종 약초 목욕, 향기 요법 및 증기탕, 사우나에서 피곤을 풀어줌
- 일부 리조트에서는 전문가들이 영양과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조언도 해주고 있으며, 최신식의 헬스기구를 완비해 놓고 최신의 시설로서, 스킨케어 및 바디 트리트먼트가 가능하며 다양한 건강관련 시설에서 건강에 좋은 요법들이 경험을 제공

② 관광도시거점 기능에 적합한 관광기반시설 구축

□ 대규모 호텔의 건립과 호텔간 연계 교통시설 건설 추진

- 대규모 호텔 건설투자와 운영이 도시 전체를 관광 상품화하고 있으며, 호텔업체가 스스로 치안유지와 운송시설을 건설하는 등 도시환경 개선이 기업 활동과 맞물려 이루어지고 있음
- 라스베가스의 중심거리라 할 수 있는 「스트립」 지역에 늘어선 거대한 호텔시설들은 ‘테마호텔’이라 할 만큼 각기 다양한 테마로 차별화를 보여 하나의 독자적인 관광 상품으로서의 도시관광기반 구축
- 거대 호텔들이 라스베가스 스트립 일대를 일정 권역으로 나누어 스스로 치안 및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호텔 상호간 모노레일과 육교 등을 건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모노레일은 공항과의 연결도 계획 중임

□ 풍부한 숙박시설과 높은 투숙률로 관광객이 체류

- 라스베가스 호텔의 투숙률은 89% 수준으로 라스베가스에 있는 호텔 방 숫자는 33,186(2005년)개로서 세계 20개 대형 호텔 중 15개가 라스베가스에 입지하여 체류형 관광도시로 발전

□ 세계 최고급 호텔에서 캠핑장까지 다양한 숙박시설 제공

- 라스베가스에는 수많은 호텔 및 모텔, 수많은 캠핑장, 타임쉐어 숙박시설, 일종의 콘도미니엄, 무료로 이용 원룸형태 침실과 화장실, 라운지 및 주방을 갖춘 숙박시설에 이르기까지 소비자의 기호화 예산에 맞춰 다양하게 제공

□ 관광객을 위한 쇼핑거리, 상점가, 면세점 등으로 지역경제 효과 창출

- 피셔맨스 워프(Fisherman's Wharf)에는 몬트레이 베이, 국립 해양 보호구역에 자리잡고 있는데, 이곳은 신선하고 멋진 해산물 요리를 맛보고 역사의 자취를 감상하려는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이 직접 만든 선박과 해양 관련 수공예품과 기념품들을 판매하는 상점들이 성황을 이루고 있음

□ 몬트레이 역사와 미술을 볼 수 있는 전시관과 박물관

- 카사 소베라네스(Casa Soberanes)에서는 몬트레이 역사와 미술에 관한 전시를 볼 수 있으며, 몬트레이 스테이트 히스토리크 파크(Monterey State Historic Park)는 몬트레이의 과

거를 짐작할 수 있는 수공예품과 물품들을 감상할 수 있음.

- 몬트레이 반도 미술관(Monterey Peninsula Museum of Art)는 컨템퍼러리 아트, 캘리포니아 아트 및 전 세계의 예술작품들을 순환 전시하고 있는 미술관. 초기 캘리포니아와 서부의 민족예술, 미술, 동양미술과 사진 등이 전시되고, 미국의 유명한 미술가들의 작품전도 열림.

□ 골동품가게와 쇼핑센터로 관광객들을 위한 살거리를 제공

- 몬트레이는 가히 쇼핑의 천국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세계 최고수준의 쇼핑거리들이 즐비함. 의류, 가구, 예술품을 비롯해 기념품, 자동차용품 등의 완벽한 구색을 갖춘 전문상점들로 관광객들에게 살거리를 제공

③ 지역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고의 발상을 전환한 적극적 관광도시개발 추진

□ 열악한 사막여건을 극복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도시로 발전

- 라스베가스는 관광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자연, 역사문화 등 자원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주변의 대도시로부터 수백 마일이나 떨어진 건조하고 무더운 사막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지만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도시로 발전

□ 부존자원이 희박한 불리함을 제도적 지원으로 인공자원을 육성

- 부존 관광자원이 희박한 상황에서 카지노 허용 등 제도적 지원으로 다양한 인공관광자원을 육성. 라스베가스는 다른 유수의 관광도시와는 달리 역사적 유적이나 수려한 자연풍광을 갖추지 못한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호텔과 카지노, 컨벤션센터 등을 구비한 세계관광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

□ 카지노 중심에서 종합적 관광도시로 발전 추구

- 카지노만이 아니라 호화 스테이지쇼, 고급브랜드에서 아울렛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쇼핑물, 최고급 레스토랑, 어트랙션 시설 및 각종 스포츠 시설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도시 전체가 종합적인 엔터테인먼트 테마파크로서 관광객 한명 한명에게 즐거움을 제공

□ 정어리잡이 어항에서 수족관의 해양관광도시로 발전

- Fishermen's Wharf는 한때 정어리잡이 어선으로 붐볐던 이 선착장에는 지금은 요트와 기념품가게와 식당들이 가득 들어차 있으며, Monterey Bay Aquarium(수족관)은 규모가 크고 전시방법이 특이하여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수족관으로 어른과 어린이들 모두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이상적인 관광 명소임.

④ 관광도시와 산업발전을 위한 과감한 제도적 지원과 자금 투자

□ 관광객 투자유치의 성공적 전략과 과감한 투자로 성장

- 열악한 입지여건에도 불구하고 기업가적 마인드, 관광객과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과 투자여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적극적이고 과감한 투자가 라스베가스를 성공적인 관광레저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민간자본의 스스로 참여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시설을 건설

- 민간이 도시시설을 건설하고 치안을 유지하며 무료공연 등 문화적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등 민간자본이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있는 것은 민간의 사익 추구를 극대화하고, 공익을 실현하는 관광도시로 발전

⑤ 영화·영상, 테마파크, 박물관 등 문화산업과 융합된 관광산업 육성

□ 카지노 도시에서 문화산업을 연계하여 세계 최상의 볼거리 제공

- 라스베가스 벨라지오(Bellagio) 호텔에 아트 갤러리를 개장하여 문화의 중심지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구겐하임 허미티지(Guggenheim Hermitage)가 베네시안 리조트 호텔(Venetian Resort Hotel Casino)에 개장함. 또한, 이전의 데저트 인 호텔(Desert Inn Hotel) 자리에 건설중인 Le Reve의 The Wynn Collection에서 피카소, 반 고흐와 마티스의 걸작품들을 포함하여 자신의 소장품을 전시

□ 대규모 호텔과 카지노에서도 테마파크와 놀이시설 제공

- 라스베가스 대형 호텔에는 롤러코스터, 스피드- 더 라이드(SPEED The Ride)와 최신식의

게임센터, 가상현실의 레이싱 시뮬레이터, 하이 롤러코스터(The High Roller Coaster), 빅샷(The Big Shot) 그리고 엑스 스크림(X Scream), 3D 모션 어드벤처 라이드, 즉 버추얼 곤돌라 라이드(Virtual Gondola Ride), 신비로운 베네치안 카니발(Venetian Carnival), 투탄카멘 왕의 무덤으로의 시간여행(Time Travel to King Tut's Tomb)과 수중 모험 등 다양한 놀이시설 제공

□ 도시에 놀이공원을 조성하여 많은 도시관광객 유치

- 로스앤젤레스의 남동쪽 애너하임시에 위치한 세계 최고의 테마파크인 디즈니랜드는 월트디즈니가 디즈니 영화의 역사, 미국 개척의 역사, 근대 과학 등을 기반으로 어린이에서 어른까지 모두가 즐길 수 있고 '사랑'과 '꿈'과 '모험'을 주는 대단위 놀이공원으로 7개의 지역으로 나뉘어 있고, 최소한 6시간이 필요
- 독창적 주제가 있는 디즈니 캘리포니아 어드벤처(California Adventure)는 디즈니랜드 맞은편에 같이 위치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어드벤처는 독창적인 주제와 모습으로 설계된 디즈니의 또 다른 위락시설임. 이 어드벤처는 할리우드 골든 스테이트(Golden State), 파라다이스 피어(Paradise Pier), 픽처스 백랏(Hollywood Pictures Backlot) 등 3개의 메인 랜드로 구성되어 있음. 디즈니랜드보다 규모는 작지만, 이 곳 역시 수많은 볼거리, 즐길거리들이 있음.

□ 세계 최대의 영화촬영소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관광산업화

- 세계 최대의 영화촬영소 유니버설 스튜디오(Universal Studios Hollywood)는 할리우드 북쪽에 위치하여 세계최대의 영화 및 TV 촬영 스튜디오로서, 테마파크까지 있어 관광객을 즐거움 제공
- 유니버설 스튜디오 주위는 유니버설시티워크 등 각종 위락시설과 대형 영화관 등 볼거리가 풍성해서 밤낮으로 관광객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곳으로 LA 관광명소 중에서 반드시 들러야 할 명소로 개발됨

⑥ 컨벤션 및 메가이벤트, 지역축제로 전세계 관광객 유치 활성화

□ 세계적 유명 대형박람회과 세미나, 학술회의 개최로 방문객 유치

- 라스베가스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형 박람회로부터 크고 작은 세미나, 학술회의 등 다양한 형태의 컨벤션이 행사 일정에 따라 연간 4000개 정도 개최. 컨벤션 행사 관계로

라스베가스를 찾는 방문객수는 연간 410만명 정도임

□ 영화 관련시설과 영화제로 세계인을 할리우드로 유치

- 할리우드의 새얼굴 할리우드 & 하이랜드, 할리우드 워크 오프 페임 (Hollywood Walk of Fame), 할리우드 엔터테인먼트 박물관 할리우드 밀랍 인형관 등과 유니버설 스튜디오 할리우드에서 실제로 영화 세계의 체험, 국제영화제로 세계인을 유치

□ 캘리포니아의 오리지널 와인 페스티벌 개최로 유명

- 몬트레이 와인 페스티벌(Monterey Wine Festival)는 캘리포니아의 오리지널 와인 페스티벌로 캘리포니아의 종다는 와인들은 다 한자리에 모임. 행사는 요리시범, 와인 맛보기, 와인메이커 이벤트, 교육 세미나, 특별 이벤트 등의 부문으로 나뉘어 펼쳐지고 있음.

7] 스포츠, 자동차경주 대회 등 레저스포츠와 이벤트 마케팅 전략 구사

□ 세계적 골프장과 레저스포츠로 관광객 유치 촉진

- 서던 네바다의 기후 덕택에 연중 골프를 즐길 수 있으며 라스베가스와 그 주위에만 60 곳의 골프장이 있음. 잭 니클라우스(Jack Nicklaus)와 아놀드 파머(Arnold Palmer), Tom Weiskopf, Pete Dye, Perry Dye와 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골퍼들과 골프코스 디자이너들에 의해 개발된 멋진 골프 코스들이 방문객들을 유혹하여 타이거 우즈나 전 미국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 그리고 미국 농구 스타인 마이클 조던 같은 유명한 프로 및 아마추어 골퍼들이 라스베가스의 골프장을 찾고 있음.

□ 다양한 무료공연을 카지노와 연계하는 획기적 마케팅 기법 구사

- 라스베가스는 다양한 고품격의 무료 공연 등을 통해 관광객을 유인하여 이를 통해 카지노산업 진흥과도 연계시킨 것은 획기적인 마케팅 기법을 구사하여 관광객을 유치함

□ 연중 월별로 다양하고 풍부한 이벤트와 행사의 개최

- 라스베가스는 박람회와 전시회, 자동차경주대회, 퍼레이드 엑스포, 운동경기대회, 기념일, 음악회, 교역전 등등의 연중 월별로 풍부한 행사와 다양한 종류의 이벤트를 지속

적으로 개최

□ PGA골프대회와 재즈페스티벌로 유명한 관광도시로 발전

- 몬트레이반도에 있는 페블비치에는 세계적인 골프코스가 여럿 있어 매년 토너먼트가 열림. 7월에는 카멜에서 비치 페스티벌이 열리고 9월에는 몬트레이 재즈 페스티벌이 열리는 등 화려한 각종 행사가 끊이지 않음.
- 페이블 비치(Pebble Beach)는 페이블 비치하면 많은 사람들이 바로 '골프'라는 단어를 떠올리는 그런 곳임. 7곳의 환상적인 대중 골프장과 개인 소유 골프장이 자리잡고 있는데, 론 사이프러스(Lond Cypress) 골프코스는 캘리포니아 사람들에게 가장 유명한 이정표 역할을 하는 지역으로 매년 PGA골프대회가 열리고 있음

⑧ 기존 도시와 주변을 연계하는 다양한 관광코스의 개발 운영

□ 관광거점도시에서 주변 지역으로 연계하는 관광프로그램 운영

- 라스베가스 주변에 연계된 비행기 투어로 그랜드 캐니언(Grand Canyon)과 후버 댐(Hoover Dam)으로 버스, 비행기, 헬리콥터, 지프, 또는 래프팅을 이용하여 출발하는 100여 개 이상의 투어 운영

□ 샌프란시스코 아래의 해안변 아름다운 도시로 매년 400백만명 관광객 방문

- 몬트레이는 샌프란시스코의 해안선을 따라 남쪽 아래로 내려온 곳에 자리잡고 있는 경치가 매우 아름다운 도시로서 아름다운 몬트레이 반도에 위치한 몬트레이는 휴양지로서도 이름이 높지만 매년 찾아드는 관광객이 4백만을 넘는 서해안에서 손꼽히는 관광지로써 더욱 유명함.
- 몬트레이 반도의 북쪽에는 몬트레이시티, 남쪽에는 동화속의 마을 카멜시티가 있는데 두 도시를 해안선을 따라 드라이브하는 17마일 드라이브코스가 있음. 17마일 드라이브 코스는 몬트레이 수족관을 지나 아름다운 해안선을 왼쪽으로 계속 돌아가면 왼쪽의 인공 건축물의 아름다움과 오른쪽의 자연 그대로의 해안선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며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고 있음.

⑨ 정주공간과 함께하는 문화관광도시 조성 추진

□ 주거단지에 골프, 교육, 의료, 문화관광 등 종합기능의 신도시 건설 추진

- 라스베가스시 외곽에 주거조건이나 삶의 질 차원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도시에 가족 중심적이며, 즐거움을 지향한 종합계획 주거단지로 개발하여, 특성이 있는 20개의 공원, 8개의 골프클럽, 고급교육 시설, 의료시설이 소재하고 있음

□ 도시내 주거와 문화관광기능으로 복합기능의 도시가 연담화되어 발전

- 로스앤젤레스의 산 페르난도 밸리는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 NBC 스튜디오를 필두로, 미디어 관계 회사가 집중되고, 스타나 업계 관련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으면서 식스 플래그 매직 마운틴, 물을 테마로 한 식스 플래그 허리케인 하버 등의 테마공원이 있음.
- 산 기브리엘 밸리는 시청의 오래된 벽돌로 고풍스러운 시가지에 레스토랑, 부티크, 카페, 바, 나이트 클럽 등이 늘어서 있는 올드 파사데나로 명문 캘리포니아 공과 대학을 비롯해, 노튼 사이먼 미술관, 헌팅톤 라이브러리 & 정원, 퍼시픽 아시아 뮤지엄 등 볼만한 가치가 있는 훌륭한 박물관을 갖추고 있음.
- 산타모니카와 베니스는 세계 최대의 요트전용 항구인 마리나 델 레이, 항구도시인 산 페드로와 롱비치가 있음. 로스앤젤레스의 비치 시티에는 인라인 스케이트나 서핑을 즐길 수 있고, LA 해양 박물관, 포트 오컬 빌리지, 퀸 메리 여객선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고, 남 캘리포니아 최대 규모의 수족관인 롱 비치 퍼시픽 수족관은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함.

□ 주택, 오피스, 가게, 레크레이션 등, 도시 기능이 모두 갖춰진 인공 도시

- 유명 인사의 대저택이 나란히 들어서 있는 비버리힐즈는 최신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계획도시 센츄리 시티와 카페와 라이브 하우스 등이 많이 모여 있는 학생의 거리, 웨스트우드 등이 웨스트사이드에 있음.